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출 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연구 수행 기관 : (주)지브이컨설팅

연구 책임자 : 홍희원

참여 연구원 : 최명석

조성인

김슬기

양현석

이종걸

서재원

임다은

이가영

목차

I. 프로젝트 개요	1
1. 과업 배경 및 목적	2
2. 과업 범위, 추진 경과 및 수행 절차	4
II. 커피산업 정의 및 밸류체인	9
1. 커피산업 및 커피의 정의	10
2. 커피산업의 밸류체인	10
3. 부산 커피산업 현황 분석 개요	13
III 국내외 커피산업 현황	17
1. 개요	18
2. 생산 및 수입	25
3. 로스팅	73
4. 물류 및 유통	76
5. 커피 경연대회·MICE, 판매, 후처리	81
6. 교육기관 및 협의회	162
7. 국내외 커피 도시 현황	166
8. 커피산업으로서의 업종 전환 사례	176
IV.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현황	177
1. 개요	178
2. 부산시 현황분석	184
3. 수입	198
4. 로스팅	202
5. 물류 및 유통	206
6. 역사, 행사, 판매	208
7. 부산 커피산업 현황	213
8. 부산 커피산업 역량 분석	247

V. 이해관계자 분석	255
1. 커피산업 실태 조사	256
2. 이해관계자 인터뷰	287
VI. 커피산업 육성 전략 수립	297
1. 분석 종합	298
2. 전략 방향 설정	300
3. 커피산업육성 전략 수립	301
4. 부산시 커피산업 비전, 전략 추진 방향 수립	305
5.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전략(안)	311
VII. 커피산업 육성 전략과제 및 추진 로드맵	313
1. 커피산업 육성체계 구축	314
2. 커피산업 인프라 조성 전략	331
3. 전문 인력 및 기업 육성	341
4.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브랜딩 전략	352
5. 전략과제별 추진 로드맵	361
6. 제언	362

【표 목차】

[표 Ⅱ-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협의 및 광의 커피산업 정의	14
[표 Ⅲ-1] 품종별 생두 생산량 추이	26
[표 Ⅲ-2] 대륙별 생두 생산량 추이	27
[표 Ⅲ-3] 전 세계 국가별 생두 수확 현황	28
[표 Ⅲ-4] 주요 국가별 생두 생산비 연평균 상승률	30
[표 Ⅲ-5] 콜롬비아 재배면적별 생두 생산비용 구조	30
[표 Ⅲ-6] 콜롬비아 재배면적별 생두 생산성 및 수익성	32
[표 Ⅲ-7] 콜롬비아 생두 생산 원가와 판매 가격 차이	33
[표 Ⅲ-8] 국내 커피 재배 면적	34
[표 Ⅲ-9] 해외 항만별 생두 수입업체 현황	35
[표 Ⅲ-10] 유럽권 커피 종류별 내외부 수입량	36
[표 Ⅲ-11] 국내 생두 및 원두 수입 규모	37
[표 Ⅲ-12] 가공방식별 국내 생두 수입 현황	39
[표 Ⅲ-13] 커피 관세율	40
[표 Ⅲ-14] 원두 및 생두 국내 수입 가격 차이	41
[표 Ⅲ-15] 아라비카-로부스타 생두 가격 차이	43
[표 Ⅲ-16] 국내 생두 수입업체 현황	45
[표 Ⅲ-17] ICO 커피 종합 지수 추이	47
[표 Ⅲ-18] 아라비카 선물 지수 추이	48
[표 Ⅲ-19] 로부스타 선물 지수 추이	49
[표 Ⅲ-20] 국내 생두 수입업체 매출액	50
[표 Ⅲ-21] 지역별 생두 수입업체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52
[표 Ⅲ-22] 주요 유럽 항만 생두 재고량	55
[표 Ⅲ-23] 유럽 주요 항만별 생두 재고량	56
[표 Ⅲ-24] 유럽권 커피 재수출량	57
[표 Ⅲ-25] 독일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58
[표 Ⅲ-26] 벨기에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59
[표 Ⅲ-27] 유럽권 커피 종류별 내외부 재수출량	60
[표 Ⅲ-28]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커피 재수출량	60
[표 Ⅲ-29] 생두 생산국 간 커피 수출량	62
[표 Ⅲ-30] 한국 국가별 생두 (재)수출액	63
[표 Ⅲ-31] 한국 국가별 원두 (재)수출액	64

[표 Ⅲ-32]	2021년 주요 커피 옥션 평균 및 최고 낙찰가	66
[표 Ⅲ-33]	2022년 주요 커피 옥션 평균 및 최고 낙찰가	68
[표 Ⅲ-34]	2021년 주요 커피 옥션 국내 낙찰업체 리스트	71
[표 Ⅲ-35]	지역별 로스팅 업체 위치	73
[표 Ⅲ-36]	로스팅 단계별 생두의 중량 감소 현황	74
[표 Ⅲ-37]	국내 로스팅 기기 제조업체 현황	75
[표 Ⅲ-38]	국내 커피 취급 물류 창고 현황	76
[표 Ⅲ-39]	커피 유통구조와 채널별 매출 비중	77
[표 Ⅲ-40]	한국 단위당 생두* 및 원두** 수출 가격	78
[표 Ⅲ-41]	한국 인스턴트커피 수출입 규모	79
[표 Ⅲ-42]	해외 커피 경연대회 및 축제 현황	81
[표 Ⅲ-43]	국내 커피 경연대회 현황	82
[표 Ⅲ-44]	해외 커피 MICE 현황	84
[표 Ⅲ-45]	국내 커피 MICE 현황	86
[표 Ⅲ-46]	서울커피엑스포 개최 규모 추이	92
[표 Ⅲ-47]	서울카페쇼 개최 규모 추이	93
[표 Ⅲ-48]	2022 커피 축제 현황	93
[표 Ⅲ-49]	국내 대표 커피 행사 검색량	95
[표 Ⅲ-50]	내 대표 커피 행사 협찬사	95
[표 Ⅲ-51]	전 세계 커피 시장 규모	97
[표 Ⅲ-52]	해외 품종별 커피 생산량-소비량 차이	97
[표 Ⅲ-53]	해외 대륙별 커피 생산량-소비량 차이	98
[표 Ⅲ-54]	국가별 커피시장 규모 및 전망	99
[표 Ⅲ-55]	세계 원두 수출국-수입국 소비량	100
[표 Ⅲ-56]	러시아 믹스커피 및 원두커피 시장 비율(소비량 기준)	100
[표 Ⅲ-57]	일본 믹스커피 시장 규모 전망	101
[표 Ⅲ-58]	국내 커피 시장 규모	102
[표 Ⅲ-59]	국내 종류별 커피 시장 규모 비중	102
[표 Ⅲ-60]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	103
[표 Ⅲ-61]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103
[표 Ⅲ-62]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104
[표 Ⅲ-63]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104
[표 Ⅲ-64]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105
[표 Ⅲ-65]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105
[표 Ⅲ-66]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106

[표 Ⅲ-67]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106
[표 Ⅲ-68]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110
[표 Ⅲ-69]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111
[표 Ⅲ-70]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112
[표 Ⅲ-71]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113
[표 Ⅲ-72]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114
[표 Ⅲ-73]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115
[표 Ⅲ-74]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116
[표 Ⅲ-75]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117
[표 Ⅲ-76]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118
[표 Ⅲ-77]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119
[표 Ⅲ-78]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120
[표 Ⅲ-79]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121
[표 Ⅲ-80]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123
[표 Ⅲ-81]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124
[표 Ⅲ-82]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125
[표 Ⅲ-83]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126
[표 Ⅲ-84]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127
[표 Ⅲ-85]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128
[표 Ⅲ-86]	2019년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 (지자체)	130
[표 Ⅲ-87]	2020년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 (지자체)	131
[표 Ⅲ-88]	2021년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 (지자체)	132
[표 Ⅲ-89]	국내 커피 시장 내 커피전문점과 소매시장 비율	133
[표 Ⅲ-90]	커피전문점 유형별 결제금액 비중 변화	134
[표 Ⅲ-91]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 수	135
[표 Ⅲ-92]	2021년 전국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현황	136
[표 Ⅲ-93]	국내 커피 브랜드 및 가맹점 수	138
[표 Ⅲ-94]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매출액	138
[표 Ⅲ-95]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액	140
[표 Ⅲ-96]	커피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현황	141
[표 Ⅲ-97]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매출액 추이	142
[표 Ⅲ-98]	규모별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 변화	142
[표 Ⅲ-99]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경험 특성에 따른 구입 증감	143
[표 Ⅲ-100]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변화	146
[표 Ⅲ-101]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전체)	148

[표 Ⅲ-102]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1/3)	149
[표 Ⅲ-103]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2/3)	150
[표 Ⅲ-104]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3/3)	153
[표 Ⅲ-105] 생산량 상위 20개 식품	156
[표 Ⅲ-106] 국내판매액 상위 20개 식품	157
[표 Ⅲ-107] 해외 수출액 상위 20개 식품	158
[표 Ⅲ-108] 커피 찌꺼기 양 추정	160
[표 Ⅲ-109] 국내 SCA PTC(Premier Training Campus) 분포	162
[표 Ⅲ-110] 국내 커피 관련 학과 현황	162
[표 Ⅲ-111] 국내 커피 관련 협의체 목록	164
[표 Ⅲ-112] 업종 전환 사례	176
[표 Ⅲ-113] 업역 확장 사례	176
[표 IV-1] 부산시 예상 인구수	184
[표 IV-2] 부산시 경제활동 인구	185
[표 IV-3] 부산시 지역 내 총생산	186
[표 IV-4] 부산시 재정자립도	186
[표 IV-5] 재정자립도 상위 7개 지자체	187
[표 IV-6] 부산 지역별 지역 내 총생산	188
[표 IV-7] 부산시 고용률	189
[표 IV-8] 부산시 실업률	189
[표 IV-9] 부산시 청년 실업률	190
[표 IV-10] 부산시 소비자심리지수	191
[표 IV-11] 부산시 생산지수	192
[표 IV-12] 부산시 경기선행지수	192
[표 IV-13] 부산시 연도별 경제성장률	193
[표 IV-14] 부산시 세대 수	194
[표 IV-15] 부산시 노령인구 수	194
[표 IV-16] 부산시 산업 종사자 분포	195
[표 IV-17] 부산시 전·출입 기업 현황 (2018~2020년 기준)	196
[표 IV-18] 부산시 청년 창·폐업 현황	197
[표 IV-19] 국내 및 부산항 수입 생두 수입량 규모	198
[표 IV-20] 국내 전체 및 부산항 경유 생두 수입액 규모	199
[표 IV-21] 2019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202
[표 IV-22] 2020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203

[표 IV-23]	2021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204
[표 IV-24]	광양항 배후단지 제조업 및 물류업 1개사 가치 비교	206
[표 IV-25]	영도 커피 페스티벌 연혁	209
[표 IV-26]	부산시 커피음료 사업체 수 및 매출액	213
[표 IV-27]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213
[표 IV-28]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215
[표 IV-29]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216
[표 IV-30]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217
[표 IV-31]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218
[표 IV-32]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219
[표 IV-33]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220
[표 IV-34]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221
[표 IV-35]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223
[표 IV-36]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224
[표 IV-37]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225
[표 IV-38]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226
[표 IV-39]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227
[표 IV-40]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228
[표 IV-41]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229
[표 IV-42]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229
[표 IV-43]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230
[표 IV-44]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230
[표 IV-45]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231
[표 IV-46]	2021 부산시 종사자 규모별 커피전문점 현황	231
[표 IV-47]	2021 부산시 조직형태별 커피전문점 현황	231
[표 IV-48]	2021 부산시 사업체구분별 커피전문점 현황	232
[표 IV-49]	2019년-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사업체 수 추이	232
[표 IV-50]	2019년-2021년 부산시 지역별 커피 총 사업체 수 추이	233
[표 IV-51]	부산시 커피전문점 신규사업자 추이	235
[표 IV-52]	2019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기업 규모	236
[표 IV-53]	2020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기업 규모	237
[표 IV-54]	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기업 규모	237
[표 IV-55]	부산에서 시작한 저가형 프랜차이즈 매장 수	238
[표 IV-56]	2021년 부산 카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239
[표 IV-57]	2019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240

[표 IV-58] 2020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241
[표 IV-59] 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242
[표 IV-60] 2019-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추이	243
[표 IV-61] 2019년-2021년 부산시 지역별 커피 총 종사자 수 추이	244
[표 V-1] 이해관계자 설문 개요	256
[표 V-2] 이해관계자 인터뷰 개요	287
[표 VII-1] 자유무역지역법 10조	321
[표 VII-2] 항만법 19조	322
[표 VII-3]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센터 공간 구성(안)	332
[표 VII-4] 참여기업 주요 지원 사항	348
[표 VII-5] 추진 로드맵	361

【그림 목차】

[그림 I-1] 과업 수행 절차.....	6
[그림 II-1] 커피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핵심 성공 요인	11
[그림 II-2] 부산 커피산업 현황 분석 개요	13
[그림 III-1] 해외 원두 생산량 추이	25
[그림 III-2] 해외 원두 소비량 추이	25
[그림 III-3] 품종별 생두 생산량 추이	26
[그림 III-4] 대륙별 생두 생산량 추이	27
[그림 III-5] 콜롬비아 생두 생산비용 구조	31
[그림 III-6] 콜롬비아 생두 생산성	32
[그림 III-7] 콜롬비아 생두 생산 원가와 판매 가격 차이	33
[그림 III-8] 국내 생두 및 원두 수입량	37
[그림 III-9] 국내 생두 및 원두 수입 금액	38
[그림 III-10] 원두 및 생두 국내 수입 가격 차이	41
[그림 III-11] 국제 아라비카 커피 가격 동향	42
[그림 III-12] 아라비카-로부스타 생두 가격 차이	44
[그림 III-13] 한국 커피 원두 수출 규모	52
[그림 III-14]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	53
[그림 III-15] 인스턴트커피 조제품 수출 규모	54
[그림 III-16] 유럽 항만 생두 재고량(톤)	55
[그림 III-17] 유럽 항만 생두 재고량(%)	55
[그림 III-18] 유럽 주요 항만별 생두 재고량	56
[그림 III-19] 유럽권 커피 재수출량	57
[그림 III-20] 독일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58
[그림 III-21] 벨기에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59
[그림 III-2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커피 재수출량	61
[그림 III-23] 한국 국가별 생두 재수출액	63
[그림 III-24] 한국 국가별 원두 재수출액	65
[그림 III-25] 한국 생두 및 원두 단위당 수출 가격	78
[그림 III-26] 한국 인스턴트커피 수출입량	79
[그림 III-27] 한국 인스턴트커피 수출입액	80
[그림 III-28] 커피 MICE 사진	89

[그림 Ⅲ-29] 해외 커피 생산량, 소비량 차이	98
[그림 Ⅲ-30] 국내 종류별 커피 시장 규모 비중	102
[그림 Ⅲ-31] 협의 커피산업 규모(사업체, 종사자) 추이	107
[그림 Ⅲ-32] 광의 커피산업 규모(사업체, 종사자) 추이	107
[그림 Ⅲ-33] 협의 커피산업 비중(사업체, 종사자) 추이	108
[그림 Ⅲ-34] 광의 커피산업 비중(사업체, 종사자) 추이	108
[그림 Ⅲ-35] 커피 가공업 및 도매업 사업체 수 추이	109
[그림 Ⅲ-36] 부산-제주-전국 협의 커피산업 비중 비교 (사업체 수 기준)	122
[그림 Ⅲ-37] 부산-제주-전국 광의 커피산업 비중 비교 (사업체 수 기준)	122
[그림 Ⅲ-38] 부산-제주-전국 협의 커피산업 비중 비교 (종사자 수 기준)	129
[그림 Ⅲ-39] 부산-제주-전국 광의 커피산업 비중 비교 (종사자 수 기준)	129
[그림 Ⅲ-40] 부산-전국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 비교	133
[그림 Ⅲ-41] 커피전문점 유형별 결제금액 비중 변화	134
[그림 Ⅲ-42] 지역별 커피 가맹점 수	137
[그림 Ⅲ-43] 지역별 커피 가맹점 종사자 수	137
[그림 Ⅲ-44] 지역별 커피 가맹점 수 대비 매출액	137
[그림 Ⅲ-45] 가구주 연령별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증감 변화	144
[그림 Ⅲ-46] 가구주 최종학력별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증감 변화	144
[그림 Ⅲ-47] 월평균 가구소득별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증감 변화	145
[그림 Ⅲ-48]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변화 비율	147
[그림 Ⅲ-49]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149
[그림 Ⅲ-50] 가구원 수별 커피 제품 구입 시 우선 확인사항	150
[그림 Ⅲ-51] 가구주 성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151
[그림 Ⅲ-52] 가구주 연령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152
[그림 Ⅲ-53] 가구주 최종학력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152
[그림 Ⅲ-54] 가구주 직업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154
[그림 Ⅲ-55] 월평균 가구소득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155
[그림 Ⅲ-56] 커피 찌꺼기 재활용 프로세스	161
[그림 Ⅲ-57]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167
[그림 Ⅲ-58] 벨기에 앤트워프	168
[그림 Ⅲ-59] 호주 멜버른	170
[그림 Ⅲ-60] 오스트리아 빈, 중국 상하이	171
[그림 Ⅲ-61] 강원도 강릉시	172
[그림 Ⅲ-62] 전라남도 고흥군	173
[그림 Ⅲ-63] 대구광역시	174

[그림 Ⅲ-64] 춘천시	175
[그림 IV-1] 부산시 예상 인구수	184
[그림 IV-2] 부산시 경제 활동 인구	185
[그림 IV-3] 부산시 지역 내 총생산	186
[그림 IV-4] 부산시 재정자립도	187
[그림 IV-5] 부산시 고용률	189
[그림 IV-6] 부산시 실업률	190
[그림 IV-7] 부산시 청년 실업률	190
[그림 IV-8] 부산시 소비자심리지수	191
[그림 IV-9] 부산시 생산지수	192
[그림 IV-10] 부산시 경기선행지수	193
[그림 IV-11] 부산시 세대 수 및 노령인구 수	194
[그림 IV-12] 국내 생두 수입량 및 부산항 경유 수입량	198
[그림 IV-13] 국내 생두 수입액 및 부산항 경유 수입액	199
[그림 IV-14] 국내 커피 유통경로	200
[그림 IV-15] 2019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203
[그림 IV-16] 2020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204
[그림 IV-17] 2021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205
[그림 IV-18] 부산해관 감리서 민건호가 쓴 <해은일록> 1884년 7월 27일자 내용	208
[그림 IV-19] 2021년 ~ 2022년 영도커피페스티벌 포스터	210
[그림 IV-20] 2022 전포커피축제 포스터	211
[그림 IV-21] 2021 라라라페스티벌 포스터	212
[그림 IV-22] 부산시 업종별 커피 사업체 비중	233
[그림 IV-23] 부산시 지역별 커피 사업체 비중	235
[그림 IV-24] 부산시 커피전문점 신규사업자 추이	236
[그림 IV-25] 더벤티 흥행	238
[그림 IV-26] 2019~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 종사자 수 추이	243
[그림 IV-27] 커피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	244
[그림 IV-28] 부산시 지역별 커피 종사자 수 비중	246
[그림 IV-29] 커피산업 Value-Chain	247
[그림 IV-30] 커피 주요 제품군별 제조 공정	248
[그림 IV-31] 부산시 역량 수준 및 필요 역량	249
[그림 IV-32] 커피산업 Value-Chain	250
[그림 IV-33] 커피산업 클러스터 구축 효과 예상	252

[그림 VI-1] 대내외 커피 환경 및 트렌드 분석 기반 강점 및 약점 도출	298
[그림 VI-2] 대내외 커피 환경 및 트렌드 분석 기반 기회 및 위협 도출	299
[그림 VI-3] 전략 방향 설정	300
[그림 VI-4] 비전 수립 및 전략 수립 개요	301
[그림 VI-5] SWOT 요인 종합	302
[그림 VI-6] SWOT 분석 종합	303
[그림 VI-7]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비전 신규 수립	305
[그림 VI-8] 기본계획 최종 비전(안)	308
[그림 VI-9] 4대 전략 방향 도출	309
[그림 VI-10] 17대 전략과제 도출	310
[그림 VI-11]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전략체계(안)	311
[그림 VI-12] 4대 전략 방향 및 17대 전략과제	312
[그림 VII-1] 부산 블록체인 활용 현황	314
[그림 VII-2] 커피산업 이해관계 주체 간 협업 추진	317
[그림 VII-3] 네슬레 블록체인 도입 사례	319
[그림 VII-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323
[그림 VII-5] 신항배후단지 내 입주 前, 분양 예정 부지	324
[그림 VII-6] 커피 찌꺼기 활용 방안	327
[그림 VII-7] 커피 인증 예시	329
[그림 VII-8] 부산 내 커피 축제 현황	334
[그림 VII-9] 벨기에 생두 물류 기업 '에피코'	337
[그림 VII-10] 브라질 산토스 커피 박물관	339
[그림 VII-11] 부산 바리스타 육성 과정 및 카페 창업 교육 과정	343
[그림 VII-12]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345
[그림 VII-13] 스타벅스 로스팅 공장 위치	349
[그림 VII-14] 부산형 커피 아이덴티티 개발의 필요성	353
[그림 VII-15] 국내외 커피 관련 대회 유치	355
[그림 VII-16] 커피의 성지 포틀랜드	357
[그림 VII-17] 커피 도시 오스트리아 빈	359
[그림 VII-18] 커피 저장 산업 추진 방향	362

I. 프로젝트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부산광역시는 체계적인 커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 커피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부산은 국내 수입 생두의 90% 이상이 수입되며,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커피 대회에서 부산 출신의 바리스타들이 계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등 커피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 인구 감소, 노령화, 기존 제조 기반 산업 성장 둔화 등 도시 경쟁력이 약화 중인 부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커피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함
- 우수한 커피산업 추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커피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단계별(생산/수출, 수입/저장, 로스팅, 물류/유통, 소비) 부산의 경쟁력은 소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은 수준임
- 특히, 국내 수입 생두의 90% 이상이 부산을 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로스팅/유통/물류 등 전반적인 커피산업 부가가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음
- 부산 커피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분석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추진 및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정의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리뷰를 통한 시사점을 확인하여, 부산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성장을 위한 방향 정의와 추진 방안 명확화가 필요함
- 또한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산업에서 AI,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커피산업 또한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업의 목적

- 글로벌 커피산업의 변화추세 및 국내 커피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부산커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방향성 도출함
- 국내외 커피산업 생태계(산업구조/산업영역/커피 옥션/교육기관/대외·행사/물류/협업체 등) 분석을 통한 부산 커피산업 경쟁력 점검 및 발전 성장을 위한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함
- 부산 커피산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부산 커피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니즈를 고려한 합리적인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발굴함(실태조사, 회의, 심층 인터뷰 등 추진)
- 국내외 선진도시 커피산업 육성정책 조사와 성공사례(생두 재수출, 물류시설, 정책, 특화지구/시설, 커피 기업 집적지 등) 분석을 통한 부산 커피산업 육성 정책 시사점 도출 및 적용 가능 분야를 발굴함
- 부산 커피산업 아이덴티티 명확화를 통한 부산 커피산업만의 차별화된 지향가치 정의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함
- 부산시 커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함(특화 거리, 무역 활성화,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 부산의 입지와 여건, 문화특성 등을 고려한 부산형 커피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함
- 부산 내 다양한 산업, 문화, 행사(축제, 이벤트)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추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함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AI, IoT, 빅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제시함

2 과업 범위, 추진 경과 및 수행 절차

1)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770.17km²)
- 광역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로 범위 확대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3년
- 계획연도 : 2024년~2026년(3개년)

(3) 내용적 범위

- 부산 커피산업 현황 및 세계 커피산업 트렌드 분석
- 부산 커피산업 실태조사 및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니즈 분석
- 국내외 커피산업 육성정책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부산시 커피산업 비전과 육성전략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
- 부산 커피산업 육성 발전 로드맵 수립
- 기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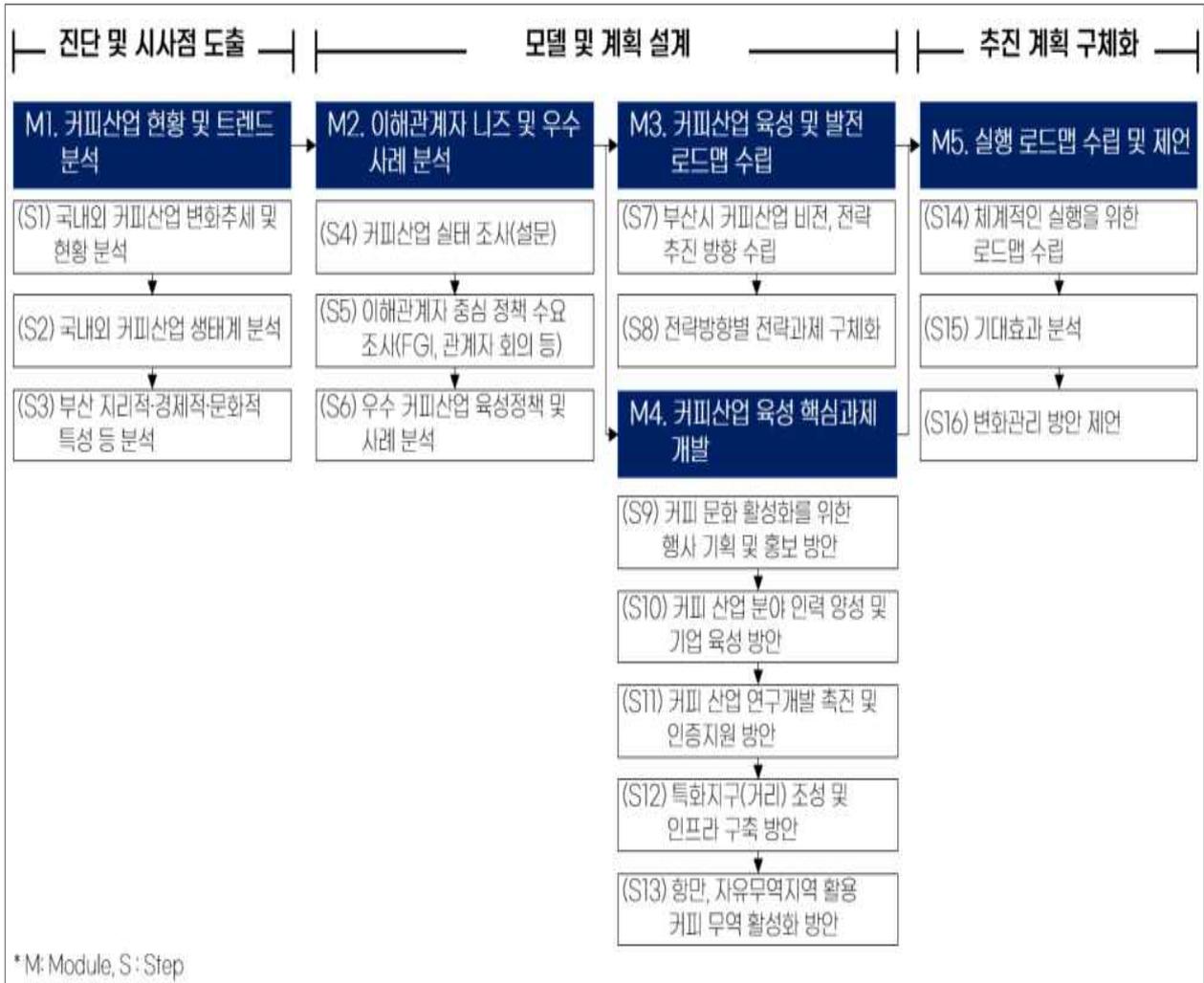
2) 과업 추진 경과

- '23. 3. 21. :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3. 3. 29. :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착수보고
- '23. 4. 23. ~ 4. 25. : 부산 커피산업 실태조사(온라인)
- '23. 4. 23. ~ 4. 25. : 부산 커피산업 실태조사(오프라인)
- '23. 6. 29. :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 '23. 5. 3 ~ 7. 27 : 커피산업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총 16회, 부산 커피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
 - 생두 및 원두 수입업체 : 1회(1개사)
 - 커피 로스팅 업체 : 3회(3개사, 로스팅 및 제조 병행 기업 포함)
 - 커피 관련 용품 제조 : 2회(2개사, 로스팅 및 제조 병행 기업 포함)
 - 물류 및 유통업체 : 2회(3개사)
 - 부산 창업 프랜차이즈 : 3회(3개사)
 - 부산 창업 카페 : 3회(3개사)
 - 부산 커피 관련 이해관계자 : 2회(2명, 관광/창업 전문가)
 - 부산 커피 포럼
- '23. 8. 7. :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
- '23. 8. 8. ~ 9. 20. : 과업 보완 및 용역 마무리

3) 과업 수행 절차

- 성공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진단 및 시사점 도출-모델 및 계획 설계-추진 계획 구체화의 3단계 과정을 기반으로 5개 Module과 16개 Step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그림 I-1] 과업 수행 절차



- M1. 커피산업 현황 및 트렌드 분석:

국내외 커피산업 변화추세 및 현황 분석, 국내외 커피산업 생태계 분석, 부산 지리적·경제적·문화적 특성 등 분석

- M2. 이해관계자 니즈 및 우수사례 분석:
커피산업 실태 조사(설문), 이해관계자 중심 정책 수요 조사(FGI, 관계자 회의 등), 우수 커피산업 육성정책 및 사례 분석
- M3. 커피산업 육성 및 발전 로드맵 수립:
부산시 커피산업 비전, 전략 추진 방향 수립, 전략 방향별 전략과제 구체화
- M4. 커피산업 육성 핵심과제 개발:
커피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기획 및 홍보 방안, 커피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 방안, 커피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인증지원 방안, 특화지구(거리)조성 및 인프라 구축 방안, 항만/자유무역지역 활용 커피 무역 활성화 방안
- M5. 실행 로드맵 수립 및 제언: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기대효과 분석, 변화관리 방안 제언 등

4) 과업의 의의

- 2022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으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
-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3년 주기의 중장기 전략과 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 커피산업 분야, 단계 및 업종별 개별 계획을 넘어, 부산 커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본 계획 수립
- 부산시만의 차별화된 커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커피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기반으로 강점 요인을 강화하고, 약점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총체적 육성 방안 도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기반의 부산형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전략 수립을 통하여 부산시 커피산업 특성이 반영된, 현업에 필요한 산업·육성 지원 전략 수립
- 전 세계적 커피 수요 지속 성장 추세, 축제/이벤트와 연계한 커피산업 발전 트렌드, 기술에 발전에 따른 전 세계적 신기술(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융합 산업 발전 등 전 세계적 커피산업 및 서비스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부산형 커피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통한 부산의 미래 성장 추동력 확보 방안 제시
- 인구 감소, 노령화, 제조업 성장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화 중인 부산이, 보유한 환경·문화적 장점과 커피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의 제시를 통하여 부산의 커피산업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커피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 제시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커피 및 부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민을 담고자 노력함

II. 커피산업 정의 및 밸류체인

1 커피산업 및 커피의 정의

1) 커피산업의 정의

-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가공, 소비·유통, 판매·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과 커피 관련 기계, 포장기술, 교육, 전시, 서비스 등 커피 관련 산업을 포괄한 사업으로 정의됨

* 출처 :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커피류 관련 유형 재료 생산에서부터 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포함한 재화나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과정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창조되는 무형의 문화까지 포함됨. 협의로는 카페산업에 국한됨

* 출처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기동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커피산업 동향분석과 전망, 2018

2) 커피의 정의

- 식품공전에 따르면, 커피는 커피 원두를 가공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이고,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 커피, 액상 커피로 분류됨

* 볶은 커피: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인스턴트커피: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것, 조제 커피: 별도의 정의가 없으나, 주로 인스턴트커피에 설탕, 프림 등의 첨가물을 넣은 것, 액상커피: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

- 관세청에 따르면, 커피는 생두, 원두, 인스턴트커피, 커피조제품으로 분류됨

* 생두: 볶지 않은 커피 두, 원두: 볶은 커피 두, 인스턴트커피: 인스턴트커피 및 조제품, 커피 조제품: 캡슐 커피, 아이스크림 큐브, 커피 에센스 등

2 커피산업의 밸류체인

1) 커피산업 단계별 핵심 성공 요인

- 커피산업 밸류체인은 수입 및 저장, 로스팅, 유통/물류, 소비, 사후처리로 구분되며, 단계별 핵심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II-1] 커피산업 밸류체인 단계별 핵심 성공 요인



01. 수입 및 저장 :

생산지에서 생두를 수입하여 저장하는 단계

- 고품질 생두의 저렴한 수입
- 항온·항습생두 저장 시설 운영

- 선물거래 및 재수출을 통한 커피 무역 경유지 개발 등

02. 로스팅 :

로스팅을 통해 생두를 원두로 가공하는 단계

- 주민 민원(로스팅 관련 소음 및 냄새 관련 주민 신고, 민원 다수 발생) 예방을 위한 전문 산업단지 조성
- 로스팅 레시피 개발 지원, 전문 로스팅 업체 유치
- 청결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커피 인증 체계 도입

03. 유통/물류 :

수입 후 전국 로스팅 업체와 카페로 유통 및 판매되는 단계

- 생두·원두, 커피 관련 부재료 및 연계 제품(베이커리 등) 취급 물류 기업 유치
- 유통/물류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조성 및 지원체계 필요

04. 소비(서비스) :

커피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단계

- 관광, 축제와 연계한 커피 문화 조성 노력 강화 필요
- 커피 자영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교육, 정책 개발 등)
- 전문인력 육성 확대 및 강화
- 세계 대회 개최 등 이벤트 확대

05. 사후 처리 :

커피 추출 이후 남는 커피 찌꺼기의 처리 및 재활용하는 단계

- 커피 찌꺼기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노력 강화(ESG, 친환경 등)
-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R&D 노력 확대, 전문기업 육성 필요

3 부산 커피산업 현황 분석 개요

1) 분석 개요

- 국내외 커피산업 현황 분석, 부산 현황 분석, 부산 커피산업 역량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리뷰 및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하여 SWOT 분석을 위한 주요 이슈를 도출함

[그림 II-2] 부산 커피산업 현황 분석 개요



2)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커피산업 정의

[표 II-1] 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협의 및 광의 커피산업 정의

산업 분류	협의 커피산업	광의 커피산업
01. 농업	-	-
011. 작물 재배업	-	-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	-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	-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료 재배업	-	-
:	:	:
10. 식료품 제조업	-	-
:	:	: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10791. 커피 가공업**	V	V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V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	:	:
4632. 가공식품 도매업	-	-
:	:	:
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V	V
:	:	: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5622. 비알코올 음료점업	-	-
56221. 커피전문점*****	V	V
:	:	:
85. 교육 서비스업	-	-
:	:	:
856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
:	:	: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V
:	: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99001. 주한 외국공관	-	-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커피 가공업 :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농업용 및 가정용을 제외한 우유, 곡물, 육지고기, 물고기, 과일 및 채소류 가공기계와 과자, 제빵, 음료 및 담배 제조용 기계, 제빵용 오븐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커피 및 차류 도매업 : 커피 및 차류 등의 가공 식료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커피전문점 :接客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接客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됨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됨.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활동단위의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순차적으로 결정함
- 분류구조는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 총 5단계로 구성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협의 커피산업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은 커피 가공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전문점으로 총 3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남
- 광의 커피산업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은 커피 가공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으로 총 5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협의 및 광의 커피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부산 커피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Ⅲ. 국내외 커피산업 현황

1

개요

1) 생산 및 수입

- 2022년 기준 전 세계 생두 생산량과 소비량은 연도별 등락이 존재하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생산량은 2017년 약 10,054천 톤에서 2022년 약 10,276천 톤으로 지난 5년간 약 2.2% 증가하였으나, 소비량은 2017년 약 9,938천 톤에서 2022년 약 10,712천 톤으로 약 7.8%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전 세계 원두 생산량의 약 48%는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순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생두 및 원두 수입 규모는 2018년 158,384톤에서 2022년 202,307톤으로 4년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2018년 637,255천 달러에서 4년간 104.7%가 증가한 1,304,418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생두: 2018년 145,051톤, 2022년 181,641톤
 - 원두: 2018년 13,333톤, 2022년 20,666톤
- 국내 생두 수입 관련 업체는 대부분(약 79.0%, 전체 62개 중 49개 기업) 수도권에 위치함. 부산에는 4개 업체만 위치함***

2) 저장

- 유럽 주요 항만은 대규모 생두 저장 창고를 운영 중이며, 주요항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생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두/원두 수출을 활발하게 추진 중임(유럽권 전체 2015년 2,001,780톤에서 2019년 2,333,400톤으로 4년간 약 16.6% 증가)****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23 / Mordor Intelligence - Coffee Market Size & Share Analysis (2023 - 2028)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그리니시 위클리, 생두 업체 리스트(2023년)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Re-exports by selected importing countries

- 한국도 생두 및 원두 재수출 부분도 최근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22년 기준 약 139만 달러의 생두와 약 424만 달러의 원두를 재수출함*

3) 로스팅

- 국내 로스팅 업체와 로스팅 관련 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들도 생두 수입 업체와 유사하게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
- 생두는 로스팅 과정에서 방법에 따라, 고유의 풍미와 향을 풍기며, 약 12~20% 가량의 중량 감소가 일어나며, 크기는 팽창함

4) 물류 및 유통

-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커피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물류창고는 총 11개이며, 이 중 부산에 위치한 물류 창고는 총 2개임. 대부분은 경기(7개) 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커피 관련 물류·유통은 생두 및 원두 뿐만 아니라, 카페 관련 부재료인 빨대, 컵, 베이커리 및 우유 등과 함께 추진되며, 전통적인 물류·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매일유업에서 높은 비중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소비

- 2023년 기준 전 세계 커피 시장은 1,200~1,299억 달러 규모이며, 2028~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1,519~1,55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 커피시장 규모는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프랑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 전망 기준 각각 42,043.4백만 달러, 32,301.0백만 달러, 8,979.1백만 달러, 7,741.1백만 달러, 7,044.4백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수출정보 (KATI)

** Verified Market Research(2023년 9월), Zion Market Research(2023년 3월)

*** 비타타임즈 - 2022 국내외 커피시장 산업동향 분석 보고서, Global Market Data

- 커피 수출국보다는 수입국의 소비가 2배 이상 많으며, 2022년 기준 수출국의 소비량은 3,322,140천 톤이고, 수입국의 소비량은 7,389,900천 톤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커피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5.4조 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하여 국내 커피 시장 규모를 예측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19.6조 원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커피 시장 내 볶은 커피의 비중은 2018년 21.2%이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35.3%까지 상승하여 종류별 현재 국내 커피시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67잔으로 프랑스(551잔) 다음인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연간 소비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161잔보다 2배 이상 높은 소비량임****

6)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국내 커피산업을 분류하면, 협의 커피산업에는 커피 가공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전문점이 포함되고, 광의의 커피산업 구분으로는 커피 가공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이 포함됨
-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비중은 2019년 1.89%, 2020년 1.58%, 2021년 1.67% 수준이며, 전체 산업 대비 광의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비중 또한 2019년 2.15%, 2020년 1.82%, 2021년 1.95%로 2.0% 내외 수준임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May 2023)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시장 분석 예측시스템 전망치 활용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 2023년 3월 2주 뉴스레터 - 커피

**** Euromonitor, 2018년 ; 매일경제, 한국은 커피공화국...검고 뜨거운 커피에 중독된 한국인, 2022년 10월 28일

*****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19년 1.04%, 2020년 0.90%, 2021년 1.02% 수준이며, 전체 산업 대비 광의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비중 또한 2019년 1.23%, 2020년 1.09%, 2021년 1.21%로 사업체 수보다도 낮은 1.0%가 약간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커피전문점 이용 현황 및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

- 국내 커피전문점 소비는 고급 커피전문점 중심이었으나, 최근 가성비 커피*전문점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함. 커피전문점 유형별 결제금액 비중으로 보면, 2018년 고급 커피전문점 74.8%, 가성비 커피전문점 25.2%에서 2021년 고급 커피전문점 65.4%, 가성비 커피전문점 34.6%으로 가성비 커피전문점 이용금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가 3,005개로 가장 많으며, 메가엠지씨커피(1,593개), 투썸플레이스(1,330개), 컴포즈커피(1,285개), 뽕다방(971개) 순으로 가맹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맹점 수 기준 15위까지 커피 프랜차이즈 중 8개 프랜차이즈는 서울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4개사는 부산, 경기, 대수, 경남에 각각 1개사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매출액은 엔제리너스(6,788억 원), 투썸플레이스(4,117억 원), 이디야커피(2,433억 원), 뽕다방(1,765억 원), 할리스 커피(1,159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시장에 진출중인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는 총 5개 사(달콤커피, 뽕다방, 탐앤탐스, 커피베이, 카페베네)이며, 이디야커피, 컴포즈커피, 블루삭, 투썸플레이스 및 메가커피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들도 해외 진출을 준비 또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용량으로, 일반커피의 1/3 수준 가격으로 판매되는 커피

** 고급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공차 커피빈 / 가성비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뽕다방, 더벤티 / 와이즈업, 2022년 커피전문점 이용 순위는?

*** 가맹점수: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도 3월 말 기준, 직영점인 스타벅스 제외(스타벅스 가맹점 수: 1,750개), 매출액: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기준

**** 이지경제, 컴포즈커피 해외 첫 진출 가능성 타진... '싱가포르' 선택, 2023년 9월 15일 / 이투데이, 국내는 좁다...프랜차이즈 'K커피' 올해 해외서 승부, 2023년 1월 8일 / Real Foods, 일본에서 맛보는 '샤라떼'와 '피넛라떼'...블루삭 해외 진출 박차, 2023년 5월 30일

8) 커피 경연대회 및 MICE

-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커피 관련 다양한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 및 운영되고 있으며, 커피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 등 다양한 주체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관련 행사 유치 및 운영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은 단일 축제로 강릉 커피 축제를 운영 중이며, 단일 축제 기준 가장 많은 관람객 수(350,000명)와 최고검색량(23,400회)을 보이는 축제로 자리매김함*
- 관람객 수와 검색량 등을 고려한 국내 대표 커피 행사는 강릉커피축제, 서울카페쇼, 영도커피페스티벌인 것으로 나타남

9) 교육기관 및 협의체

- 전국 27개 대학에서 커피 관련 전문 인력 육성 학과를 운영 중이며, 부산에 5개 대학, 강원/경기/대구/전남에 각각 3개 대학, 경북/전북/충북에 각각 2개 대학, 경남/광주/서울/충남에 각각 1개 대학이 관련 학과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음**
- 국내 커피 관련 협회·단체는 총 23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9개 협회·단체는 전국 규모, 4개 협회·단체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임. 12개의 협회·단체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에는 3개, 경기와 인천에 각각 2개의 협회·단체가 위치하고 있음***

10) 소비 후 처리(찌꺼기 등)

- 커피 제조 시 생두의 약 0.2%만 사용, 로스팅하면서 증발한 수분 20.0%와 커피 추출액 0.2%를 제외하면, 수입하는 대부분의 생두는 로스팅 이후, 커피 찌꺼기가 됨****

* 블랙키위, 축제 개최 전후 한 달 동안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행사명이 검색된 횟수, 2023년

** 대학알리미 2023년 기준 (주간·야간의 경우 주야 합한 정원), 각 대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2023년

**** 환경부, 커피 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커피 추출 폐기물 재활용 현황과 기술 동향 분석, 2018년

- 현행 커피 찌꺼기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모아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업자(신고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커피 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할 경우, 퇴비, 목재 제품, 바이오연료, 화장품 연료 및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연구·개발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국내외 커피 도시 현황

- 유럽의 커피도시는 항구 지역(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벨기에 앤트워프 등) 또는 역사·문화와 연계하여(오스트리아 빈) 발전해 왔음. 트리에스테와 앤트워프의 경우, 항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생두 유통과 대규모 저장시설을 활용하여 유럽 생두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국제적인 커피 도시로 도약함. 비엔나는 1685년 유럽 최초로 커피를 즐긴 도시로, 커피를 예술, 학문, 사상과 함께 즐기는 문화를 기반으로, 매년 9월 비엔나 커피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글로벌 커피 도시로 발전함
- 호주 멜버른의 경우는 국가 정책 실현의 목적으로(금주, 치안 등) 커피 산업이 활용되었음. 정부의 관광도시 추진 계획 및 도심 재활성화 정책과 함께, 카페산업이 성장해 왔으며, 바리스타, 로스팅 챔피언십 등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하여 커피 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상하이의 경우, 항구 지역 위치, 폭발적인 소비량 증가(중국 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9잔, 상하이 326잔), 첨단기술과의 연계(인공지능 로봇 커피 매장 등) 및 적극적인 박람회 개최 노력을 통하여 글로벌 커피 도시로 자리매김함
- 글로벌 커피도시로 성장한 도시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지원 보다는 해당 도시가 보유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극대화(물류·유통환경, 보유 문화·예술과의 연계 등)하여 해당 도시만의 차별화된 커피 산업을(물류유통 중심, 정제화된 대규모 행사, 대규모 저장/로스팅 인프라, 개인 카페 중심, 예술문화와 연계, 스페셜티 중심, 첨단기술과 연계 등) 조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강릉은 1세대 바리스타와 커피공장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다양한 축제 및 홍보 노력을 기반으로 커피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고흥은 국내 유일의 생두 생산지로, 신선하고 향이 좋은 커피로 커피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구는 다양한 축제, 유명 바리스타 활용 및 적극적인 브랜딩 노력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춘천은 커피도시 브랜딩, 에티오피아 생산지와의 MOU 등을 활용하여 커피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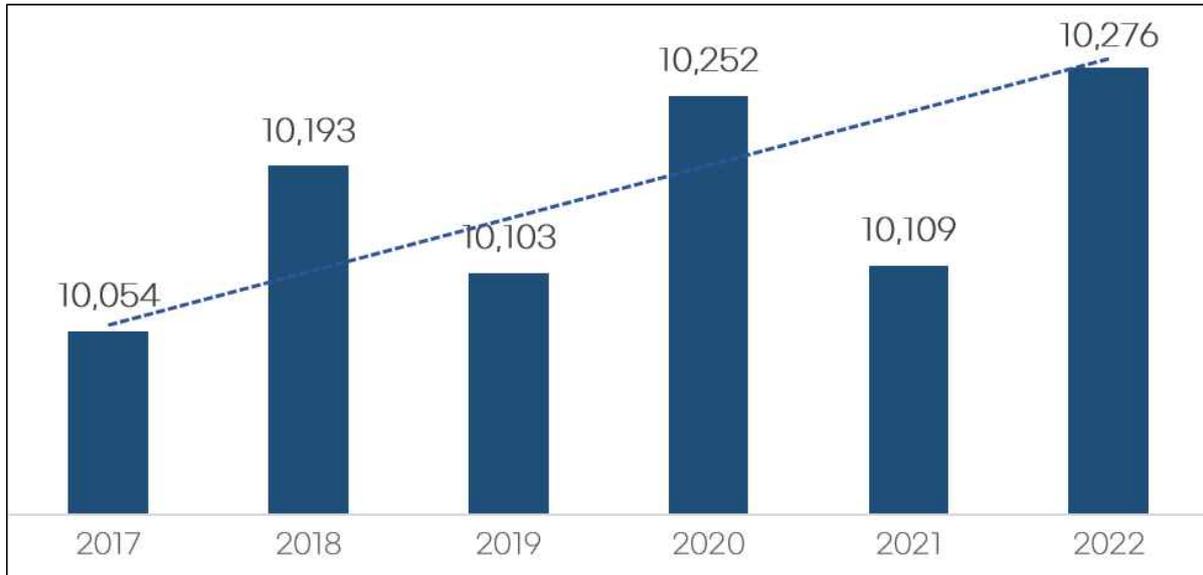
2 생산 및 수입

1) 국내외 생산

(1) 전 세계 원두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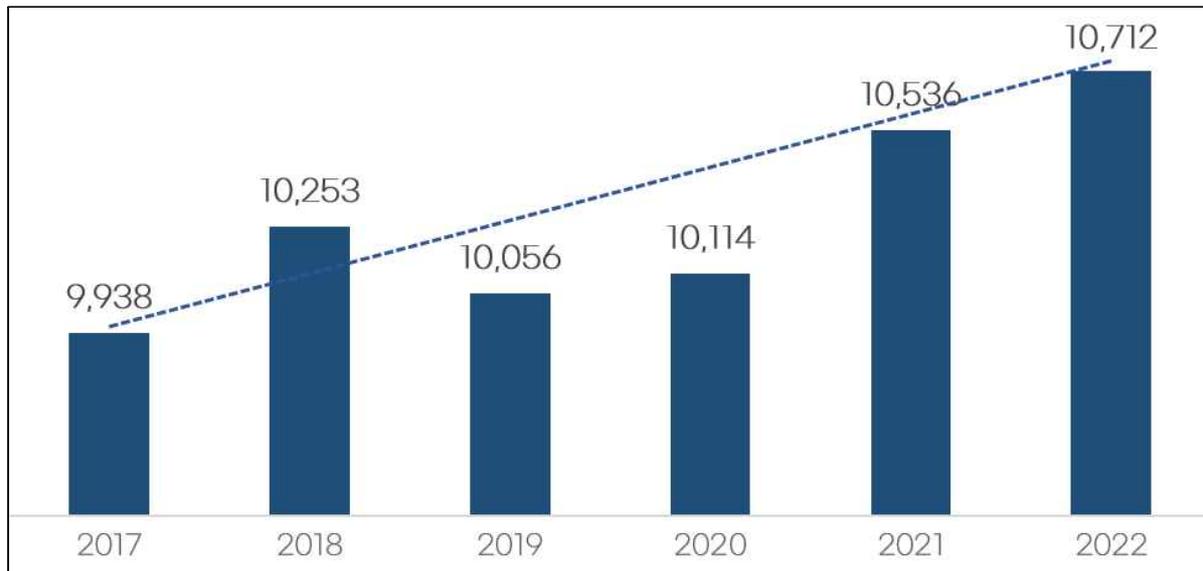
[그림 Ⅲ-1] 해외 원두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그림 Ⅲ-2] 해외 원두 소비량 추이

(단위 : 천 톤)



* 출처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 23 / Mordor Intelligence - Coffee Market Size & Share Analysis (2023 - 2028)

- 2021년도부터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커피 소비량을 공급량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인의 커피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커피 시장 규모는 연평균 5%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급격한 커피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생두 공급에 위협이 존재하므로, 생두 생산지와 직접 계약을 통한 공급 안정화와 생두 저장 시설 확대 등 국제 생두 가격 변화에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국내에 생두를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품종별 생두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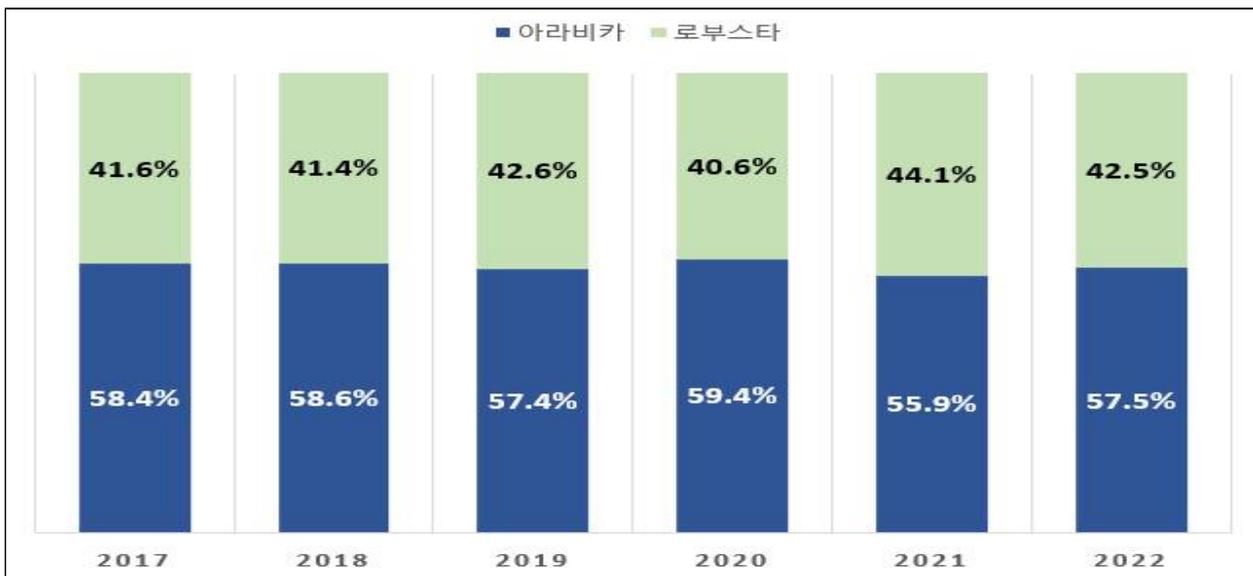
[표 III-1] 품종별 생두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아라비카	5,872	5,977	5,800	6,095	5,655	5,914	0.14%
로부스타	4,182	4,216	4,303	4,157	4,454	4,363	0.85%
합계	10,054	10,193	10,103	10,252	10,109	10,276	

[그림 III-3] 품종별 생두 생산량 추이

(단위 : %)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May 2023)

- 세계적인 대표 커피 품종인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모두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로 각각 연평균 상승률 0.14%, 0.85%를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급품종인 아라비카 원두를 중심으로 생산량 비중이 높고, 특히 2020년도에는 60%에 육박하는 생산량을 보임

(3) 대륙별 생두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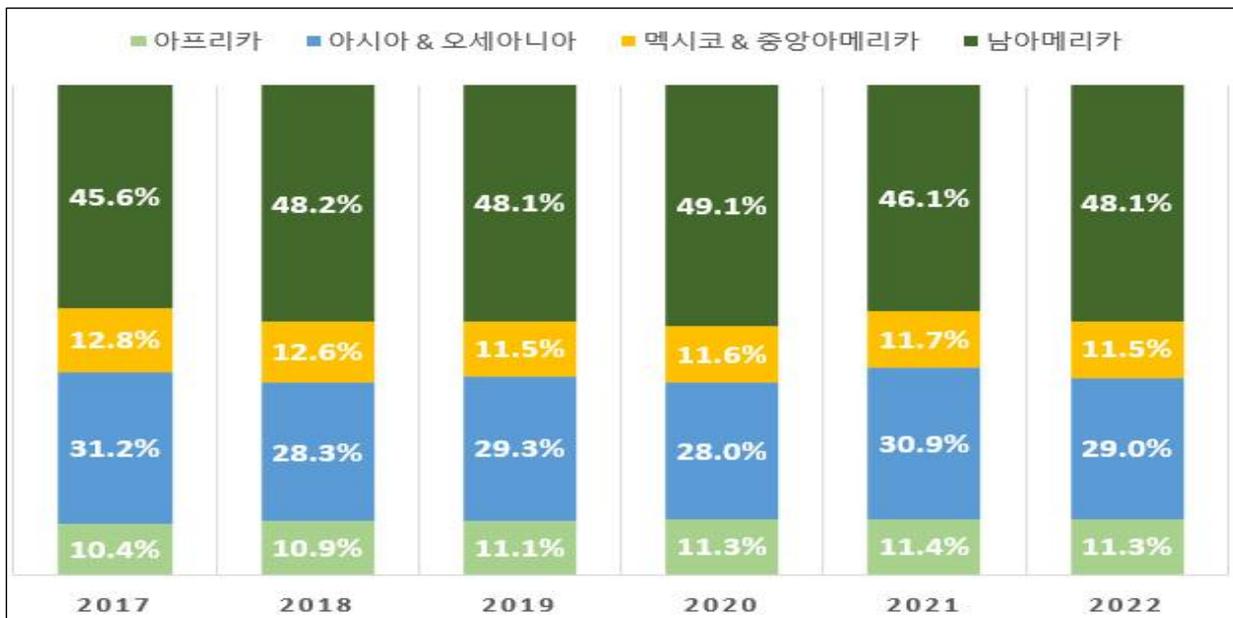
[표 Ⅲ-2] 대륙별 생두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아프리카	1,046	1,111	1,122	1,157	1,148	1,164	2.17%
아시아 & 오세아니아	3,133	2,884	2,958	2,875	3,126	2,983	-0.98%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1,289	1,282	1,159	1,185	1,179	1,184	-1.68%
남아메리카	4,587	4,916	4,864	5,036	4,656	4,945	1.52%
합계	10,054	10,193	10,103	10,252	10,109	10,276	

[그림 Ⅲ-4] 대륙별 생두 생산량 추이

(단위 : %)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May 2023)

-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지역의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2.17%, 1.52%의 성장세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시아&오세아니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아프리카는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생산 비중은 가장 낮은 편이며, 남아메리카는 전 세계 생두의 48.1%를 생산하여, 가장 많은 생두를 생산하는 지역임. 다음으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29.0%), 멕시코&중앙아메리카(1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4) 전 세계 국가별 생두 생산 현황

[표 III-3] 전 세계 국가별 생두 수확 현황

(단위 : 천 톤)

대륙	국가	2017	2018	2019	2020
아프리카	부룬디	12	12	16	15
	카메룬	22	19	16	17
	코트디부아르	97	131	116	107
	콩고 민주공화국	23	24	23	23
	에티오피아	441	451	441	443
	기니	14	9	11	9
	케냐	47	56	51	47
	마다가스카르	24	23	23	22
	르완다	16	23	21	22
	탄자니아	47	71	56	54
	토고	7	3	2	2
	우간다	276	282	331	337
	그 외 국가	15	15	15	14
합 계		1,041	1,117	1,121	1,11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인도	349	320	299	342
	인도네시아	651	577	686	726
	라오스	32	39	37	36
	파푸아뉴기니	44	56	45	41
	필리핀	12	12	18	15
	태국	38	29	31	30
	베트남	2,006	1,817	1,829	1,740
	예멘	8	5	5	6
	그 외 국가	6	11	8	10
합 계		3,147	2,865	2,960	2,945

(단위 : 천 톤)

대륙	국가	2017	2018	2019	2020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	94	86	88	87
	쿠바	7	8	8	8
	도미니카 공화국	25	26	24	23
	엘살바도르	46	46	40	36
	과테말라	224	240	216	225
	아이티	21	21	21	21
	온두라스	454	429	356	366
	멕시코	269	261	239	240
	니카라과	159	173	173	159
	파나마	6	8	7	7
	그 외 국가	2	2	2	2
합 계		1,305	1,299	1,174	1,173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5	5	5	5
	브라질	3,164	3,908	3,493	4,140
	콜롬비아	829	832	846	858
	에콰도르	37	30	34	30
	페루	257	256	230	228
	베네수엘라	34	35	33	30
	그 외 국가	2	2	2	2
합 계		4,329	5,067	4,642	5,292

* 출처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World Coffee Production by country

-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온두라스,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주요 국가별 생두 생산비 연평균 상승률

[표 III-4] 주요 국가별 생두 생산비 연평균 상승률

(단위 : %)

	2006~2010	2011~2015	2006~2015
브라질	11.6	7.14	8.49
콜롬비아	3.18	7.76	5.54
코스타리카	8.96	1.56	5.88
엘살바도르	6.27	-0.87	2.76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2021년 소생산액 과수의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세계 주요 생두 생산국의 커피 생산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양의 값을 유지해 생산비가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의 생두 생산비는 2006 ~ 2010년에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2011 ~ 2015년 각각 1%대 상승과 생산비가 하락한 모습을 보임
- 반면,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계속해서 생산비가 증가함

(6) 주요 생두 생산국(콜롬비아) 생두 생산비용 구조

[표 III-5] 콜롬비아 재배면적별 생두 생산비용 구조

(단위 : %)

	5ha 미만	5ha 이상 10ha 미만	10ha 이상
수확 비용	53.1	53.1	55.3
가공 비용	3.5	4.8	5.9
토지 비옥화 비용	26.6	23.1	19.4
그라인딩 및 식품 인증 비용	0.8	1.3	1.2
초기 토지 관리 비용*	2.4	3.1	4.1
잡초 관리 비용	7.2	5.5	4.1
관리 비용	5.5	8.2	9.7
그 외 생산 비용	0.3	0.3	0.0
그 외 재정적 비용	0.6	0.7	0.4
합 계	100.0	100.0	100.0

[그림 III-5] 콜롬비아 생두 생산비용 구조

(단위 : %)



* 초기 토지 관리 비용: 커피나무 그루터기의 새싹이나 자란 지 1년 미만인 커피 새싹들이 초기에 토지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비용

** 기타 비용: 가공 비용, 토지 비옥화 비용, 초기 토지 관리 비용, 그 외 생산 및 재정적 비용을 합한 값

*** 출처 : Solidaridad Network - Coffee Production Costs (2020 Colombia)

- 콜롬비아의 생산 비용 구조를 살펴본 결과, 수확에 사용되는 비용이 생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비옥화 비용, 관리 비용, 가공 비용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확 비용과 토지 비옥화 비용 외 타 비용의 비중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생두 수확 방법에는 핸드피킹, 스트리핑, 기계 수확 등이 존재하며, 스트리핑, 기계 수확의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방법 사용 시 커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확 방법 적용이 필요함

(7) 주요 생두 생산국(콜롬비아) 생두 생산성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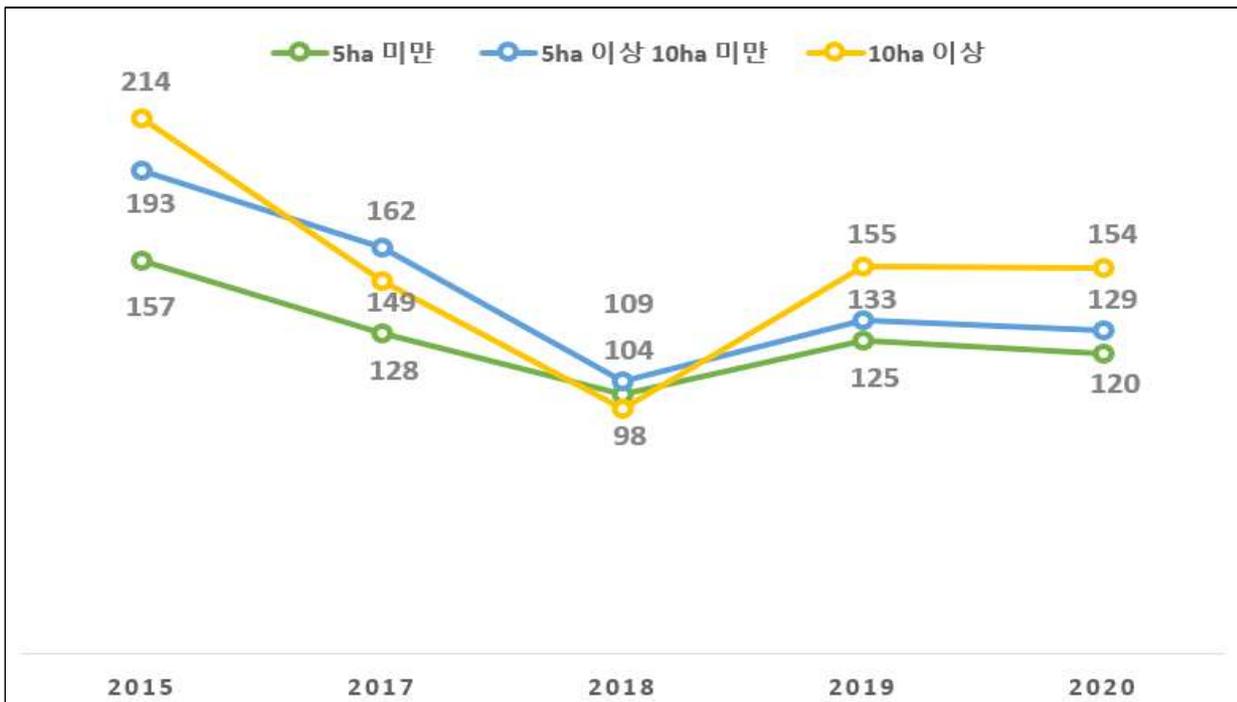
[표 III-6] 콜롬비아 재배면적별 생두 생산성 및 수익성

(단위 : cps/h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ha 미만	생산성	157	140	128	104	125	120
	수익성	157	155	158	128	161	139
5ha 이상 10ha 미만	생산성	193	124	162	109	133	129
	수익성	193	139	238	134	177	154
10ha 이상	생산성	214	-	149	98	155	154
	수익성	254	-	186	119	203	183

[그림 III-6] 콜롬비아 생두 생산성

(단위 : cps/ha)



* 생산성: (수확된 커피 가치/존재하는 모든 커피 재배면적), 수익성: (수익/커피가 실제로 생산된 재배면적)

** 출처 : Solidaridad Network - Coffee Production Costs (2020 Colombia)

○ 콜롬비아 생두 면적별 생두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연도별로 등락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8) 주요 생두 생산국(콜롬비아) 생산 원가-판매 가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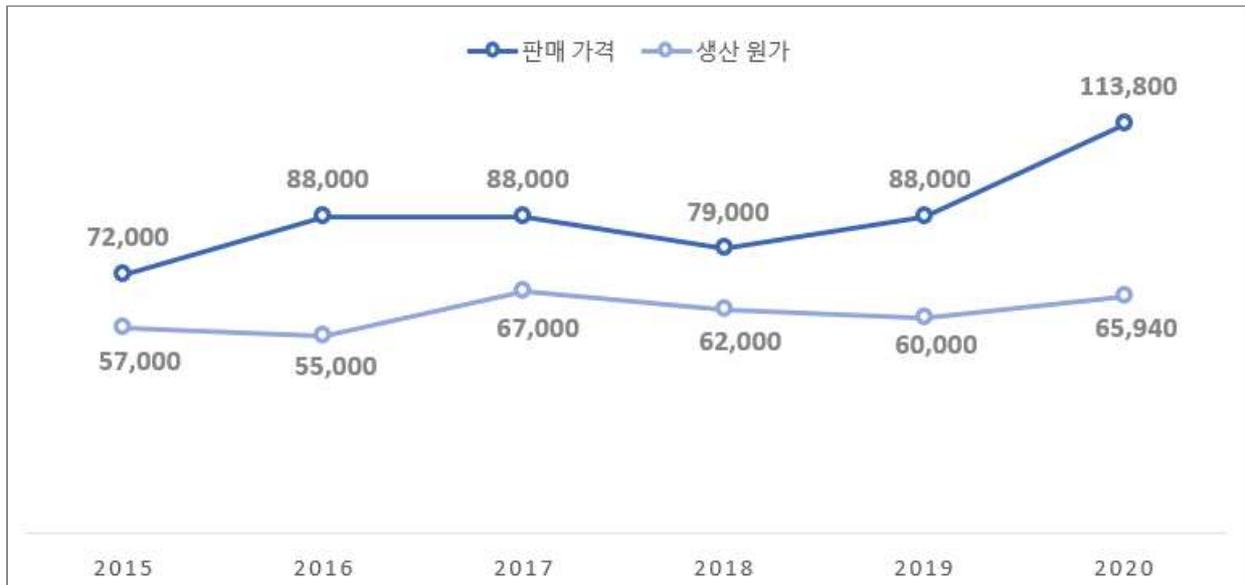
[표 III-7] 콜롬비아 생두 생산 원가와 판매 가격 차이

(단위 : 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판매 가격 (A)	72,000	88,000	88,000	79,000	88,000	113,800
생산 원가 (B)	57,000	55,000	67,000	62,000	60,000	65,940
차 이 (A-B)	15,000	33,000	21,000	17,000	28,000	47,860

[그림 III-7] 콜롬비아 생두 생산 원가와 판매 가격 차이

(단위 : 달러)



* 출처 : Solidaridad Network - Coffee Production Costs (2020 Colombia)

- 콜롬비아 생두의 생산 원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60,000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나, 판매 가격이 2015년 72,000달러에서 2020년 113,800달러로 크게 상승하며 생산 원가와 판매 가격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짐
- 이런 현상은 커피 생두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환경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브라질은 2020년와 2021년에 100년 만의 물 부족 현상을 겪었고, 냉해(서리) 피해도 겹쳐 커피 나무에 큰 타격을 주어 커피 열매 수확량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함

(9) 국내 커피 재배면적

[표 III-8] 국내 커피 재배 면적

(단위 : ha, 톤)

	2014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배면적(ha)	2 미만	- (확인 불가)	7.3	9.5
생산량(톤)	2 미만	4.8	- (확인 불가)	659.7

* 출처 : FTA이행지원센터 - 커피 수입 동향 및 국내 생산 현황, 2014년 9월
 서울경제 - 커피 원두 생산 주산지 전남, 수입산 맞서 커피산업 키운다, 2022년 12월 15일
 매일경제 - 인천 특산물 망고될 판...한반도, 사계절 버리고 아열대 됐다, 2023년 8월 3일

- 커피 시장 및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국내 커피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2022년에는 9.5ha에 달하는 커피 재배지가 생겨났고, 생산량 또한 2020년 대비 약 137배가 증가하여, 650톤 이상의 생두 생산이 국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 재배되는 생두의 양은 많지 않으나, 신선도, 품질 고급화 노력을 통하여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경쟁력 있는 커피를 생산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스페셜 등급 생산 목표)

2) 해외 수입 및 수출

(1) 해외 항만별 생두 수입업체 현황

- 생두 수출입으로 유명한 독일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항, 태국 및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 생두 물류 및 유통으로 유명한 국가 및 도시들은 항구에 위치함
- 대형 생두 수입업체와 스페셜티 전문 수입업체가 항만 내 위치하며, 원활한 생두 수입과 저장, 그리고 물류·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9] 해외 항만별 생두 수입업체 현황

위 치	업 체 명	
독일 함부르크	대형 수입업체	ECOM
		Kaffee Import Compagnie
		Neumann Kaffee Gruppe
		Rehm & Co
	스페셜티 전문 수입업체	Touton
벨기에 앤트워프	대형 수입업체	EFICO
		Supremo
		Coffeeteam
	스페셜티 전문 수입업체	Sucafina Specialty
		Rucquoy Freres
태국	대형 수입업체	SINCHAI PROGRESS CO LTD
		BONCAFE THAILAND LTD
		PPAUTOINTER COMPANY LIMITED
	스페셜티 전문 수입업체	Black Canyon Coffee
싱가포르	대형 수입업체	Singapore Coffee Service Pte. Ltd
		BERO COFFEE SINGAPORE PTE LTD
	스페셜티 전문 수입업체	Smitten Specialty Coffee & Tea
중국	대형 수입업체	Yunnan H.C. Import & Export Corp.
		Shanghai Meffy Coffee International Trade Co., Ltd
		Blueyacht (Shanghai) Trading Co., Ltd.
	스페셜티 전문 수입업체	Shanghai Xun Coffee Trading Co., Ltd
인도	대형 수입업체	M S TATA COFFEE LIMITED
		SHRI AHIMSA MINES AND MINERALS LTD
		NESTLE INDIA LTD
	스페셜티 전문 수입업체	Indochina

* 출처 : CBI - The German market potential for coffee, Entering the Belgian coffee market, 업체별 홈페이지, : 2021년(업체리스트), 2023년(생두수입농장수),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0 해외시장 맞춤 조사, www.volza.com

(2) 유럽권 커피 종류별 내외부 수입량

[표 III-10] 유럽권 커피 종류별 내외부 수입량

(단위 : EUR million)

	생 두 (카페인 제거)		생 두 (카페인 제거)		원 두 (카페인 제거)		원 두 (카페인 제거)	
	유럽 내부*	유럽 외부	유럽 내부*	유럽 외부	유럽 내부*	유럽 외부	유럽 내부*	유럽 외부
2020년	1,075.4	5,798.2	106.8	29.7	4,424.0	1,541.1	238.5	132.8
2021년	1,181.1	6,478.1	101.9	45.7	4,915.3	1,582.7	176.8	212.5
2022년	1,912.3	11,053.7	133.9	60.1	6,122.8	1,567.1	282.4	111.4

* 유럽 내부 : EU27 국가 간 수입량

** 출처 : ECF(European Coffee Federation) - European Coffee Report

- 유럽권은 외부에서 커피를 수입하는 양도 상당하지만 이를 저장 후 재수출하거나 가공 후 재수출해 유럽 내부에서 거래하는 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유럽 외부에서 수입되는 생두 증가분보다 유럽 내부에서 무역을 통하여 거래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생두를 생산하지 않는 유럽에서 저장 및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생두와 원두 유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생두 및 원두 저장, 가공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국내 수입 및 수출

(1) 국내 생두 및 원두 수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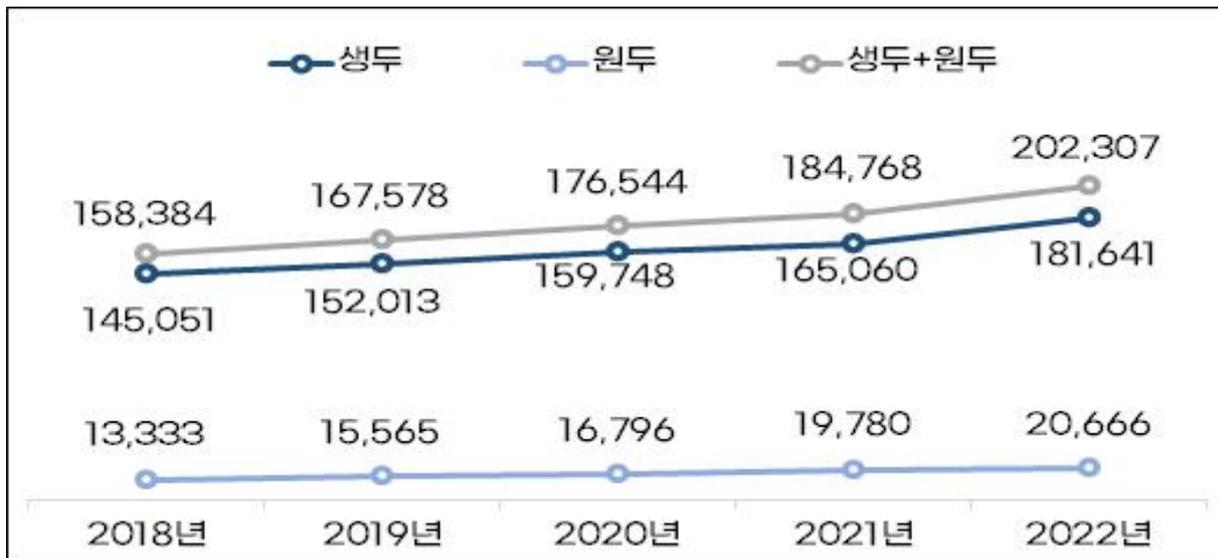
[표 Ⅲ-11] 국내 생두 및 원두 수입 규모

(단위 : 톤, 천 달러)

기간	생두수입량	원두수입량	총수입량 (생두+원두)	생두수입금액	원두수입금액	총수입금액 (생두+원두)
2018년	145,051	13,333	158,384	447,570	189,685	637,255
2019년	152,013	15,565	167,578	434,933	226,728	661,661
2020년	159,748	16,796	176,544	467,787	269,994	737,781
2021년	165,060	19,708	184,768	563,649	352,132	915,781
2022년	181,641	20,666	202,307	917,808	386,610	1,304,418

[그림 Ⅲ-8] 국내 생두 및 원두 수입량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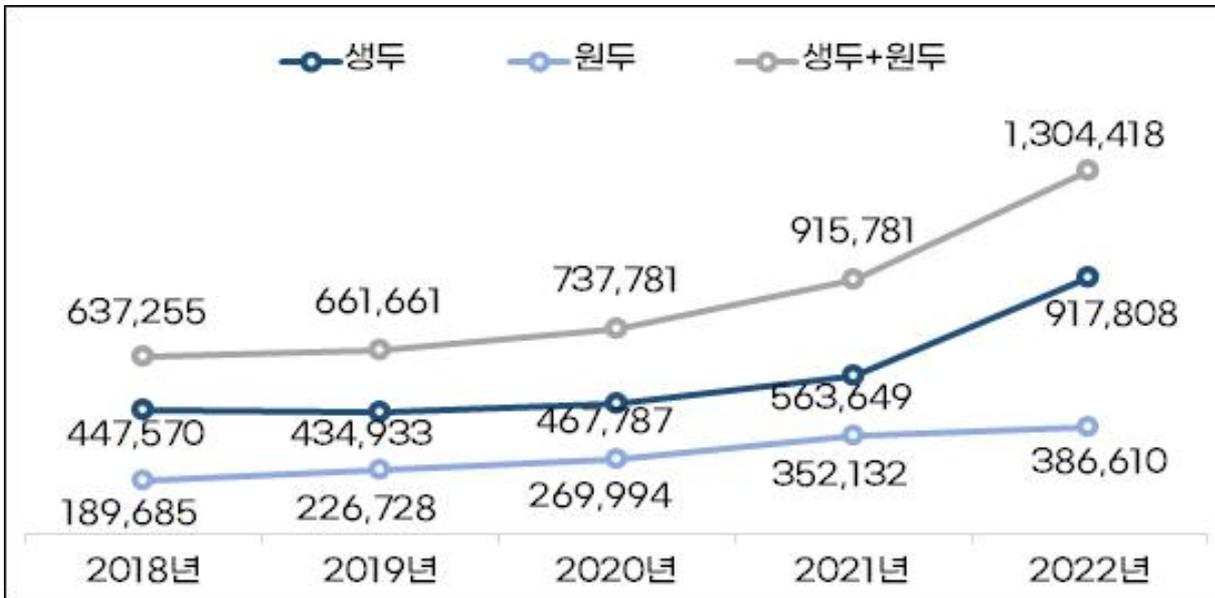


* 총수입량: 생두, 원두 수입량 합계

**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그림 Ⅲ-9] 국내 생두 및 원두 수입 금액

(단위 : 천 달러)



* 총수입량: 생두, 원두 수입량 합계

**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국내 생두 및 원두 총수입량은 2018년 약 15만 톤 규모에서 2022년 20만 톤이 넘는 규모로 크게 증가함. 총 수입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18년 6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13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음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주춤했지만 생두 및 원두는 테이크 아웃, 배달, 홈카페 문화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영향받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금액 규모로만 보면 금(세공품 제외)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국내 커피 소비량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가공방식별 국내 생두 수입 현황

[표 Ⅲ-12] 가공방식별 국내 생두 수입 현황

(단위 : 개)

	내 추 럽	워 시 드	허 니
에티오피아	212	155	6
콜롬비아	68	184	37
브라질	177	7	4
과테말라	40	144	9
케냐	3	175	1
그 외	259	488	108
합 계	759	1,153	165

* 출처 : 그리니시 위클리, 2023년 8월 기준

- 국내로 수입되는 생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첫 번째는 수조를 통해 헹구고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는 워시드 생두와 건식 방법으로 가공한 내추럴 생두, 마지막으로 워시드와 내추럴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허니 프로세스로 가공된 생두로 구분됨
- 커피 생산국에서 워시드 생산 방식을 거친 생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음. 다만, 에티오피아와 브라질 생산 생두에 한해서는 건식 방식 가공을 거친 내추럴 방식 생두가 더 많이 수입되고 있음
- 특히,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생두는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된 생두가 주를 이루고 있음

(3) 커피 관세율

[표 III-13] 커피 관세율

(단위 : %)

HS code	품명	기본세율	2023년 양허관세**
0901.11.0000	커피(볶지 않은 것 / 카페인 미제거)	2	54
0901.12.0000	커피(볶지 않은 것 / 카페인 제거)	2	54
0901.21.0000	커피(볶음 / 카페인 미제거)	8	29.5
0901.22.0000	커피(볶음 / 카페인 제거)	8	29.5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54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29.5
2101.11.1000	인스턴트커피	8	40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의 조제품	8	54

*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2023년 8월 기준)

** 양허 관세, 국가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 커피는 수입되는 상태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됨. 볶지 않은 생두 상태의 커피는 기본 세율이 2%이지만, 생두를 볶아서 원두인 상태로 수입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8%로 큰 폭으로 상승함. 이에 따라, 대부분 생두 상태로 국내 수입하고 있음
- 또한, 볶지 않고 생두 상태로 수입하게 되면, 원두 상태일 때보다 양허 관세를 더 낮게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임
- 생두를 로스팅해서 들여오게 되면 수입 과정에서 커피 고유의 향과 풍미가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고, 로스팅 과정과 방법에 따라 차별화된 맛과 향을 갖는 커피를 만들 수 있어 국내 로스팅 업체에서도 생두 수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원두 및 생두 국내 수입 가격

[표 Ⅲ-14] 원두 및 생두 국내 수입 가격 차이

(단위 : kg/원)

시기	원두 수입 가격(A)	생두 수입 가격(B)	차이(A-B)
2022.04	22,957	6,826	16,131
2022.05	25,586	7,284	18,302
2022.06	26,094	7,246	18,848
2022.07	27,088	7,229	19,859
2022.08	29,382	7,118	22,264
2022.09	28,025	7,050	20,975
2022.10	25,517	7,404	18,113
2022.11	31,703	6,695	25,008
2022.12	33,137	6,056	27,081
2023.01	32,140	5,619	26,521
2023.02	32,498	5,517	26,981
2023.03	35,238	5,703	29,535

* 출처 : 23년 커피원두 가격 전망, 농기자재 신문, 2023년 1월 9일

[그림 Ⅲ-10] 원두 및 생두 국내 수입 가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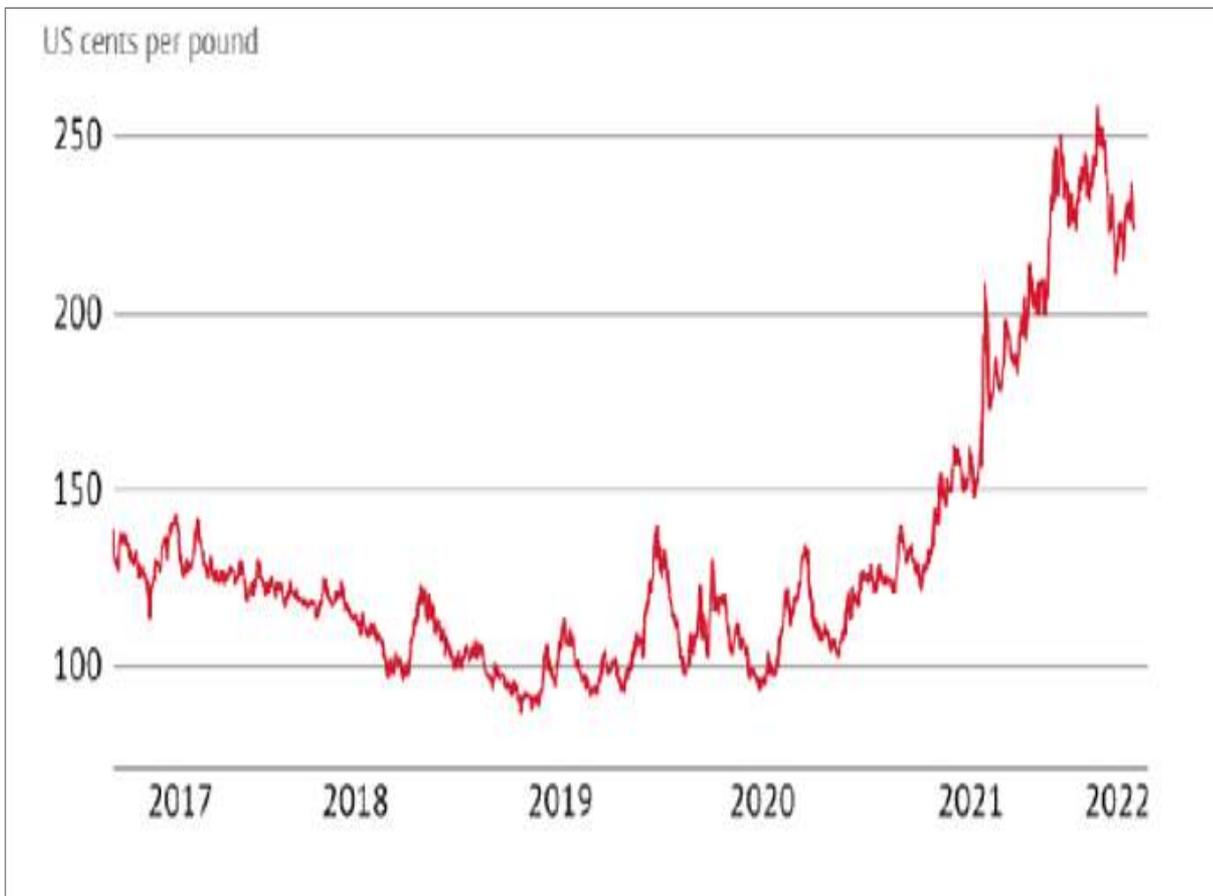
(단위 : kg/원)



- 원두 수입 가격이 생두 수입 가격에 대비 6배 이상 높으며, 이는 관세율과 양허관세율의 차이, 노동력 등이 원인인 것도 있지만, 로스팅 된 원두의 부가가치가 생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 때문임
- 생두의 가격은 비교적 일정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에 비해 로스팅 된 원두의 가격은 점차 증가해 둘의 가격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5) 아라비카-로부스타 생두 가격 추이

[그림 III-11] 국제 아라비카 커피 가격 동향 (단위 : US cents/l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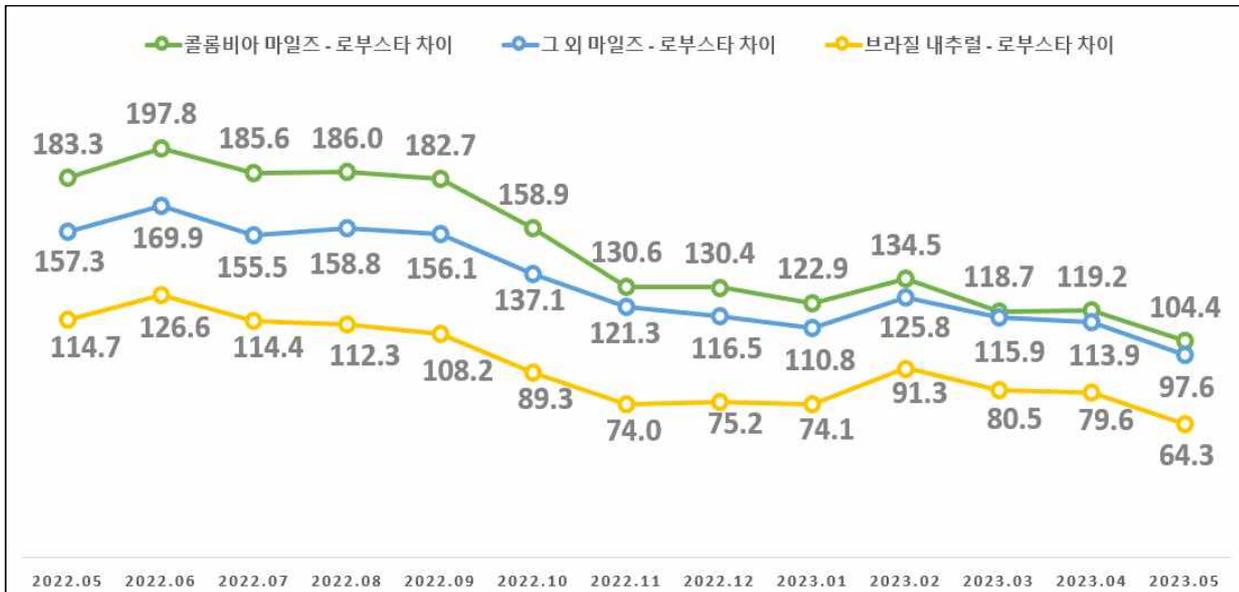
-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인 커피 소비량 증가와 브라질 등 주요 커피 생산국의 가뭄, 서리 등의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선호도가 높은 아라비카 커피 가격이 2022년 중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최근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I-15] 아라비카-로부스타 생두 가격 차이

(단위 : US cents/lb)

시기	아라비카(A)			로부스타 (B)	차이(A-B)		
	콜롬비아마일즈	그 외 마일즈	브라질내추럴				
2022.05	286.44	260.42	217.84	103.10	183.34	157.32	114.74
2022.06	301.57	273.69	230.40	103.81	197.76	169.88	126.59
2022.07	286.07	255.91	214.80	100.44	185.63	155.47	114.36
2022.08	295.66	268.43	221.91	109.65	186.01	158.78	112.26
2022.09	294.09	267.49	219.59	111.36	182.73	156.13	108.23
2022.10	261.95	240.08	192.27	103.01	158.94	137.07	89.26
2022.11	223.22	213.85	166.54	92.59	130.63	121.26	73.95
2022.12	224.12	210.24	169.00	93.76	130.36	116.48	75.24
2023.01	218.91	206.76	170.03	95.98	122.93	110.78	74.05
2023.02	238.39	229.73	195.18	103.93	134.46	125.80	91.25
2023.03	225.23	222.36	187.02	106.49	118.74	115.87	80.53
2023.04	234.85	229.56	195.26	115.70	119.15	113.86	79.56
2023.05	226.93	220.12	186.80	122.55	104.38	97.57	64.25
평균	255.19	238.36	197.43	104.80			

[그림 III-12] 아라비카-로부스타 생두 가격 차이 (단위 : US cents/lb)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May 2023)

- 2022년 중반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던 아라비카 생두 국제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로부스타는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을 유지함에 따라 두 품종 간 가격 차이는 줄어들고 있음
- 로스팅 커피의 급격한 소비 증가와 원두 및 생두, 아라비카 커피 가격을 고려할 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로스팅 등 커피 가공 산업과 고급 커피의 중요성 등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6) 국내 생두 수입업체 리스트

- 국내 생두 수입업체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62곳 중 47곳이 서울, 경기권에 분포해 있음
- 부산 지역에는 4곳이 분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에 해당하지만 전체 생두 수입업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 2020년 기준 국내 수입 생두 총 17만 6,000톤 중 95%인 16만 7,000톤이 부산항으로 수입되었는데 국내 생두 수입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해 비효율적인 물류비 낭비가 예상됨

[표 Ⅲ-16] 국내 생두 수입업체 현황

연 번	브랜 드 명	업 체 명	지 역	연 번	브랜 드 명	업 체 명	지 역
1	1597커피	(주)올코코코리아	경기	32	에티오피안커피클럽	(주)벨레투	서울
2	누베스아르	(주)오렌지프로젝트그룹	경기	33	M1커피	(주)엠아이커피	서울
3	뉴빈	(주)엔비코퍼레이션	경기	34	오로미아코리아	오로미아코리아	경기
4	더드립	(주)더드립	서울	35	오월의숲	(주)메이포레스트	충청
5	더블유빈	(주)우성엠에프	경기	36	우니코커피	(주)우니코	경기
6	디진테제	디진테제	서울	37	웨이브온커피	빈크러쉬커피컴퍼니	부산
7	라이언스커피	라이언스커피로스터스	서울	38	위트러스트	(주)위트러스트커피	세종
8	레드홀	레드홀	부산	39	일디오	(주)일디오	경기
9	RNC COFFEE	(주)레햄코리아	서울	40	GBM커피	지비엠네트웍스코리아	경기
10	로스팅빈	(주)경민코퍼레이션	경기	41	GSC	지에스씨인터내셔널	서울
11	로열커피코리아	티아이지트레이드	경기	42	카브로시아	(주)코이너스인터내셔널	경기
12	마리스텔라커피	마리스텔라로스터스	부산	43	카페노갈레스	(주)카페노갈레스	경기
13	모모스커피	(주)모모스커피	부산	44	칼디스빈	(주)칼디스빈	경기
14	발리빈	(주)에이엠씨	경기	45	캡카와	(주)캡카와	경기
15	블레스빈	(주)블레스빈	경기	46	커맨드커피	로얄커맨드코퍼레이션	경기
16	블루빅센	(주)블루빅센	서울	47	커피루트	(주)티아이비솔루션	서울
17	베르데트레이드	베르데트레이드	서울	48	커만사	(주)커만사	서울
18	세웅GC	(주)세웅지씨	서울	49	커피리브레	(주)커피리브레	서울
19	소펙스코리아	(주)소펙스코리아	서울	50	커피링크	(주)커피링크	세종
20	스텔라온커피	스텔라온커피	세종	51	커피미업	(주)커피즈	서울
21	씨노브커피	와이드코리아	서울	52	커피스펠	(주)그린로더스	대구

연 번	브랜 드 명	업 체 명	지 역	연 번	브랜 드 명	업 체 명	지 역
22	씨엔그룹	(주)씨엔그룹	인천	53	커피플랜트	(주)커피플랜트	서울
23	첼로커피	(주)씨엔더블유	서울	54	코빈즈커피	(주)코빈즈커피	강원
24	아드리아커피	아드리아커피	서울	55	코에코에커피	코에코에 로스터스	대전
25	아마티보	(주)기프트프렘네이처	광주	56	코웍커피	(주)코웍커피	경기
26	알라미루왁	에이티시	서울	57	컴파스커피	컴파스커피로스터스	인천
27	아얀투	(주)요크	경기	58	테라로사	(주)학산	강원
28	알마씨엘로	(주)피델리	경기	59	프리즘커피웍스	(주)프리즘콜라보	서울
29	어라운드트레이딩	어라운드트레이딩	경기	60	한국커피	(주)한국커피	경기
30	FS커피	(주)후성코퍼레이션	경기	61	맥널티	(주)맥널티인터내셔널	경기
31	에티코	(주)에티코	경기	62	홀릴리	On22Coffee	서울

* 출처 : 그리니시 위클리, 생두 수입업체 리스트 2023년

- 국내 생두 수입업체는 현지 농장과 직접 접촉하여 생두를 고르고 계약해 수입하거나, 국내외 생두 수입 및 물류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생두 프로세싱, 보관, 포장, 운송, 수출입 등의 과정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함.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고품질의 생두 수입과 업무 편리성 등을 이유로, 국내외 전문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규모가 큰 로스터리 업체와 프랜차이즈, 그리고 개별 커피숍들도 안정적인 생두 공급을 위하여 수입업체와의 직거래, 생산지 개척 등 안정적인 생두 공급을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7) ICO 커피 종합 지수 추이

[표 Ⅲ-17] ICO 커피 종합 지수 추이

(단위 : US cents/lb)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139.07	115.60	101.56	106.89	115.73	204.29
2월	137.68	114.19	100.67	102.00	119.35	210.89
3월	134.07	112.99	97.50	109.05	120.36	194.78
4월	130.39	112.56	94.42	108.91	122.03	198.43
5월	125.40	113.34	93.33	104.45	134.78	193.71
6월	122.39	110.44	99.97	99.05	141.03	202.46
7월	127.26	107.20	103.01	103.66	152.24	190.82
8월	128.24	102.41	96.07	114.78	160.14	200.11
9월	124.46	98.17	97.74	116.25	170.02	199.63
10월	120.01	111.21	97.35	105.85	181.57	178.54
11월	117.26	109.59	107.23	109.70	195.17	156.66
12월	114.00	100.61	117.37	114.74	203.06	157.19
평균	126.69	109.03	100.52	107.94	151.29	190.63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 ICO 커피 종합 지수는 201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급격히 증가해 평균 190.63 US cents/lb를 기록함
- 전반적인 커피 소비량 증가와 브라질 등 커피 생산국의 가뭄, 서리 등의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이 ICO 커피 종합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커피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생두, 원두 물량 확보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8) 아라비카 선물 지수 추이

[표 III-18] 아라비카 선물 지수 추이

(단위 : 100 usd)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149.55	121.85	105.90	102.65	122.95	235.10
2월	140.70	121.05	95.20	110.10	136.85	234.25
3월	139.30	118.15	94.50	119.55	123.50	226.40
4월	131.05	120.65	91.85	104.65	139.95	222.55
5월	129.35	123.70	104.60	96.30	162.35	231.25
6월	124.05	111.50	108.25	100.05	159.35	233.60
7월	139.25	109.90	99.65	118.95	179.55	217.20
8월	128.15	98.10	93.60	129.80	193.45	239.10
9월	128.05	102.45	101.15	110.95	194.00	221.55
10월	125.10	112.70	101.95	104.40	203.95	177.70
11월	126.30	103.25	118.55	120.70	233.25	167.70
12월	126.20	101.85	129.70	128.25	226.10	167.30
평 균	132.25	112.10	103.74	112.20	172.94	214.48

* 출처 : Investing.com - US Coffee C Futures Historical Dat

○ 아라비카 커피 선물 지수 포인트당 가격은 100usd이고, 60kg짜리 bag 100개, 총 6톤이 기준으로 2022년 21,448달러에 거래됨

(9) 로부스타 선물 지수 추이

[표 III-19] 로부스타 선물 지수 추이

(단위 : 10 usd)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2,222	1,762	1,572	1,342	1,319	2,172
2월	2,143	1,724	1,537	1,283	1,473	2,090
3월	2,149	1,725	1,471	1,222	1,366	2,152
4월	1,946	1,756	1,407	1,194	1,456	2,107
5월	1,995	1,752	1,498	1,189	1,605	2,110
6월	2,149	1,690	1,451	1,187	1,705	2,033
7월	2,123	1,637	1,367	1,361	1,801	2,028
8월	2,069	1,501	1,334	1,429	2,026	2,250
9월	1,968	1,541	1,340	1,331	2,119	2,146
10월	1,878	1,675	1,322	1,351	2,214	1,853
11월	1,726	1,599	1,406	1,405	2,200	1,849
12월	1,718	1,525	1,382	1,386	2,370	1,799
평균	2,007.17	1,657.25	1,423.92	1,306.67	1,804.50	2,049.08

* 출처 : Investing.com - London Robusta Coffee Futures Historical Data

- 로부스타 커피 선물 지수 포인트당 가격은 10usd이고, 10톤이 기준으로 2022년 평균 20,490달러에 거래됨
- 아라비카 커피 선물지수는 6톤 기준으로 2022년 21,448달러에 거래되었고, 로부스타 커피 선물지수는 10톤 기준으로 2022년 20,490달러에 거래되어 아라비카 커피가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

(10) 국내 생두 수입업체 매출액

[표 III-20] 국내 생두 수입업체 매출액

(단위 : 천 원)

연 번	업 체 명	본 사 위 치	매 출 액	영 업 이 익
1	(주)우성엠에프	경기	121,147,095	7,245,835
2	(주)더드립	서울	69,380,870	471,202
3	(주)후성코퍼레이션	경기	66,218,714	661,064
4	(주)블레스빈	경기	46,914,354	1,223,728
5	(주)엠아이커피	서울	46,188,633	792,645
6	(주)학산	강원	44,486,102	8,985,238
7	(주)피델리	경기	32,236,248	2,816,169
8	(주)엔비코퍼레이션	경기	21,264,026	1,137,443
9	(주)커피리브레	서울	16,408,390	3,372,870
10	(주)맥널티인터내셔널	경기	15,313,084	1,250,202
11	(주)레햄코리아	서울	13,940,339	198,335
12	(주)코빈즈커피	강원	11,929,396	492,823
13	(주)커피플랜트	서울	11,665,409	498,554
14	(주)경민코퍼레이션	경기	10,031,674	287,084
15	(주)모모스커피	부산	9,490,164	1,297,772
16	티아이지트레이드	경기	5,312,580	811,958
17	(주)코이너스인터내셔널	경기	4,224,118	363,319
18	(주)빈크러쉬커피컴퍼니	부산	3,502,889	795,841
19	(주)카페노갈레스	경기	3,442,622	66,068
20	(주)씨엔그룹	인천	2,486,729	6,577
21	(주)에이엠씨	경기	2,390,657	188,581
22	지비엠네트웍스코리아	경기	2,044,734	24,879
23	(주)코웍커피	경기	2,031,392	12,217
24	로얄커맨드코퍼레이션	경기	1,971,181	121,696
25	(주)메이포레스트	충남	1,913,706	99,563
26	(주)커만사	서울	1,795,163	102,625

(단위 : 천 원)

연 번	업 체 명	본 사 위 치	매 출 액	영 업 이 익
27	콤파스커피로스터스	인천	1,717,462	117,113
28	(주)씨엔더블유	서울	1,004,853	-42,494
29	(주)캡카와	경기	867,038	-217,194
30	오로미아코리아	경기	773,523	58,216
31	(주)기프트프렘네이처	광주	705,550	86,033
32	(주)그린로더스	대구	545,691	7,698
33	코에코에로스터스	대전	444,151	15,493
34	(주)올코코코리아	경기	416,975	27,122
35	(주)요크	경기	410,644	-446,443
36	(주)커피즈	서울	350,639	42,072
37	(주)에티코	경기	309,125	-181,583
38	위트러스트커피랩	세종	59,267	7,170
39	(주)커피링크	세종	31,310	-34,326

*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19년 ~ 2022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가장 최근 매출액/영업이익 기준 작성, 미등록 기업 기입 제외

*** 티아이지트레이드, 오로미아코리아, 코에코에로스터스, 씨엔더블유, 커피리브레, 커피즈, 위트러스트 커피랩, 콤파스커피로스터스: 2021년 기준 / 기프트프렘네이처, 빈크러쉬커피컴퍼니, 씨엔그룹: 2020년 기준

- 국내 생두 수입업체의 매출액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서울 및 경기권에 위치한 업체로 양적, 질적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서울 및 경기 등)의 생두 수입업체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부산에 위치한 모모스 커피의 경우, 매출액은 전국 15위 수준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국내 5위에 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1] 지역별 생두 수입업체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 천원)

	강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세종
매출액	28,207,749	20,091,787	17,753,673	6,496,527	2,102,096	45,289
영업이익	4,739,031	679,476	813,177	1,046,807	61,845	-13,578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가장 최근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준 작성

** 1개의 업체만 조사된 지역은 평균 계산에서 제외

- 생두 수입업체 지역별 평균 매출액 비교 결과, 강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세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강원, 부산, 경기, 서울, 인천, 세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산의 매출액 평균은 4위지만, 영업이익 순위는 2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11) 한국의 커피 원두(HS CODE 0901.21.0000) 수출 규모

[그림 III-13] 한국 커피 원두 수출 규모

(단위 : 톤,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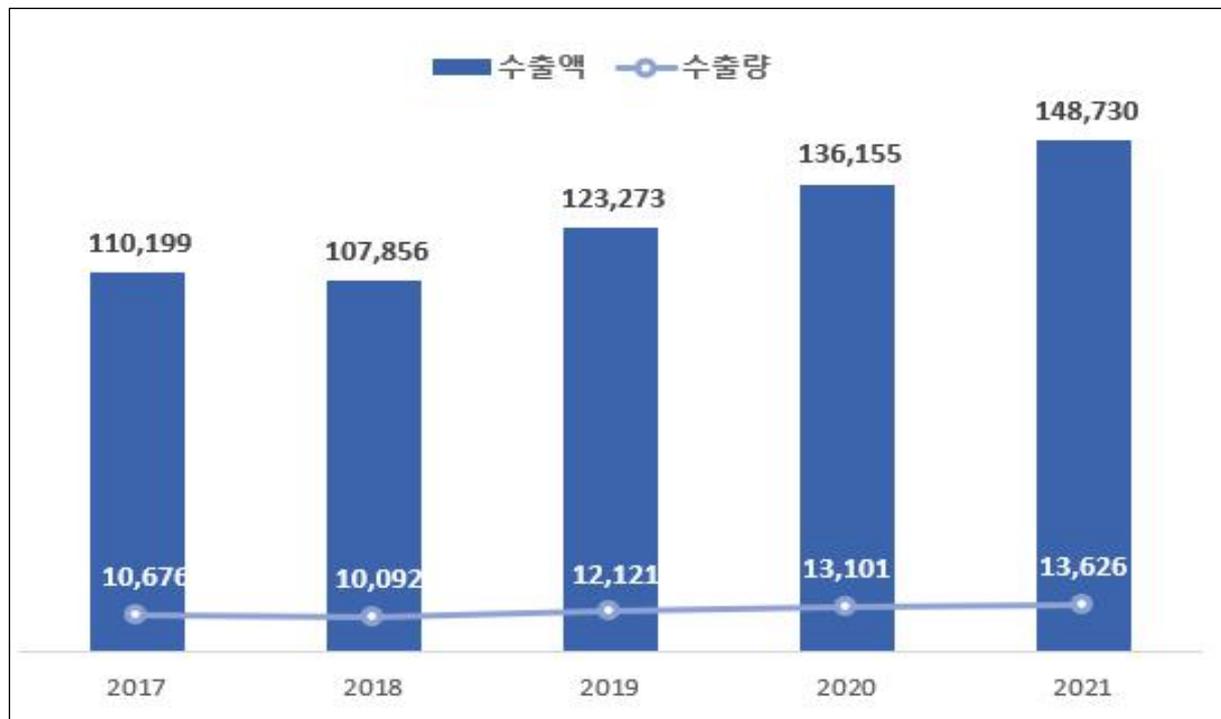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2022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_UAE 커피 원두 시장 분석형 / selinawamucii- <SouthKoreaCoffee2023 RetailPrices>

- 국내 원두 수출량은 2018년에만 약간 하락했을 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은 단위당 원두 수출 가격 변동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344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수출량은 265톤 규모였으나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609톤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12)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

[그림 Ⅲ-14]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

(단위 : 톤,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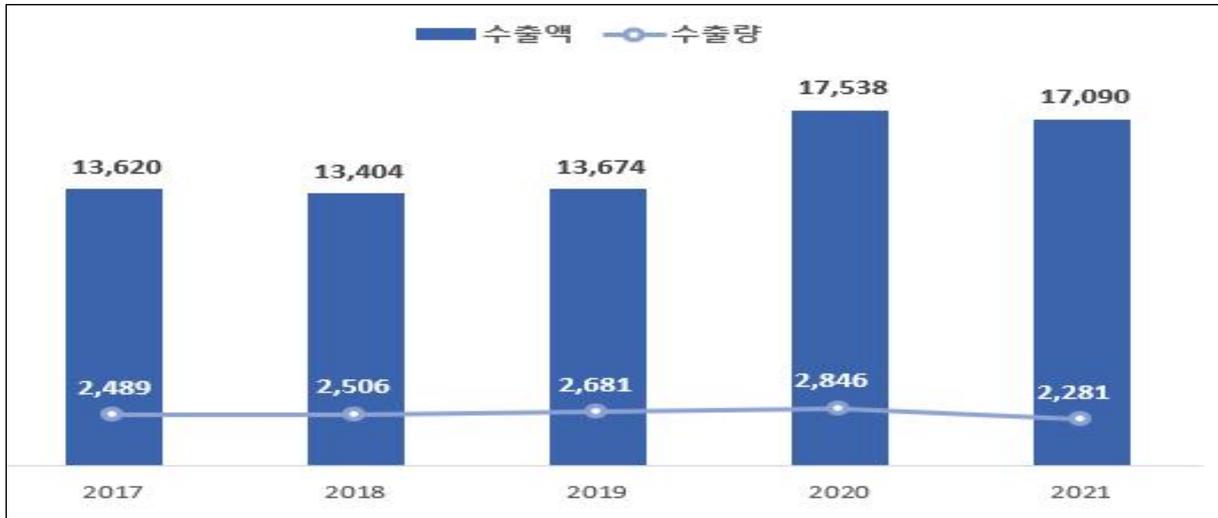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는 2017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2018년 일시적 하락 제외), 2021년에는 1만 3천 톤의 수출량과 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인스턴트커피 조제품 수출 규모

[그림 III-15] 인스턴트커피 조제품 수출 규모 (단위 : 톤, 천 달러)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 인스턴트커피 조제품은 수출량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560톤이 감소한 2,281톤 규모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액 또한 2020년까지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44만 달러가 하락한 1,709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는 하락하였으나, 2017년보다는 약 340만 달러 이상이 수출 규모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4) 해외 수입 후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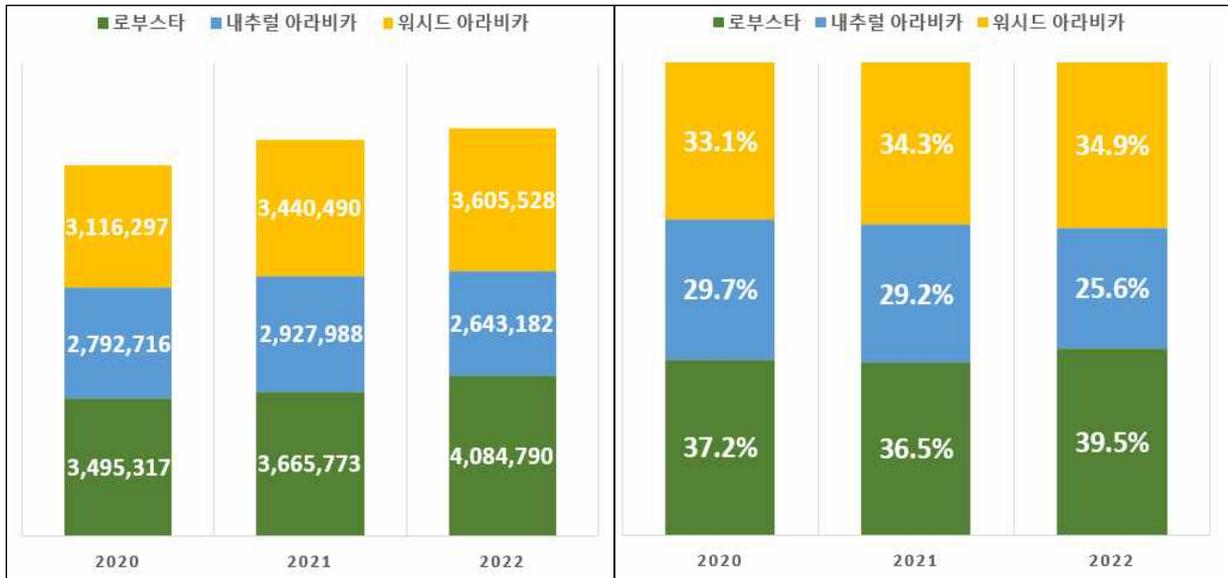
(1) 주요 유럽 항만* 생두 품종별 재고량

[표 Ⅲ-22] 주요 유럽 항만 생두 재고량

(단위 : 톤)

	2020년	2021년	2022년
로부스타	3,495,317	3,665,773	4,084,790
내추럴 아라비카	2,792,716	2,927,988	2,643,182
워시드 아라비카	3,116,297	3,440,490	3,605,528
합 계	9,404,330	10,034,251	10,333,500

[그림 Ⅲ-16] 유럽 항만 생두 재고량(톤) [그림 Ⅲ-17] 유럽 항만 생두 재고량(%)



* 주요 유럽 항만: 엔트워프항, 르아브르항, 바르셀로나항, 트리에스테항, 제노바항, 나폴리항, 탈린항, 런던항, 펠릭스도항, 브레멘항(일부)

** 출처 : ECF(European Coffee Federation) - Stocks European Port

- 유럽 커피 시장의 꾸준한 생두 무역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럽 항만의 생두 재고량 또한 계속해서 증가해 2021년 기준 1,000만 톤의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 생두 저장 창고 시설을 활용하여 저장, 가공 후 재수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커피 가격 및 물량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유럽 항만 커피산업은 반드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2) 유럽 주요 항만별 생두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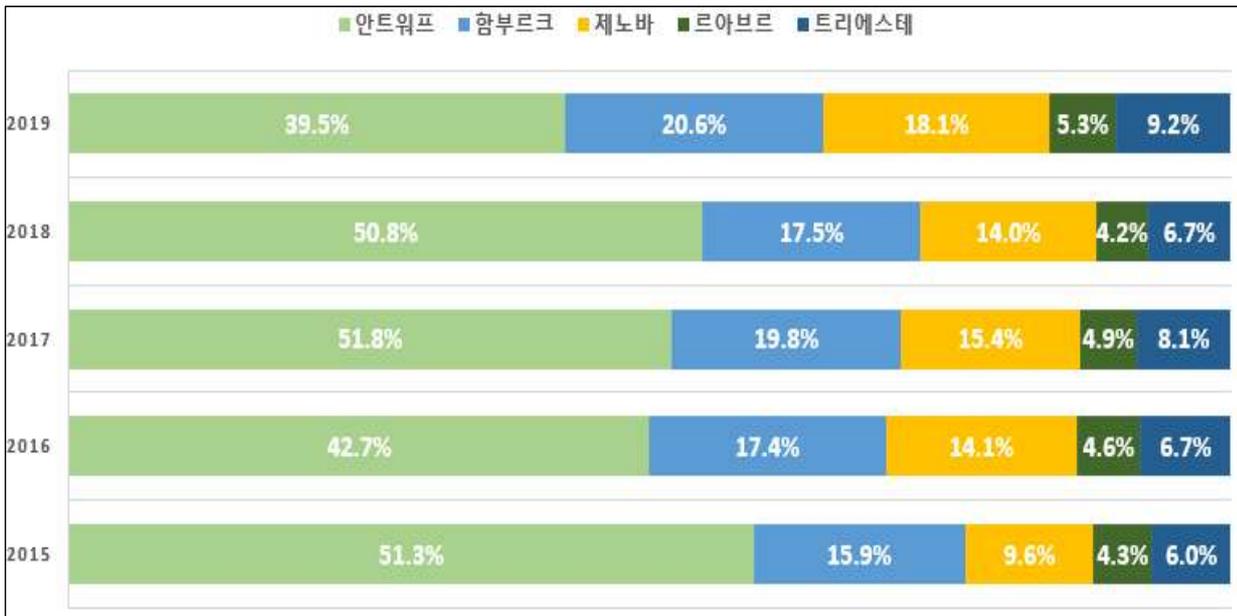
[표 III-23] 유럽 주요 항만별 생두 재고량

(단위 : 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앤티워프	4,361,074	3,641,373	4,137,332	4,124,394	2,651,013*
브레멘	1,089,472	1,244,472	-	-	-
함부르크	1,351,902	1,483,490	1,578,862	1,425,256	1,381,052
제노바	819,972	1,201,362	1,227,267	1,140,379	1,212,552
르아브르	369,523	395,866	389,562	339,022	352,685
트리에스테	505,890	570,566	650,008	542,002	617,356
바르셀로나	-	-	-	550,945	495,663
합 계	8,497,833	8,537,129	7,983,031	8,121,998	6,710,321

[그림 III-18] 유럽 주요 항만별 생두 재고량

(단위 : %)



* 2019년 앤티워프항의 재고량 수치는 1월~7월까지 만의 합계임

** 출처 : ECF(European Coffee Federation) - Stocks European Ports

- 유럽 주요 항만별로 생두 재고량을 비교한 결과, 벨기에의 앤티워프 항이 재고량이 가장 많았으며, 함부르크, 제노바 순으로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유럽권 커피 재수출량

[표 III-24] 유럽권 커피 재수출량

(단위 : 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독일	749,760	798,780	816,000	826,200	828,060
벨기에	267,600	273,000	262,620	262,620	300,840
이탈리아	220,140	251,580	265,020	279,540	326,280
네덜란드	148,800	162,120	186,240	202,560	199,440
폴란드	134,760	111,120	105,480	113,340	117,120
스페인	114,480	127,500	136,500	155,100	166,560
프랑스	72,540	77,880	90,840	98,940	108,720
그 외 국가	293,700	299,400	271,440	274,680	286,380
전 체	2,001,780	2,101,380	2,134,140	2,212,980	2,333,400

[그림 III-19] 유럽권 커피 재수출량

(단위 : 톤)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Re-exports by selected importing countries

- 유럽 내 생/원두를 수입 후 재수출하는 양은 독일이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벨기에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벨기에의 경우 2016년까지는 두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 중이었으나, 증가 폭 감소로 순위가 하락함
- 벨기에 앤트워프 항이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생두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재수출량은 많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4) 독일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표 III-25] 독일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단위 : 백만 달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폴란드	166.77	239.75	209.33	182.93	195.08
프랑스	46.5	59.85	67.85	61.42	83.79
체코	11.66	10.84	35.48	35.98	44.61
스위스	40.6	33.14	34.98	36.04	38.6
네덜란드	39.55	51.5	42.78	35.46	32.94
오스트리아	25.5	27.48	21.81	26.98	26.05
이탈리아	44.7	32.39	22.87	22.04	23.89
스웨덴	24.05	25.78	15.85	14.47	18.16
미국	22.72	10.29	14.32	13.46	15.6
영국	6.46	11.09	8.34	7.53	9.69
전 체	428.51	502.11	473.61	436.31	488.41

[그림 III-20] 독일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Tridge - German coffee exports to Russia declines while its re-exports to Europe thrive

** 그 외 국가: 스웨덴, 미국, 영국

- 독일의 생두 재수출 양은 증감을 반복해 2020년에는 4.8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폴란드로의 재수출량이 가장 많음

(5) 벨기에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표 Ⅲ-26] 벨기에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단위 :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프랑스	106.27	108.92	116.43	126.66	101.89
네덜란드	106.44	112.91	105.87	105.47	78.99
영국	15.96	17.12	17.70	16.66	27.85
독일	20.58	18.35	18.64	21.07	18.56
룩셈부르크	16.00	16.26	16.96	18.30	16.34
이탈리아	3.05	3.81	6.12	11.55	11.73
폴란드	6.42	8.09	8.80	8.04	6.95
스웨덴	6.22	6.16	6.03	4.81	6.03
체코	2.09	3.87	4.65	5.49	5.80
미국	1.72	1.53	1.67	1.92	5.43
그 외 국가	29.1	31.7	32.74	41.59	40.64
전 체	313.85	328.72	335.61	361.56	320.21

[그림 Ⅲ-21] 벨기에 국가별 생두 재수출량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Tridge - Raw Common Coffee Bean (Belgium)

** 그 외 국가: 폴란드, 스웨덴, 체코, 미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

- 벨기에에서 타국으로 생두를 재수출하는 양은 2021년 기준, 소폭 하락하였고, 가장 많은 생두를 재수출하는 나라는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프랑스로 나타남

(6) 유럽권 커피 종류별 내외부 재수출량

[표 III-27] 유럽권 커피 종류별 내외부 재수출량

(단위 : 백만 달러)

	생 두 (카페인 제거X)		생 두 (카페인 제거O)		원 두 (카페인 제거X)		원 두 (카페인 제거O)	
	유럽 내부*	유럽 외부	유럽 내부*	유럽 외부	유럽 내부*	유럽 외부	유럽 내부*	유럽 외부
2020년	1,118.4	153.8	191.9	257.2	4,574.8	1,478.8	920.4	708.7
2021년	1,301.2	194.7	200.9	288.3	5,112.0	1,505.3	943.5	709.6
2022년	2,132.9	312.9	274.3	393.2	6,191.4	1,825.3	1,251.5	880.9

* 유럽 내부 : EU27 국가 간 수입량

** 출처 : ECF(European Coffee Federation) - European Coffee Report

- 유럽에서 커피의 재수출은 대부분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카페인이 제거되지 않은 생두와 원두 제품임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생두 형태의 커피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유럽 내 재수출의 경우, 원두 형태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재수출은 로스팅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7)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커피 재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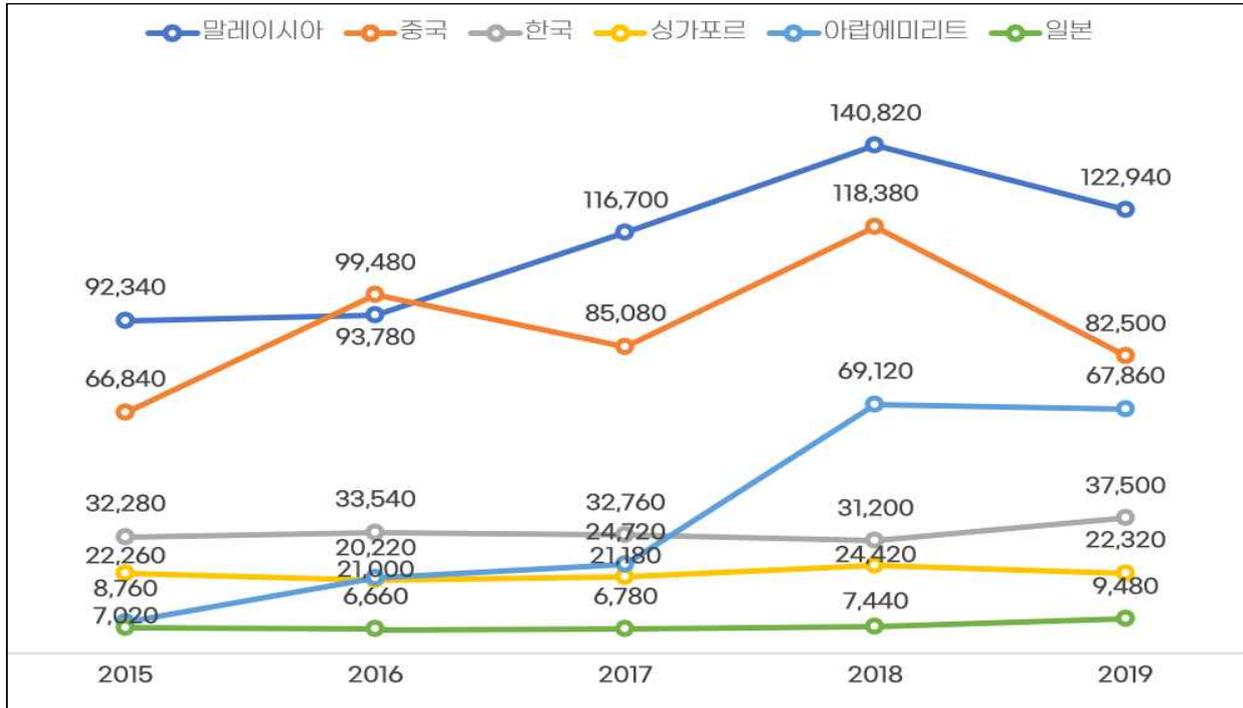
[표 III-28]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커피 재수출량

(단위 : 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말레이시아	92,340	93,780	116,700	140,820	122,940
중국	66,840	99,480	85,080	118,380	82,500
한국	32,280	33,540	32,760	31,200	37,500
싱가포르	22,260	20,220	21,180	24,420	22,320
아랍에미리트	8,760	21,000	24,720	69,120	67,860
일본	7,020	6,660	6,780	7,440	9,480
전 체	262,440	308,520	326,760	432,600	367,020

[그림 Ⅲ-22]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커피 재수출량

(단위 : 톤)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Re-exports by all importing non-member countries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커피를 재수출하는 양은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한국도 일본과 싱가포르보다는 많은 양을 재수출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커피 재수출 산업에 강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8) 생두 생산국 간 생두 무역

- 생두 생산국도 가공 후 재수출하거나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생두를 수입하기도 함. 또한 생두 생산국 간 생두의 가격 차이를 완화를 목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기도 함
- 대표 생두 생산국인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커피 수출량의 74%는 생두 생산국으로 수출됨
- 멕시코의 경우, 다른 생두 생산국(브라질, 베트남, 온두라스)으로부터 로부스타 생두를 수입하여 인스턴트 제품으로 가공한 후, 중앙아메리카로 수출함

- 콜롬비아의 경우, 자국의 생두를 자국 내 커피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활용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이 파운드당 0.26달러의 가격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한 생두를 대부분 수출한 후 브라질에서 생두를 다시 수입하고 있음

[표 III-29] 생두 생산국 간 커피 수출량

(단위 : 톤, %)

	생두 생산국으로의 수출량	전 세계 수출량	비율
생두 (아라비카)	100,554	4,141,083	2.43
생두 (로부스타)	299,686	2,493,475	12.02
원두	2,219	28,219	7.86
인스턴트커피	104,886	594,921	17.63
합 계	507,345	7,257,698	6.99

* 출처 : perfect daily grind - Why is green coffee traded between producing countries?

- 전 세계 커피 수출량 중 약 7%는 생두 생산국 간의 커피 수출량이고, 특히 로부스타 생두가 생두 생산국 간 커피 수출량의 약 59%를 차지함
- 아라비카 생두 보다 로부스타 생두로부터 더 많은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인스턴트커피 시장이 활성화된 생두 생산국은 로부스타 생두를 수입하고 있음

5) 국내 수입 및 수출

(1) 한국 국가별 생두 (재)수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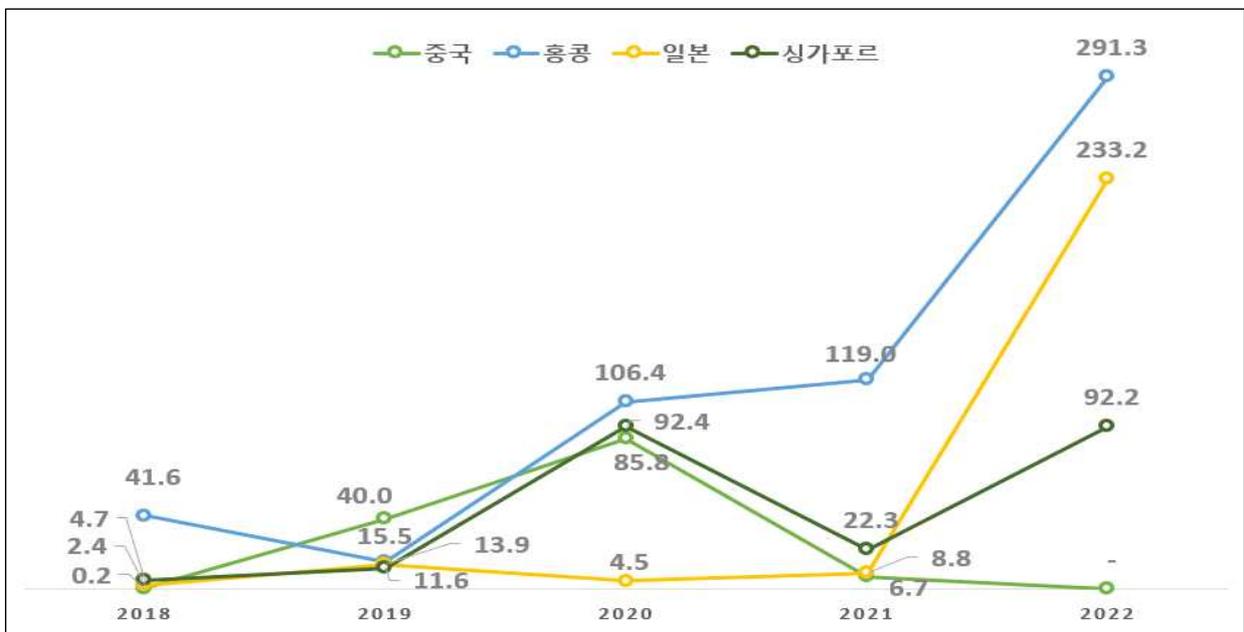
[표 Ⅲ-30] 한국 국가별 생두 (재)수출액

(단위 : 천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국	0.2	40.0	85.8	6.7	0.0
홍콩	41.6	15.5	106.4	119.0	291.3
일본	2.4	13.9	4.5	8.8	233.2
캄보디아	78.5	104.7	88.1	36.2	42.9
몽골	21.2	1.7	57.4	50.2	34.6
말레이시아	14.0	63.8	103.3	95.2	85.7
필리핀	0.0	8.2	25.0	47.2	82.8
싱가포르	4.7	11.6	92.4	22.3	92.2
태국	20.8	25.7	0.0	37.0	72.9
대만	0.0	31.3	43.5	63.9	132.0
베트남	62.7	1.2	0.4	254.4	3.3
아시아	254.7	327.8	637.9	927.7	1,071.5
전 세계	323.7	744.6	686.7	1247.8	1,396.1

[그림 Ⅲ-23] 한국 국가별 생두 재수출액

(단위 : 천 달러)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 한국의 생두 재수출액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해 32만 달러 규모에서 2022년 139만 달러로 약 4배에 가깝게 성장함
- 재수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홍콩 및 일본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본은 2021년 8천 달러에서 2022년 23만 달러로 급상승함
- 대부분의 재수출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한국 국가별 원두 (재)수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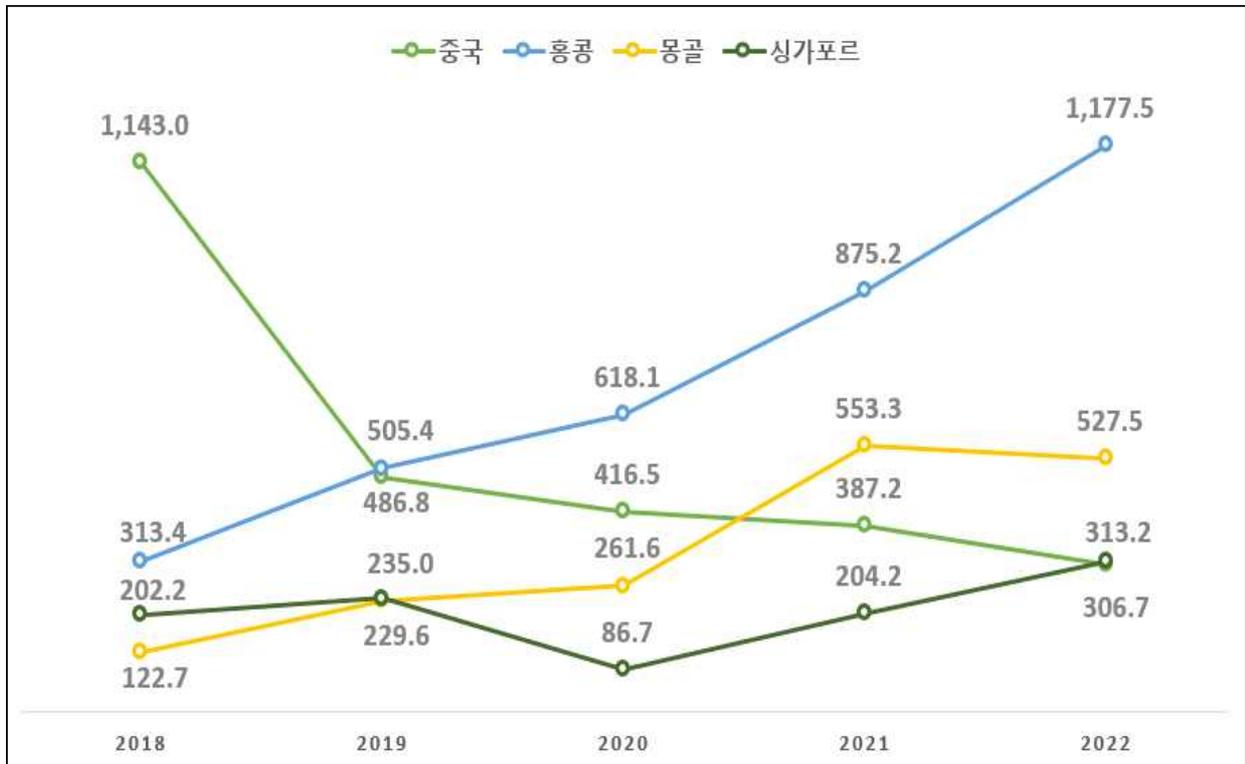
[표 III-31] 한국 국가별 원두 (재)수출액

(단위 : 천 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국	1143	486.8	416.5	387.2	306.7
홍콩	313.4	505.4	618.1	875.2	1177.5
몽골	122.7	229.6	261.6	553.3	527.5
말레이시아	260.8	283.5	269.7	291.7	474.7
싱가포르	202.2	235	86.7	204.2	313.2
대만	709.7	453.6	374.7	55.8	187.3
베트남	77.1	54.6	24.0	30.2	13.6
아시아	3,188.1	2,603.1	2,430.1	3,164.9	3,414.8
전 세계	4,021.2	2,931.1	2,638.6	3,447.0	4,242.0

[그림 Ⅲ-24] 한국 국가별 원두 재수출액

(단위 : 천 달러)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 한국의 원두 재수출액은 2022년 424만 달러로 생두보다 규모는 크지만 성장 폭이 낮은 수준임
- 원두 재수출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 몽골, 싱가포르 등이 주요 수출국임
- 2022년 중국에는 생두 수출이 전무하지만, 원두는 30만 달러 규모의 재수출을 기록함

6) 커피 옥션

(1) 주요 커피 옥션 평균 및 최고 낙찰가

[표 III-32] 2021년 주요 커피 옥션 평균 및 최고 낙찰가

(단위 : 달러/lb, 개)

국 가	옥 선 명	평 균	최 고	출 품 수	국 내 낙찰 수
파나마	라마스투스 패밀리 에스테이트	3,120.17	4,100.00	2	0
파나마	베스트 오브 파나마 - 게이샤 내추럴	313.41	2,568.00	18	1
파나마	베스트 오브 파나마 - 게이샤 워시드	218.67	1,502.00	18	1
파나마	에스메랄다 스페셜 옥션 2021	190.58	344.00	50	10
파나마	라마스투스 패밀리 에스테이트 - 게이샤 내추럴	182.67	652.00	15	1
파나마	라마스투스 패밀리 에스테이트 - 게이샤 워시드 & 허니	154.19	190.00	9	0
대만	2021 대만 프라이빗 옥션(with A.C.E)	94.50	500.50	9	0
파나마	베스트 오브 파나마 - 버라이어티 내추럴	85.00	400.00	9	4
예멘	베스트 오브 예멘 2021 옥션	63.26	207.50	22	1
파나마	베스트 오브 파나마 - 버라이어티 워시드	58.00	110.50	5	2
과테말라	제11회 산타펠리사 옥션	51.00	85.00	16	3
콜롬비아	원더스 오브 콜롬비아, 카페 그랑하라 에스페란자 옥션	44.19	106.25	21	3
에티오피아	게이샤빌리지 옥션 - 챔피언리저브	40.40	90.25	7	0
과테말라	인헤르또 엑조틱 커피 옥션	38.28	85.50	34	8
에콰도르	2021 타자 도라다 옥션	37.84	100.00	21	2
미국	2021 하와이 프라이빗 옥션(with A.C.E)	37.29	68.50	16	4
예멘	2021 시바 커피 옥션	37.13	121.00	25	0
에콰도르	2021 에콰도르COE	33.55	97.10	23	10
에티오피아	2021 에티오피아COE	32.12	150.00	30	5

(단위 : 달러/lb, 개)

국 가	옥 선 명	평 균	최 고	출 품 수	국내 낙 찰 수
콜롬비아	2021 콜롬비아COE	30.79	135.10	23	3
니카라과	2021 니카라과 프라이빗 옥션 (with A.C.E)	30.70	80.10	15	0
코스타리카	2021 코스타리카COE	27.55	71.60	30	4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익스클루시브 & 엑조틱 버라이어티 컬렉션 2021 옥션	27.50	185.25	40	4
에티오피아	게이사빌리지 옥션 - 팜리저브	26.04	60.50	14	6
과테말라	2021 과테말라COE	22.80	53.10	28	5
엘살바도르	2021 엘살바도르COE	22.52	70.00	24	3
브라질	다테하 커피 옥션	22.18	58.20	15	4
페루	2021 페루COE	18.48	54.60	24	2
니카라과	2021 니카라과COE	15.75	30.30	23	2
브라질	2021 브라질COE	14.83	66.00	29	3
멕시코	2021 멕시코COE	14.43	55.80	30	7
콜롬비아	콜롬비아 랜드 오브 다이버시티 2021	12.86	41.00	26	3
탄자니아	2021 탄자니아 프라이빗 옥션 (with A.C.E)	8.57	65.00	26	7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페셜티 커피 옥션2021	7.08	35.00	59	0
인도	2021 잼스 오브 아라쿠	6.75	20.00	20	3
과테말라	원 오브 어 카인드 과테말라	6.04	6.10	27	4
과테말라	산 호세 오카나	5.88	12.10	12	2
브라질	산 커피 옥션	5.80	15.10	11	1
르완다	세컨드 선라이즈, 테이스트 오브 르완다 옥션	5.35	7.50	13	1
우간다	베스트 오브 더 펄	4.78	7.00	13	3
평 균(평균·최고낙찰가) / 합 계(출품·낙찰수)		129.22	315.19	852	122

* 출처 : 그리니시 위클리 2021년 옥션 결과 종합

[표 III-33] 2022년 주요 커피 옥션 평균 및 최고 낙찰가

(단위 : 달러/lb, 개)

국 가	옥 셴 명	평 균	최 고	출 품 수	국 내 낙찰 수
인도네시아	2022 인도네시아 COE	29.55	80.00	26	4
우간다	2022 베스트 오브 더 펄	2.08	6.04	7	2
탄자니아	2022 탄자니아 프라이빗 옥션 (with A.C.E)	5.65	11.23	20	5
우간다	디스커버링 우간다	4.26	5.10	15	2
콜롬비아	베스트 오브 안티오키아 2022	8.06	18.50	24	2
필리핀	2022 필리핀 커피 옥션 - 로부스타	6.05	22.95	12	0
필리핀	2022 필리핀 커피 옥션 - 아라비카	15.36	34.09	12	0
인도네시아	2022 잼스 오브 아라쿠 - TOP 20	7.09	17.25	20	6
인도네시아	2022 잼스 오브 아라쿠 - 나노랏	24.58	25.25	3	1
인도네시아	플레이버스 오브 에티오피아	12.55	25.88	9	2
과테말라	2022 산타펠리사 매크로 플레이버	34.68	100.22	15	3
과테말라	2022 산 호세 오카나	8.48	12.55	14	2
니카라과	슈퍼 무헤레스 커피 옥션	5.73	9.40	17	0
에티오피아	2022 프라이드 오브 게이샤 - 팜 리저브	72.93	104.50	13	1
에티오피아	2022 프라이드 오브 게이샤 - 챔피언 리저브	127.20	254.00	4	0
에티오피아	2022 프라이드 오브 게이샤 - 이노베이터	127.20	125.25	7	0
대만	2022 대만 프라이빗 옥션(with A.C.E)	80.10	183.50	15	1
과테말라	인헤르또 엑조틱 커피 옥션 2022 - 내추럴	49.50	105.00	4	1
과테말라	인헤르또 엑조틱 커피 옥션 2022 - 워시드	51.56	87.95	12	9
온두라스	플레이버스 오브 온두라스	5.62	7.20	16	1
과테말라	2022 과테말라COE	31.59	138.20	30	7
푸에르토리코	카페 줌바도르 커피 옥션	14.58	14.75	23	1
코스타리카	2022 익스클루시브 커피 옥션	21.51	199.90	33	9

(단위 : 달러/lb, 개)

국 가	옥 선 명	평 균	최 고	출 품 수	국내 낙찰 수
엘살바도르	2022 엘살바도르COE	12.93	72.20	27	4
과테말라	원 오브 어 카인드 오브 과테말라	7.09	10.40	15	4
라오스	어 테이스트 오브 라오스	3.35	17.10	20	1
니카라과	2022 니카라과COE	8.85	25.20	26	4
코스타리카	2022 코스타리카COE	33.62	140.10	22	4
온두라스	2022 온두라스COE	19.96	134.00	25	4
파나마	2022 에스메랄다 옥션	351.81	1,252.27	10	10
예멘	2022 베스트 오브 예멘 프라이빗 옥션(with A.C.E)	62.14	246.50	29	1
에티오피아	2022 에티오피아COE	55.37	400.50	30	0
콜롬비아	카페 그랑하 라 에스페란자 옥션	77.07	189.90	28	2
예멘	내셔널 예멘 커피 옥션	33.12	78.00	28	1
파나마	2022 라마스투스 패밀리 커피 옥션 - Vol.1	261.16	385.00	6	0
파나마	2022 라마스투스 패밀리 커피 옥션 - Vol.4	350.50	504.00	6	0
파나마	2022 라마스투스 패밀리 커피 옥션 - Vol.3	385.66	501.00	6	0
파나마	2022 라마스투스 패밀리 커피 옥션 - Vol.2	389.50	701.00	6	0
파나마	베스트 오브 파나마 2022 - 다양성	64.96	150.00	14	0
파나마	베스트 오브 파나마 2022 - 게이샤 워시드	183.78	421.00	18	3
파나마	베스트 오브 파나마 2022 - 게이샤 내추럴	353.80	2,000.49	18	1
브라질	산 커피 옥션 2022	7.25	15.85	11	2
태국	베스트 오브 타일랜드(COE 파일럿)	31.76	160.10	15	2
콜롬비아	2022 콜롬비아COE	18.49	92.20	22	3
브라질	다테하 옥션 2022	20.37	60.10	12	15
페루	2022 페루COE	17.01	78.50	26	6

(단위 : 달러/lb, 개)

국 가	옥 셴 명	평 균	최 고	출 품 수	국 내 낙 찰 수
에콰도르	2022 타자 도라다	20.61	54.25	20	3
부룬디	그랑크뤼 부룬디 JNP 커피 옥션	8.16	11.40	25	2
예멘	2022 시바 커피 옥션 - Single Anaerobic Fermentation	13.40	14.95	2	0
예멘	2022 시바 커피 옥션 - Double Anaerobic Fermentation	15.43	47.25	9	1
예멘	2022 시바 커피 옥션 - Super Natural	19.26	70.95	7	0
에콰도르	2022 에콰도르COE	42.45	105.10	18	2
브라질	시크릿 트레저 프라이빗 옥션 (with A.C.E)	7.57	10.40	22	2
부룬디	롱 마일즈 커피 프라이빗 옥션 (with A.C.E)	8.29	14.60	16	0
평 균(평균·최고낙찰가) / 합 계(출품·낙찰수)		68.35	179.97	874	136

* 출처 : 그리니시 위클리 2022년 옥션 결과 종합

- 커피 스페셜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커피 옥션 시장 규모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여 2021년에는 한 개에 4,100달러에 거래된 고급 커피 출품작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 생산된 생두들의 커피 옥션 참가 이력이 없으나, 고흥에서 생산된 ‘나로커피 아일랜드’의 생두가 SCA로부터 스페셜티 커피로 인증받은 사례는 존재함
- 최고 낙찰가 및 평균 낙찰가의 평균은 2021년에 대비 2022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 출품 수와 국내에서 낙찰받은 수 등은 소폭 증가해 국내 커피 옥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커피 옥션 시장의 활성화를 미루어 볼 때 커피의 고급화 및 스페셜티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주요 커피 옥션 국내 낙찰업체 리스트

[표 III-34] 2021년 주요 커피 옥션 국내 낙찰업체 리스트

옥션명	업체명	지역
2021 탄자니아 프라이빗 옥션	홀리리커피	서울
	커피리브레	경기
	엘카페커피로스터스	서울
	톨드어스토리	대전
	커피몽타주	서울
	304로스터스	광주
	커피플레이스	경북 경주
	이월로스터스	경기
	뮤제오	서울
	리이케	서울
	후엘고	서울
	하루코빈스	서울
2021 하와이 프라이빗 옥션	라이언스커피	서울
	뮤제오	서울
	리이케커피	서울
	후엘고	서울
	송도커피	인천
	액츠29	인천
콜롬비아 랜드 오브 다이버시티 옥션	마리스텔라커피	부산
	지지큐랩	강원 춘천
	커만사	경기
	케빈커피로스터스	경남 함양
	세웅지씨	서울

옥 선 명	업 체 명	지 역
베스트 오브 더 펄	마리스텔라커피	부산
	길위의커피(길커피)	전북 전주
인헤르또 엑조틱 커피 옥션	초이커피	서울
	엠아이커피	서울
	모모스커피	부산
	센터커피	서울
	커피몽타주	서울
	304로스터스	광주
	이월로스터스	경기
	커피플레이스	경북 경주
	피어커피	서울
	비브레이브	제주
502로스터스	서울	

* 출처 : 그리니시 위클리 2021년 커피 옥션 결과 종합

- 다수의 국내 커피 업체들은 각종 해외 커피 옥션에서 경쟁입찰 및 낙찰을 통하여 스페셜티와 프리미엄 커피를 공급받고 있음
- 대부분의 스페셜티 커피는 스페셜티 협회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상위 7% 이상의 생두를 사용하고, 이는 향미, 맛, 생산지 등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짐
- 다양한 고급 원두를 블렌드하여 추출하기도 하며 대부분 가격이 일반 커피에 비해 비싼 편이므로 이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3 로스팅

1) 지역별 볶은 커피 생산능력

[표 Ⅲ-35] 지역별 로스팅 업체 위치

(단위 : 톤)

위 치	업 체 명	연 간 생 산 량
강원도	뮤토로스팅플랜트	기업 미공개
경기	카페베네 로스팅플랜트	7,738
	엔제리너스커피 로스팅플랜트	15,000
	할리스커피 커피클럽 로스팅 센터	1,700
	할리스커피 로스팅플랜트	850
	탐앤탐스 로스팅플랜트	600
	이디야커피 드림팩토리	6,000
	커피베이 자체 로스팅 공장 AT글로벌	기업 미공개
	롯데칠성음료	기업 미공개
	The Drip	기업 미공개
	코페아	1,200
	커피로스팅플랫폼	기업 미공개
	워너빈 로스터리	기업 미공개
	커피이엔지	기업 미공개
	빈오너스	기업 미공개
	콜라빈커피컴퍼니	기업 미공개
	주식회사 가배온	360
	커피클랜	기업 미공개
	블랙와인커피	기업 미공개
	대전	라운드커피
부산	더쉐프(텐퍼센트 커피)	기업 미공개
	로스팅코리아	기업 미공개
	제이엠커피컴퍼니	9,000

(단위 : 톤)

위 치	업 체 명	연 간 생 산 량
서울	블루빅센	기업 미공개
	지로스팅	기업 미공개
인천	동서식품	기업 미공개
충남	한국맥널티	2,000
	씨케이코퍼레이션즈	9,000
충북	던킨도너츠	1,000
	롯데 네슬레코리아	기업 미공개

* 출처 : 컨설팅 내부 조사 자료, 2023년

- 생두 수입업체 분포와 유사하게 국내 대부분의 로스팅 업체들도 경기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파악된 로스팅 업체 30곳 중 경기도에만 18곳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에는 3곳이 위치함. 그 중 제이엠커피컴퍼니(컴포즈 커피)의 생산량은 경기도의 엔제리너스 로스팅 플랜트 다음으로 높은 연간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음

2) 로스팅 단계별 생두의 중량 감소

[표 III-36] 로스팅 단계별 생두의 중량 감소 현황

상 태	Yellow 단계			1차 Crack		2차 Crack	
	Green	Yellow	Cinnamon	L.Brown	M.Brown	D.Brown	Dark
로스팅 단계	-			Light		Medium	Dark
색깔	Green	Yellow	Cinnamon	L.Brown	M.Brown	D.Brown	Black
향	풋내	단향	단향+신향	신향	신향+고유향	고유향	향의 감소
형태	생두	수축		팽창		지속팽창	팽창멈춤
중량 감소	-			12~14%		15~17%	18~25%

*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향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2019년

- 생두를 로스팅하면 그 방법에 따라 고유의 풍미와 향이 풍기며, 로스팅 과정 중 12~20% 정도의 중량이 감소하며, 크기는 팽창하는 현상이 일어남

3) 국내 로스팅 기기 제조업체 현황

[표 Ⅲ-37] 국내 로스팅 기기 제조업체 현황

(단위 : 천원)

위 치	업 체 명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비 고
경기	태환자동화산업	7,394,916	399,775	국내 생산 후 판매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9,409,300	-763,772	
	제네카페	-	-	
	뉴디스코리아	5,144,428	163,113	
	마이커피	1,380,822	18,218	
	노부스테크	648,017	25,669	
서울	무이커피랩	80,158	6,073	
대전	이지스터	3,001,501	472,430	
	이레플러스	692,336	73,290	
충남	부자로스터	-	-	

* 출처 : 컨설팅사 내부 조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19년 ~ 2022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가장 최근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기준 작성

*** 마이커피, 무이커피랩: 2021년 기준 / 이지스터: 2019년 기준 / 이레플러스: 2020년 기준

- 국내 로스팅 기기 관련 제조업체 또한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하며, 부산 지역에는 로스팅 기기 제조업체가 파악되지 않음
- 대부분의 로스팅 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로스팅 기기의 크기 또한 매우 커 운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로스팅 기기 제조업체 또한 로스팅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기도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물류 및 유통

1) 커피 물류 및 유통

(1) 국내 커피 취급 물류 창고 현황

[표 III-38] 국내 커피 취급 물류 창고 현황

(단위 : 년, m²)

위 치	업 체 명	설 립 연 도	창 고 면 적	냉 동 냉 장 면 적
부산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	2012	60,388	-
	세방(주)	2012	32,916	-
소 계			93,304	-
경기	씨제이대한통운(주)	2016	25,428	3,630
	주식회사 제이피로지스틱스	2020	19,888	9,752
	동원로엑스(주)	2022	19,329	7,501
	주식회사 더드립	2021	6,947	-
	(주)유진로지스틱스	2022	6,432	6,432
	(주)고려포장	2013	4,950	-
	현보티앤엘(주)	2013	3,061	-
소 계			86,035	27,315
세종	중앙물류서비스(주)	2014	11,731	-
소 계			11,731	-
전남	(주)올곧은컴퍼니	2021	2,125	33
소 계			2,125	33

*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커피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물류창고는 총 11개 이고, 이 중 부산에 위치한 물류 창고는 총 2개(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 세방(주))이나, 이들의 창고면적은 국내에서 각각 1, 2순위임

- 커피 취급 물류 창고의 면적은 부산이 93,304㎡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다음은 경기, 세종, 전남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 세방(주)는 커피 품목만을 취급하지 않고, 타 선용품 및 동판, 의류 등 다른 품목도 함께 취급하고 있음. 이 중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주)는 커피 생두를 취급하나, 세방(주)는 커피 용품만을 취급하고 있음
- 현재 커피 및 커피 관련 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물류 회사는 씨제이대한통운(주)이 유일함(전용 공간 조성 및 운영). 부산 내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물류 창고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2) 커피 유통구조와 채널별 소비량(매출 기준)

[표 Ⅲ-39] 커피 유통구조와 채널별 매출 비중

원료	제조 및 판매기업	유통채널		최종소비
생두 수입	커피 제조기업 (37.5%)	도매상	대형할인점 (24.2%)	일반 소비자
			체인슈퍼 (15.3%)	
			편의점 (36.2%)	
			독립슈퍼 (14.0%)	
			일반식품점 (10.4%)	
온라인				
원두 수입	커피전문점 (62.5%)			

* 출처 : KB연구보고서 -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2019년

** 로스팅 후 수출, 생두 재수출 포함

- 원두 및 생두의 수입 이후 커피 제조기업이 37.5%, 커피전문점이 62.5%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매 유통 채널별로는 편의점이 36%로 가장 높고, 일반 식품점이 10%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3) 한국 단위당 생두 및 원두 수출 가격

[표 III-40] 한국 단위당 생두* 및 원두** 수출 가격

(단위 : 달러/kg,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두*	4.04651	4.10127	5.24648	4.34810	4.40990	6.94527
원두**	10.09057	15.81961	7.16912	5.90380	5.66010	6.24742
가격상승률 (부가가치)	149%	286%	37%	36%	28%	-10%

* 생두(HS code: 0901.11.0000), **원두(HS code: 0901.21.0000)

[그림 III-25] 한국 생두 및 원두 단위당 수출 가격

(단위 : 달러/kg)



* 출처 : selina wamucii - South Korea Coffee 2023 Retail Prices

- 2018년까지는 한국 수출하는 생두와 원두 간 단위 수출 가격은 두 배 이상 원두 가격이 높았으나, 점차 간격이 줄어, 2022년부터는 생두의 단위당 수출 가격이 원두의 단위당 수출 가격보다 더 높아짐 (2022년 기준 생두 kg당 가격 약 6.95달러, 원두 kg당 가격 약 6.25달러)

(4) 한국 인스턴트커피 수출 규모

[표 Ⅲ-41] 한국 인스턴트커피 수출입 규모

(단위 : 톤, 천 달러)

년 도	수 출 량	수 출 액	수 입 량	수 입 액
2017년	2,489.2	13,620.0	820.9	11,441.0
2018년	2,506.1	13,404.0	881.8	11,313.2
2019년	2,680.8	13,673.6	1,121.1	11,095.5
2020년	2,846.4	17,538.1	1,133.4	15,386.7
2021년	2,281.1	17,090.4	1,046.0	12,776.0
2022년	3,080.8	22,598.9	904.6	9,262.1
합 계	15,884.4	97,925.0	5,907.8	71,274.5

* 인스턴트커피(HS code: 2101.11.0000, 2101.12.1000)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그림 Ⅲ-26] 한국 인스턴트커피 수출입량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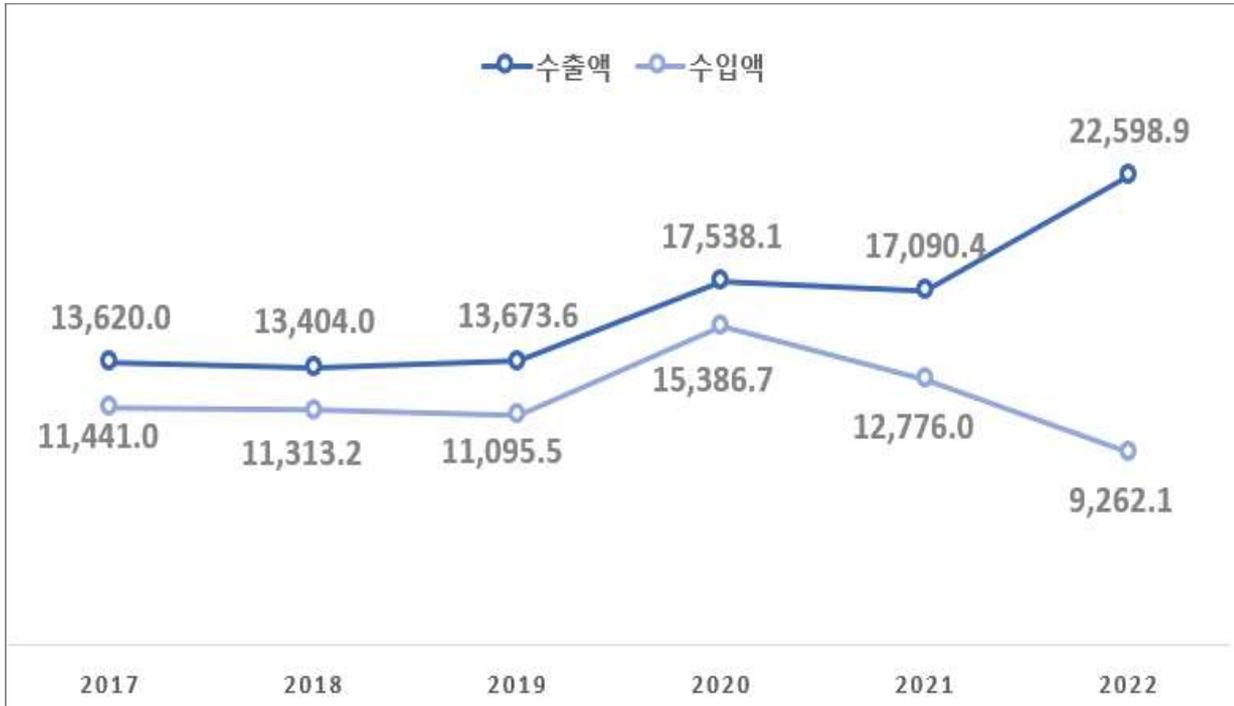


* 인스턴트커피(HS code: 2101.11.0000, 2101.12.1000)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그림 III-27] 한국 인스턴트커피 수출입액

(단위 : 천 달러)



* 인스턴트커피(HS code: 2101.11.0000, 2101.12.1000)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KATI)

- 한국의 인스턴트커피 수출량과 수출액은 2021년에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임
- 양적인 측면에서는 수출량이(3,080.8톤) 수입량의(904.6톤) 3배 이상의 수준이며,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수출액이(약 2,259만 달러) 수입액의(약 926만 달러)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양적인 측면과 금액적인 측면 모두, 수출 부분이 수입 부분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5 커피 경연대회 · MICE, 판매, 후처리

1) 커피 경연대회 및 축제

(1) 해외 커피 경연대회 및 축제

[표 III-42] 해외 커피 경연대회 및 축제 현황

행사장소	행사종류	행사명	행사규모
하와이, 미국	정기행사 (복합 프로그램)	KONA COFFEE Gamble 2022	-
		Kona Coffee Festival Ho'olaule'a 2022	-
도쿄, 일본	전시회	Tokyo coffee festival 2019	커피 관련사 38개, 기타 관계사 21개, 총 59개사
매년 변경	경연	World Barista Championship 2023	SCA 주최, 총 48개국 대표 약 50명 이상 바리스타 챔피언
	박람회	World of Coffee 2023	SCA 주최, 120여개국, 1만 1000여명의 관계자 및 관람객
미국 내 도시 변경	정기행사 (복합 프로그램)	Global Specialty Coffee Expo 2023	SCA 주최, 130개국, 416개 업체 및 기관 참가
Copan Ruinas, 온두라스	정기행사 (복합 프로그램)	Let's talk Coffee	약 65명 연사, 약 350명 이상의 세계 커피 전문가
메델린, 엘살바도르	복합 프로그램 (워크숍, 대회 등)	Producer & Roaster Forum 2023	약 60개 커피업체, 약 5,000명 이상 관람객
Anaheim Convention Center 캘리포니아, 미국	전시회	Coffee fest Anaheim 2023	157개 업체 참가

* 각 행사 관련 공식 홈페이지

-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콘테스트, 페스티벌, 전시회,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커피 관련 행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커피 관련 회사, 바리스타 등 커피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 등 다양한 주체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음

(2) 국내 커피 경연대회

[표 III-43] 국내 커피 경연대회 현황

주최기관	행사명	
SCA (스페셜티 커피협회) 한국 챕터	코리아 바리스타 챔피언십(KNBC)	코리아 라떼 아트 챔피언십(KLAC)
	코리아 브루어스 컵 챔피언십(KBrC)	코리아 커피 인 굿 스피릿 챔피언십(KCIGS)
	코리아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KCTC)	코리아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KCRC)
코리아 커피 리그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KBC)	한국 TEAM 바리스타 챔피언십(KTBC)
	마스터 오브 커피(MOC)	마스터 오브 브루잉(MOB)
	이카와 코리아 로스팅 챔피언십(IKRC)	코리아 커피 로스팅(KCR)
한국 커피 연합회	K카페 챔피언십(KCC)	월드 라떼 아트 마스터즈(WLAM)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KDBC)	전국 학생 바리스타 대회(KSBC)
한국 커피 로스터 연합	골든커어피워드(GCA) - 로스팅 챔피언십	골든커어피워드(GCA) - 핸드드립 챔피언십
한국 커피 품평 협회	커피스 챔피언십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드립백 커피 어워드	
액츠29카페	월드 영바리스타 챔피언십(WYBC)	마스터 오브 로스터(MOR)
로스팅 테크니션 연합	로스팅 테크니션 챔피언십(SCAK)	
GCS (Global Coffee School)	글로벌 커피 챔피언십(GCC) *한국 대표 선수가 국제 대회에 출전	

주 최 기 관		행 사 명	
ICA (International Coffee Alliance)		국제 로스팅 챔피언십(ICER)	국제라떼아트대회(ICEL)
KCAC (Korea Coffee Academy Council)		커피핸드드립대회	커피바리스타대회
		커피라떼아트대회	커피로스팅대회
		커피로스팅대회	커피향미대회
		커피강사대회	
SRU (Small Roaster Union)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 *부산 미래커피랩에서 개최	
W&S INVEST VALUE *부산 문화 지원 단체		전국 바리스타 최강자전(TOP OF BARISTA CHAMPIONSHIP In BUSAN)	
CBAW (월드커피 바리스타협회)		월드핸드드립챔피언십(WHDC)	전국발달장애인바리스타챔피언십
		전국청소년바리스타챔피언십	전국시니어바리스타챔피언십
기 타	바리스타 경연대회	고흥군 - 한국바리스타챔피언십 *고흥에서 생산된 생두 이용	
		선암호수노인복지관 - 실버바리스타경연대회	
		제주관광대 - 제주 주니어바리스타 경연대회(JBC)	
		은평구청 - 청소년 음료&바리스타 경연대회	
	로스팅 대회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 - 인천 핸드로스팅대회	
		대구커피챔피언십위원회 - 로스팅대회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 핸디로스터 챔피언십	

* 각 행사 관련 공식 홈페이지

- SCA(스페셜티 커피 협회) 한국챕터에서 진행하는 대회들은 컨벤션센터 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 커피축제, 커피회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음
- 각 협회에서 개최되는 커피 대회 간 큰 차이는 없고, 대부분의 커피 대회 종목들은 바리스타, 커피핑, 라떼아트, 로스팅, 테이스팅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2) 커피 MICE

(1) 해외 커피 MICE 현황

[표 III-44] 해외 커피 MICE 현황

행사장소	행사종류	행사명	행사규모
런던, 영국	박람회	Kona Coffee Signature Beverage Throwdown	후원단체 포함 250개 이상 업체 참여
		The London Coffee Festival 2023	
뉴욕, 미국	박람회	The Newyork Coffee Festival 2022	후원단체 포함 85개 이상 업체 참여, 12,000명 관람객 참여
New Orleans Morial Convention Center LA, 미국	박람회	NOLA Coffee Festival 2023	후원단체 포함 67개 이상 업체 참여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박람회	The Amsterdam Coffee Festival 2023	후원단체 포함 115개 이상 업체 참여, 11,000명 관람객 참여
프랑스, 파리	박람회	Le Paris Café Festival 2023	62개 이상 업체 참여, 8,000명 이상 관람객 참여

행사장소	행사종류	행사명	행사규모
MCEC(Melbourn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멜버른, 호주	박람회	Melbourne Coffee Expo 2023	200개 이상 업체 참여, 11,000명 이상 관람객 참여
Bosto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보스턴, 미국	박람회	Specialty Coffee Expo 2023	14,000명 이상 관람객 참여
BCEC (Bombay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뭄바이, 인도	박람회	WORLD TEA & COFFEE EXPO 2022	-
Superstudio Più 밀라노, 이탈리아	박람회	The Milan Coffee Festival 2022	10,000명 이상 관람객 참여
FORT MASON CENTER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미국	박람회	SAN FRANCISCO COFFEE FESTIVAL 2022	100명 이상의 큐레이터가 포함된 30개 이상 업체
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KLCC)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박람회	International Café and Beverage Show, 2023	약 4,500 개 식음료점, 11,000명 이상 관람객 참여
Kentucky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켄터키, 미국	박람회	Coffee Fest Louisville	111개 이상 참가업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박람회	Exigi Buen Café 2023	50개 이상 전시업체, 10,000명 이상 관람객 참여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호치민, 베트남	박람회	Cafe Show Viet Nam 2023	300개 이상 전시업체, 30,000명 이상 관람객 참여

* 각 행사 관련 공식 홈페이지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커피 및 커피를 포함한 다양한 박람회 및 카페쇼 등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음
- 지역별 커피 브랜드, 대표 로스터리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MICE가 개최되고 있으며,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평균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음

(2) 국내 커피 MICE 현황

[표 III-45] 국내 커피 MICE 현황

(단위 : 개, 명)

행사장소	행사종류	행사명	행사규모*
벡스코 (부산)	박람회	부산커피쇼	200개사 / 36,888명
		부산카페위크(구 부산카페쇼)	133개사 / 26,224명
		KNBC & SCA Market	29개사 / 4,000명
		디저트&카페창업쇼	-
		부산국제식품박람회(부산푸드페어)	150개사 / 40,000명 이상
		부산국제식품대전	352개사
코엑스 (서울)	박람회	서울커피엑스포	230개사 / 43,286명
		서울카페쇼	672개사 / 120,435명
		코엑스 푸드위크 (드링크&디저트쇼)	791개사** / 32,663명**
	국내/국제 회의	주한과테말라 상공회의소 커피	-
		리버브 서울	-
		월드커피리더스포럼	4,342명

(단위 : 개, 명)

행사장소	행사종류	행사명	행사규모*
aT 센터(서울)	박람회	서울커피앤티페어	87개사 / 22,045명
세텍 (서울)	박람회	서울카페&베이커리페어	250개사
		디저트&카페창업쇼	-
송도컨벤시아 (인천)	박람회	카페디저트페어	130개사
		디저트&카페창업쇼 in 인천	-
		인천국제식품박람회(인천푸드페어)	100개사 / 20,000명 이상
엑스코 (대구)	박람회	대구커피&카페박람회	98개사 / 31,688명
		디저트&카페창업쇼	-
유에코 (울산)	박람회	인터내셔널커피페어(ICF)	-
대전컨벤션센터 (대전)	박람회	디저트&카페창업쇼	-
수원컨벤션센터 (경기)	박람회	수원카페&베이커리페어	250개사
		수원국제식품박람회(수원푸드페어)	-
		수원카페위크	-
킨텍스 (경기)	박람회	카페&베이커리페어	300개사
	대회	KNBC & KCI GS	-

* 행사 규모 측정 기준 연도: 서울커피엑스포-2023년, 서울카페쇼-2022년, 코엑스 푸드위크-2022년, 월드커피리더스포럼-2022년, 서울커피앤티페어-2022년, 서울카페&베이커리페어-2023년, 부산커피쇼-2021년, 카페위크-2023년, 부산국제식품박람회(부산푸드페어)-2022년, 부산국제식품대전-2022년, 카페디저트페어-2023년, 인천국제식품박람회(인천푸드페어)-2022년, 대구커피&카페박람회-2021년, 수원카페&베이커리페어-2023년, 카페&베이커리페어(킨텍스)-2023년

** 코엑스 푸드위크에서 코리아 푸드테크산업전, 베이커리페어, 2022 키친페어, 강소농대전, 드링크&디저트쇼가 동시 개최함에 따라 해당 참가업체 수와 관람객 수는 위의 모든 박람회의 참가업체 수를 합한 값임

- 부산 커피쇼, 서울 카페쇼 등과 같이 지역 기반의 정례화된 커피행사 뿐만 아니라, 국제식품박람회, 디저트 & 카페창업쇼 처럼 행사 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도 다수 존재하며, 해당 행사는 주로 지역 대표 컨벤션센터를 활용하여 진행됨
- 커피 관련 국내외 국제회의는 주로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려왔으며, SCA(스페셜티커피협회) 관련 행사 및 대회 등은 부산, 경기도 일산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어 왔음
- 특히, 부산 벡스코에서는 SCA(스페셜티 커피협회) 한국 챕터가 주최하는 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SCA 스페셜티 커피 행사인 스카마켓이 개최되어, 부산 스페셜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I-28] 커피 MICE 사진

서울커피엑스포

 <p>2022. 3. 30 - 4. 2 COEX HALL A, B</p> <p>BACK TO BUSINESS COFFEE EXPO SEOUL</p> <p>BUYER EARLY BIRD 2022년, 국내 유일 B2B 커피산업 전시회로 도약하는 서울커피엑스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이어에게만 드리는 무료입장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p> <p>Show Overview 행사명 2022 서울커피엑스포 COFFEE EXPO SEOUL 2022 행사기간 2022. 3. 30 수 ~ 4. 2 토, 4일간 행사장소 코엑스 A, B 전시장 예정규모 250개사 / 750부스</p> <p>바이어 무료입장 등록 일정 2022년 3월 12(수) - 3월 11(금) 하단 바코드가 바뀐 후에 사이트 접속 후 바이어로 회원가입 하면 서울커피엑스포 무료입장 신청 완료! ※ 바이어: 카페·외식업계 산업 주사자 및 창업예정자 사무실에서 확인 및 승인처리 후 등록완료 합니다. ※ 2021년에 등록하신 분은 자동 등록 완료 ※ 일반 관람객 사전등록은 후주 별도 안내</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white; background-color: #007bff; padding: 5px;">바이어 무료입장 등록하기</p> <p><small>☐ coffee@coex.co.kr ☎ 02-6000-8155/8161 🌐 www.coffeeexpo.co.kr</small></p>	
--	---

* 출처: 서울커피엑스포 홈페이지

서울카페쇼

 <p>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각 A CUP OF THE NEW WORLD</p> <p>Cafe Show 2022</p> <p>제21회 서울카페쇼 Nov.23~26, Coex, Seoul</p> <p><small>서울카페쇼 행사 개요 제21회 서울커피엑스포와 동시에 서울커피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며 서울커피엑스포와 서울커피엑스포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신상품 판매인 '명구기비'.</small></p>	
---	--

* 출처: 서울카페쇼 홈페이지

코엑스 푸드위크



* 출처: 코엑스 푸드위크 홈페이지

서울커피엔티페어



* 출처: 서울커피엔티페어 홈페이지

부산 커피쇼



* 출처: 부산커피쇼 홈페이지

부산카페위크



* 출처: 부산카페위크 홈페이지

부산 국제식품대전

2023년 6월 21일(수) ~ 6월 24일(토), 4일간 / BEXCO



The 30th Busan International Food Expo

제30회
부산국제식품대전

* 출처: 부산국제식품대전 홈페이지

디저트&카페 창업쇼 in 인천



* 출처: 디저트&카페창업쇼 홈페이지

[표 III-46] 서울커피엑스포 개최 규모 추이

(단위 : 개,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23년
참가사 수	237	215	215	201	230
참관객 수	39,427	43,486	47,909	32,104	43,286
부스 수	746	778	788	774	824

* 출처 : CoffeeExpoSeoul2021

[표 Ⅲ-47] 서울카페쇼 개최 규모 추이

(단위 : 개,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참가사 수	617	635	426	625	672
참관객 수	148,023	155,012	72,388	108,664	120,435
부스 수	2,009	2,027	1,035	2,003	2,120

* 출처 : 서울카페쇼 홈페이지

- 서울커피엑스포의 참가자 수, 참관객 수, 부스 수 모두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2023년 기준, 230개사 참가, 43,286명 참관, 824개 부스 참여 등)
- 서울카페쇼 또한 참가사 수, 참관객 수, 부스 수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하락세를 보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022년 기준, 672개사 참가, 120,435명 참관, 2,120개 부스 참여 등)

(3) 2022 커피 축제 결과

[표 Ⅲ-48] 2022 커피 축제 현황

(단위 : 개, 명, 회)

위 치	행 사 명	참 여 업 체 수	참 관 객 수	협 찬 기 업	최 고 검 색 량
강원	강릉커피축제	180	350,000	10	23,400
	춘천커피도시페스타	50	20,000	-	-
서울	서울커피엑스포	201	30,000	-	6,330
	서울카페쇼 (서울커피페스티벌)	672	120,000	12	15,100
인천	개항카페거리 커피 페스티벌	-	-	-	-

(단위 : 개, 명, 회)

위 치	행 사 명	참 여 업 체 수	참 관 객 수	협 찬 기 업	최 고 검 색 량*
부산	영도커피페스티벌	83	100,000	-	6,290**
	전포커피축제	22	65,000	-	4,100
경기	제로웨이스트 영통커피축제	-	-	-	-
대구	대구 베이커리&카페쇼	83	-	-	1,140***
제주	제주카페스타	-	-	-	1,850****

* 출처: 블랙키위

** 최고검색량: 축제 개최 전후 한 달 동안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행사명이 검색된 횟수 중 최고치

*** ‘영도커피페스티벌’ 이 아닌 ‘영도커피축제’ 의 최고검색량

**** ‘대구 베이커리&카페쇼’ 가 아닌 ‘대구카페쇼’ 의 최고검색량

***** ‘제주카페스타’ 와 ‘제주커피박람회’ 최고검색량을 합친 값

- 2022년 국내 커피 축제는 강원 2곳, 서울 2곳, 부산 3곳, 인천, 경기, 대구, 제주 1곳에서 각각 개최됨
- 2022년 국내에서 개최된 커피 축제는 강릉 커피 축제가 참관객 수가 가장 많았고, 참여업체 기준으로는 서울 카페쇼가 가장 많음
- 서울 커피 엑스포와 영도 커피 페스티벌처럼 커피만을 주제로 하는 전문적인 축제도 있는 반면, 개항카페거리 커피페스티벌, 전포커피축제, 제로웨이스트 영통커피축제와 같이 커피 관련 이벤트 외 다양한 공연과 강연들을 결합한 축제의 형태도 존재함
- 강원, 서울, 부산의 경우 커피 전문 박람회, 커피 축제, 커피 대회 등이 함께 개최되는 경우도 존재함

(4) 국내 대표 커피 행사 검색량

[표 III-49] 국내 대표 커피 행사 검색량

(단위 : 회)

행사명	평균검색량	최고검색량	최저검색량
강릉커피축제	1,991.7	23,400	60
서울카페쇼	1,883.0	15,100	40
영도커피페스티벌	538.1	6,290	0

* 출처: 블랙키위, 2023년

* 검색량: 축제 개최 전후 한 달 동안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행사명이 검색된 횟수

- 국내 커피 행사 중 강릉 커피 축제의 평균 검색량과 최고 검색량이 각각 1,991.7회, 23,400회로 가장 높음
- 부산의 대표 커피 행사인 영도 커피 페스티벌은 전국적 규모의 축제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5) 국내 대표 커피 행사 후원사

[표 III-50] 내 대표 커피 행사 협찬사

행사명	후원사
강릉커피축제	어메이징오트 (식물성 음료 판매업체)
	플라이강원 (저비용 항공사)
	파인코리아 (온라인 종합물)
	씨엠랩 (의료기기제조판매업체)
	파인아트라벨 (호텔)
	강릉커피연구회
	커피 아카데미
	두잉 인터내셔널 (커피기기 제조판매업체)
	블렌드테크 (블렌더판매)
	토디 (콜드부루판매)
서울카페쇼	엠아이커피 (생두 수입업체)
	엠아이씨홀딩스 (커피머신 유통업체)
	대상에프앤비 (과일가공식품 및 커피 생산판매 회사)

행 사 명	후 원 사
서울커피쇼	한국주맥스 (수입음료 유통기업)
	르세떼 (프렌치 베이커리 살롱 - 신세계푸드)
	타발론 (프리미엄 티 브랜드)
	무림 (펄프 및 종이 제조판매업체)
	오진양행 (커피기기 및 주방 설비 공급업체)
	스타리온 (주방가전 공급업체)
	커피앳웍스 (커피 플래그십 프랜즈 - SPC)
	자뎡 (커피제품 판매업체)
	맥널티 (커피제품 판매업체)

* 출처: 각 축제 홈페이지

- 국내 대표 커피 축제는 커피 제조, 수입, 유통 등 다양한 커피 관련 협찬 이외에도 호텔, 베이커리, 항공사 등에서도 협찬을 받고 있음
- 커피 도시 부산을 브랜딩하고, 커피산업 관련 기업들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사개최가 필요함

3) 판매

(1) 전 세계 커피 시장 규모

[표 Ⅲ-51] 전 세계 커피 시장 규모

(단위 : 10억 달러)

발표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Verified Market Research*	-	104.2	109.2	114.5	120.0	125.8	131.9	138.3	144.9	151.9
Zion Market Research**	102.2	108.5	115.2	122.4	129.9	138.0	146.6	155.6	-	-

* 2023년 9월 발표(CARG 4.8% 적용)

** 2023년 3월 발표(CARG 6.2% 적용)

- 전 세계 커피 시장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4.8~6.2% 규모의 성장이 전망되며, 2026년~2028년까지 1,519~1,5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2) 해외 커피 생산량-소비량 차이

[표 Ⅲ-52] 해외 품종별 커피 생산량-소비량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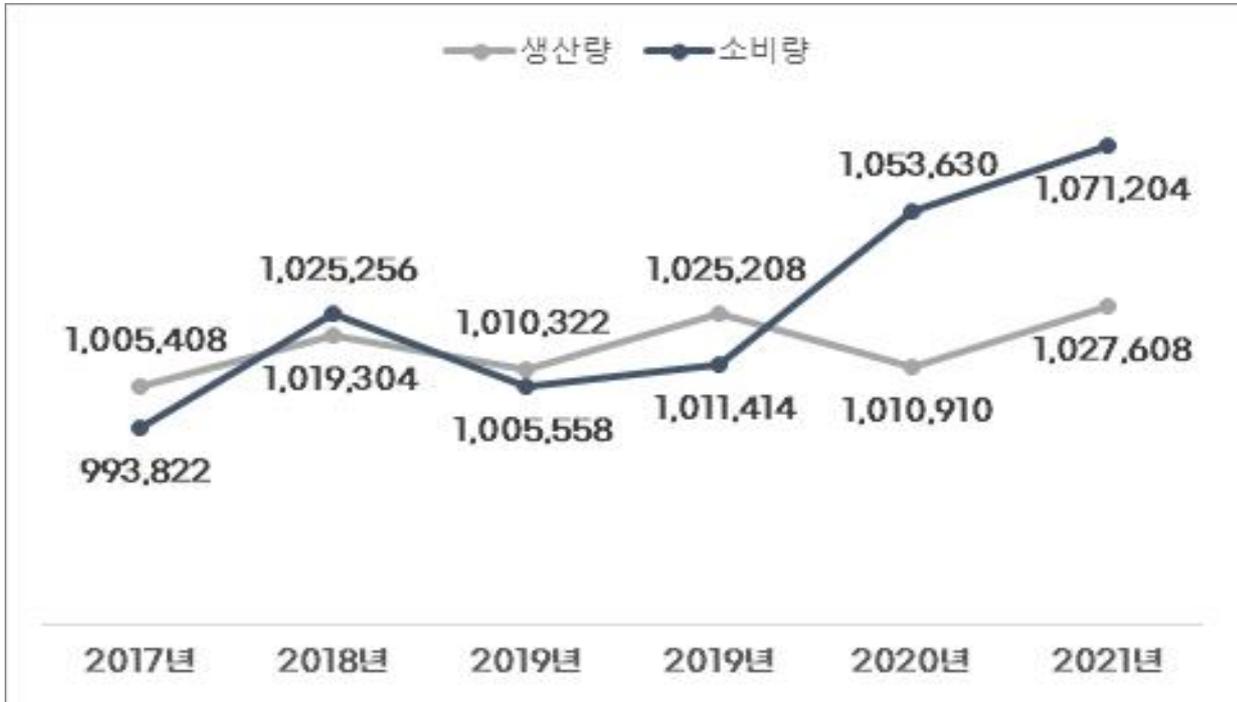
(단위 : 만 kg)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산량	아라비카	587,172	597,690	580,020	609,462	565,488	591,354
	로부스타	418,242	421,614	430,302	415,740	445,422	436,254
생산량 합계(A)		1,005,408	1,019,304	1,010,322	1,025,208	1,010,910	1,027,608
소비량 합계(B)		993,822	1,025,256	1,005,558	1,011,414	1,053,630	1,071,204
생산량(A) - 소비량(B)		11,592	-5,952	4,764	13,788	-42,720	-43,596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May 2023)

[그림 III-29] 해외 커피 생산량, 소비량 차이

(단위 : 만 kg)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May 2023)

- 해외 대표 원두 품종인 아라비카와 로수스타의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합계를 비교한 결과, 2020년까지는 생산량이 조금 앞서다가 2021년부터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넘게 되었으며, 2022년 기준으로 43,596만 kg 이상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53] 해외 대륙별 커피 생산량-소비량 차이

(단위 : 천 kg)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산량	아프리카	1,046	1,111	1,122	1,157	1,148	1,164
	아시아 & 오세아니아	3,133	2,884	2,958	2,874	3,126	2,983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1,288	1,282	1,159	1,185	1,179	1,184
	남아메리카	4,587	4,916	4,864	5,036	4,656	4,945
생산량 합계		10,054	10,193	10,103	10,252	10,109	10,276

(단위 : 천 kg)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2
소비량	아프리카	702	715	722	753	773	804
	아시아 & 오세아니아	2,329	2,374	2,352	2,477	2,570	2,650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340	348	351	353	358	367
	유럽	3,211	3,327	3,237	3,134	3,322	3,323
	북아메리카	1,796	1,907	1,835	1,814	1,901	1,925
	남아메리카	1,559	1,580	1,558	1,583	1,614	1,643
	소비량 합계	9,938	10,253	10,056	10,114	10,536	10,712
생산량 - 소비량	116	-60	48	138	-427	-436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May 2023)

- 대륙별로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해본 결과 남아메리카에서 4,945천 kg 으로 가장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역이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 소비량이 가장 높은 대륙은 유럽이며,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의 커피 소비량이 가장 낮고, 대륙별 소비량은 큰 등락이 없는 일정한 소비량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3) 국가별 커피시장 규모 및 전망

[표 Ⅲ-54] 국가별 커피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본	38,377.7	39,328.2	40,169.0	41,123.6	42,043.4
미국	26,274.4	27,648.3	29,093.1	30,694.0	32,301.0
독일	8,187.9	8,404.4	8,579.8	8,759.7	8,979.1
브라질	6,845.7	7,084.4	7,291.1	7,535.3	7,741.1
프랑스	6,653.5	6,757.0	6,832.1	6,914.4	7,044.4

* 출처 : 비티타임즈 - 2022 국내외 커피시장 산업동향 분석 보고서, Global Market Data

- 주요 국가별 커피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커피 시장이 4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미국이 323억 달러로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규모를 보임

(4) 세계 원두 수출국-수입국 소비량

[표 III-55] 세계 원두 수출국-수입국 소비량

(단위 : 천포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국	51,575	52,234	51,441	52,518	53,615	55,369
수입국	114,062	118,642	116,152	116,051	121,991	123,165
합계	165,637	170,876	167,593	168,569	175,605	178,534

* 출처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 Coffee Market Report (May 2023)

- 원두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보다 수입하는 국가에서 원두 소비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약 2배 이상), 총소비량의 합계는 1억 7천만 포대에 달함

(5) 러시아 커피시장 구성

[표 III-56] 러시아 믹스커피 및 원두커피 시장 비율(소비량 기준)

(단위 : %)

구분	2001년	2019년	증가율
믹스커피	69.0	45.0	-34.0
원두커피	31.0	55.0	24.0
합계	100.0	100.0	-

* 출처 : 식품음료신문 - 5대 커피 소비국 러시아, 원두 비중 절반...수출품 커피믹스 감소세, 2021년 11월 9일

- 러시아 믹스커피는 2001년 기준 러시아 전체 커피 시장 중 6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약 2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전체 시장의 약 45% 비중으로 점유율이 많이 감소하였음
- 원두커피 시장은 2001년에는 전체 시장의 중 31%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55% 비중으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6) 일본 믹스커피 시장 규모

[표 III-57] 일본 믹스커피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십억엔, 억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AGR
인스턴트 커피믹스	35	35	35	35	38	2%
한화추정액	3,587	3,587	3,587	3,587	3,894	
	2021년(F)	2022년(F)	2023년(F)	2024년(F)	2025년(F)	CAGR
인스턴트 커피믹스	40	39	39	40	41	1%
한화추정액	4,099	3,977	3,977	4,099	4,202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1 일본 인스턴트커피믹스 보고서(시장분석형)

- 일본 인스턴트커피 믹스 시장의 CAGR(연평균 증가율)은 감소 추세이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7) 국내 커피 시장 규모

[표 III-58] 국내 커피 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내 커피 시장 규모*	15.4	16.5	17.5	18.5	19.6

*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시장 분석예측시스템 전망치 활용

** 국내 커피 시장 : 커피 가공품(커피 함유하는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를 재료로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원두커피 + 인스턴트커피 + 커피믹스 + 커피음료 + 커피전문점 + 커피 크리머

- 2020년 기준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약 15.4조 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하여 국내 커피 시장 규모를 예측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19.6조 원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8) 국내 종류별 커피 시장 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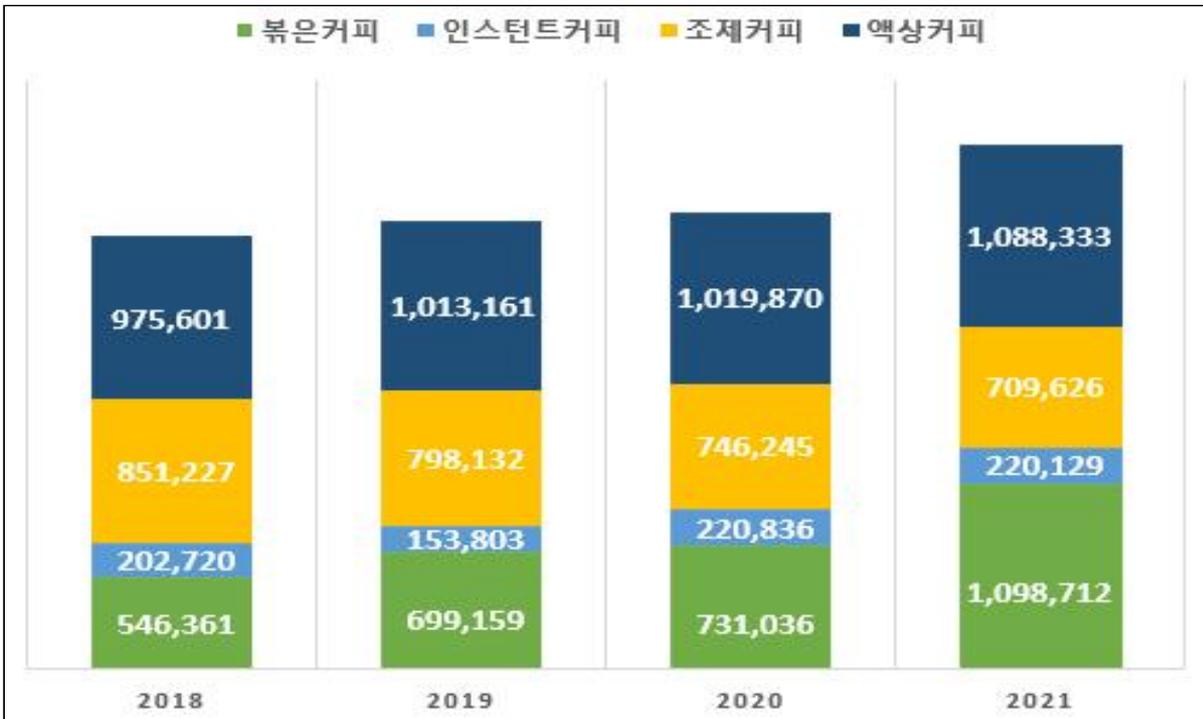
[표 III-59] 국내 종류별 커피 시장 규모 비중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볶은커피	546,361	699,159	731,036	1,098,712
인스턴트커피	202,720	153,803	220,836	220,129
조제커피	851,227	798,132	746,245	709,626
액상커피	975,601	1,013,161	1,019,870	1,088,333
합 계	2,575,909	2,664,255	2,717,987	3,116,800

[그림 III-30] 국내 종류별 커피 시장 규모 비중

(단위 : 백만원)



* 출처 :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 2023년 3월 2주 뉴스레터 - 커피

- 국내 커피 종류별 시장은 볶은 커피 - 액상커피 - 조제커피 - 인스턴트 커피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볶은 커피는 2018년 5,463억 원에서 2021년 1조 987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임

(9)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

[표 III-60]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영국
시장 규모	261	51	43	40	33

* 출처 : 각국 커피 소비량 현황, Euromonitor, 2018년

- 세계 커피전문점 시장 상위 국가는 미국이 261억 달러, 중국이 51억 달러, 한국이 43억 달러 규모로 나타남

(10)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표 III-61]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단위 : 잔)

	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	세계 평균
커피 소비량	551	367	327	280	161

* 출처 : 각국 커피 소비량 현황, Euromonitor, 2018년

-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프랑스가 551잔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고, 한국 또한 367잔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연간 커피를 소비함
- 세계 평균은 161잔으로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이 1인당 커피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커피산업 현황

(1) 전체 산업 대비 커피산업 현황 (전국)

[표 III-62]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단위 : 개, 명, %)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커피산업	78,959	236,379
커피 및 차류 도매업	1,845	7,543
커피 가공업	969	4,508
커피전문점	76,145	224,328
전체 산업	4,176,549	22,723,272
커피산업 비중	1.89%	1.04%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II-63]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단위 : 개, 명, %)

구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커피산업	89,979	278,879
커피 및 차류 도매업	1,845	7,543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 기계 제조업	893	5,346
커피 가공업	969	4,508
커피전문점	76,145	224,328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10,127	37,154
전체 산업	4,176,549	22,723,272
커피산업 비중	2.15%	1.23%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19년 기준,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의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1.89%, 종사자 수 기준 1.04%이고,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의 비중은 각각 2.15%, 1.23%임

[표 Ⅲ-64]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단위 : 개, 명, %)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커피산업	95,347	224,439
커피 및 차류 도매업	3,778	9,917
커피 가공업	1,677	5,586
커피전문점	89,892	208,936
전체 산업	6,032,022	24,813,449
커피산업 비중	1.58%	0.9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Ⅲ-65]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단위 : 개, 명, %)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커피산업	110,044	269,312
커피 및 차류 도매업	3,778	9,917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 기계 제조업	1,205	5,399
커피 가공업	1,677	5,586
커피전문점	89,892	208,936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13,492	39,474
전체 산업	6,032,022	24,813,449
커피산업 비중	1.82%	1.0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기준,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의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1.58%, 종사자 수 기준 0.90%이고,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의 비중은 각각 1.82%, 1.09%로, 전년 대비 감소함

[표 III-66]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단위 : 개, 명, %)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커피산업	101,606	254,373
커피 및 차류 도매업	3,372	9,744
커피 가공업	1,797	5,780
커피전문점	96,437	238,849
전체 산업	6,079,702	24,931,600
커피산업 비중	1.67%	1.02%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II-67]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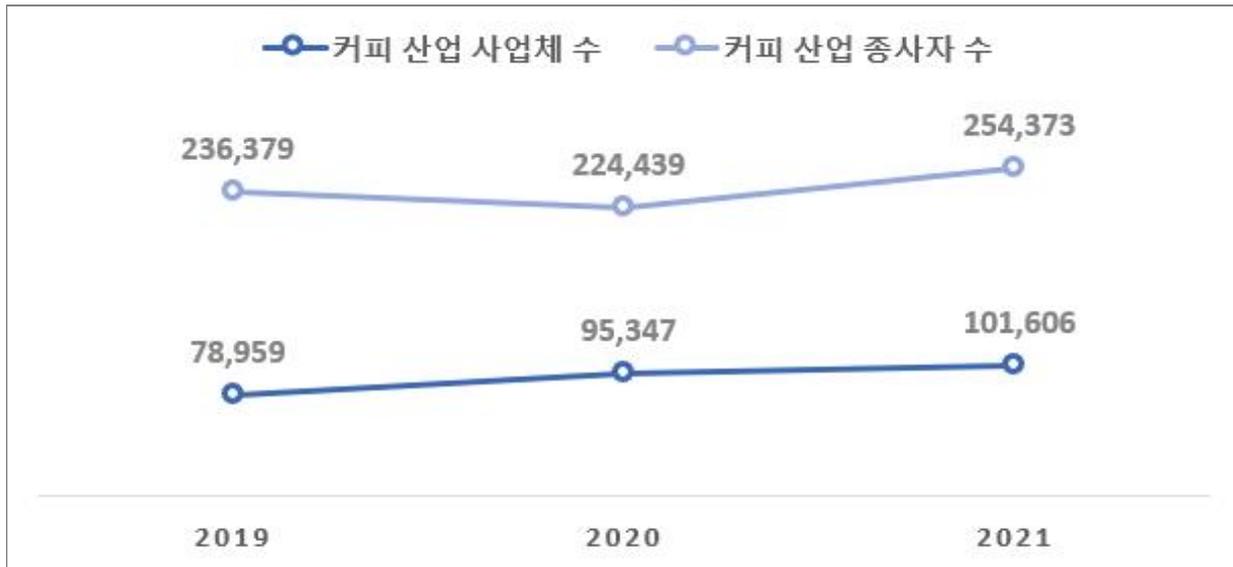
(단위 : 개, 명, %)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커피산업	118,299	301,552
커피 및 차류 도매업	3,372	9,744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 기계 제조업	1,189	5,181
커피 가공업	1,797	5,780
커피전문점	96,437	238,84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15,504	41,998
전체 산업	6,079,702	24,931,600
커피산업 비중	1.95%	1.21%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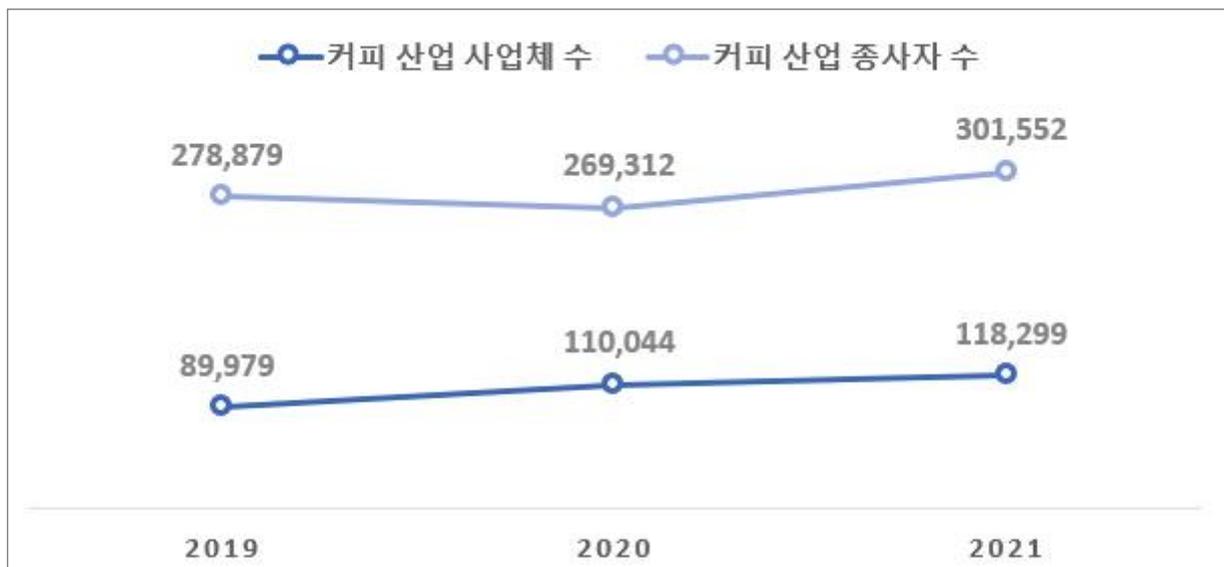
- 2021년 기준,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의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1.67%, 종사자 수 기준 1.02%이고,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의 비중은 각각 1.95%, 1.21%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함

[그림 Ⅲ-31] 협의 커피산업 규모(사업체, 종사자) 추이 (단위 : 개, 명)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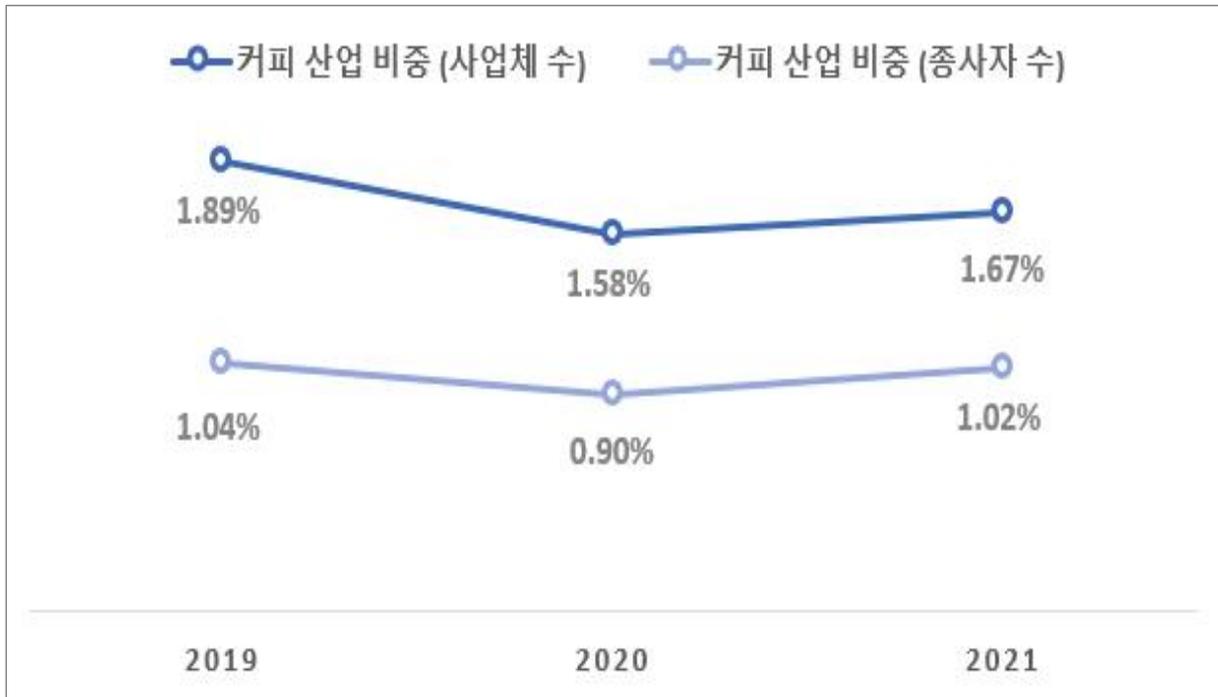
[그림 Ⅲ-32] 광의 커피산업 규모(사업체, 종사자) 추이 (단위 : 개, 명)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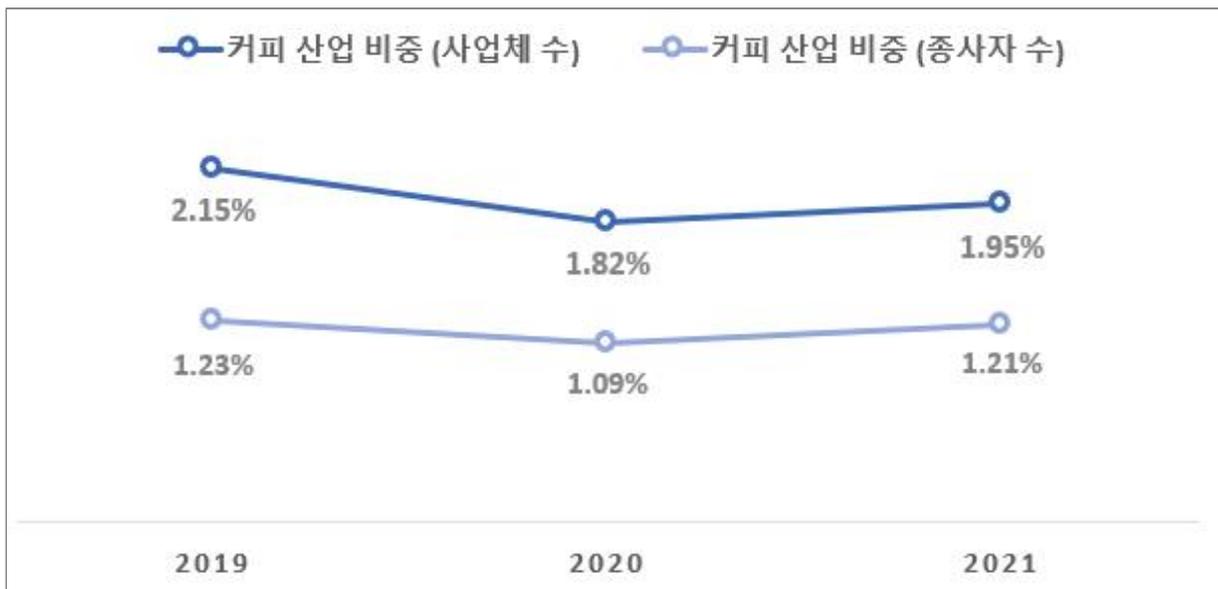
- 2019년 ~ 2021년 커피산업 내 사업체 수는 3년 내내 증가한 반면, 커피 산업 내 종사자 수는 2020년 잠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함

[그림 III-33] 협의 커피산업 비중(사업체, 종사자) 추이 (단위 :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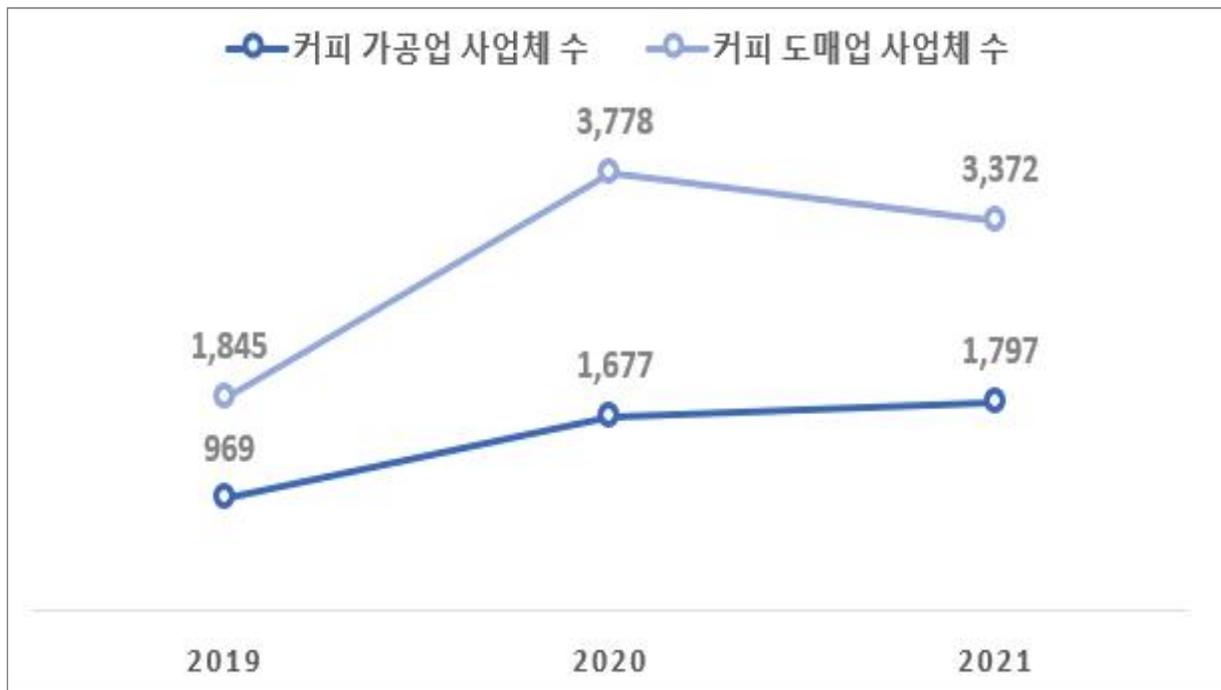
[그림 III-34] 광의 커피산업 비중(사업체, 종사자) 추이 (단위 :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19년 ~ 2021년 전체 산업 내 커피산업 비중은 2020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회복하였으나, 2019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 2019년 ~ 2021년 커피산업 내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중 커피산업 비중(사업체 수 기준)은 2020년에 다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다시 증가함

[그림 III-35] 커피 가공업 및 도매업 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 커피 가공업과 도매업, 모두 2020년까지는 전년 대비 사업체수가 증가하였으나, 도매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2021년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가공업 사업체 수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III-68]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단위 : 개, 명, %)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협의 커피산업 합계	전국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1,499	767	62,457	64,723	3,322,812	1.95%
5-9	211	142	10,415	10,768	511,446	2.11%
10-19	86	34	3,113	3,233	187,627	1.72%
20-49	39	17	155	211	102,986	0.20%
50-99	7	5	4	16	32,315	0.05%
100-299	2	4	1	7	15,232	0.05%
300-499	1	0	0	1	2,102	0.05%
500-999	0	0	0	0	1,310	0.00%
1,000 이상	0	0	0	0	719	0.00%
합 계	1,845	969	76,145	78,959	4,176,549	1.8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각 산업 사업체 수 표기

- 2019년 협의 커피산업의 사업체들의 규모는 대부분 1~4명의 종사자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체임
- 협의 커피산업 중 유일하게 도매업에서만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체가 존재함
- 전체 사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은 1.89%로 매우 낮은 수준임

[표 Ⅲ-69]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단위 : 개, 명, %)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광의 커피산업 합계	전국 산업 전체	커피산 업 비중
1-4	1,499	557	767	62,457	7,867	73,147	3,322,812	2.20%
5-9	211	221	142	10,415	1,562	12,551	511,446	2.45%
10-19	86	73	34	3,113	509	3,815	187,627	2.03%
20-49	39	34	17	155	160	405	102,986	0.39%
50-99	7	5	5	4	20	41	32,315	0.13%
100-299	2	3	4	1	9	19	15,232	0.12%
300-499	1	0	0	0	0	1	2,102	0.05%
500-999	0	0	0	0	0	0	1,310	0.00%
1,000 이상	0	0	0	0	0	0	719	0.00%
합 계	1,845	893	969	76,145	10,127	89,979	4,176,549	2.15%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각 산업 사업체 수 표기

- 협의 커피산업뿐만 아니라, 광의 커피산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 기계 제조업과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관련 산업을 포함한 광의 커피산업의 비중은 전체 산업 대비 2.15%로 높지 않은 수준임

[표 III-70]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단위 : 개, 명, %)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협의 커피산업 합계	전국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3,413	1,458	78,686	83,557	5,214,101	1.60%
5-9	225	143	8,627	8,995	476,422	1.89%
10-19	85	47	2,441	2,573	185,243	1.39%
20-49	45	20	129	194	102,524	0.19%
50-99	7	5	8	20	33,239	0.06%
100-299	2	4	1	7	15,969	0.04%
300-499	1	0	0	1	2,279	0.04%
500-999	0	0	0	0	1,370	0.00%
1,000 이상	0	0	0	0	875	0.00%
합 계	3,778	1,677	89,892	95,347	6,032,022	1.58%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각 산업 사업체 수 표기

- 전체 사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은 1.58%로 전년(1.89%) 대비 0.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협의 커피 관련 모든 산업의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체 사업의 상승 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Ⅲ-71]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단위 : 개, 명, %)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광의 커피산업 합계	전국 산업 전체	커피산 업 비중
1-4	3,413	886	1,458	78,686	11,434	95,877	5,214,101	1.84%
5-9	225	206	143	8,627	1,418	10,619	476,422	2.23%
10-19	85	76	47	2,441	460	3,109	185,243	1.68%
20-49	45	30	20	129	142	366	102,524	0.36%
50-99	7	5	5	8	25	50	33,239	0.15%
100-299	2	2	4	1	12	21	15,969	0.13%
300-499	1	0	0	0	1	2	2,279	0.09%
500-999	0	0	0	0	0	0	1,370	0.00%
1,000 이상	0	0	0	0	0	0	875	0.00%
합 계	3,778	1,205	1,677	89,892	13,492	110,044	6,032,022	1.82%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각 산업 사업체 수 표기

-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 사업의 비중도 1.82%로 전년(2.15%) 대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산업 대비 상대적인 증가 폭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72]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단위 : 개, 명, %)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협의 커피산업 합계	전국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2,996	1,567	82,798	87,361	5,251,614	1.66%
5-9	234	159	10,531	10,924	475,472	2.30%
10-19	86	37	2,946	3,069	192,729	1.59%
20-49	46	23	156	225	106,597	0.21%
50-99	6	8	6	20	33,381	0.06%
100-299	3	3	0	6	15,505	0.04%
300-499	1	0	0	1	2,239	0.04%
500-999	0	0	0	0	1,313	0.00%
1,000 이상	0	0	0	0	852	0.00%
합 계	3,372	1,797	96,437	101,606	6,079,702	1.67%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각 산업 사업체 수 표기

- 전체 사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이 1.67%로 전년(1.58%) 대비 0.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커피 가공업(1,797개)과 커피전문점(96,437개) 수는 전년(각 1,677개, 89,892개) 대비 증가하였으나, 커피 및 차류 도매업 부분 사업체 수는 (3,372개) 전년(3,778개)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73]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전국)

(단위 : 개, 명, %)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광의 커피산업 합계	전국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2,996	887	1,567	82,798	13,498	101,746	5,251,614	1.94%
5-9	234	187	159	10,531	1,340	12,451	475,472	2.62%
10-19	86	76	37	2,946	494	3,639	192,729	1.89%
20-49	46	32	23	156	135	392	106,597	0.37%
50-99	6	6	8	6	28	54	33,381	0.16%
100-299	3	1	3	0	7	14	15,505	0.09%
300-499	1	0	0	0	1	2	2,239	0.09%
500-999	0	0	0	0	1	1	1,313	0.08%
1,000이상	0	0	0	0	0	0	852	0.00%
합 계	3,372	1,189	1,797	96,437	15,504	118,299	6,079,702	1.95%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각 산업 사업체 수 표기

-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 사업의 비중은 1.95%로 전년(1.82%) 대비 0.13%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 기계 제조업 관련 사업체 수는 감소하였으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관련 사업체 수는 전년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00명 이상 구성원의 근무하는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관련 사업체도 새롭게 나타남

(2) 전체 산업 대비 커피산업 현황 (지자체별)

[표 III-74]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424	168	16,255	16,847	823,624	2.05%
부산	151	60	4,807	5,018	290,357	1.73%
대구	91	37	3,707	3,835	210,944	1.82%
인천	68	35	3,728	3,831	206,244	1.86%
광주	72	31	2,662	2,765	123,706	2.24%
대전	77	25	2,787	2,889	119,628	2.41%
울산	32	4	1,599	1,635	87,054	1.88%
세종	4	2	490	496	18,041	2.75%
경기	450	391	16,951	17,792	934,349	1.90%
강원	52	52	2,883	2,987	146,815	2.03%
충북	41	21	2,256	2,318	133,522	1.74%
충남	59	28	2,710	2,797	176,643	1.58%
전북	48	31	2,645	2,724	154,082	1.77%
전남	54	12	2,508	2,574	161,883	1.59%
경북	76	31	3,755	3,862	236,807	1.63%
경남	114	39	4,696	4,849	286,752	1.69%
제주	32	2	1,706	1,740	66,098	2.63%
전국 (합계)	1,845	969	76,145	78,959	4,176,549	1.8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Ⅲ-75]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424	88	168	16,255	1,914	18,849	823,624	2.29%
부산	151	62	60	4,807	723	5,803	290,357	2.00%
대구	91	82	37	3,707	573	4,490	210,944	2.13%
인천	68	39	35	3,728	491	4,361	206,244	2.11%
광주	72	28	31	2,662	440	3,233	123,706	2.61%
대전	77	28	25	2,787	378	3,295	119,628	2.75%
울산	32	3	4	1,599	264	1,902	87,054	2.18%
세종	4	2	2	490	68	566	18,041	3.14%
경기	450	371	391	16,951	2,150	20,313	934,349	2.17%
강원	52	6	52	2,883	390	3,383	146,815	2.30%
충북	41	21	21	2,256	304	2,643	133,522	1.98%
충남	59	27	28	2,710	380	3,204	176,643	1.81%
전북	48	21	31	2,645	389	3,134	154,082	2.03%
전남	54	8	12	2,508	351	2,933	161,883	1.81%
경북	76	50	31	3,755	508	4,420	236,807	1.87%
경남	114	55	39	4,696	685	5,589	286,752	1.95%
제주	32	2	2	1,706	119	1,861	66,098	2.82%
전국 (합계)	1,845	893	969	76,145	10,127	89,979	4,176,549	2.15%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19년 지자체별 커피산업 비중은 세종(협의: 2.75%, 광의: 3.14%), 제주(협의: 2.63%, 광의: 2.82%), 대전(협의: 2.41%, 광의: 2.75%) 순으로 높음
- 2019년 부산 커피산업 비중은(협의: 1.73%, 광의: 2.00%) 전국 평균(협의: 1.89%, 광의: 2.15%)보다 낮음

[표 III-76]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891	298	18,714	19,903	1,211,053	1.64%
부산	294	104	5,669	6,067	402,003	1.51%
대구	174	68	4,270	4,512	283,033	1.59%
인천	143	62	4,477	4,682	306,108	1.53%
광주	151	51	3,053	3,255	170,085	1.91%
대전	129	57	3,190	3,376	164,406	2.05%
울산	61	16	1,863	1,940	117,247	1.65%
세종	17	6	585	608	28,490	2.13%
경기	942	611	20,158	21,711	1,455,644	1.49%
강원	112	74	3,375	3,561	193,074	1.84%
충북	84	29	2,708	2,821	191,265	1.47%
충남	111	46	3,348	3,505	253,192	1.38%
전북	110	63	3,134	3,307	225,964	1.46%
전남	91	26	3,093	3,210	228,219	1.41%
경북	143	63	4,431	4,637	321,061	1.44%
경남	259	82	5,735	6,076	387,177	1.57%
제주	66	21	2,089	2,176	94,001	2.31%
전국 (합계)	3,778	1,677	89,892	95,347	6,032,022	1.58%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Ⅲ-77]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891	102	298	18,714	2,718	22,723	1,211,053	1.88%
부산	294	66	104	5,669	888	7,021	402,003	1.75%
대구	174	103	68	4,270	712	5,327	283,033	1.88%
인천	143	52	62	4,477	645	5,379	306,108	1.76%
광주	151	35	51	3,053	518	3,808	170,085	2.24%
대전	129	39	57	3,190	470	3,885	164,406	2.36%
울산	61	5	16	1,863	317	2,262	117,247	1.93%
세종	17	3	6	585	103	714	28,490	2.51%
경기	942	512	611	20,158	3003	25,226	1,455,644	1.73%
강원	112	13	74	3,375	479	4,053	193,074	2.10%
충북	84	41	29	2,708	416	3,278	191,265	1.71%
충남	111	42	46	3,348	557	4,104	253,192	1.62%
전북	110	23	63	3,134	516	3,846	225,964	1.70%
전남	91	18	26	3,093	430	3,658	228,219	1.60%
경북	143	78	63	4,431	615	5,330	321,061	1.66%
경남	259	68	82	5,735	879	7,023	387,177	1.81%
제주	66	5	21	2,089	226	2,407	94,001	2.56%
전국 (합계)	3,778	1,205	1,677	89,892	13,492	110,044	6,032,022	1.82%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지자체별 커피산업 비중은 제주(협의: 2.31%, 광의: 2.56%), 세종(협의: 2.13%, 광의: 2.51%), 대전(협의: 2.05%, 광의: 2.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 커피산업 비중은(협의: 1.51%, 광의: 1.75%) 전국 평균보다(협의: 1.56%, 광의: 1.82%)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78]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767	300	19,200	20,267	1,188,091	1.71%
부산	263	111	6,213	6,587	401,254	1.64%
대구	154	65	4,566	4,785	279,798	1.71%
인천	123	67	4,857	5,047	308,892	1.63%
광주	139	60	3,168	3,367	170,973	1.97%
대전	113	62	3,303	3,478	164,095	2.12%
울산	44	16	2,035	2,095	115,408	1.82%
세종	12	9	684	705	30,478	2.31%
경기	855	636	21,805	23,296	1,481,054	1.57%
강원	111	81	3,704	3,896	200,365	1.94%
충북	83	41	2,991	3,115	194,561	1.60%
충남	116	50	3,684	3,850	261,263	1.47%
전북	95	69	3,387	3,551	231,380	1.53%
전남	89	33	3,403	3,525	234,688	1.50%
경북	128	76	4,883	5,087	328,657	1.55%
경남	217	96	6,295	6,608	392,614	1.68%
제주	63	25	2,259	2,347	96,131	2.44%
전국 (합계)	3,372	1,797	96,437	101,606	6,079,702	1.67%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Ⅲ-79]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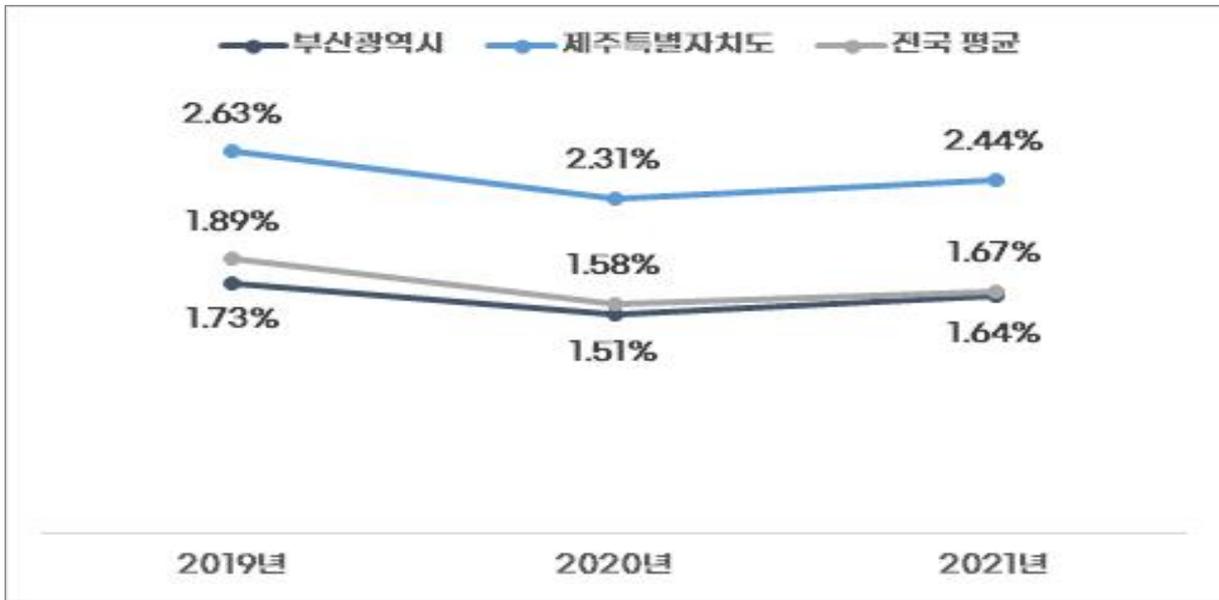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767	97	300	19,200	2,967	23,331	1,188,091	1.96%
부산	263	65	111	6,213	1,035	7,687	401,254	1.92%
대구	154	99	65	4,566	804	5,688	279,798	2.03%
인천	123	50	67	4,857	729	5,826	308,892	1.89%
광주	139	37	60	3,168	571	3,975	170,973	2.32%
대전	113	39	62	3,303	525	4,042	164,095	2.46%
울산	44	5	16	2,035	376	2,476	115,408	2.15%
세종	12	2	9	684	127	834	30,478	2.74%
경기	855	518	636	21,805	3,581	27,395	1,481,054	1.85%
강원	111	14	81	3,704	596	4,506	200,365	2.25%
충북	83	41	41	2,991	464	3,620	194,561	1.86%
충남	116	35	50	3,684	685	4,570	261,263	1.75%
전북	95	25	69	3,387	595	4,171	231,380	1.80%
전남	89	19	33	3,403	500	4,044	234,688	1.72%
경북	128	78	76	4,883	709	5,874	328,657	1.79%
경남	217	61	96	6,295	1,004	7,673	392,614	1.95%
제주	63	4	25	2,259	236	2,587	96,131	2.69%
전국 (합계)	3,372	1,189	1,797	96,437	15,504	118,299	6,079,702	1.95%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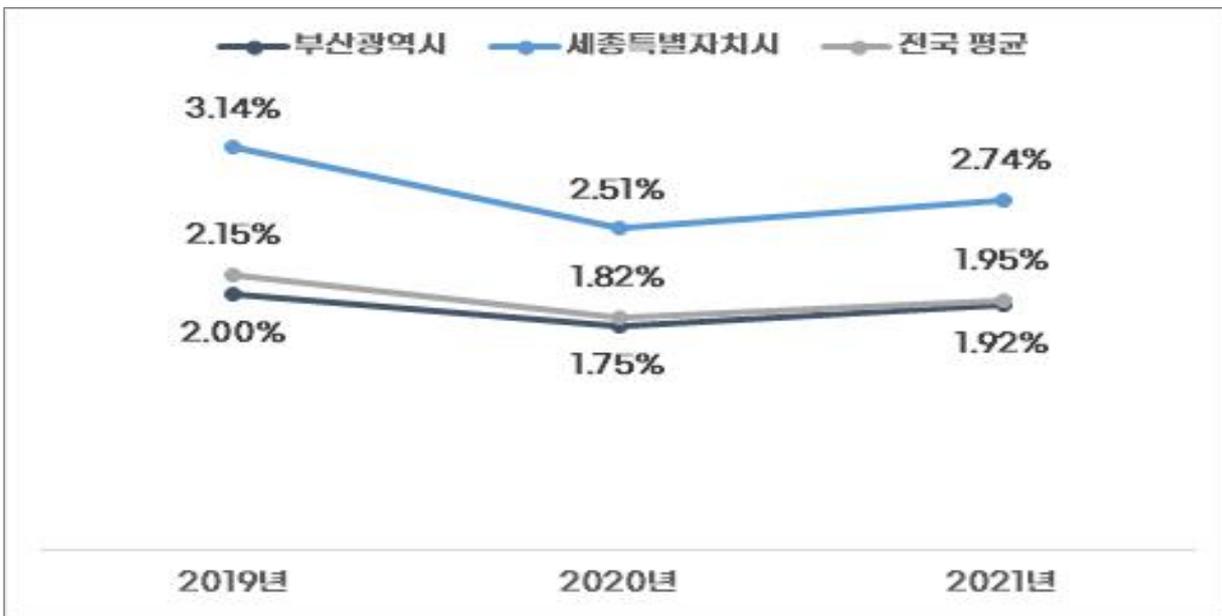
- 2021년 지자체별 커피산업 비중은 협의 커피는 제주(2.44%), 세종(2.31%), 대전(2.12%) 순이고, 광의 커피는 세종(2.74%), 제주(2.69%), 대전(2.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산 커피산업 비중은(협의: 1.64%, 광의: 1.92%) 전국 평균보다(협의: 1.67%, 광의: 1.95%)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6] 부산-제주-전국 협의 커피산업 비중 비교 (사업체 수 기준) (단위 :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II-37] 부산-세종-전국 광의 커피산업 비중 비교 (사업체 수 기준) (단위 :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모든 지자체의 커피산업 비중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커피 관련 사업체 수의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각 지자체 전체 사업체 수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임

-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부산 커피산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전국 세 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80]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단위 : 명, %)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2,879	435	57,322	60,636	5,226,997	1.16%
부산	516	172	15,177	15,865	1,465,433	1.08%
대구	278	92	10,451	10,821	967,934	1.12%
인천	253	370	11,022	11,645	1,092,494	1.07%
광주	202	101	8,031	8,334	631,876	1.32%
대전	229	93	7,631	7,953	633,418	1.26%
울산	77	15	4,275	4,367	533,187	0.82%
세종	4	X**	1,461	1,465	125,410	1.17%
경기	1,890	1,604	51,271	54,765	5,302,740	1.03%
강원	149	277	7,223	7,649	670,247	1.14%
충북	121	377	5,562	6,060	741,452	0.82%
충남	166	273	7,060	7,499	973,944	0.77%
전북	121	134	6,800	7,055	720,052	0.98%
전남	109	29	6,135	6,273	774,294	0.81%
경북	206	174	8,996	9,376	1,150,047	0.82%
경남	232	351	11,583	12,166	1,427,443	0.85%
제주	111	X**	4,328	4,439	286,304	1.55%
전국 (합계)	7,543	4,508	224,328	236,379	22,723,272	1.04%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지자체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지자체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표 III-81]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단위 :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2,879	388	435	57,322	9,774	70,798	5,226,997	1.35%
부산	516	359	172	15,177	2,884	19,108	1,465,433	1.30%
대구	278	417	92	10,451	2,116	13,354	967,934	1.38%
인천	253	302	370	11,022	1,914	13,861	1,092,494	1.27%
광주	202	79	101	8,031	1,646	10,059	631,876	1.59%
대전	229	101	93	7,631	1,362	9,416	633,418	1.49%
울산	77	4	15	4,275	769	5,140	533,187	0.96%
세종	4	X**	X**	1,461	143	1,608	125,410	1.28%
경기	1,890	2,724	1,604	51,271	7,553	65,042	5,302,740	1.23%
강원	149	18	277	7,223	824	8,491	670,247	1.27%
충북	121	79	377	5,562	895	7,034	741,452	0.95%
충남	166	137	273	7,060	1,168	8,804	973,944	0.90%
전북	121	79	134	6,800	1,349	8,483	720,052	1.18%
전남	109	41	29	6,135	1,030	7,344	774,294	0.95%
경북	206	325	174	8,996	1,451	11,152	1,150,047	0.97%
경남	232	228	351	11,583	2,003	14,397	1,427,443	1.01%
제주	111	X**	X**	4,328	273	4,712	286,304	1.65%
전국 (합계)	7,543	5,346	4,508	224,328	37,154	278,879	22,723,272	1.23%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지자체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지자체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 2019년 지자체별 커피산업 종사자 비중은 제주(협의: 1.55%, 광의: 1.65%), 광주(협의: 1.32%, 광의: 1.59%), 대전(협의: 1.26%, 광의: 1.4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9년 부산 커피산업 종사자 비중은(협의: 1.08%, 광의: 1.30%) 전국 평균보다는(협의: 1.04%, 광의: 1.23%)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82]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단위 :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3,504	632	51,299	55,435	5,868,926	0.94%
부산	681	248	13,851	14,780	1,537,281	0.96%
대구	371	123	9,719	10,213	1,010,557	1.01%
인천	308	326	10,337	10,971	1,208,269	0.91%
광주	332	130	7,101	7,563	667,435	1.13%
대전	276	137	6,817	7,230	691,264	1.05%
울산	104	31	3,865	4,000	543,424	0.74%
세종	23	19	1,387	1,429	139,731	1.02%
경기	2,571	2,061	48,090	52,722	5,886,850	0.90%
강원	207	325	7,039	7,571	704,983	1.07%
충북	162	387	5,349	5,898	808,018	0.73%
충남	217	335	6,988	7,540	1,064,810	0.71%
전북	211	158	6,258	6,627	794,929	0.83%
전남	145	39	6,099	6,283	847,692	0.74%
경북	268	175	8,692	9,135	1,225,829	0.75%
경남	395	423	11,390	12,208	1,494,560	0.82%
제주	142	37	4,655	4,834	318,891	1.52%
전국 (합계)	9,917	5,586	208,936	224,439	24,813,449	0.9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II-83]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단위 :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3,504	374	632	51,299	10,894	66,703	5,868,926	1.14%
부산	681	333	248	13,851	2,751	17,864	1,537,281	1.16%
대구	371	406	123	9,719	2,069	12,688	1,010,557	1.26%
인천	308	197	326	10,337	2,148	13,316	1,208,269	1.10%
광주	332	81	130	7,101	1,700	9,344	667,435	1.40%
대전	276	128	137	6,817	1,303	8,661	691,264	1.25%
울산	104	5	31	3,865	731	4,736	543,424	0.87%
세종	23	3	19	1,387	238	1,670	139,731	1.20%
경기	2,571	2,821	2,061	48,090	7,922	63,465	5,886,850	1.08%
강원	207	35	325	7,039	900	8,506	704,983	1.21%
충북	162	111	387	5,349	891	6,900	808,018	0.85%
충남	217	164	335	6,988	1,384	9,088	1,064,810	0.85%
전북	211	64	158	6,258	1,354	8,045	794,929	1.01%
전남	145	55	39	6,099	1,134	7,472	847,692	0.88%
경북	268	365	175	8,692	1,507	11,007	1,225,829	0.90%
경남	395	238	423	11,390	2,129	14,575	1,494,560	0.98%
제주	142	19	37	4,655	419	5,272	318,891	1.65%
전국 (합계)	9,917	5,399	5,586	208,936	39,474	269,312	24,813,449	1.0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지자체별 커피산업 종사자 비중은 협의 커피는 제주(1.52%), 광주(1.13%), 강원(1.07%) 순이고, 광의 커피는 제주(1.65%), 광주(1.40%), 대구(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산은(협의: 0.96%, 광의: 1.16%) 전국 평균보다는(협의: 0.90%, 광의: 1.09%)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들의 커피산업 종사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제주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표 Ⅲ-84]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단위 : 명, %)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3,642	591	56,685	60,918	5,771,226	1.06%
부산	737	270	16,935	17,942	1,544,504	1.16%
대구	370	110	11,118	11,598	1,004,563	1.15%
인천	273	395	12,239	12,907	1,223,448	1.05%
광주	327	134	7,786	8,247	676,261	1.22%
대전	283	129	7,525	7,937	688,457	1.15%
울산	79	28	4,541	4,648	543,984	0.85%
세종	18	23	1,817	1,858	152,974	1.21%
경기	2,325	2,168	55,689	60,182	5,994,570	1.00%
강원	210	304	8,022	8,536	714,310	1.19%
충북	143	410	6,252	6,805	817,324	0.83%
충남	232	347	7,699	8,278	1,082,844	0.76%
전북	185	128	7,069	7,382	791,096	0.93%
전남	134	51	7,045	7,230	856,478	0.84%
경북	243	204	9,793	10,240	1,234,314	0.83%
경남	390	436	13,543	14,369	1,511,931	0.95%
제주	153	52	5,091	5,296	323,316	1.64%
전국 (합계)	9,744	5,780	238,849	254,373	24,931,600	1.02%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II-85]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지자체)

(단위 :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서울	3,642	322	591	56,685	11,856	73,096	5,771,226	1.27%
부산	737	313	270	16,935	2,878	21,133	1,544,504	1.37%
대구	370	427	110	11,118	2,186	14,211	1,004,563	1.41%
인천	273	176	395	12,239	2,182	15,265	1,223,448	1.25%
광주	327	80	134	7,786	1,514	9,841	676,261	1.46%
대전	283	117	129	7,525	1,325	9,379	688,457	1.36%
울산	79	8	28	4,541	821	5,477	543,984	1.01%
세종	18	X**	23	1,817	231	2,089	152,974	1.37%
경기	2,325	2,708	2,168	55,689	8,791	71,681	5,994,570	1.20%
강원	210	40	304	8,022	1,041	9,617	714,310	1.35%
충북	143	111	410	6,252	1,012	7,928	817,324	0.97%
충남	232	158	347	7,699	1,529	9,965	1,082,844	0.92%
전북	185	63	128	7,069	1,344	8,789	791,096	1.11%
전남	134	65	51	7,045	1,117	8,412	856,478	0.98%
경북	243	366	204	9,793	1,505	12,111	1,234,314	0.98%
경남	390	206	436	13,543	2,257	16,832	1,511,931	1.11%
제주	153	19	52	5,091	409	5,724	323,316	1.77%
전국 (합계)	9,744	5,181	5,780	238,849	41,998	301,552	24,931,600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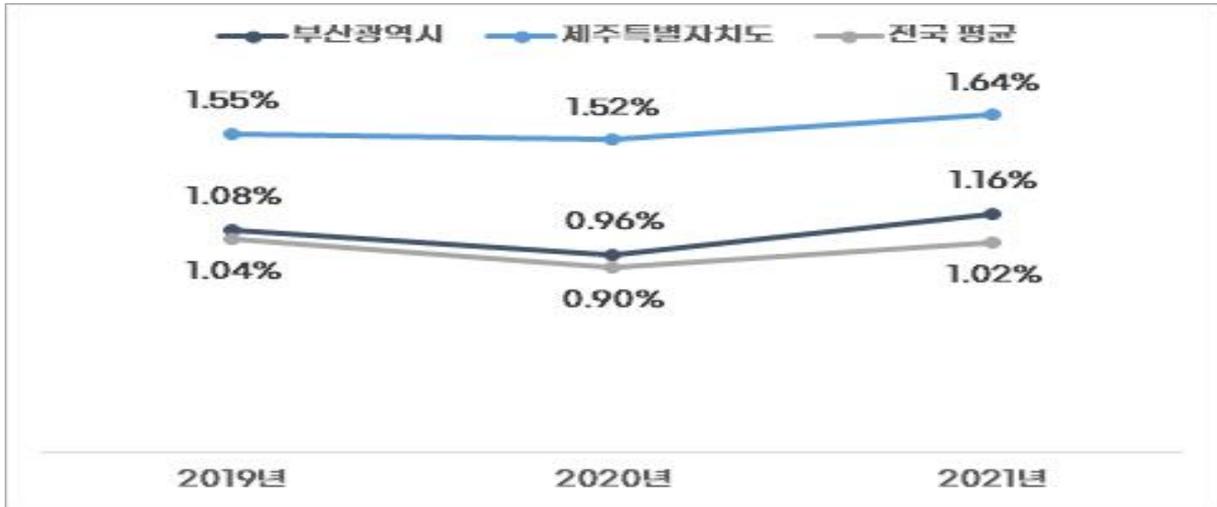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지자체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지자체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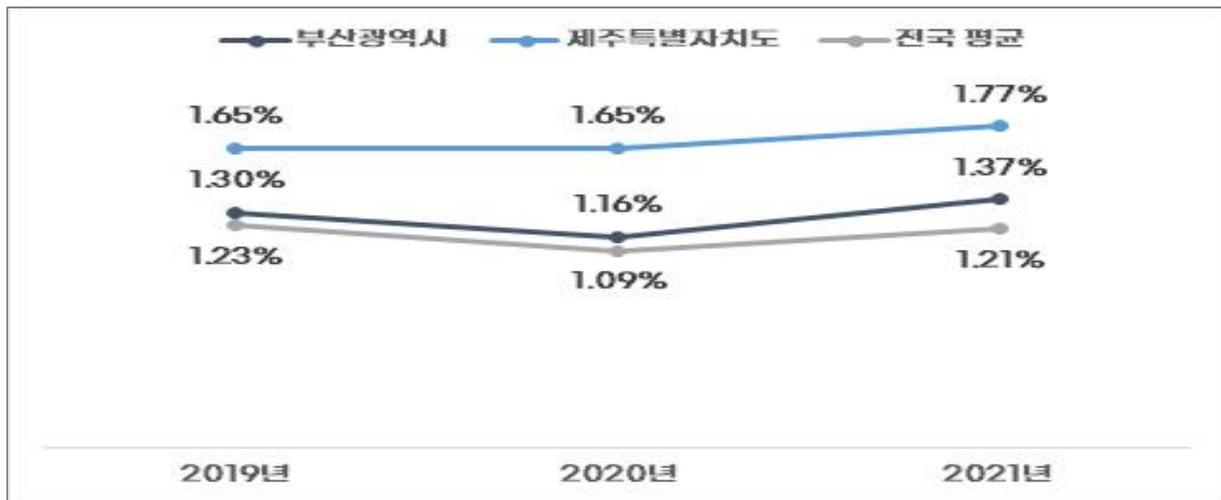
- 2021년 지자체별 커피산업 종사자 비중은 협의 커피는 제주(1.64%), 광주(1.22%), 강원(1.19%) 순이고, 광의 커피는 제주(1.77%), 광주(1.46%), 대구(1.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산은(협의: 1.16%, 광의: 1.37%) 전국 평균 보다는(협의: 1.02%, 광의: 1.21%)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8] 부산-제주-전국 협의 커피산업 비중 비교 (종사자 수 기준) (단위 :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II-39] 부산-제주-전국 광의 커피산업 비중 비교 (종사자 수 기준) (단위 :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최근 3년(2019년~2021년) 전국 지자체 커피산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남
- 2020년 전국 커피산업 종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증가한 반면, 커피산업 종사자 수는 감소했기 때문임
- 최근 3년(2019년~2021년) 부산 커피산업 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86] 2019년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 (지자체)

(단위 : 개, %)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생두 수입 후 지자체 내 로스팅 비율
서울	424	168	39.62%
부산	151	60	39.74%
대구	91	37	40.66%
인천	68	35	51.47%
광주	72	31	43.06%
대전	77	25	32.47%
울산	32	4	12.50%
세종	4	2	50.00%
경기	450	391	86.89%
강원	52	52	100.00%
충북	41	21	51.22%
충남	59	28	47.46%
전북	48	31	64.58%
전남	54	12	22.22%
경북	76	31	40.79%
경남	114	39	34.21%
제주	32	2	6.25%
전국 (합계)	1,845	969	52.52%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국내 도매업체들이 생두를 수입한 이후 해당 생두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로스팅되고 있는지를 나타냄.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로 계산함

- 2019년 지자체 중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며, 강원은 생두 수입 도매업체 수와 이를 로스팅하는 가공업체 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부산의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전국 평균 52.52%보다 낮은 39.74%로, 부산 내 커피 도매업 사업체 수에 비해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가 국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는 경기(391개), 서울(168개), 부산(60개), 강원(52개)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87] 2020년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 (지자체)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생두 수입 후 지자체 내 로스팅 비율
서울	891	298	33.45%
부산	294	104	35.37%
대구	174	68	39.08%
인천	143	62	43.36%
광주	151	51	33.77%
대전	129	57	44.19%
울산	61	16	26.23%
세종	17	6	35.29%
경기	942	611	64.86%
강원	112	74	66.07%
충북	84	29	34.52%
충남	111	46	41.44%
전북	110	63	57.27%
전남	91	26	28.57%
경북	143	63	44.06%
경남	259	82	31.66%
제주	66	21	31.82%
전국 (합계)	3,778	1,677	44.3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국내 도매업체들이 생두를 수입한 이후 해당 생두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로스팅되고 있는지를 나타냄.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로 계산함

- 2020년 전국 지자체 중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강원인(66.07%)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부산의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전국 평균인 44.39%보다 낮은 35.37%인 것으로 나타남
-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는 경기(611개), 서울(298개), 부산(104개), 경남(82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표 III-88] 2021년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 (지자체)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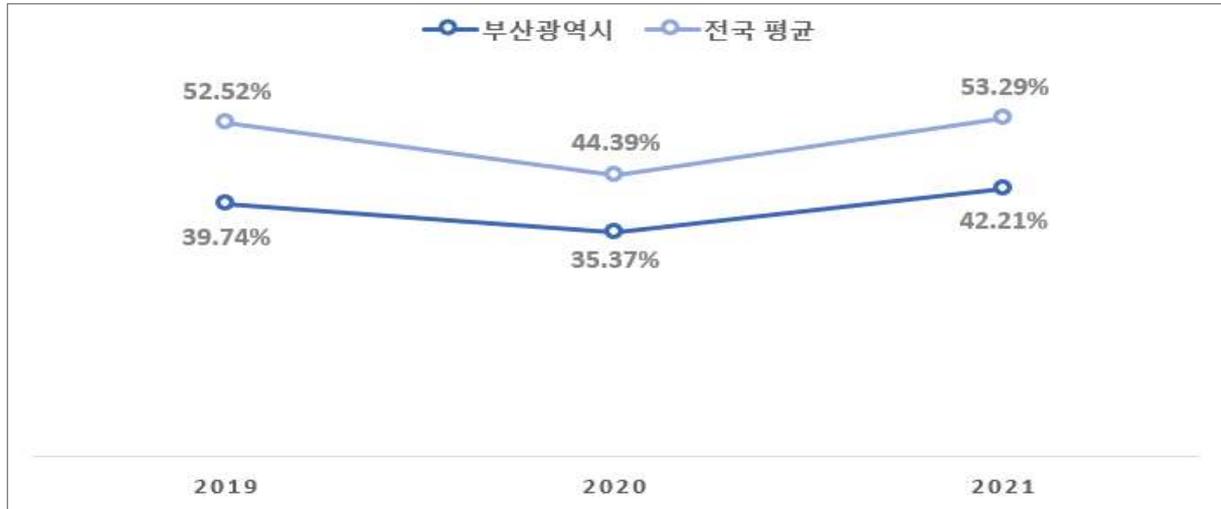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생두 수입 후 지자체 내 로스팅 비율
서울	767	300	39.11%
부산	263	111	42.21%
대구	154	65	42.21%
인천	123	67	54.47%
광주	139	60	43.17%
대전	113	62	54.87%
울산	44	16	36.36%
세종	12	9	75.00%
경기	855	636	74.39%
강원	111	81	72.97%
충북	83	41	49.40%
충남	116	50	43.10%
전북	95	69	72.63%
전남	89	33	37.08%
경북	128	76	59.38%
경남	217	96	44.24%
제주	63	25	39.68%
전국 (합계)	3,372	1,797	53.2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국내 도매업체들이 생두를 수입한 이후 해당 생두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로스팅되고 있는지를 나타냄.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로 계산함

- 2021년 전국 지자체 중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5.0%)인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부산의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전국 평균 53.29%보다 낮은 42.21%임
-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는 경기(636개), 서울(300개), 부산(111개), 강원(9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그림 III-40] 부산-전국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 비교 (단위 : %)



- 전국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은 2020년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19년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부산 내 생두 수입 후 로스팅 비율도 전국 비율과 비슷한 추이로 2019년 39.74%, 2020년 35.37%, 2021년 42.21%로 나타남

(3) 국내 커피 시장 내 커피전문점과 소매시장 비율

[표 III-89] 국내 커피 시장 내 커피전문점과 소매시장 비율

(단위 : 조 원)

	2016년	2017년	2018년
커피전문점	3.5 (59%)	3.9 (62%)	4.3 (64%)
소매시장(편의점, 마트)	2.4 (41%)	2.4 (38%)	2.4 (36%)
합 계	5.9	6.3	6.7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 커피산업의 5가지 트렌드 변화

- 국내 커피 시장 커피전문점의 매출은 2016년 3.5조 원에서 2018년 4.3조 원으로 상승하는 반면 소매시장(편의점, 마트) 매출은 2.4조 원에 머물러 시장 비중은 감소하였음
- 고객은 편의점 마트와 같은 소매시장보다는 커피전문점을 통한 커피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커피전문점 유형별 결제금액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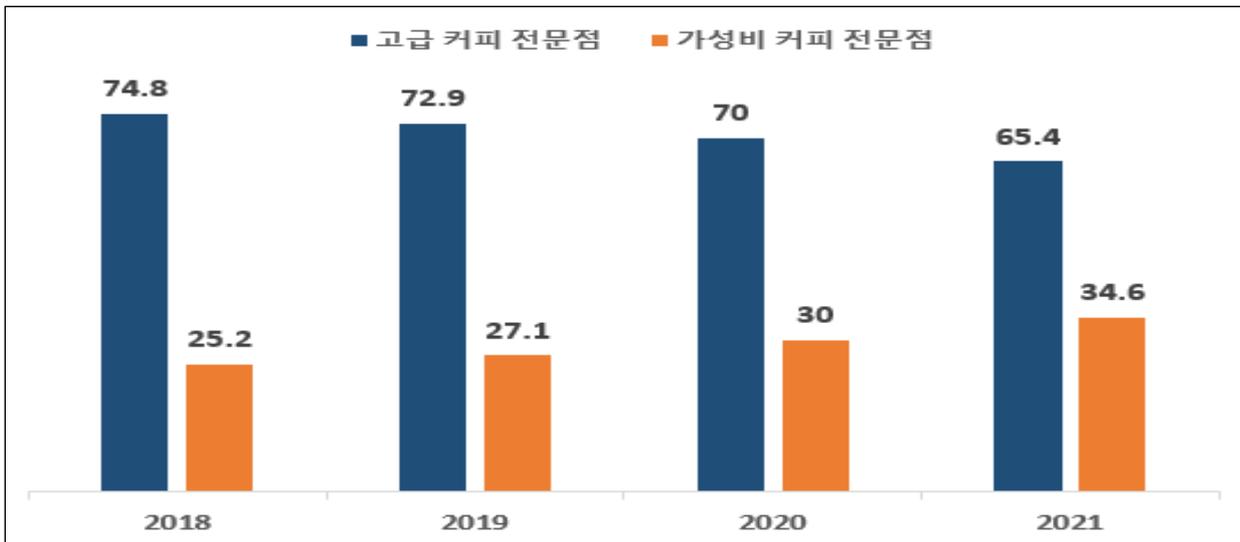
[표 III-90] 커피전문점 유형별 결제금액 비중 변화

(단위 :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급 커피전문점	74.8	72.9	70.0	65.4
가성비 커피전문점	25.2	27.1	30.0	34.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III-41] 커피전문점 유형별 결제금액 비중 변화

(단위 : %)



* 고급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공차, 커피빈

** 가성비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뽕다방, 더벤티

*** 출처 : 와이즈앱 - 2022년 커피전문점 이용 순위는?

- 최근 4년(2018~2021년) 커피전문점 유형별 결제금액 비중 변화 분석 결과, 고급 커피전문점의 결제금액 비중을 감소 추세이나(2018년 74.8% → 2021년 65.4%), 가성비 커피전문점의 결제금액 비중은(2018년 25.2% → 2021년 34.6%)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가성비 커피전문점의 매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고급 커피전문점의 결제금액 비중이 약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

[표 III-91]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가맹점 수

(단위 : 개)

순위	브랜드명	매장수	대표자	본사소재지
1	이디야커피	3,005	문창기, 이석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36
2	메가엠지씨커피	1,593	김대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81
3	투썸플레이스	1,330	문영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8층
4	컴포즈커피	1,285	김진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3길 11
5	빽다방	971	백종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
6	더벤티	756	박수암, 강삼남, 최준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7	커피베이	577	백진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8	커피에반하다	553	김은성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9
9	요거프레소	541	최민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
10	나우커피	463	이승기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399번길 20-19
11	할리스 커피	453	이종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12	하삼동커피	394	한지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23
13	엔제리너스	373	차우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104 금천 롯데타워
14	봄봄	370	이승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25
15	더리터	351	김대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0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021년 연말 기준

** 직영점인 스타벅스 제외 (스타벅스 가맹점 수: 1,750개, KNOEMA Research 2022년 4분기 기준)

-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가 3,005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위인 메가엠지씨커피의 1,593개 매장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은 매장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국내 매장 수는 1,750개로 메가엠지씨커피 보다는 많지만, 이디야커피의 가맹점 수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가맹점 수 상위 15위까지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중 약 50% 정도는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로(메가엠지씨커피, 컴포즈커피, 뽕다방, 더벤티, 하삼동커피, 더리터 등) 나타남
-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포즈커피, 더벤티 등 부산에서 시작한 저가형 커피숍도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지역별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

[표 III-92] 2021년 전국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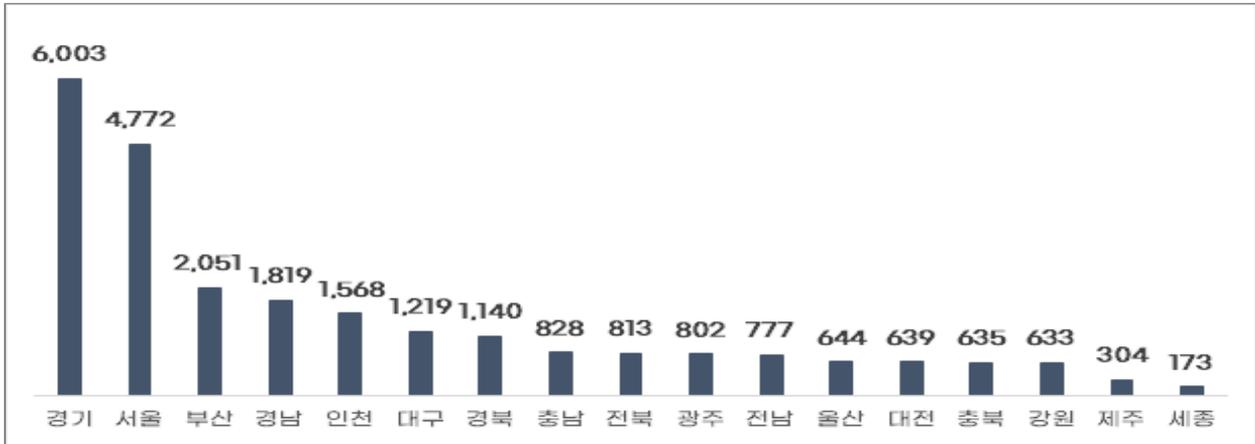
(단위 : 개, 명, 백만원)

지 역	가 맹 점 수	종 사 자 수	매 출 액	가맹점수 대비 매출액
부산	2,051	7,527	319,567	156
서울	4,772	19,331	970,482	203
대구	1,219	4,622	229,433	188
인천	1,568	5,959	271,832	173
광주	802	3,089	136,030	170
대전	639	2,572	117,640	184
울산	644	2,098	102,705	160
세종	173	593	29,840	173
경기	6,003	22,365	1,093,937	182
강원	633	2,272	110,758	175
충북	635	2,279	109,063	172
충남	828	2,659	143,788	174
전북	813	2,854	136,853	168
전남	777	2,595	126,507	163
경북	1,140	3,586	187,831	165
경남	1,819	5,418	243,390	134
제주	304	1,090	55,644	183
합 계	24,820	90,909	4,385,300	172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1년 프랜차이즈 통계(가맹점)

[그림 Ⅲ-42] 지역별 커피 가맹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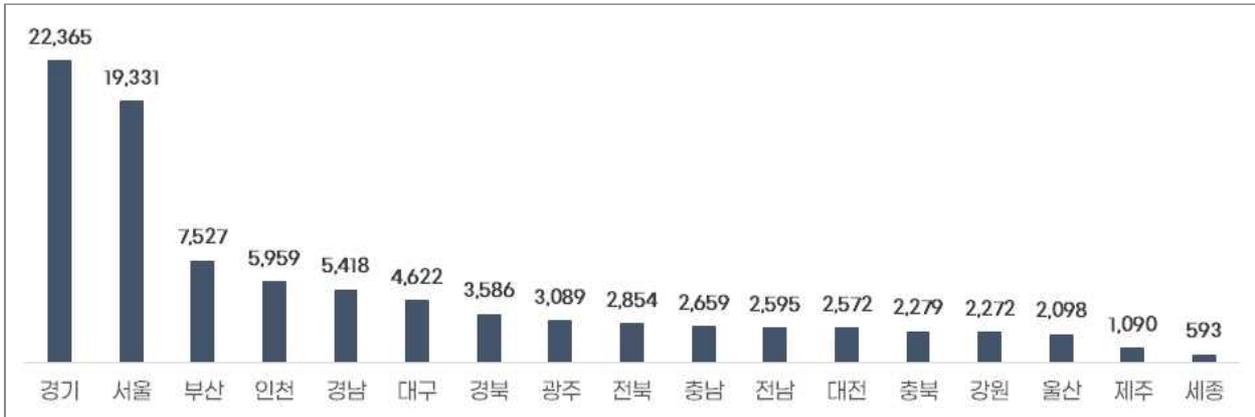
(단위 : 개)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1년 프랜차이즈 통계(가맹점)

[그림 Ⅲ-43] 지역별 커피 가맹점 종사자 수

(단위 : 명)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1년 프랜차이즈 통계(가맹점)

[그림 Ⅲ-44] 지역별 커피 가맹점 수 대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1년 프랜차이즈 통계(가맹점)

-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가맹점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두 경기도와(가맹점 수: 6,003개, 종사자 수: 22,365명, 매출액: 1,093,937백만 원) 서울이(가맹점 수: 4,772개, 종사자 수: 19,331명, 매출액: 970,482백만 원) 압도적으로 많고, 부산이 그 다음으로 많으나 경기도, 서울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가맹점별 매출액은 서울(203.4백만 원), 대구(188.2백만 원) 순으로 높으며, 부산은 총 17개 지역 중 16번째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93] 국내 커피 브랜드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구분	2020년(A)	2021년	2022년(B)	증감률(B-A)
브랜드 수	390개	736개	852개	약 118.4%
가맹점 수	16,186개	17,856개	23,204개	약 43.3%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 국내 커피 브랜드는 2020년 390개에서 2022년 852개로 최근 3년간 462개, 약 118.4% 증가하였으며, 커피 가맹점 수도 2020년 16,186개에서 2022년 23,204개로 3년간 7,018개 약 4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94]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매출액

(단위 : 천원)

순위	브랜드명	매출액
1	엔제리너스	678,805,000
2	투썸플레이스	411,780,401
3	이디야커피	243,352,962

(단위 : 천원)

순 위	브랜 드 명	매 출 액
4	빽다방	176,542,147
5	할리스/할리스 커피	115,923,311
6	메가엠지씨커피	87,890,993
7	더벤티	55,377,834
8	컴포즈커피	51,493,302
9	더리터	27,232,897
10	봄봄	21,191,969
11	커피베이	20,211,041
12	요거프레소	14,285,170
13	커피에반하다	12,857,105
14	하삼동커피	11,053,588
15	나우커피	4,515,689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021년 연말 기준

** 가맹점 수 상위 15개 기업 내 순위

- 2021년 기준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프랜차이즈는 엔제리너스로 매장 수는 373개로 13위지만 가장 높은 매출액을(약 6,780억 원 이상) 보이고 있음
- 이디야커피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매장 수에도 불구하고 엔제리너스 매출액의 약 35% 수준의 매출액을(약 2,430억 원) 보임
- 빽다방은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 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높은 매출액을 보이고 있음

[표 III-95]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순 위	브 랜 드 명	가 멩 점 평 균 매 출 액
1	투썸플레이스	506,059
2	메가엠지씨커피	328,912
3	빽다방	285,048
4	할리스/할리스 커피	271,917
5	컴포즈커피	250,746
6	하삼동커피	235,371
7	더벤티	224,390
8	엔제리너스	186,754
9	이디야커피	180,331
10	더리터	169,399
11	봄봄	153,930
12	커피베이	102,560
13	요거프레소	77,230
14	커피에반하다	77,085
15	나우커피	2,958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도 기준)

** 가맹점 수 상위 15개 기업 내 순위

- 2021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투썸플레이스가 약 5억 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메가엠지씨커피, 빽다방, 할리스커피, 컴포즈커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2번째 순위인 커피베이까지는 가맹점별 평균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번째부터는 가맹점 평균 매출 수준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96] 커피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현황

(단위: 개)

브랜드명	국내 가맹점 수	해외 가맹점 수	해외 진출 국가
달콤커피	114	7	싱가포르, 모로코
빽다방	971	6	중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탐앤탐스	306	88	미국, 중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몽골, 카타르, 미얀마
커피베이	577	108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몽골, 인도네시아
카페베네	236	81	대만, 몽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 출처 : 각 브랜드별 홈페이지

-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5개(달콤커피, 빽다방, 탐앤탐스, 커피베이, 카페베네) 프랜차이즈가 해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가맹점 수는 커피베이(108개), 탐앤탐스(88개), 카페베네(81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탐앤탐스의 경우, 8개국에서 해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최대, 3,00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디야커피는 2005년 해외 진출을(중국) 시도하였으나, 수익성 악화로 철수한 바 있음. 관계자 인터뷰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직영 운영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괌인 것으로 확인됨
- 컴포즈커피는 싱가포르의 선택시티 쇼핑센터에 첫 번째 국제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이며, 블루샷의 경우, 일본업체 애록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해외 진출을 계획 중임
- 투썸플레이스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사업성을 검토 중이며, 메가커피 등 다수 프랜차이즈 업체 또한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이지경제, 컴포즈커피 해외 첫 진출 가능성 타진... '싱가포르' 선택, 2023년 9월 15일 / 이투데이, 국내는 좁다...프랜차이즈 'K커피' 올해 해외서 승부, 2023년 1월 8일 / Real Foods, 일본에서 맛보는 '샹라떼'와 '피넛라떼'...블루샷 해외 진출 박차, 2023년 5월 30일

(7)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매출액 추이

[표 III-97]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매출액 추이

(단위: 천억 원, 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총액 (천억 원)	16.6	20.2	21.3	21.8
가맹점 평균 매출액 (만원)	16,701	17,359	16,891	16,006

* 출처 : KB연구보고서 -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2019년

- 커피 프랜차이즈 매출 총액은 2014년 1조 6천억 원 규모에서 2017년 2조 1천억 원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보임
- 커피 프랜차이즈 전체 가맹점 수의 증가로 커피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2015년 1억 7천만 원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8) 규모별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 변화

[표 III-98] 규모별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 변화

(단위: %)

	과거보다 이용 빈도 감소	과거보다 이용 빈도 증가	변화 없음
대형커피전문점	33.1	30.7	33.9
소형커피전문점	18.7	41.3	37.0

* 출처 : KB연구보고서 -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2019년

- 대형 커피전문점과 소형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 분석 결과, 대형커피전문점의 경우, 과거보다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는 비중이(33.1%) 증가했다는 비중(30.7%) 보다 다소 높아졌음
- 반면, 소형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의 경우, 이용 빈도 증가 응답자(41.3%) 비중이 감소 응답자(18.7%)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변화 없음 비중은 대형커피전문점 33.9%, 소형커피전문점은 37.0%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9)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경험 특성에 따른 구입 변화

[표 III-99]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경험 특성에 따른 구입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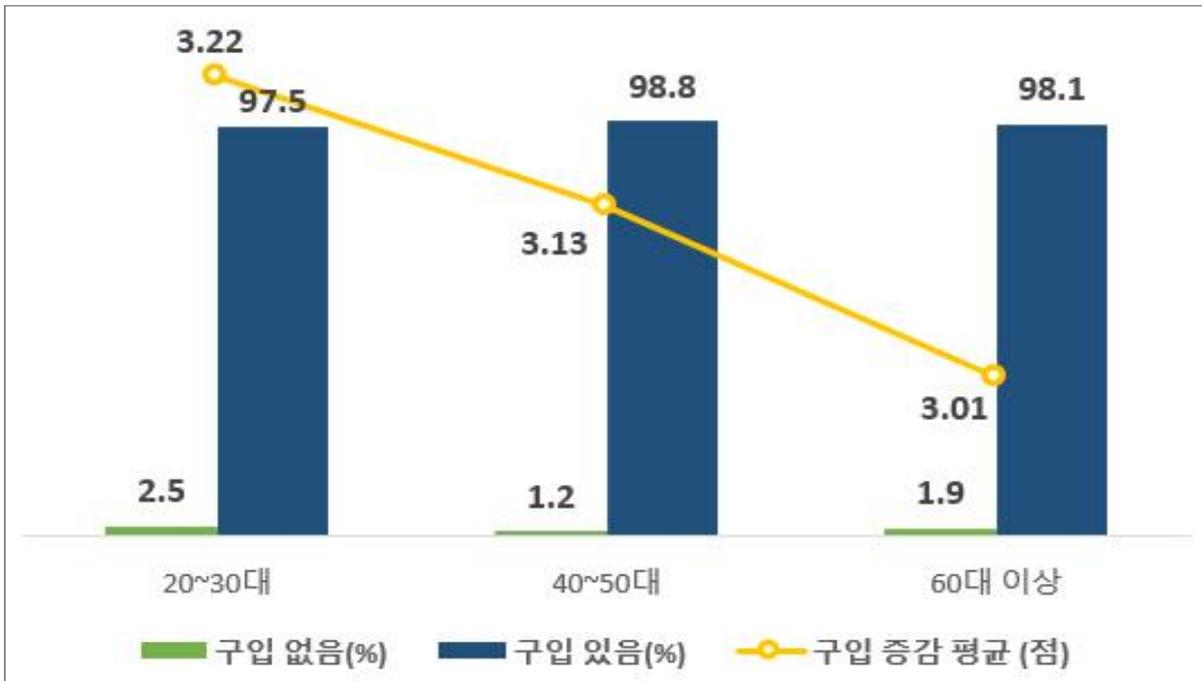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1	구분2	구 입 경 험 (%)		구입 증감 변화 평균(점)**
		없음	있음	
거주지역별	수도권	0.0	100.0	3.24
	비수도권	3.5	96.5	2.98
행정구역별	동	2.1	97.9	3.13
	읍면	0.0	100.0	3.03
가구원수별	1인	4.7	95.3	3.14
	2~3인	1.2	98.8	3.10
	4인 이상	0.3	99.7	3.13
가구주성별	남성	1.2	98.8	3.13
	여성	2.8	97.2	3.09
가구주연령별	20~30대	2.5	97.5	3.22
	40~50대	1.2	98.8	3.13
	60대 이상	1.9	98.1	3.01
가구주최종학력별	중졸 이하	4.9	95.1	2.95
	고졸	2.7	97.3	3.01
	전문대졸 이상	0.9	99.1	3.20
가구주직업별	관리/전문/사무직	0.6	99.4	3.16
	서비스/판매직	2.0	98.0	3.11
	기계/농림어업/단순노무	2.7	97.3	3.11
	기타	4.3	95.7	2.95
월평균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5.3	94.7	2.97
	200~400만원 미만	2.9	97.1	3.12
	400~600만원 미만	0.5	99.5	3.12
	600만원 이상	0.2	99.8	3.18
전체	소계	1.7	98.3	3.12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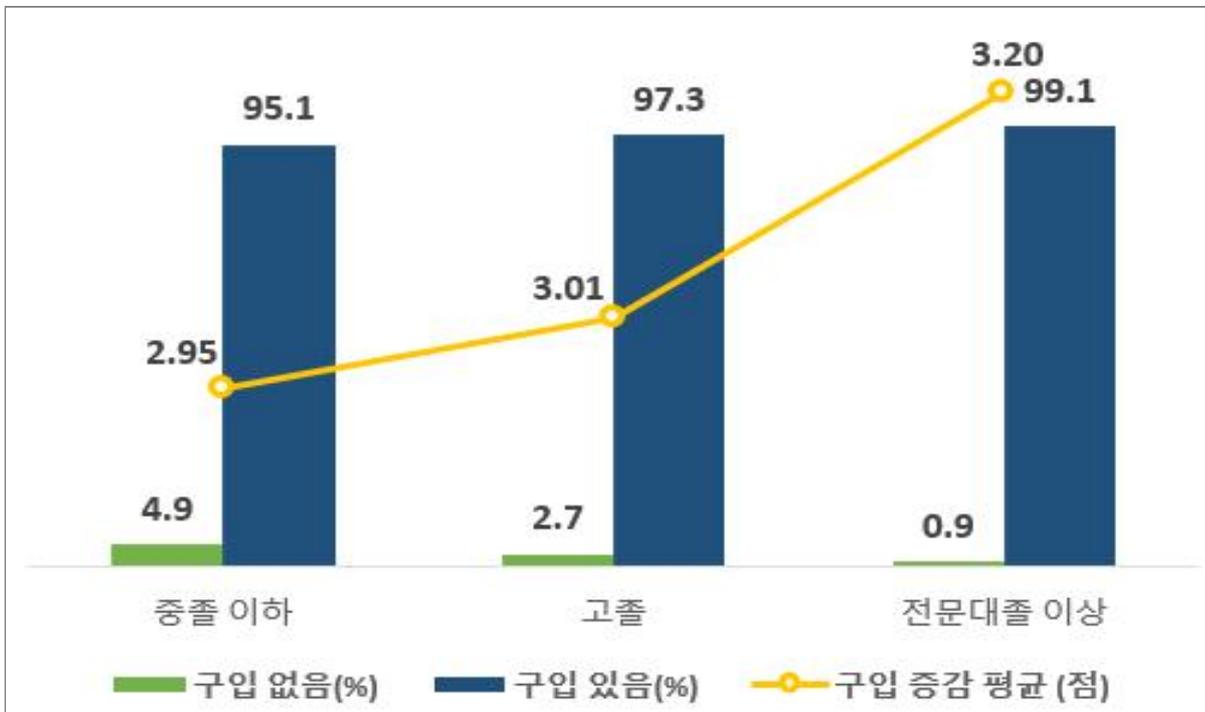
** 구입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감소 1점, 약간감소 2점, 비슷 3점, 약간증가 4점, 매우증가 5점을 기준으로 평균 값을 산정함

[그림 III-45] 가구주 연령별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증감 변화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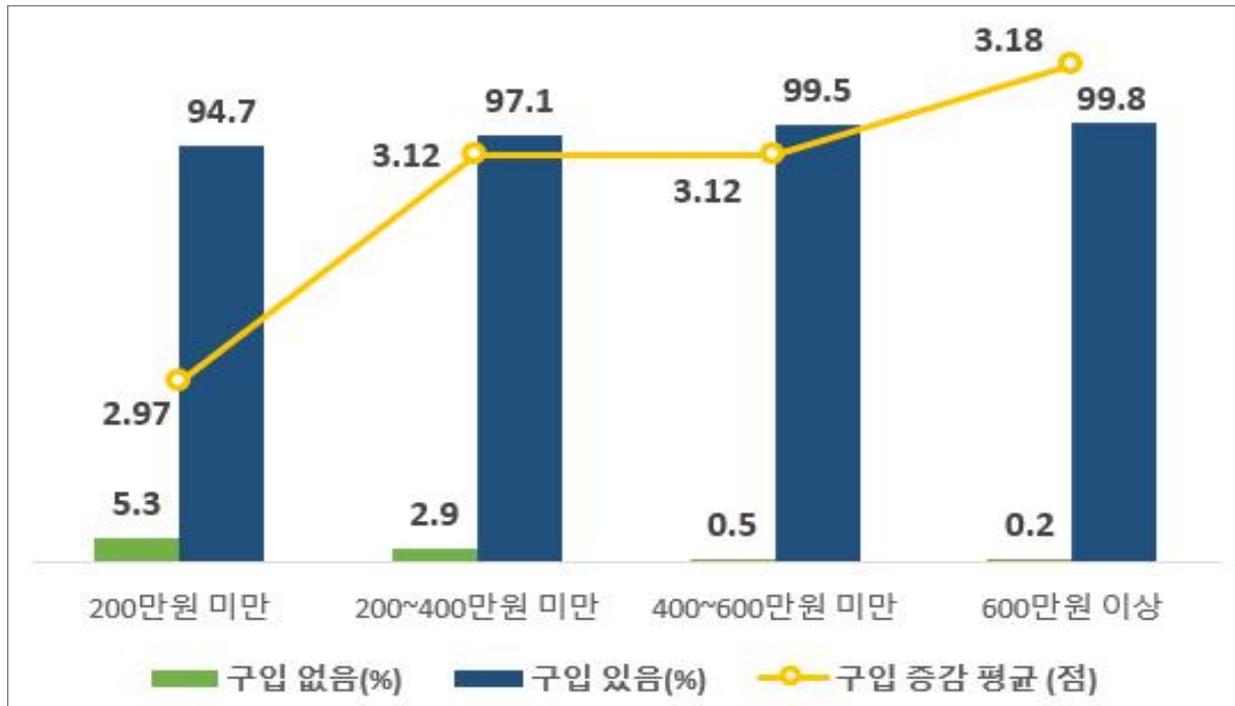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그림 III-46] 가구주 최종학력별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증감 변화 (단위: %, 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그림 Ⅲ-47] 월평균가구소득별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증감 변화 (단위: %, 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 수도권 거주 모든 응답자는 커피 구입 경험이(100.0%) 있고, 구입 경험 후, 더 많은 커피 및 커피음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거주 응답자의 경우, 구입 후 재구입 비중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수도권 구입증감 평균 3.24점, 비수도권 구입증감 평균 2.98점)
-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커피 구입 후, 재구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20~30대 3.22점, 40~50대 3.13점, 60대 이상 3.01점)
- 가구주의 최종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커피 재구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중졸 이하 2.95점, 고졸 3.01점, 전문대졸 이상 3.20점)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피 구입 경험이 많고(200만원 미만 94.7%, 200~400만원 97.1%, 400~600만원 99.5%, 600만원 이상 99.8%), 재구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200만원 미만 2.97점, 200~400만원 3.12점, 400~600만원 3.12점, 600만원 이상 3.18점)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0]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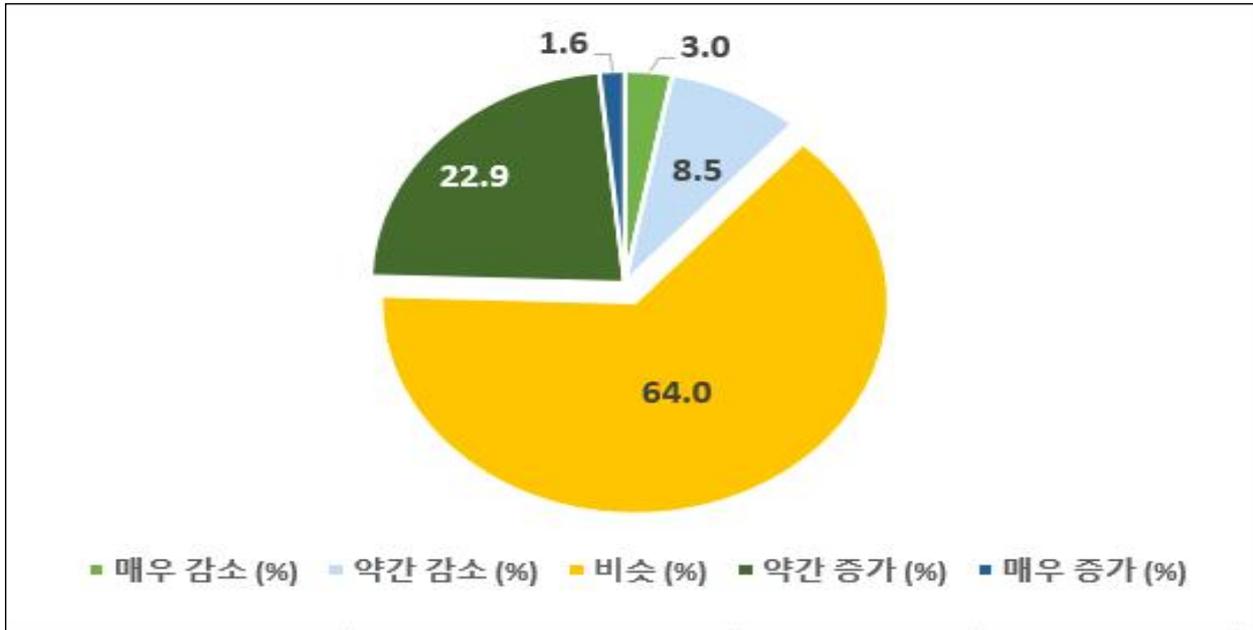
(단위: %)

구분1	구분2	구 입 변 화 (%)				
		매우감소	약간감소	비슷	약간증가	매우증가
거주지역별	수도권	1.2	7.5	60.0	28.3	3.0
	비수도권	4.8	9.6	68.1	17.3	0.1
행정구역별	동	2.8	9.0	62.3	24.0	1.9
	읍면	3.8	6.0	73.2	17.0	0.0
가구원 수별	1인	3.0	10.1	60.3	22.5	4.0
	2~3인	3.2	8.2	64.4	23.3	0.9
	4인 이상	2.1	7.9	66.6	22.0	1.3
가家主 성별	남성	2.8	7.3	65.2	24.0	0.7
	여성	3.3	11.3	61.5	20.5	3.4
가家主 연령별	20~30대	2.1	6.8	61.0	27.5	2.7
	40~50대	3.3	9.2	60.8	25.0	1.7
	60대 이상	3.1	9.1	72.1	15.3	0.4
가家主 최종학력별	중졸 이하	3.3	5.2	84.9	6.6	0.0
	고졸	4.9	9.4	65.8	19.6	0.3
	전문대졸 이상	1.8	8.3	61.1	26.4	2.5
가家主 직업별	관리/전문/사무직	2.3	9.0	62.1	23.6	2.9
	서비스/판매직	3.2	8.8	63.0	24.2	0.8
	기계/농림어업/단순노무	3.8	5.9	66.2	23.5	0.6
	기타	3.2	11.6	72.2	13.0	0.0
월평균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3.6	7.0	78.5	11.0	0.0
	200~400만원 미만	3.5	9.0	61.9	22.9	2.7
	400~600만원 미만	2.5	8.2	65.0	23.7	0.7
	600만원 이상	2.6	9.2	58.4	27.4	2.4
전체	소계	3.0	8.5	64.0	22.9	1.6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그림 III-48]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변화 비율

(단위: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 응답자의 64.0%는 커피 및 커피음료 구입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약 24.5%의(매우 증가 1.6%, 약간 증가 22.9%) 응답자는 커피 구입 전보다 구입 후, 커피 구입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고, 약 11.5%의(매우 감소 3.0%, 약간 감소 8.5%) 응답자는 커피 구입 후, 구입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 수도권에 거주 구매자의 커피 구입 후, 커피 구입 증가 비중이 비수도권에 거주 구매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수도권 31.3%, 비수도권 17.4%)
- 행정구역별로는 동 거주 구매자의 커피 구입 후, 커피 구입 증가 비중이 읍면에 거주 구매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동 25.9%, 읍면 17.0%)
- 가구원 수는 적을수록 커피 구입 이후, 구입을 유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1인 60.3%, 2~3인 64.4%, 4인 이상 66.6%), 감소하거나(1인 13.1%, 2~3인 11.4%, 4인 이상 10.0%) 매우 증가하는 비중은(1인 26.5%, 2~3인 24.2%, 4인 이상 23.3%)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성별이 남성인 가구보다는 여성인 가구에서 커피 구입 이후, 구

- 입 성향이 더 많이 감소함(여성: 14.6% 감소, 남성 10.1%)
- 가구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커피 구입 이후, 구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20~30대 30.2%, 40~50대 26.7%, 60대 이상 15.7%) 가구주 연령대가 60대 이상인 경우, 구입 이전과 비슷한 구입 성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20~30대 61.0%, 40~50대 60.8%, 60대 이상 72.1%)
 - 가구주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커피 구입 이후에도 비슷한 구입 성향을 유지함(중졸 이하 84.9%, 고졸 65.8%, 전문대졸 이상 61.1%)
 - 가구주가 관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구매자일수록 커피 구입 이후 커피 구입 ‘매우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관리/전문/사무직 2.9%, 서비스/판매직 0.8%, 기계/농림어업/단순노무 0.6%)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커피 구입 경험 이후 커피 구입이 증가한 구매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200만원 미만 11.0%, 200~400만원 25.6%, 400~600만원 24.4%, 600만원 이상 29.8%)

[표 III-101]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전체)

(단위: %)

순 위	우 선 확 인 사 항	비 율
1	브랜드/상표/제조사	36.4
2	가격	21.1
3	용량	13.8
4	제조일자/유통기한	13.8
5	원산지	4.1
6	품질인증표시	2.5
7	영양성분	2.3
8	식품첨가물	1.6
9	제품포장/디자인	1.6
10	원재료/성분 함량	1.3
11	기능성 표시/식품의 효능	0.7
12	보관방법	0.6
13	섭취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 등)	0.2
합 계		100.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그림 III-49]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단위: %)



* 기타 사항: 식품첨가물, 제품포장/디자인, 원재료/성분 함량, 기능성 표시/식품의 효능, 보관방법, 섭취주의사항

○ 커피 제품 구입시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브랜드/상표/제조사(36.4%), 다음으로 가격(21.1%), 용량(13.8%)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2]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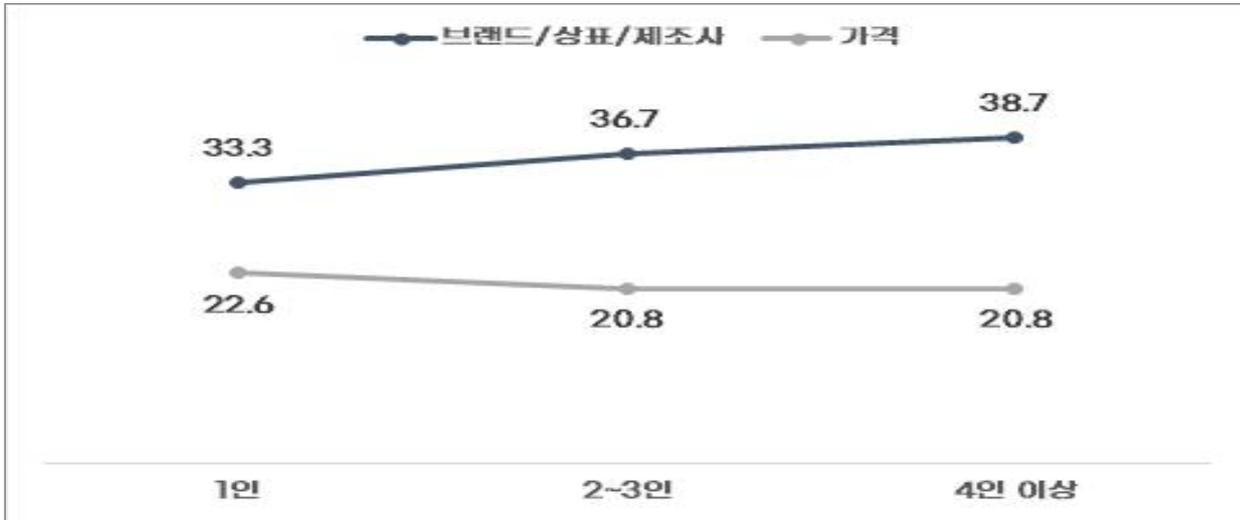
(단위: %)

우선 확인 사항	거주지역별		행정구역별		가구원수별		
	수도권	비수도권	동	읍면	1인	2~3인	4인 이상
브랜드/상표/제조사	34.1	38.8	36.7	34.8	33.3	36.7	38.7
가격	22.6	19.7	21.4	20.0	22.6	20.8	20.8
용량	12.7	14.9	13.3	16.4	17.0	12.7	13.6
제조일자/유통기한	12.7	14.9	14.2	11.6	12.9	13.8	14.7
원산지	5.2	2.8	3.9	5.1	3.2	4.6	3.2
품질인증표시	3.7	1.3	1.9	5.5	1.8	2.9	2.1
영양성분	2.0	2.7	2.4	1.9	2.2	2.7	1.2
제품포장/디자인	2.2	0.9	1.8	0.5	2.1	1.5	1.4
식품첨가물	1.7	1.4	1.8	0.3	1.7	1.5	1.5
원재료/성분함량	1.2	1.4	1.2	2.2	1.5	1.4	1.0
기능성표시/식품효능	0.7	0.8	0.6	1.6	0.8	0.7	0.8
보관방법	1.0	0.2	0.7	0.0	0.6	0.5	0.8
섭취주의사항**	0.2	0.2	0.2	0.1	0.2	0.2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 섭취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 등

[그림 III-50] 가구원 수별 커피 제품 구입 시 우선 확인사항 (단위: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 수도권에 거주하는 구매자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커피 구입시 브랜드/상표/제조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수도권 34.1%, 비수도권 38.8%)
-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커피 구입시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고(1인 22.6%, 2~3인 20.8%, 4인 이상 20.8%),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브랜드/상표/제조사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1인 33.3%, 2~3인 36.7%, 4인 이상 38.7%)

[표 III-103]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2/3)

(단위: %)

우선 확인 사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주 최종학력별		
	남성	여성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브랜드/상표/제조사	37.1	34.9	38.1	35.0	37.2	36.5	35.8	36.8
가격	22.0	19.4	21.3	20.8	21.5	24.1	21.3	20.8
용량	13.5	14.5	13.6	13.3	14.7	15.4	13.0	14.2
제조일자/유통기한	13.0	15.7	12.2	14.8	13.7	15.7	14.0	13.5

(단위: %)

우선 확인 사항	가家主 성별		가家主 연령별			가家主 최종학력별		
	남성	여성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원산지	4.2	3.8	3.6	4.4	3.9	3.1	4.5	3.9
품질인증표시	2.6	2.3	3.1	2.8	1.5	0.5	2.3	2.8
영양성분	2.4	2.2	1.8	2.3	2.8	1.4	2.9	2.0
제품포장/디자인	1.6	1.6	2.2	1.6	1.0	0.0	1.6	1.7
식품첨가물	1.1	2.5	2.1	1.7	0.7	1.2	1.1	1.9
원재료/성분함량	1.3	1.5	1.3	1.3	1.4	1.2	1.4	1.3
기능성표시/식품효능	0.7	0.8	0.4	0.9	0.9	0.6	1.2	0.5
보관방법	0.5	0.7	0.3	0.9	0.4	0.3	0.7	0.6
섭취주의사항**	0.2	0.2	0.1	0.2	0.3	0.0	0.4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 섭취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 등

[그림 Ⅲ-51] 가家主 성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단위: %)



* 우선 확인 사항 중 상위 4개(브랜드/상표/제조사, 가격, 용량, 제조일자/유통기한)만 나타냄

[그림 III-52] 가구주 연령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단위: %)



* 우선 확인 사항 중 상위 4개(브랜드/상표/제조사, 가격, 용량, 제조일자/유통기한)만 나타냄

[그림 III-53] 가구주 최종학력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단위: %)



* 우선 확인 사항 중 상위 4개(브랜드/상표/제조사, 가격, 용량, 제조일자/유통기한)만 나타냄

-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브랜드/상표/제조사(37.1%), 가격(22.0%), 용량(13.5%), 제조일자/유통기한(13.0%)을 순으로 우선 확인하고, 여성일 경우 브랜드/상표/제조사(34.9%), 가격(19.4%), 제조일자/유통기한(15.7%), 용량(14.5%) 순으로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은 브랜드/상표/제조사(20~30대 38.1%, 60대 37.2%), 가격(20~30대 21.3%, 60대 21.5%), 용량(20~30대 13.6%, 60대 14.7%), 제조일자/유통기한(20~30대 12.2%, 60대 13.7%) 순으로 우선 확인하나, 40~50대의 경우, 브랜드/상표/제조사(35.0%), 가격(20.8%), 제조일자/유통기한(14.8%), 용량(13.3%) 순으로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최종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은 브랜드/상표/제조사(36.8%), 가격(20.8%), 용량(14.2%), 제조일자/유통기한(13.5%) 순으로 우선 확인하나, 고졸 및 중졸 이하는 브랜드/상표/제조사(중졸 이하 36.5%, 고졸 35.8%), 가격(중졸 이하 24.1%, 고졸 21.3%), 제조일자/유통기한(중졸 이하 15.7%, 고졸 14.0%), 용량(중졸 이하 15.4%, 고졸 13.0%) 순으로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04]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3/3)

(단위: %)

우선 확인 사항	가구주 직업별				월평균 가구 소득별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계/농림어업/단순노무	기타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브랜드/상표/제조사	36.1	34.8	38.7	37.4	41.0	36.7	34.2	38.6
가격	20.3	23.8	20.2	19.0	26.8	19.4	22.4	18.8
용량	14.0	13.9	12.7	14.9	15.7	13.5	13.3	14.5
제조일자/유통기한	13.4	13.2	15.2	14.6	11.5	15.4	13.0	13.7
원산지	4.1	4.4	3.2	5.0	1.8	3.5	5.2	3.8
품질인증표시	3.1	2.3	1.9	1.5	0.1	2.0	3.3	2.9
영양성분	2.5	2.1	2.7	1.2	0.8	2.7	2.4	2.2
제품포장/디자인	1.8	2.0	0.9	0.9	0.4	2.1	1.6	1.0
식품첨가물	2.0	0.9	0.6	3.7	1.2	1.8	1.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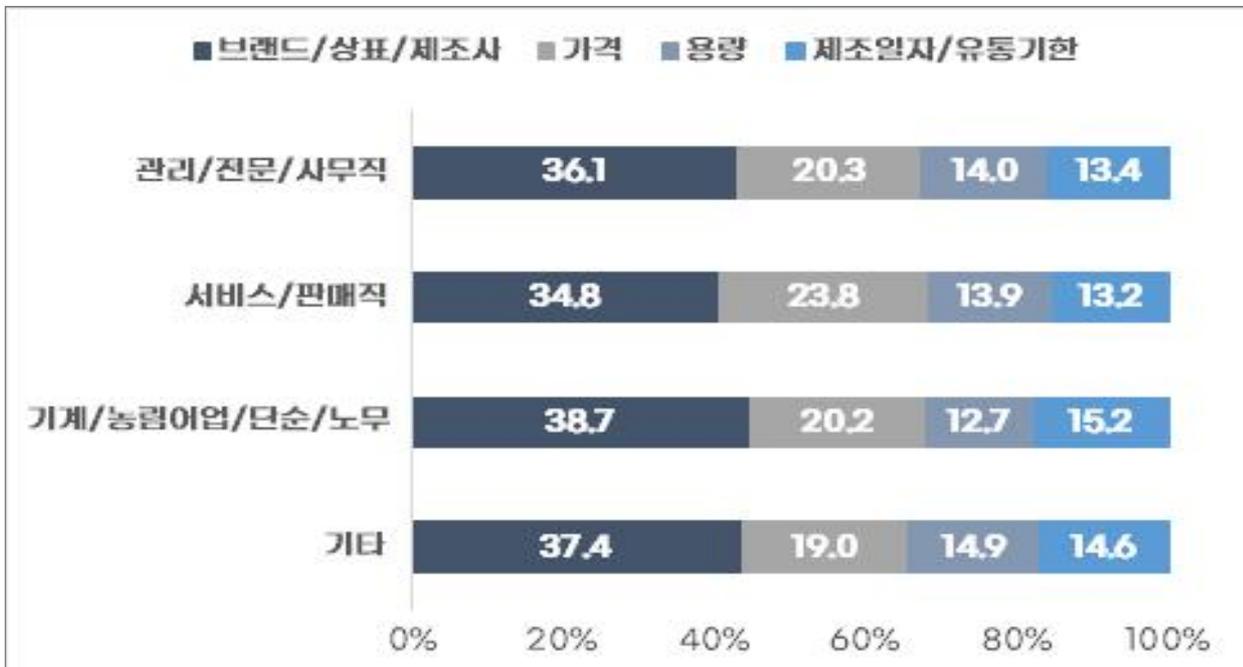
(단위: %)

우선 확인 사항	가家主직업별				월평균 가구소득별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계/농림어업/단순노무	기타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원재료/성분함량	1.2	1.3	1.9	0.9	0.4	1.4	1.5	1.4
가능성표시/식품효능	0.7	0.3	1.4	0.6	0.3	0.8	0.7	0.9
보관방법	0.7	0.7	0.5	0.2	0.0	0.6	0.5	1.2
섭취주의사항**	0.1	0.3	0.1	0.3	0.0	0.2	0.3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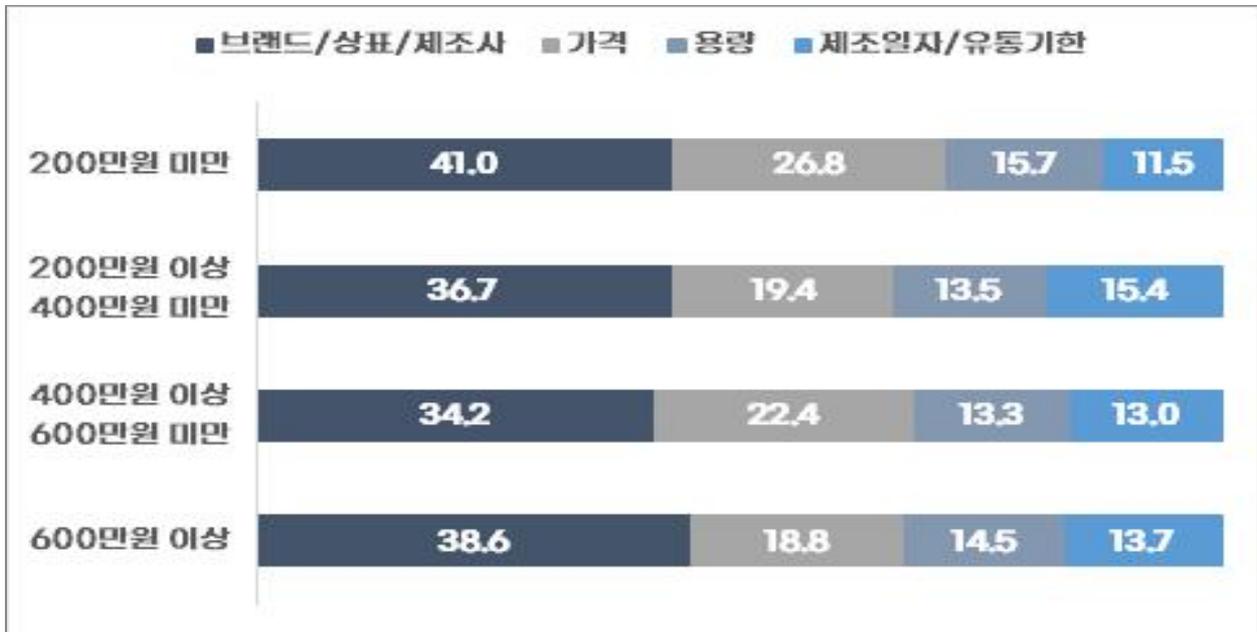
** 섭취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 등

[그림 III-54] 가家主 직업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단위: %)



* 우선 확인 사항 중 상위 4개(브랜드/상표/제조사, 가격, 용량, 제조일자/유통기한)만 나타냄

[그림 III-55] 월평균 가구소득별 커피 제품 구입시 우선 확인사항 (단위: %)



* 우선 확인 사항 중 상위 4개(브랜드/상표/제조사, 가격, 용량, 제조일자/유통기한)만 나타냄

- 가구주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타의 경우, 브랜드/상표/제조사(관리/전문/사무직 36.1%, 서비스/판매직 34.8%, 기타 37.4%), 가격(관리/전문/사무직 20.3%, 서비스/판매직 23.8%, 기타 19.0%), 용량(관리/전문/사무직 14.0%, 서비스/판매직 13.9%, 기타 14.9%), 제조일자/유통기한(관리/전문/사무직 13.4%, 서비스/판매직 13.2%, 기타 14.6%) 순으로 우선 확인하나, 기계/농림어업/단순/노무직의 경우 브랜드/상표/제조사(38.7%), 가격(20.2%), 제조일자/유통기한(15.2%), 용량(12.7%) 순으로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경우, 브랜드/상표/제조사(200만원 미만 41.0%,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4.2%, 600만원 이상 38.6%), 가격(200만원 미만 26.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2.4%, 600만원 이상 18.8%), 용량(200만원 미만 15.7%,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3.3%, 600만원 이상 14.5%), 제조일자/유통기한(200만원 미만 11.5%,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3.0%, 600만원 이상 13.7%) 순으로 우선 확인하나,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 브랜드/상표/제조사(36.7%), 가격(19.4%), 제조일자/유통기한(15.4%), 용량(13.5%) 순으로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10) 식품별 생산량 및 국내외 판매액

[표 III-105] 생산량 상위 20개 식품

(단위: 톤, 천원, 달러)

순위	식품군	품목 유형	생산량 (톤)	국내판매액 (천원)	해외 수출액 (달러)
1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4,840,551	4,206,447,922	158,989,289
2	음료류	탄산음료류	2,112,510	2,363,885,356	32,717,591
3	농산가공식품류	밀가루류	1,904,857	1,049,262,676	17,840,149
4	주류	맥주	1,394,747	1,953,615,312	64,050,716
5	당류	설탕류	1,386,709	846,420,164	161,272,309
6	조미식품	소스류	1,280,225	3,655,517,279	173,361,532
7	주류	소주	1,271,090	1,615,543,205	43,902,467
8	음료류	기타음료	1,198,935	1,249,091,475	210,274,424
9	과자류, 빵류, 떡류	빵류	966,119	3,488,723,248	36,846,639
10	음료류	커피	825,287	3,116,799,120	160,042,188
11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806,109	1,885,395,198	14,112,967
12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793,003	1,823,682,245	38,070,679
13	면류	유당면	692,594	1,826,756,634	786,261,948
14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644,452	829,380,401	54,226,469
15	빙과류	얼음류	577,320	129,993,702	-
16	음료류	다류	550,607	1,213,149,649	103,131,536
17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532,207	1,986,168,251	192,559,734
18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512,527	364,479,054	22,856,360
19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	507,522	427,677,974	14,707,966
20	당류	엿류	506,987	339,782,372	29,663,519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생산량 기준 식품 순위, 2021년

- 식품별 생산량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약 484만 톤), 탄산음료류(약 211만 톤), 밀가루류(약 190만 톤)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커피는 100개 식품군 중 10번째로 높은 생산량을(약 82만 톤) 보임

[표 Ⅲ-106] 국내판매액 상위 20개 식품

(단위: 톤, 천원, 달러)

순위	식품군	품목유형	생산량 (톤)	국내판매액 (천원)	해외 수출액 (달러)
1	즉석식품류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4,840,551	4,206,447,922	158,989,289
2	조미식품	소스류	1,280,225	3,655,517,279	173,361,532
3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빵류	966,119	3,488,723,248	36,846,639
4	음료류	커피	825,287	3,116,799,120	160,042,188
5	수산가공식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356,301	3,027,082,275	322,948,928
6	음료류	탄산음료류	2,112,510	2,363,885,356	32,717,591
7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470,338	2,361,853,210	117,363,642
8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532,207	1,986,168,251	192,559,734
9	주류	맥주	1,394,747	1,953,615,312	64,050,716
10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806,109	1,885,395,198	14,112,967
11	면류	유당면	692,594	1,826,756,634	786,261,948
12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793,003	1,823,682,245	38,070,679
13	주류	소주	1,271,090	1,615,543,205	43,902,467
14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	478,287	1,397,887,546	143,473,529
15	음료류	기타음료	1,198,935	1,249,091,475	210,274,424
16	음료류	다류	550,607	1,213,149,649	103,131,536
17	농산가공식품류	밀가루류	1,904,857	1,049,262,676	17,840,149
18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절임류	480,112	927,380,176	10,319,253
1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303,358	923,891,471	56,586,733
20	식용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460,179	860,969,309	108,591,451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생산량 기준 식품 순위, 2021년

- 식품별 판매액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약 4.2조 원), 소스류(약 3.6조 원), 빵류(약 3.6조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00개의 식품군 중 커피의 생산량은 10번째이지만, 국내 판매액은 4번째로(약 3.1조 원) 높아, 생산량 당 판매 가격이 다른 식품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107] 해외 수출액 상위 20개 식품

(단위: 톤, 천원, 달러)

순위	식품군	품목유형	생산량 (톤)	국내판매액 (천원)	해외 수출액 (달러)
1	면류	유탕면	692,594	1,826,756,634	786,261,948
2	수산가공식품류	조미김	98,938	736,108,738	443,470,563
3	수산가공식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356,301	3,027,082,275	322,948,928
4	음료류	기타음료	1,198,935	1,249,091,475	210,274,424
5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532,207	1,986,168,251	192,559,734
6	조미식품	소스류	1,280,225	3,655,517,279	173,361,532
7	당류	설탕류	1,386,709	846,420,164	161,272,309
8	음료류	커피	825,287	3,116,799,120	160,042,188
9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4,840,551	4,206,447,922	158,989,289
10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	478,287	1,397,887,546	143,473,529
11	과자류 빵류 떡류	과자	470,338	2,361,853,210	117,363,642
12	식용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460,179	860,969,309	108,591,451
13	음료류	다류	550,607	1,213,149,649	103,131,536
14	주류	리큐르	58,612	22,554,708	64,724,650
15	주류	맥주	1,394,747	1,953,615,312	64,050,716

(단위: 톤, 천원, 달러)

순위	식품군	품목 유형	생산량 (톤)	국내 판매액 (천원)	해외 수출액 (달러)
16	당류	당류가공품	136,418	198,820,976	59,772,073
17	수산물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303,358	923,891,471	56,586,733
18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644,452	829,380,401	54,226,469
19	면류	숙면	215,491	413,386,448	53,105,237
20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류	133,865	749,672,047	50,646,083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생산량 기준 식품 순위, 2021년

- 식품별 해외 수출액은 유당면(약 7.8억 달러), 조미김(약 4.4억 달러), 기타 수산물가공품(약 3.2억 달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00개의 식품군 중 커피의 해외 수출액은(약 1.6억 달러) 유당면,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등보다 낮은 8번째 순위로 나타남

5) 소비 후 처리

(1) 커피 찌꺼기 재활용

[표 III-108] 커피 찌꺼기 양 추정

(단위: 톤)

	생두수입량	증발한 수분량	커피추출액	커피 찌꺼기양
2018년	135,574	27,114.8	217	108,242
2019년	141,366	28,273.2	226	112,867
2020년	151,064	30,212.8	242	120,609
2021년	154,109	30,821.8	247	123,041
2022년	157,177	31,435.4	251	125,490

* 출처 : 환경부 - 커피 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 커피 추출 폐기물 재활용 현황과 기술 동향 분석, 2018년

-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2018년 108,242톤에서 2022년 125,490톤(추정)으로,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실제로 커피를 만들 때 생두의 0.2%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 전체 커피 수입량에서 로스팅하며 증발한 수분량 20%와 커피 추출액 0.2%를 제외한 수입하는 대부분의 생두가 커피 찌꺼기로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커피 찌꺼기 재활용 프로세스

- 현행 커피 찌꺼기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모아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업자(신고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 커피 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할 경우, 퇴비, 목재 제품, 바이오연료, 화장품 연료 및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재생산 및 활용할 수 있음

[그림 III-56] 커피 찌꺼기 재활용 프로세스



-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배출 및 보관, 수집 운반, 재활용 순으로 관리되며,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이 가능해지고,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6 교육기관 및 협의체

1) 교육 기관

(1) 국내 커피 교육 기관 현황

[표 III-109] 국내 SCA PTC(Premier Training Campus) 분포

위 치	업 체 명
서울	Q Grader Test Center
	Coffee Plant
	Sewoong GV Lab
	Woojongho Coffee Lab
부산	Marisstella Roasters & Coffee Lab
김해	Coffee Master Han Barista Academy
제주	Route Coffee Trading
	Driller's Coffee Lab

* 출처 : SCA Premier Training Campuses, 2023년

- 국제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고, 스페셜티커피 교육 수요에 맞게 SCA 표준 교육을 전달하는 국내 SCA PTC(프리미어 트레이닝 캠퍼스 제도)는 서울 4곳, 부산 1곳, 김해 1곳, 제주 2곳으로 총 8곳이 존재함

[표 III-110] 국내 커피 관련 학과 현황

위 치	대 학 명	학 과 명	(단위: 명)
			정원
강원	강원도립대학교	바리스타제과제빵과	35
	강릉영동대학교	호텔리조트바리스타전공	100 (디지털관광 융합계열 통합)
	한림성심대학교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0
경기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호텔바리스타&카페경영과정	120
	오산대학교	카페바리스타과	36
	대림대학교	제과제빵과	120

위 치	대 학 명	학 과 명	(단위: 명)
			정원
경남	마산대학교	호텔관광바리스타과	40
경북	구미대학교	호텔조리제빵바리스타과	60
	포항대학교	호텔조리커피제빵과	30
광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티앤커피문화학과	141 (석사 전공 통합)
대구	대구공업대학교	베이커리바리스타전공	80 (호텔외식 조리계열통합)
	수성대학교	제과제빵커피과	40
	계명문화대학교	커피문화경영	30
부산	대동대학교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	40
		외식&디저트창업과	20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바리스타학과	27
	부산보건대학교	호텔바리스타과	20
		디저트&서양조리과	30
	부산여자대학교	바리스타과	25
동의과학대학교	디저트카페창업과	30	
서울	배화여자대학교	조리학과외식조리디저트전공	37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외식조리디저트창업과	25
	순천제일대학교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52
	전남과학대학교	호텔커피컵테일과	30
전북	전북과학대학교	호텔외식산업계열	52
		호텔관광바리스타전공, 외식조리제과제빵전공	
	군장대학교	외식조리바리스타계열	40
충남	백석문화대학교	커피바리스타과	150 (학부 통합)
충북	충청대학교	호텔바리스타과	30
	서원대학교	호텔디저트식음료전공	100 (학부 통합)

* 출처 : 대학알리미 2023년 기준 (주간·야간의 경우 주야 합한 정원), 각 대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 국내 커피 관련 학과는 전국 27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강원/경기/대구/전남에서 각각 3개 학교,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학교에서 관련 학과 개설을 통하여 커피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국내 지역별 커피 협의체 현황

[표 III-111] 국내 커피 관련 협의체 목록

위 치	협 회 명	비고
강원	한국커피문화진흥협회	전국
	강릉커피협회	지역
	춘천커피협회	지역
경기	한국커피과학회	전국
	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전국
광주	대한커피협회	전국
대구	대구커피협회	지역
부산	한국아티산커피협회	지역
서울	한국커피연합회	전국
	한국커피협회	전국
	한국커피품평협회	전국
	슬로푸드커피연합	전국
	한국커피머신엔지니어협회	전국
	국제커피바리스타협회	전국
	커피비평가협회	전국
	아시아스페셜티커피협회	전국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전국
	한국커피로스터연합	전국
	한국수제커피협회	전국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전국	
인천	스페셜티 커피 협회	전국
	국제커피교류협회	전국
전남	한국커피생산자협회	전국

* 출처 :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2023년

- 커피 관련 협의체들은 전국 23개가 존재하며, 전국과 지역 대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전체 협의체 중 약 82.6%는(19개) 전국 대상 협의체로 운영 중임
- 지역 대상 협의체는 총 4개가 존재하며, 강원 지역 2개(강릉, 춘천), 대구와 부산에 각각 1개씩 존재함
- 서울에 다수의 협의체가 위치하며(12개, 전체 커피 관련 협의체의 약 52.1%), 강원(3개), 인천/경기(각 2개) 순으로 커피 관련 협의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협의체는 이해관계자 협력, 권익 증진, 교육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생두 생산 지역인 전라남도에서 운영되는 협의체는 국내 커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커피 재배면적 400평 이상 농가 13개(전라남도 11개, 경기도 2개)로 구성되어 있음

7 국내외 커피 도시 현황

1) 해외 사례

(1)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 트리에스테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커피 항구이자, 일리 카페(illy caffe)가 탄생한 도시로 이탈리아 다른 곳보다 연간 두 배나 많은 커피를 소비하고 커피 수출입과 가공, 유통이 모두 가능한 유일 도시로 ‘커피 수도’라는 수식어로 알려짐
- 트리에스테가 이렇게 커피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트리에스테 항구의 존재 덕분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트리에스테를 지배하던 시절 일대의 유일한 항구로서 중요성이 컸고, 이후 커피 주요 유통 항구가 되면서 번성함
- 트리에스테 항구는 자유무역지대로 일정 기간 필요한 만큼 지정된 창고에서 관세 없이 생두를 보관할 수 있어 원하는 만큼 생두를 보관했다가 로스팅하고 즉시 수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 매년 10월 트리에스테 커피축제가 열리고 카포인 비 바리스타 챔피언십 개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커피 도시임을 홍보하고 있음
- 또한, 2014년부터 2년마다 정부나 시가 아닌 민간 기업인 바짜라 주최로 ‘트리에스테 커피 엑스퍼트’라는 전 세계 커피 전문가가 트리에스테로 모여 커피산업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는 명실상부 커피의 수도로 발돋움 중임
- 트리에스테 커피 엑스퍼트에는 올해의 커피인을 선정하는 ‘커피 캐릭터 어워드’ 시상식이 개최되기도 하고, 글로벌 전자제품 기업부터 이탈리아 커피 머신 회사인 시모넬리, 물 정수와 관련된 BWT, 브리타 등 커피 연관 산업 관계자가 다수 참여함
- 또한, 이탈리아는 반자동 커피 머신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커피 머신 제조 강국으로 세계적인 브랜드인 라심발리, 라마르조코, 아스토리아 등과 같은 우수한 기업이 존재함

- 트리에스테에는 이탈리아 대표 커피 머신 제조 기업인 아스토리아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세계 140개국에 커피 머신을 수출하고 있음
- 1960년대 설립되어 엔트리 레벨부터 스페셜티 라인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고 2012년도부터 월드 커피 챔피언십 공식 후원사로 대회에 다양한 커피 머신을 지원함

[그림 Ⅲ-57]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항구 근처 카페	항구 근처 생두 창고
	
<p>* 출처: 부산일보 - 물류부터 로스팅까지 모두 다 하는 ‘유럽 커피 수도’ [‘커피 음용 140년’ 부산 커피 허브되] / “2년마다 전 세계 전문가 초청 행사” 3대째 커피에 진심인 바짜라 가문</p>	

(2) 벨기에 앤트워프

- 벨기에 앤트워프항은 유럽 최대 커피 허브항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커피 산지에서 재배된 생두는 앤트워프항을 통해 들어와 유럽 전역에 유통됨, 벨기에에는 인구 1,168만 명의 작은 국가지만 7억 명이 넘는 유럽 전역의 커피 소비를 책임지고 있음
- 벨기에에서 가장 큰 커피 전문 물류 회사인 몰렌버그나티가 앤트워프항에 보관하는 커피 양만 40만 톤으로 약 430억 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양임
- 앤트워프항은 북유럽과 남유럽 어디에든 물류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고, 기후 특성상 기온이나 습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커피 보관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기 때문에 유럽 최대 커피 허브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 생두 90% 이상이 유통되는 부산항과 비슷하지만, 유통경로에 불과한 부산과 달리 앤트워프 항은 몰렌버그나티를 비롯한 볼레스, 파코리니 등 커피 전문 유통회사가 창고를 두고, 유통 비즈니스가 활발히 일어남

[그림 III-58] 벨기에 앤트워프



(3) 오스트리아 빈

- 도심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있는 건축물과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많은 예술적인 카페 하우스가(약 1,200여 개) 존재하고 ‘kaffeepause culture*’가 있을 정도로 빈 주민들에게 커피문화는 깊숙이 자리 잡음
- 비엔나 커피 (정식명칭 - 아인슈페너 커피)가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이름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커피를 즐겨 마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마셔옴
- 비엔나 전쟁에 참여했던 게오르그 프란츠 쿨쉬츠키(Jerzy Franciszek Kulczycki)는 오스만튀르크(터키)군이 버리고 간 커피콩 자루를 활용하여 유럽 최초로(1685년) 비엔나에 커피노점을 열어 커피를 알렸고, 이후 비엔나에는 커피를 즐기는 ‘커피하우스’가 생김

* 카페파우제(Kaffeepause):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커피를 즐기는 시간을 가짐

- 커피하우스는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예술과 학문, 사상을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비엔나 커피하우스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재에 등재됨
- 매년 9월 비엔나에서 커피 페스티벌이 개최되며, 약 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약 50만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4) 호주 멜버른

- 멜버른으로 이주해온 이탈리아인들이 커피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고, 1916년부터 1966년까지 호주에서 시행된 금주운동으로 술 대신 커피, 차, 생수 문화 및 시설이 발달함
- 1960년 당시 멜버른은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도심 지역 치안이 부실해지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빅토리아 주정부와 지역 정부가 멜버른의 독특한 카페 산업 지형을 도시 공동화 현상 극복하는 데 활용함
- 멜버른의 카페들이 주는 세련되고 문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멜버른을 ‘살기 좋은 도시’로 새롭게 그려나가기 시작함. 또한, 카페들의 주류 판매 허가 정책을 통해 소규모 카페들의 이윤 및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고, 이는 소규모 카페 증가 및 커피 도시라는 칭호를 얻게 함
- 위와 같은 주 및 지역 정부의 노력으로 1960~70년대까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던 멜버른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카페 중심의 사회 및 문화 구성을 통하여 도시를 활성화함
- 멜버른의 전체 카페 중 95%가 개인 카페로 체인점은 5%에 불과함, 실제로 스타벅스가 멜버른 등 전국에 84개 매장을 개점했으나, 8년 만에 70%의 매장이 문을 닫은 전력이 있음
- MICE 개최 기간에 바리스타, 로스팅 챔피언십 등 세계 커피선수권 대회를 통해 커피도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함

[그림 III-59] 호주 멜버른



(5) 중국 상하이

- 2023년 4월 기준 상하이의 커피숍 수는 8,530개를 넘어 뉴욕, 런던, 도쿄를 제치고 세계에서 카페 수가 가장 많은 도시를 차지함. 이는 1km² 당 1.3개, 인구 1만 명당 3.16개 수준이며, 중국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9잔이지만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은 326잔을 훌쩍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단지 공공 공간에 자리한 미니 커피숍, 장애인 직원을 고용한 커피숍,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전문 커피숍 등등 상하이의 커피숍은 다원적이면서도 포용적임
- 또한 상하이의 커피 문화 열풍이 새로운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주도하기도 함. 상하이는 중국 윈난(雲南)산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로 윈난산 커피의 프리미엄화에 크게 기여함
- 더불어, 상하이는 전시 컨벤션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식품 및 커피, 음료 박람회(징안 커피 페스티벌, 상하이 커피축제, 글로벌 식품 박람회 등)를 개최하여 세계 커피 교역의 통로 역할을 함

- 부산과 같은 커피 수입항이지만 MANNER, Seesaw, Mellowcoffee 등 유수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탄생하였으며, 상하이 전체 카페 중 56%가 프리미엄 커피전문점 또는 독립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고 있음
- CIIE 등 수입박람회 및 ‘6+365’ 연중 전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하이에 진출해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중국 전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상하이를 명실상부한 커피도시로 만들고 있음
- COFE+, 인공지능 커피제조기 로봇 커피 매장처럼 5G,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커피문화에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함

[그림 III-60] 오스트리아 빈, 중국 상하이



2) 국내 사례

(1) 강원도 강릉시

- 강릉 커피 거점화를 통해 강릉의 시그니처인 커피소비 산업을 제조산업(커피 제조 및 판매)-인력(커피제조인력)-문화(지역축제 및 체험)-관광(관광거점도시 연계)을 융합해 커피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관광·문화·예술·교육·체험과 연계해 강릉을 명품 커피문화도시로 고도화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커피 원두 품질 개선과 커피 제품 고급화, 커피 부산물을 활용한 공예품 및 바이오연료 생산 등 업사이클링, 커피산업·문화 활성화, 커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한국에서 유일하게 차(茶) 문화 유적지가 남아있는 도시이자 유명 바리스타들이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는 한국 대표 커피 도시로 알려짐
- 1세대 바리스타 박이추 선생의 보헤미안 카페, 1세대 커피공장 테라로사는 커피도시, 강릉 이미지 형성의 근거이자, 스토리텔링의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스토리와 배경 등을 기반으로 강릉은 2009년부터 매년 가을, 강릉 커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릉 커피축제(GCF)는 매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약 83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월드 브루어스컵에 출전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십’을 비롯해 6개의 커피 어워드 프로그램/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바리스타의 참여와 다양한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 서울 우유 협동조합과 강릉의 보헤미안 로스터즈와 협업한 ‘강릉 커피’ 출시를 통해 강릉 커피의 브랜드화 및 커피 도시로서 강릉을 더욱 홍보하는 계기 마련함

[그림 III-61] 강원도 강릉시

카페 거리	커피 제품
	
<p>* 출처 : 강릉 커피산업 지속 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소멸위기 극복한다 - 서울신문</p>	

(2) 전라남도 고흥군

-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만 재배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커피 생두가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에서도 재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10년 전부터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직접 생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고템커피’ 라는 커피 브랜드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추진 중임
- 해외 커피 원두는 수확에서 유통까지 통상 8개월이 걸리지만, 고흥은 단 2개월이면 가능해 신선하고 향이 좋은 커피를 맛볼 수 있음
- 국내산 고흥 커피는 모든 과정을 수작으로 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커피(하와이안 코나, 블루마운틴, 예멘 모카, 파나마 게이샤 등)와 대등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
- 2023년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총 12개 단체) 창립하고 전남 커피시장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고흥 로컬 커피 융복합 산업화 사업단을 조직하여 로컬 커피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 커피산업 발전 및 관광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그림 Ⅲ-62] 전라남도 고흥군

커피 나무	커피 제품
	
<p>* 출처 : ‘우리도 커피도시’ 커피 분향 강릉에 도전장 낸 지자체들 - 한국일보</p>	

(3) 대구광역시

- ① 80년대부터 음악다방이 성행한 도시, ② 동성로, 수성못 등 개성있는 카페 거리 보유, ③ 커피전문점이 4,268개로 인구(약 237만 명, 2023년 8월 기준) 대비 커피전문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음, ④ 유명 바리스타 등 전문 인적자원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커피도시 명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노력을 추진 중임
- 커피엔카페 박람회(10월 말)과 커피앤베이커리 축제(11월 초) 개최 계획 및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구 빵과 커피를 연계한 스토리북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마련함
- 2023년 대구커피협회(DCA) 발족, 커피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100개가 넘는 대구산(産) 커피브랜드는 협회와 함께 카페 운영 및 스마트 경영 노하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팁 등을 공유하고 통일된 대구 커피 브랜딩과 마케팅을 추진하여, 원조 커피 도시 대구의 위상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림 III-63] 대구광역시

홍보물	대구 커피 축제
<p>* 출처 : 커피의 도시 대구에서 살펴보는 커피의 역사- 대구관광 / 제 5회 대구 커피&베이커리 축제 4년 만에 수성못 개최</p>	

(4) 경기도 춘천시

- 2021년 ‘Let’s coffee 춘천’ 슬로건 아래 커피도시 브랜딩 시작함
-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는 기

존의 행사성 축제 이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온라인 플랫폼인 메타버스와 VR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

- 1968년 춘천에 자리잡은 우리나라 최초의 로스터리 에티오피아 벳 (EthiopiaBet) 카페를 춘천의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함
- 춘천시와 에티오피아 시마다 지역 간 MOU 체결로 독점 공급 체인을 구축하고 양양공항을 통한 에티오피아 커피 농장 투어 패키지 등도 추진 중임

* 출처 : ‘우리도 커피도시’ 커피 분향 강릉에 도전장 낸 지자체들 - 한국일보

[그림 III-64] 춘천시

메타버스 커피축제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
	
<p>* 출처 : 추천커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 및 Facebook</p>	

8 커피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사례

1) 업종 전환/확대 사례

[표 III-112] 업종 전환 사례

위 치	변 경 이 전 업 종	변 경 이 후 업 종
미나에프엔비	생활용품 도소매 업종	액상 커피 제조업
태환자동화산업	깨볶음기 등 식품가공설비	커피 로스터기

- 타 산업 분야에서 커피 관련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확대한 기업으로는 미나에프엔비, 태환자동화산업 등이 존재함
- 미나에프엔비는 생활용품 도소매 업에서 커피산업으로, 태환자동화산업은 식품가공설비에서 커피 관련 사업으로 업종을 확대 전환함

2) 업역 확장 사례

[표 III-113] 업역 확장 사례

위 치	확 장 이 전 업 종	확 장 업 종
로움앤컴퍼니 (로스팅컴퍼니로움)	카페 창업 컨설팅업 및 유통업	커피 로스팅 기계 제조업
현대그린푸드 (에이치카페)	OEM 방식을 통한 커피 기기 사업 확장	

- 로움앤컴퍼니와 현대그린푸드는 기존 커피 관련 사업 뿐만 아니라, 기계 및 기기 제조 등 유통/판매를 넘어, 설비 제조 분야로 까지 업역을 확대하고 있음

IV.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현황

1

개요

1) 부산시 현황

- 부산시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시 인구는 2020년 335만 명에서 2050년까지 25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정책이 추진 중임
- 최근 5년간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8% 수준이며, 고용률도 약간의 등락은 존재하나, 약 56%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미흡한 수준임
- 부산광역시 지역 내 총생산은 2021년 기준 약 98.6조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구군별 규모*는 서구의 지역 내 총생산액이 약 13.4조 원 규모로 가장 높고, 해운대구(약 9.1조 원), 부산진구(약 8.6조 원), 사하구(7.0조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52.9%) 부터 계속해서 감소하여 2022년 기준 4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7위 수준으로, 국내 두 번째 도시이자,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위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임
- 부산은 인구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수가 증가하여 세대수는 2012년 13.8만 세대에서 2021년 15.4만 세대까지 증가함
- 부산의 노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2년 44.2만 명에서 2021년 68.1만 명까지 증가하여 도시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 부산시 산업 종사자 중 제조업 관련 종사자는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 29.7만 명에서 2021년 24.0만 명 수준이나 사무, 판매, 서비스 종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2017년: 사무 28.8만 명, 판매 20.9만 명, 서비스 18.8만 명, 2021년: 사무 31.4만 명, 판매 22.7만 명, 서비스 21.3만 명)

* 공시자료 기준, 2020년 부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

- 최근 3년간(2018~2020년) 부산 내 전입 기업은 총 1,592개 기업이고, 전출기업은 1,677개 기업으로 전출 기업이 85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기술 기반 업종 기업의 전출은(1,025개 기업) 전입(1,130개 기업) 보다 더 많으며, 기술 기반(제조 및 지식서비스 등) 업종은 전입이(567개 기업) 전출보다(547개 기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식료품, 소재, 기계 등 다양한 제조업이 순유출되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출판업, 부동산업이 순유출되었고, 서비스업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 지식 및 서비스업의 유출이 가중되고 있음
- 부산 내 청년 창·폐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2020년 기준 청년창업 기업이 17,400개, 폐업기업은 8,750개이고, 창·폐업자간 격차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청년 창업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2) 수입

- 국내 수입 전체 생두와 이중 부산항 경유 수입 생두의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생두 수입량은 약 147,431톤에서 2022년 기준 약 181,503톤으로 연평균(최근 6년) 약 4.2%씩 증가하였고, 이중 부산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생두량도 2017년 기준 약 137,937톤에서 2022년 기준 약 171,329톤으로 연평균 약 4.4%씩 증가하고 있음
- 최근 6년간 국내 유입 전체 생두 수입량 중 부산항 경유 수입량은 평균 93.8%로 부산항은 국내 생두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 수입 전체 생두 수입액과 부산항 경유 생두 수입액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생두 수입액은 약 4.8억 달러에서 2022년 기준 약 9.1억 달러로 연평균(최근 6년) 약 13.3%씩 증가하였고, 이중 부산항을 경유 수입액도 2017년 기준 약 4.6억 달러에서 2022년 기준 약 8.8억 달러로 연평균 약 13.5%씩 증가하고 있음*
- 최근 6년간 평균 약 93.8%의 생두가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대부분의 생두 유통 및 가공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은 생두 수입 관련 단순 거점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음

3) 로스팅

- KOSIS 국가통계포털 산업분류 기준 부산내 로스팅 업체 비중은* 2019년 39.74%, 2020년 35.37%, 2021년 42.21%로 등락이 존재함
 - 부산내 커피 가공업 종사 기업 수: 2019년 60개 기업, 2020년 104개 기업, 2021년 111개 기업
- 2021년 기준 부산내 커피가공업 총사업체 수는 부산진구(19개), 기장군(15개), 금정구/사상구(각 13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내 주요 커피 로스터리로는 부산커피 협동조합 비컵(커피 교육,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커피커뮤니티 기반 다양한 사업 추진 중)과 전문인력을(세계 커피 챔피언) 활용하여 대규모 원두 로스팅 시설을 운영 중인 모모스커피 등이 존재함

4) 물류 및 유통

- 커피산업은 물류비 이슈로 인하여 저장, 가공, 물류 및 유통 관련 산업들이 집적하여 운영되는 특징을 보임. 따라서 대부분의 물류 및 유통기업은 저장 및 가공업체가 존재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내 대규모 물류 및 유통업체 거의 부재한 상황임
- 다만, 최근 커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남부 지역 물류 및 유통 거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관련 준비 및 대응(스타벅스 등)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추진 중인 기업 유치에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산 도매업체들이 생두 수입(도매) 후 해당 생두가 부산 내에서 얼마나 로스팅(가공)되고 있는지를 수치화(부산내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부산 내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로 계산)

** KOSIS 국가통계포털

- 해외 우수 및 성공사례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저장, 가공 및 물류/유통 단지 조성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법 및 제도 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므로,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역사 및 축제

- 부산은 국내 최초로 커피를 음용한 도시이며, 일제 강점기, 미군 부대와 자유시장(현 국제시장) 관계 등 부산은 국내 커피의 역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음
- 부산에는 영도 커피 페스티벌, 전포 커피 축제, 금정구 라라라 페스티벌, 3대 커피 축제가 존재함. 영도 커피 페스티벌은 2019년 처음 시작하여 2022년에는 1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성장하였으며, 전포 커피 축제는 지자체와 이해관계자가 주체가 되어, 일반 시민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함
- 금정구 라라라 페스티벌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금정구 대표 커피와 빵을 즐기는 축제이며, 2022년 기준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축제로 성장함

6) 부산 커피산업 현황*

- 부산 내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비중은 2019년 1.73%, 2020년 1.51%, 2021년 1.64% 수준이며, 전체 산업 대비 광의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비중은 2019년 2.00%, 2020년 1.55%, 2021년 1.68% 수준임
- 부산 내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19년 1.08%, 2020년 0.96%, 2021년 1.16% 수준이며, 전체 산업 대비 광의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19년 1.30%, 2020년 1.00%, 2021년 1.19% 수준임

* KOSIS 국가통계포털

- 또한 부산 내 커피산업 관련 기업의 약 80% 이상은 4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2019년: 협의 커피산업 78.7%, 광의 커피산업 78.0%, 2020년: 협의 커피산업 78.7%, 광의 커피산업 85.5%, 2021년: 협의 커피산업 82.3%, 광의 커피산업 82.8%)
- 2021년 기준 부산 내 커피 관련 사업체는 부산진구에(908개) 가장 많이 존재하며, 해운대구(740개), 금정구(511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산에서 시작한 다양한 저가형 프랜차이즈 성공기업이(더벤티, 컴포즈 커피, 더리터, 배러먼데이, 하삼동커피, 텐퍼센트 등) 존재하며, 전국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산 내 커피전문점 신규사업자는 전국 평균 성장률인 10.74%를 넘어선, 14.58%를 보이는 등 커피 관련 활발한 신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7) 부산 커피산업 역량 분석

- 커피산업 Value-Chain의 경우 크게 생산, 수입, 가공, 제조 및 판매, 유통, 소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우, 생산 부분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산 부분을 제외한 분석을 실시함
- 국내 수입 생두의 약 93.8%(최근 6년, 2017~2022년) 부산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나, 저장 설비 및 업체 부재로 단순 수입/수출 거점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수입 부분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가공, 제조 및 판매 부분은 관련 산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나, 부산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지역 산업계의 노력과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노력 등으로 다양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 물류 및 유통 부분 또한 커피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하나, 커피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신규 물류 및 유통 거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부산이 커피 물류 및 유통 관련 남부지역 거점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점과 지자체의 다양한 관련 사업 유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 커피 소비 수준은 활발하고 다양한 커피전문점 운영, 부산내 관광지 및 이벤트와 연계한 다양한 커피 축제 및 행사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2 부산시 현황분석

1) 사회, 경제 분석

(1) 부산시 인구 분석

[표 IV-1] 부산시 예상 인구수

(단위 : 만 명)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335	320	307	295	282	267	251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그림 IV-1] 부산시 예상 인구수

(단위: 만 명)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 부산광역시 통계청 자료 기반 부산 인구는 2020년 335만 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50년에는 25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유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필요

[표 IV-2] 부산시 경제활동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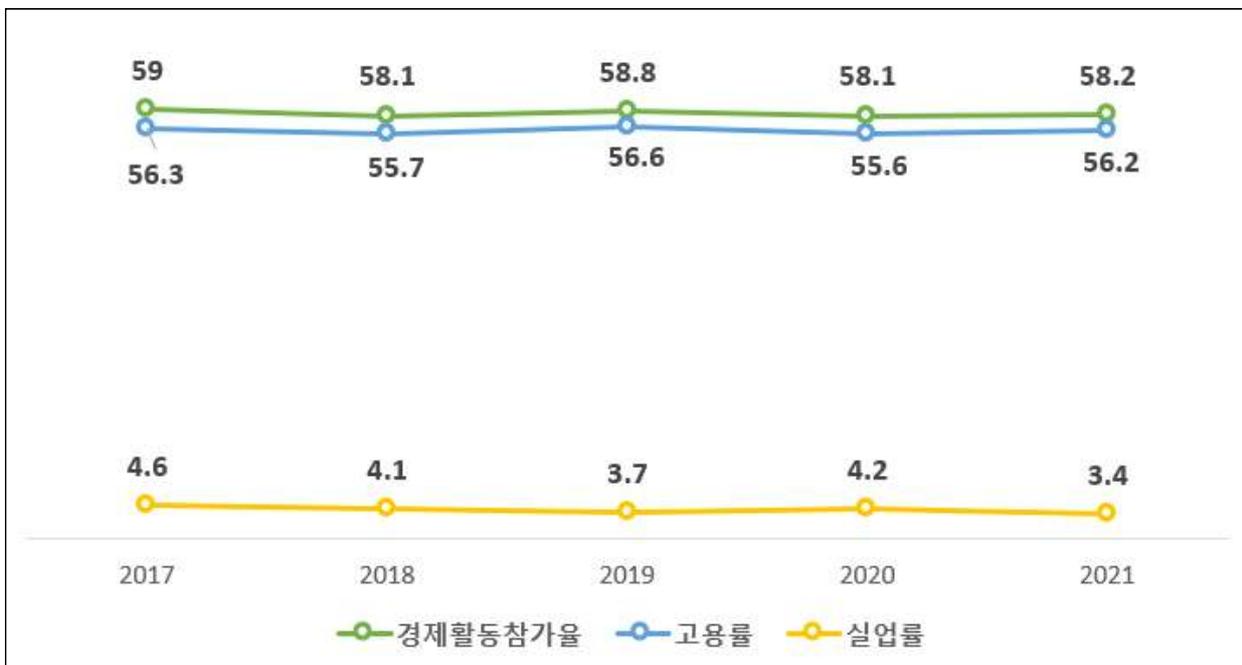
(단위 :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활동참가율	59.0	58.1	58.8	58.1	58.2
고용률	56.3	55.7	56.6	55.6	56.2
실업률	4.6	4.1	3.7	4.2	3.4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그림 IV-2] 부산시 경제 활동 인구

(단위: %)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 부산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59.0%에서 2021년 58.2%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고, 고용률은 2017년 56.3%에서 2021년 56.2%로 연간 등락이 존재하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임. 다만, 전반적인 수치가 매우 낮은 수준임
- 실업률은 2017년 4.6%에서 2021년 3.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부산시 지역 내 총생산 및 재정자립도

[표 IV-3] 부산시 지역 내 총생산

(단위 : 억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11,558	733,190	775,625	827,014	855,363	878,356	899,798	930,121	912,864	986,519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그림 IV-3] 부산시 지역 내 총생산

(단위: 억 원)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표 IV-4] 부산시 재정자립도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1.4	51.0	50.9	52.9	52.3	50.0	49.2	46.1	46.9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그림 IV-4] 부산시 재정자립도

(단위: %)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표 IV-5] 재정자립도 상위 7개 지자체

(단위 : %)

서울	경기	세종	인천	울산	대구	부산
76.3	61.6	56.9	52.8	48.7	47.9	46.9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 부산광역시 지역 내 총생산은 2012년 약 71.1조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98.6조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2017년(52.9%)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2022년에는 46.9%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부산은 국내 2위 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 전국 7번째 재정자립도를(1위 서울, 2위 경기, 3위 세종, 4위 인천, 5위 울산, 6위 대구)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 IV-6] 부산 지역별 지역 내 총생산

(단위 : 백만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 구	3,269,729	3,102,572	2,973,236	3,119,522	3,551,831
서 구	3,131,976	3,155,204	3,287,309	2,977,265	3,414,621
동 구	4,210,995	4,731,722	4,552,679	4,768,625	4,098,015
영 도 구	2,373,113	2,540,393	2,642,385	2,731,839	2,762,062
부 산 진 구	7,757,805	8,192,376	8,516,260	8,886,673	8,640,684
동 래 구	3,793,172	3,934,188	4,063,079	4,097,686	3,989,457
남 구	5,286,229	5,772,151	5,708,284	5,649,213	6,155 947
북 구	2,981,371	3,013,728	3,125,859	3,116,148	3,031,318
해 운 대 구	7,434,863	8,277,548	8,845,460	9,503,602	9,128,828
사 하 구	6,886,885	6,985,761	6,900,352	7,190,129	7,040,858
금 정 구	4,350,242	4,619,023	4,492,619	4,626,781	4,367,027
강 서 구	12,944,025	12,637,730	13,354,327	14,481,984	13,426,281
연 제 구	6,121,841	6,455,583	6,744,687	6,880,899	6,323,236
수 영 구	2,425,284	2,555,115	2,575,439	2,789,695	2,770,947
사 상 구	7,008,698	6,750,783	6,760,826	6,567,881	6,216,501
기 장 군	5,560,120	5,111,724	5,437,095	5,624,192	6,368,873
부산광역시	85,536,348	87,835,601	89,979,896	93,012,134	91,286,486

* 출처 : 2020년 부산광역시 지역 내 총생산

- 부산 지역별 지역 내 총생산은 강서구가(13.4조 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대구(9.1조 원), 부산진구(8.6조 원), 사하구(7.0조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3) 부산시 고용 현황(최근 1년)

[표 IV-7] 부산시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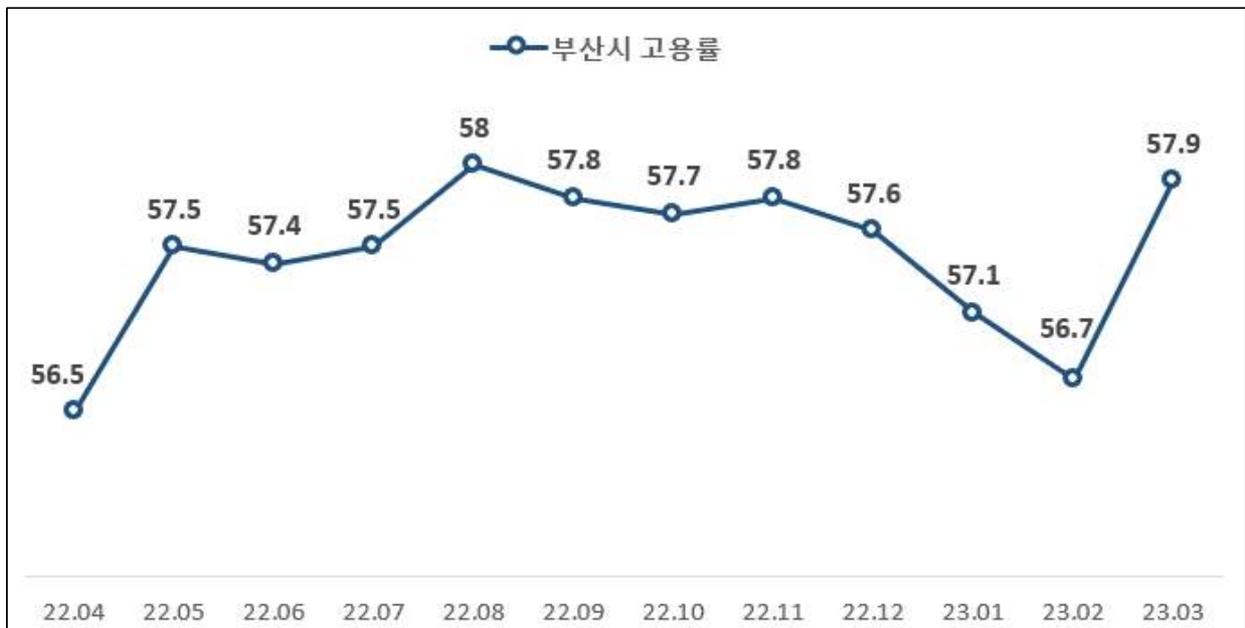
(단위 : %)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2022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56.5	57.5	57.4	57.5	58.0	57.8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57.7	57.8	57.6	57.1	56.7	57.9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그림 IV-5] 부산시 고용률

(단위: %)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표 IV-8] 부산시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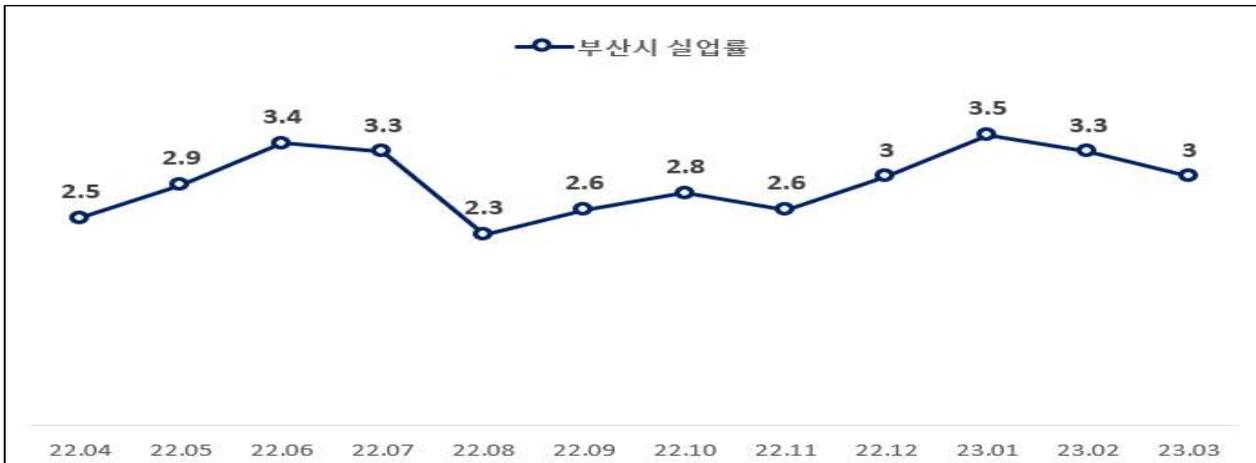
(단위 : %)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2022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5	2.9	3.4	3.3	2.3	2.6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8	2.6	3.0	3.5	3.3	3.0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그림 IV-6] 부산시 실업률

(단위: %)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표 IV-9] 부산시 청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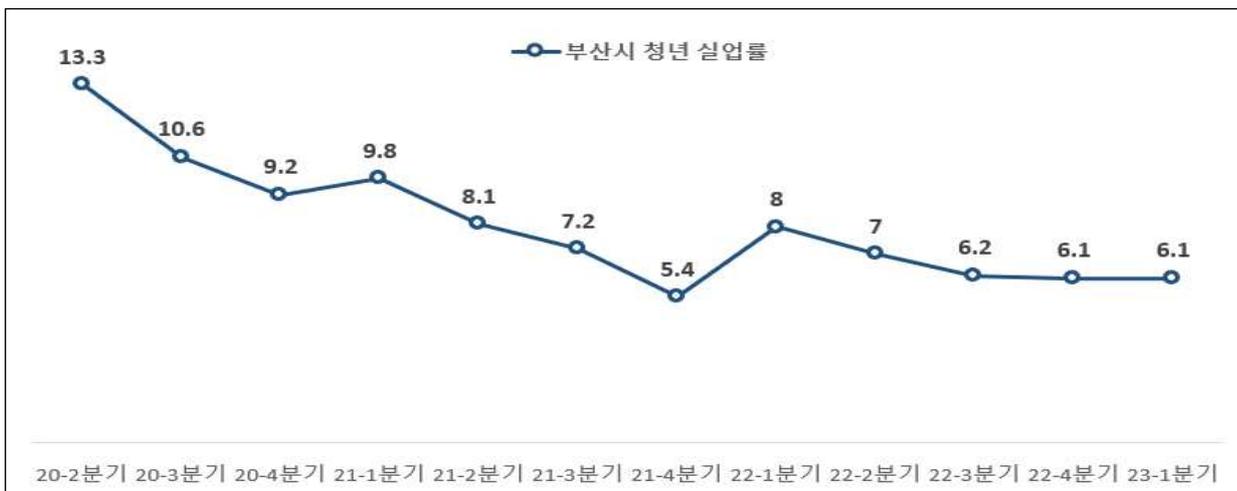
(단위: %)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13.3	10.6	9.2	9.8	8.1	7.2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5.4	8.0	7.0	6.2	6.1	6.1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 통계 포럼

[그림 IV-7] 부산시 청년 실업률

(단위: %)



*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경제통계포럼

- 최근 1년 간(2022년 4월 ~ 2023년 3월) 부산시 고용률 약 57%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약 3%대에서 약간의 등락은 존재하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청년 실업률은 2020년 2분기(13.3%) 이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분기에는 6.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 부산시 경기 관련 지표

[표 IV-10] 부산시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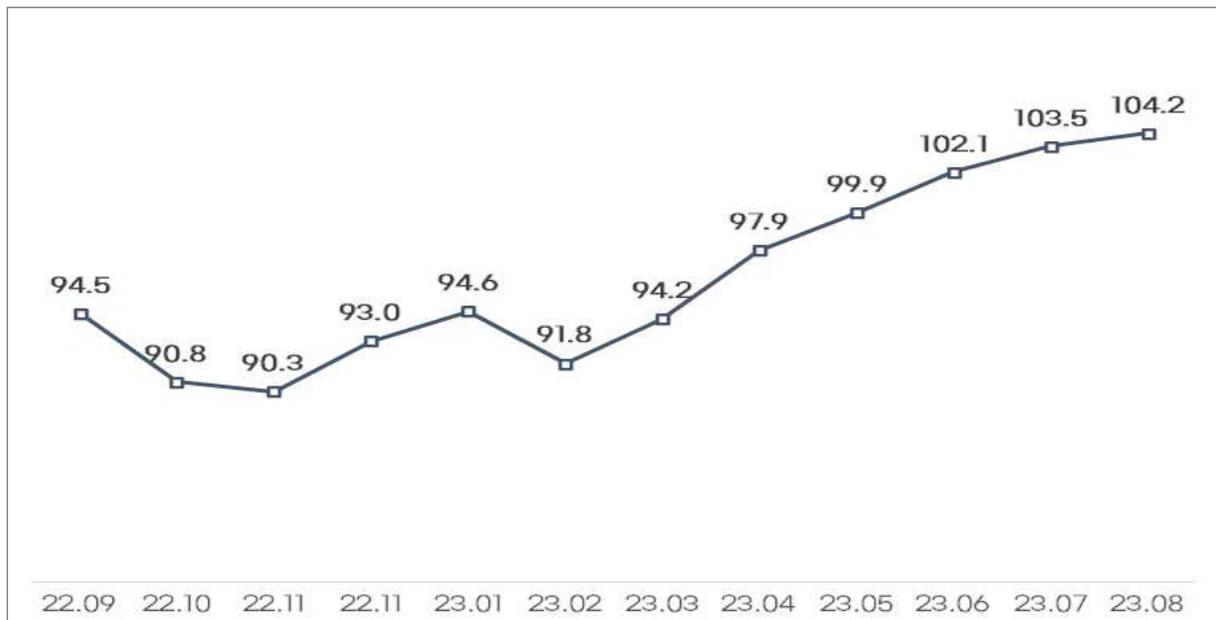
(단위 : 2015=100)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94.5	90.8	90.3	93.0	94.6	91.8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94.2	97.9	99.9	102.1	103.5	104.2

* 출처 : 부산연구원_부산경제통계포럼

[그림 IV-8] 부산시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2015=100)



* 출처 : 부산연구원_부산경제통계포럼

[표 IV-11] 부산시 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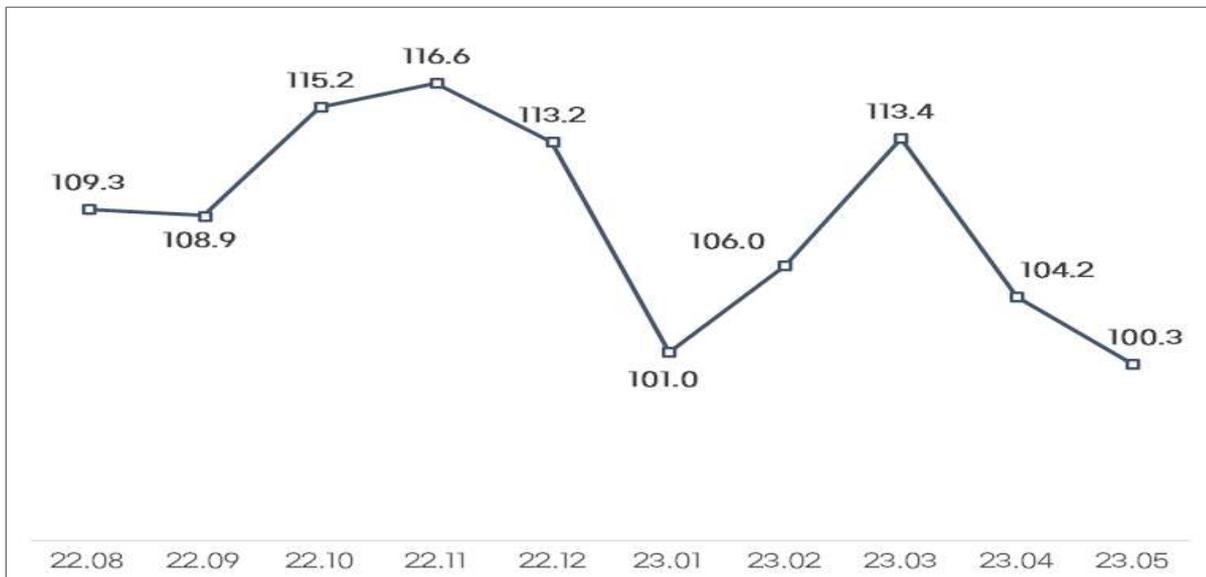
(단위: 2015=100)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109.3	108.9	115.2	116.6	113.2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101.0	106.0	113.4	104.2	100.3

* 출처 : 부산연구원_부산경제통계포럼

[그림 IV-9] 부산시 생산지수

(단위: 2015=100)



* 출처 : 부산연구원_부산경제통계포럼

[표 IV-12] 부산시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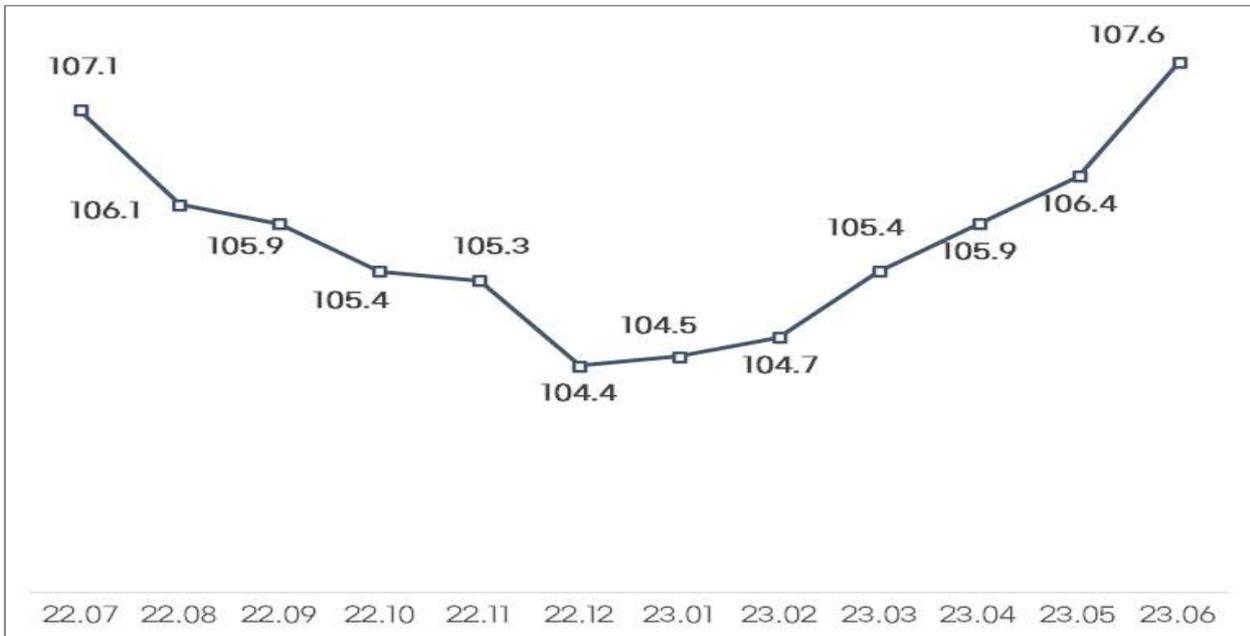
(단위: 2015=100)

2022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107.1	106.1	105.9	105.4	105.3	104.4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104.5	104.7	105.4	105.9	106.4	107.6

* 출처 : 부산연구원_부산경제통계포럼

[그림 IV-10] 부산시 경기선행지수

(단위: 2015=100)



* 출처 : 부산연구원_부산경제통계포럼

- 최근 1년간(2022년 9월 ~ 2023년 8월) 부산광역시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9월 기준 94.5에서 2023년 8월 104.2로 높아짐
- 최근 1년간(2022년 8월 ~ 2023년 5월) 부산광역시 생산지수는 2022년 8월 109.3에서 2023년 5월 100.3으로 등락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2022년 7월 ~ 2023년 6월) 부산광역시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7월 107.1에서 2023년 6월 107.6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IV-13] 부산시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2.6	1.7	4.2	3.0	1.7	1.6	1.7	2.5	-3.5	2.3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 최근 10년간(2012년 ~ 2021년) 부산시 연도별 경제성장률은 2014년 4.2%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 -3.5% 기록), 전반적인 수치가 높지 않음

(5) 부산시 세대 현황

[표 IV-14] 부산시 세대 수

(단위 : 천 호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38	140	142	143	145	146	148	149	153	154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표 IV-15] 부산시 노령인구 수

(단위 : 천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42	467	492	514	536	565	589	620	657	681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그림 IV-11] 부산시 세대 수 및 노령인구 수 (단위: 천 호수, 천 명)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 부산광역시의 세대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1년 기준 약 15만 호수를 기록하고 있음. 부산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세대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부산광역시의 노령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약 44만 명에서 2021년 약 68만 명으로 9년 만에 약 24만 명이 증가함

(6) 부산시 산업 종사자 분포

[표 IV-16] 부산시 산업 종사자 분포

(단위 : 천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무종사자	288	293	307	312	314
판매종사자	209	203	208	218	227
서비스종사자	188	190	214	212	213
제조업	297	287	284	255	240
농업, 임업 및 어업	13	10	7	7	11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 부산광역시의 산업별 종사자 비교 결과, 제조업 종사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2017년 297천 명에서 2021년 240천 명) 보이고 있으며, 농림 및 어업의 종사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다 2021년 소폭 상승함
- 제조업 공장들이 공장 부지 확보 등을 이유로 경남권, 수도권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사무(2017년 288천 명에서 2021년 314천 명), 판매(2017년 209천 명에서 2021년 227천 명), 서비스산업(2017년 188천 명에서 2021년 213천 명) 종사자는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1인 가구 증가 및 3차 산업 종사자 증가는 향후 부산 커피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7) 부산시 전·출입 기업 현황

[표 IV-17] 부산시 전·출입 기업 현황 (2018~2020년 기준)

(단위 : 기업)

	합 계	비기술 기반업종	기술기반업종		
			소계	제조업	지식서비스
전입	1,592	1,025	567	328	239
전출	1,677	1,130	547	339	208
(전입 - 전출)	-85	-105	20	-11	31

* 출처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법원 등기정보광장

- 최근 3년간(2018~2020년) 부산 내 전입 기업은 총 1,592개 기업이고, 전출기업은 1,677개 기업으로 부산 전입 기업 보다 전출 기업이 85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순유출 되는 부산 기업은 주로 경남, 경기, 서울, 울산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기술 기반 업종 기업의 전출은(1,025개 기업) 전입(1,130개 기업) 보다 더 많으며, 기술 기반(제조 및 지식서비스 등) 업종은 전입이(567개 기업) 전출보다(547개 기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술 기반 업종 중 제조업의 순유출이(전입: 328개 기업, 전출 339개 기업) 더 많으나, 지식서비스의 경우, 순유입이(전입: 239개 기업, 전출 208개 기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 소재, 기계 등 다양한 제조업이 순유출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출판업, 부동산업이 순유출되었고, 서비스업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 가치사슬 상류 또는 지식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의 유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 억제 및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8) 부산시 청년 창·폐업 현황

[표 IV-18] 부산시 청년 창·폐업 현황

(단위 : 기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청년창업	13,669	14,465	14,911	15,048	15,777	17,400
청년폐업	8,178	8,112	8,385	8,589	8,993	8,750
(창업-폐업)	5,491	6,353	6,526	6,459	6,784	8,650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 부산내 청년 창업기업은 2015년 기준 13,669개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400개 까지 증가함
- 청년 창업기업의 증가와 함께 폐업기업의 수도 함께 증가하여 2015년 기준 8,178개였으나, 2020년에는 8,750개로 늘어남
- 정부 및 부산시의 적극적인 창업육성 사업 활성화 노력으로 인하여 폐업자간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등 지역내, 청년 취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3 수입

1) 수입 규모

(1) 국내 전체 수입 생두 및 부산항 수입 생두 현황

[표 IV-19] 국내 및 부산항 수입 생두 수입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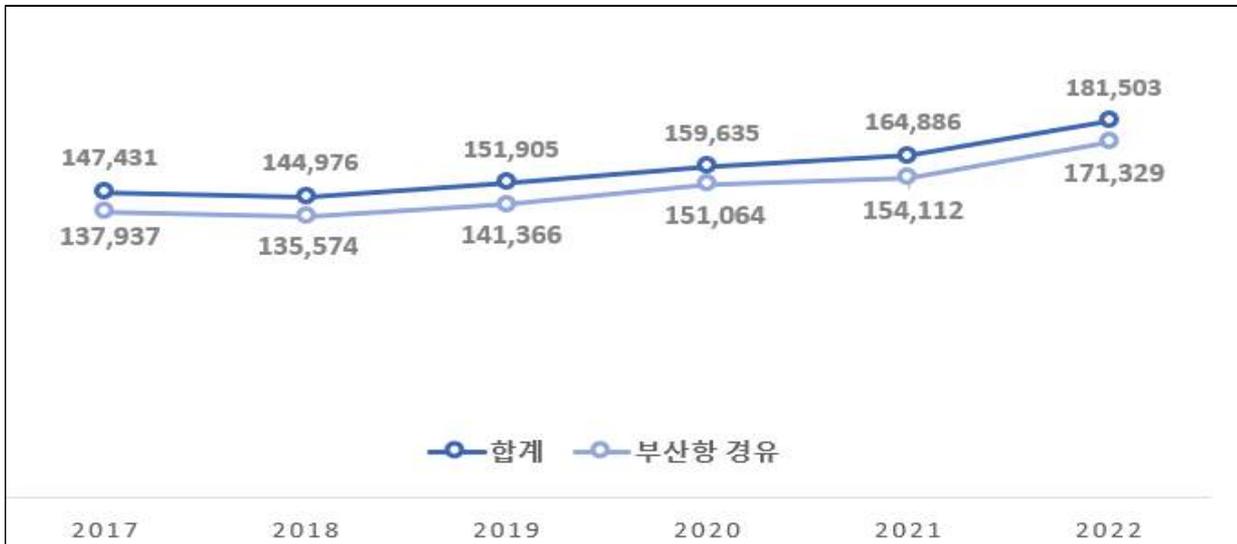
(단위 : 톤)

기간	국내 생두 수입량	국내 생두 수입량 CAGR	부산항 경유 수입량	부산항 경유 수입량 CAGR	부산항 경유 비중
2017년	147,431	약 4.2%	137,937	약 4.4%	93.6%
2018년	144,976		135,574		93.5%
2019년	151,905		141,366		93.1%
2020년	159,635		151,064		94.6%
2021년	164,886		154,112		93.5%
2022년	181,503		171,329		94.4%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그림 IV-12] 국내 생두 수입량 및 부산항 경유 수입량

(단위 : 톤)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 국내 수입 생두의 약 93% 이상이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수입량과 부산항을 통한 수입량 모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부산항 기준 생두 수입량은 약 137,937톤(국내 전체 약 147,431톤)에서 2022년 기준 약 171,329톤(국내 전체 약 181,503톤)까지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4.4%의 성장률로 국내 전체 수입량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국내 전체 4.2%)

[표 IV-20] 국내 전체 및 부산항 경유 생두 수입액 규모

(단위 : 천 달러)

기간	국내 생두 수입액	국내 생두 수입액 CAGR	부산항 경유 수입액	부산항 경유 수입액 CAGR	부산항 경유 비중
2017년	489,932	약 13.3%	467,161	약 13.5%	95.4%
2018년	445,867		426,626		95.7%
2019년	432,629		412,135		95.3%
2020년	465,367		449,014		96.5%
2021년	559,727		536,624		95.9%
2022년	913,727		880,343		96.3%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그림 IV-13] 국내 생두 수입액 및 부산항 경유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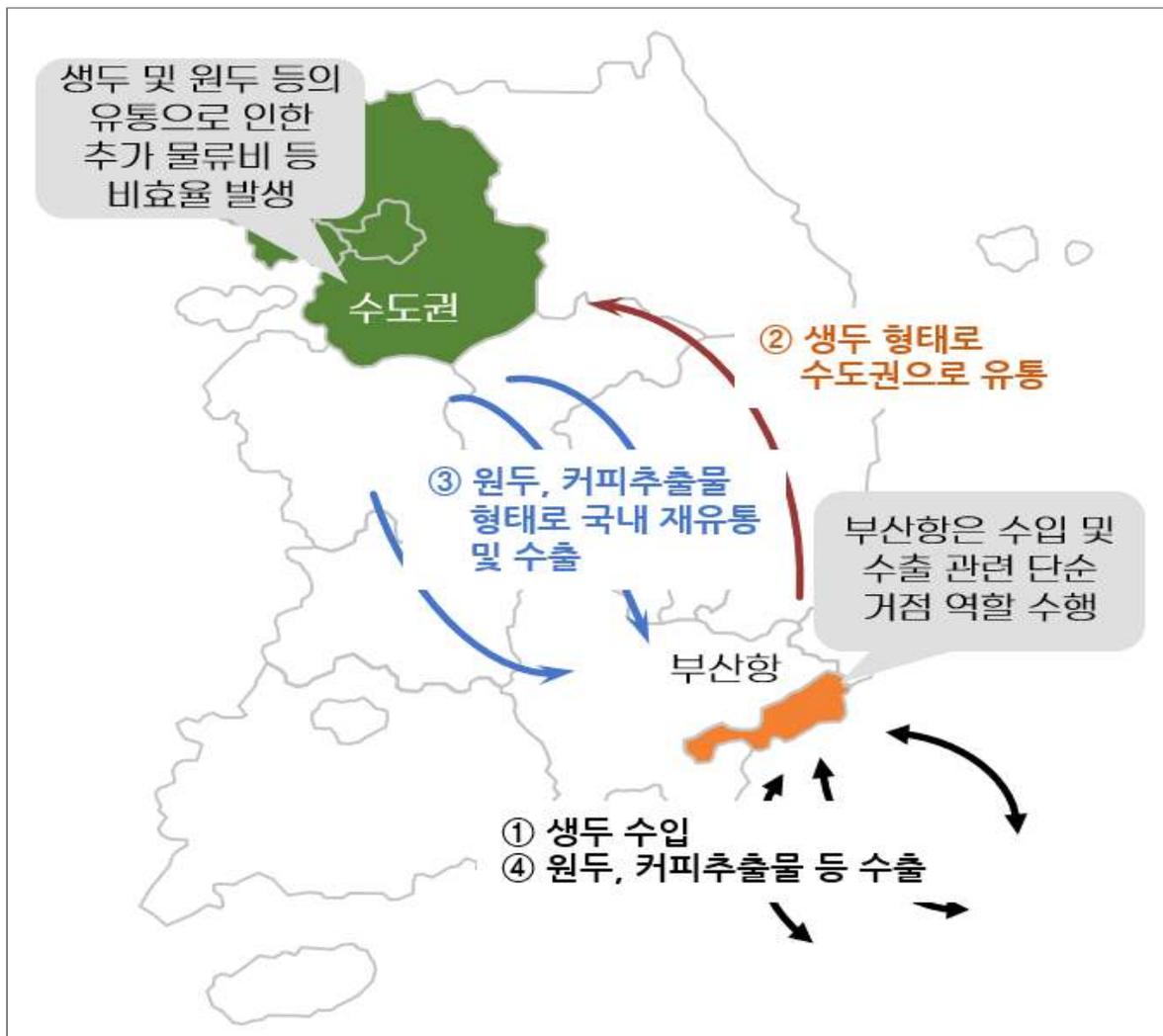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 2017년 부산항 기준 생두 수입액은 약 4.6억 달러(국내 전체 약 4.8억 달러)에서 2022년 기준 약 8.8억 달러(국내 전체 약 9.1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3.5%의 성장률로 국내 전체 수입액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국내 전체 13.3%)
- 최근 6년간 수입된 국내 전체 생두 금액의 약 95.8%가 부산항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최근 6년간 국내 전체 수입량의 약 93.8%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됨)

2) 수입 생두 유통경로

[그림 IV-14] 국내 커피 유통경로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생두가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 커피 유통구조는 부산항에 수입된 생두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가공 후 전국으로 재유통하거나 수출하는 구조로 부산은 생두 수입 수출 관련 단순 거점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음
- 부산항이 보유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단순 국내 생두 수입 거점이 아닌, 커피 관련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부산이 국내 커피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 및 전문산업과 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로스팅

1) 부산 로스팅 현황

(1) 연도별(2019~2021년) 로스팅 현황**

[표 IV-21] 2019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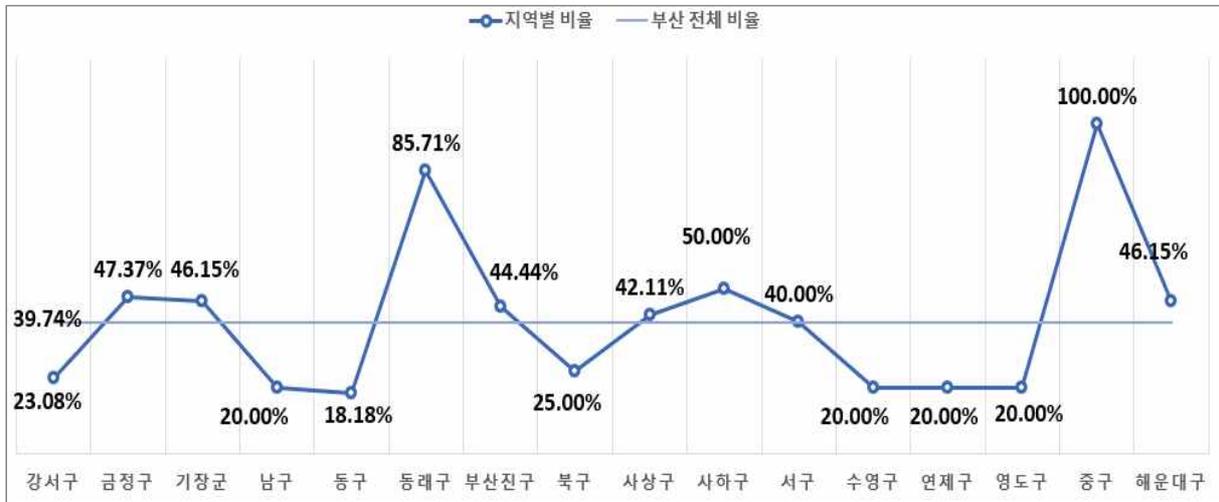
(단위 : 개, %)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강서구	13	3	23.08%
금정구	19	9	47.37%
기장군	13	6	46.15%
남구	10	2	20.00%
동구	11	2	18.18%
동래구	7	6	85.71%
부산진구	9	4	44.44%
북구	4	1	25.00%
사상구	19	8	42.11%
사하구	2	1	50.00%
서구	5	2	40.00%
수영구	5	1	20.00%
연제구	10	2	20.00%
영도구	5	1	20.00%
중구	6	6	100.00%
해운대구	13	6	46.15%
합 계	151	60	39.74%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부산 도매업체가 생두를 수입(도매)한 후, 해당 생두가 부산 내에서 얼마나 로스팅(가공)되고 있는지 산정(부산 내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부산 내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그림 IV-15] 2019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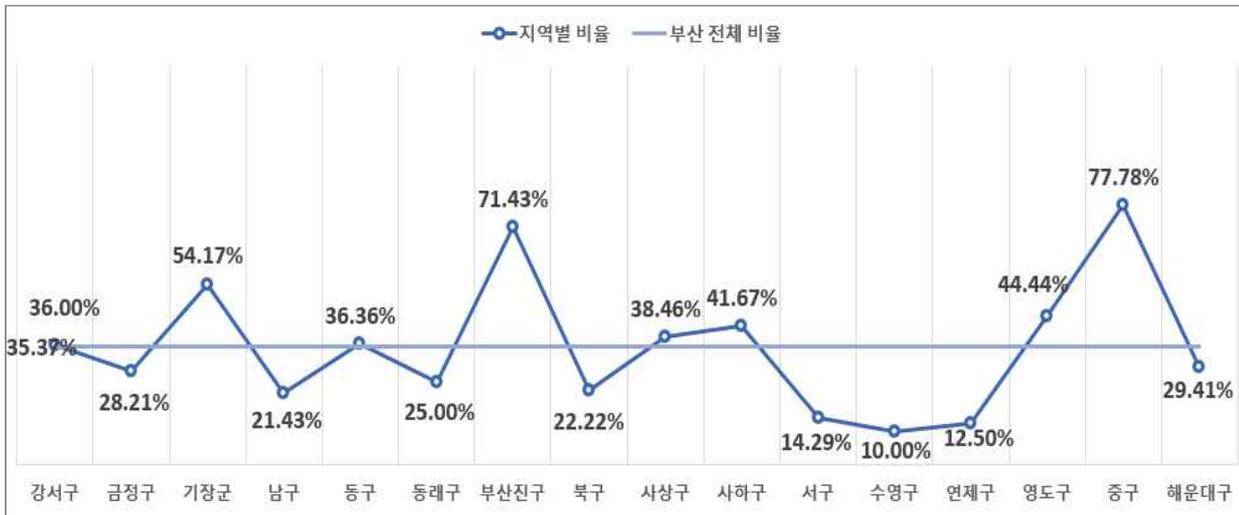
[표 IV-22] 2020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단위 : 개, %)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강서구	25	9	36.00%
금정구	39	11	28.21%
기장군	24	13	54.17%
남구	14	3	21.43%
동구	11	4	36.36%
동래구	28	7	25.00%
부산진구	21	15	71.43%
북구	9	2	22.22%
사상구	26	10	38.46%
사하구	12	5	41.67%
서구	7	1	14.29%
수영구	10	1	10.00%
연제구	16	2	12.50%
영도구	9	4	44.44%
중구	9	7	77.78%
해운대구	34	10	29.41%
합 계	294	104	35.37%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V-16] 2020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단위 : %)



[표 IV-23] 2021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강서구	26	9	34.62%
금정구	31	13	41.94%
기장군	23	15	65.22%
남구	11	4	36.36%
동구	15	3	20.00%
동래구	19	4	21.05%
부산진구	22	19	86.36%
북구	7	3	42.86%
사상구	24	13	54.17%
사하구	9	5	55.56%
서구	6	1	16.67%
수영구	9	1	11.11%
연제구	14	2	14.29%
영도구	6	4	66.67%
중구	6	7	116.67%
해운대구	35	8	22.86%
합 계	263	111	42.21%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V-17] 2021년 생두 수입 후 부산 내 로스팅 비율 (단위 : %)



- KOSIS 국가통계포털 산업분류 기준 부산내 로스팅 업체 비중은 2019년 39.74%, 2020년 35.37%, 2021년 42.21%로 등락이 존재함
- 2021년 기준 부산내 커피가공업 종사업체 수는 부산진구(19개), 기장군(15개), 금정구/사상구(각 13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부산시 주요 커피 로스터리 업체

① 부산커피 협동조합 비숍

- 부산 커피교육센터와 커피 관련 전문회사들이 부산 커피산업의 위상확보와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사회적 기업으로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장, 부산시 우수 식품기업으로 선정됨

② 모모스커피

- 2022 스포렛지 어워드 ‘올해의 로스터’ 선정 및 세계 커피 챔피언과 같은 탄탄한 인적자원과 영도에 위치한 대규모 원두 로스팅 시설을 바탕으로 부산의 커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

5 물류 및 유통

1) 부산 커피산업 물류 및 유통 현황

- 대부분의 국내 커피산업 관련 물류 및 유통 기업은 수도권 또는 충청권에 위치함
- 커피산업은 저장, 가공, 물류 및 유통이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며, 저장, 가공, 물류 및 유통산업이 분산되어 운영될 경우, 다수의 물류비가 발생될 수 있어, 대부분의 물류 및 유통기업의 경우, 저장 및 가공업체가 존재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함께 위치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커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남부 지역 물류 및 유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스타벅스의 경우 CJ대한통운과의 연계를 통하여 부산을 스타벅스 남부지역 물류 및 유통 거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스타벅스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타 커피 관련 기업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부산신항 배후단지

- 부산신항 항만 배후단지에 2023년 현재 물류업 65개사, 제조업 4개사가 입지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한 물류기업들은 특정 분야 보다는 종합 물류기업(상사 물류창고 등)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고용창출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물류회사의 입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IV-24] 광양항 배후단지 제조업 및 물류업 1개사 가치 비교

(단위 : 명, TEU, 만원, 개월)

업종	고용 창출	물량 창출	평균임금	평균 근속 월
제조업	69명	1,564TEU	3,896만원	142개월
물류업	218명	10,052TEU	3,346만원	108개월

* 출처 : 한국항만경제연합(김승철, 강효원), 항만배후단지성과평가와 활성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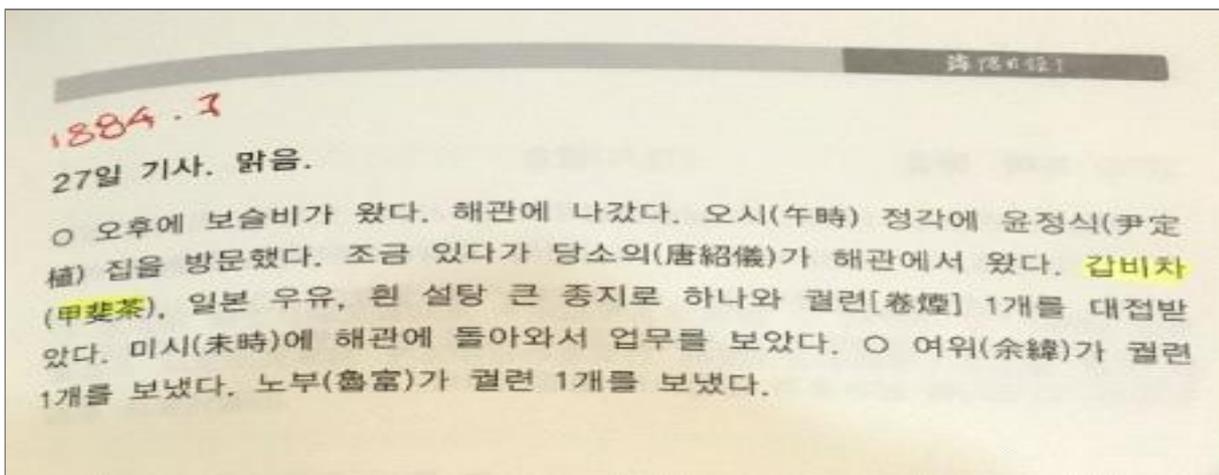
-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 추진 기업 유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개정(2022.11.)을 통하여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커피업종 입주 가능해짐에 따라 임가공을 통한 해외수출에도 유리한 여건을 확보한 부분은 긍정적임
-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업 중심의 입주정책에서 물류업과 제조업의 조화로운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부산형 커피산업(커피 저장, 가공, 물류 및 유통업)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우수기업의(글로벌 커피 저장 기업: 몰렌베르크나티, 파코리니, 볼러스 등) 적극적인 입주 유치를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지원, 업무 환경 조성 노력,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홍보 추진 등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6 역사, 행사, 판매

1) 역사(부산 국내 최초 커피 음용 기록)

- 개항기 부산항 감리서에서 일했던 민건호(1843 ~ 1920)라는 사람이 남긴 일기 <해은일록>에 1884년 7월 27일 ‘갑비차’ 를 대접받았다는 내용이 존재함
- 내용이 방대하고 국역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차에 걸쳐 각기 다른 번역자의 참여 등으로 인하여 소리나는 대로 쓰인 갑비(甲斐)를 놓쳤었으나, 부산 지역사를 연구하는 선장 출신의 연구자 이성훈 부산학당 대표가 이를 확인해냄
- 실제로 <해은일록>에는 1884년 7월부터 1892년 12월까지 9번이나 커피가 각기 다른 한자로 등장함, 1890년에는 갑비(甲非)로, 1892년엔 갑배로 뒤로 갈수록 가배로 굳어지는 모습임
- 이는 기존의 고종을 시작으로 한 왕실 중심, 또는 인천항 중심의 커피 역사를 뒤집고 부산이 커피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주장의 새로운 근거로 큰 의미를 가짐

[그림 IV-18] 부산해관 감리서 민건호가 쓴 <해은일록> 1884년 7월 27일자 내용



- 이후에도 부산항으로 백국(브라질) 커피가 지속적으로 수입돼 온 사실을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고, 미군 부대 커피가 부산 자

유 시장(현 국제시장)에서 풀려 팔리는 등 부산이 커피 역사의 중심지가 될 수 밖에 없는 문헌이나 자료가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음

2) 행사

(1) 영도 커피 페스티벌

- 2019년 ‘향긋한 커피향에 문화를 담다’ 라는 주제로 첫 개최하였으며, 41개사(53부스)가 참여했고, 페스티벌 방문객은 약 5만여 명임
- 2020년 축제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고, 2021년 축제는 ‘영도, 커피로 물들다’ 라는 주제로 32개사(37부스) 참여, 방문객 약 4.5만 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조금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었음
- 2022년도 축제는 전년도와 같은 주제로 진행하였고, 80개사(120개 부스), 방문객 10.5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참여 기업 및 방문객 규모가 매우 확대됨
- 2020년 축제까지는 영도 내 로컬 커피 업체들이 주로 참여하였으나, 2021년에는 해외 3개국, 2022년에는 중미 스페셜티 커피 생산국을 포함한 8개국이 참여했고, 행사 명칭도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로 변경하여 세계적인 커피 축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IV-25] 영도 커피 페스티벌 연혁

(단위 : 개, 명)

행사연도	주제	행사규모		
		참가업체수	부스개수	방문객수
2019	향긋한 커피향에 문화를 담다	41	53	50,000
2020	영도, 커피로 젊음을 리드하다	코로나19로 취소		
2021	영도, 커피로 물들다	32	37	45,000
2022	영도, 커피로 물들다	83	135	105,000

* 출처 :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 홈페이지

[그림 IV-19] 2021년 ~ 2022년 영도커피페스티벌 포스터



* 출처 : 글로벌 영도커피페스티벌 홈페이지

(2) 전포 커피 축제

- 서면 놀이마루 공간을 활용한 커피 세미나, 부산커피박물관 투어, 시음 및 체험부스 운영과 같은 커피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댄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추진함
- 영도 커피 페스티벌이 영도구와 한국커피협회의 주관으로 생두, 머신, 스페셜티 등 커피산업 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커피 박람회인 반면, 전포 커피 축제는 부산진구와 전포카페상인회가 주관하는 축제로 일반 시민들을 편안하게 커피와 관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 등을 제공하는 축제임

[그림 IV-20] 2022 전포커피축제 포스터



* 출처 : 전포커피축제 공식 SNS

(3) 금정구 라라라 페스티벌

- 금정구에서는 부산대 지하철역 근처에서 금정구 대표 커피, 빵을 즐길 수 있는 라라라 페스티벌을 2016년도부터 기획 및 추진 중임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페스티벌은 미로 탈출, 사진관, 퀴즈대회 등의 이벤트가 메타버스 플랫폼 Engage에서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온천천 근처 포토존만 운영함
- 2022년 페스티벌에서는 ‘달콤한 빵을 먹어라! 향긋한 커피를 마셔라! 즐거운 문화를 즐겨라!’ 라는 슬로건 하에 금정구 내 커피, 빵, 디저트 관련 업체 40곳이 참여하였고, 금정구 추산 페스티벌 방문객이 약 1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1] 2021 라라라페스티벌 포스터



* 출처 : 부산제일경제 - 금정구 '메타버스' 활용한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금정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7 부산 커피산업 현황

1) 산업 현황(사업체 및 종사자)

(1) 부산시 커피·음료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표 IV-26] 부산시 커피·음료 사업체 수 및 매출액

(단위 : 개, 명, 십만 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점포수	4,677	5,566	5,868	5,952
종사자수	6,457	7,656	8,990	9,159
매출액	322,313	385,269	390,835	464,296

* 출처 : 부산소상공인통계표, 커피, 음료

- 부산시 내 커피·음료 점포, 종사자 수 및 매출액 모두 2019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로 2022년 점포 수 약 5.9천 개(2019년 약 4.6천 개), 종사자 수 약 9.1천 명(2019년 약 6.4천 명), 매출액 464억 원(2019년 약 322억 원)을 기록함

(2) 전체 산업 대비 커피산업 현황 (부산)

[표 IV-27]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13	3	183	199	19,166	1.04%
금정구	19	9	386	414	18,025	2.30%
기장군	13	6	291	310	11,509	2.69%
남구	10	2	315	327	16,526	1.98%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동구	11	2	168	181	13,826	1.31%
동래구	7	6	369	382	19,596	1.95%
부산진구	9	4	652	665	33,696	1.97%
북구	4	1	236	241	15,111	1.59%
사상구	19	8	209	236	28,225	0.84%
사하구	2	1	295	298	22,392	1.33%
서구	5	2	163	170	9,345	1.82%
수영구	5	1	323	329	13,947	2.36%
연제구	10	2	270	282	16,876	1.67%
영도구	5	1	145	151	9,394	1.61%
중구	6	6	289	301	14,619	2.06%
해운대구	13	6	513	532	28,104	1.89%
부산(합계)	151	60	4,807	5,018	290,357	1.73%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19년 협의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부산진구가 665개, 해운대구가 532개로 가장 많으나 그만큼 전체 산업 사업체 수도 제일 높은 편에 속해 각각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이 1.97%, 1.89%로 낮음
- 2019년 부산시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장군으로 2.69%가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이고, 그 다음은 수영구로 2.36%의 비중을 차지함
-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사상구로 전체 산업 대비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비중이 0.84%로 나타남

[표 IV-28]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13	30	3	183	16	245	19,166	1.28%
금정구	19	1	9	386	28	443	18,025	2.46%
기장군	13	1	6	291	17	328	11,509	2.85%
남구	10	0	2	315	42	369	16,526	2.23%
동구	11	2	2	168	30	213	13,826	1.54%
동래구	7	0	6	369	49	431	19,596	2.20%
부산진구	9	4	4	652	169	838	33,696	2.49%
북구	4	0	1	236	60	301	15,111	1.99%
사상구	19	14	8	209	48	298	28,225	1.06%
사하구	2	8	1	295	50	356	22,392	1.59%
서구	5	2	2	163	11	183	9,345	1.96%
수영구	5	0	1	323	46	375	13,947	2.69%
연제구	10	0	2	270	49	331	16,876	1.96%
영도구	5	0	1	145	19	170	9,394	1.81%
중구	6	0	6	289	29	330	14,619	2.26%
해운대구	13	0	6	513	60	592	28,104	2.11%
부산 (합계)	151	62	60	4,807	723	5,803	290,357	2.0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19년 광의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부산진구가 838개, 해운대구가 592개로 가장 많음, 특히 부산진구는 바리스타 교육을 포함한 직업 훈련 학교가 169곳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전체 산업대비 커피산업 비중도 2.49%로 세 번째로 높음
- 2019년 부산시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기장군으로 2.85%가 커피산업 사업체이고, 그 다음은 수영구로 2.69%의 비중을 기록함

○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사상구로 전체 산업 대비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비중이 1.06%로 나타남

[표 IV-29]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25	9	260	294	29,201	1.01%
금정구	39	11	451	501	26,863	1.87%
기장군	24	13	352	389	17,736	2.19%
남구	14	3	342	359	24,635	1.46%
동구	11	4	199	214	18,639	1.15%
동래구	28	7	428	463	27,739	1.67%
부산진구	21	15	798	834	45,040	1.85%
북구	9	2	283	294	20,802	1.41%
사상구	26	10	248	284	36,946	0.77%
사하구	12	5	334	351	29,276	1.20%
서구	7	1	189	197	11,630	1.69%
수영구	10	1	384	395	19,535	2.02%
연제구	16	2	320	338	23,657	1.43%
영도구	9	4	177	190	11,308	1.68%
중구	9	7	298	314	18,939	1.66%
해운대구	34	10	606	650	40,057	1.62%
부산(합계)	294	104	5,669	6,067	402,003	1.51%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협의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부산진구가 834개, 해운대구가 650개로 가장 많으나 그만큼 전체 산업 사업체 수도 제일 높은 편에 속해 각각 전체 산업 대비 커피산업 비중이 1.85%, 1.62%로 낮음
- 2020년 부산시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기장군으로 2.19%가 커피산업 사업체이고, 그 다음은 수영구로 2.02%의 비중을 기록해 2019년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임
-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사상구로 전체 산업 대비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비중이 0.77%로 나타남

[표 IV-30]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25	32	9	260	22	348	29,201	1.19%
금정구	39	1	11	451	48	550	26,863	2.05%
기장군	24	1	13	352	26	416	17,736	2.35%
남구	14	0	3	342	57	416	24,635	1.69%
동구	11	1	4	199	35	250	18,639	1.34%
동래구	28	0	7	428	67	530	27,739	1.91%
부산진구	21	6	15	798	888	1,728	45,040	3.84%
북구	9	1	2	283	187	482	20,802	2.32%
사상구	26	12	10	248	65	361	36,946	0.98%
사하구	12	9	5	334	50	410	29,276	1.40%
서구	7	1	1	189	64	262	11,630	2.25%
수영구	10	1	1	384	10	406	19,535	2.08%
연제구	16	0	2	320	55	393	23,657	1.66%
영도구	9	0	4	177	53	243	11,308	2.15%
중구	9	1	7	298	26	341	18,939	1.80%
해운대구	34	0	10	606	34	684	40,057	1.71%
부산 (합계)	294	66	104	5,669	89	6,222	402,003	1.55%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광의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부산진구가 1,728개, 해운대구가 684개로 가장 많음, 특히 부산진구는 바리스타 교육을 포함한 직업 훈련 학교가 888곳으로 2019년 169곳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산업대비 커피산업 비중도 3.84%로 제일 높아짐
- 2020년 부산시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진구로 3.84%가 커피 사업체이고, 다음은 기장군, 북구로 각각 2.35%, 2.32%의 비중을 기록해 2019년도 순위와 바뀐 것을 알 수 있음
-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사상구로 다수의 산업체 대비 낮은 커피 관련 산업 사업 비중을 보임(0.98%)

[표 IV-31]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26	9	298	333	30,038	1.11%
금정구	31	13	467	511	26,714	1.91%
기장군	23	15	384	422	17,930	2.35%
남구	11	4	377	392	24,190	1.62%
동구	15	3	197	215	18,208	1.18%
동래구	19	4	467	490	27,667	1.77%
부산진구	22	19	867	908	44,355	2.05%
북구	7	3	318	328	21,049	1.56%
사상구	24	13	302	339	36,104	0.94%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32]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사하구	9	5	376	390	29,196	1.34%
서구	6	1	207	214	11,376	1.88%
수영구	9	1	423	433	19,613	2.21%
연제구	14	2	356	372	23,946	1.55%
영도구	6	4	188	198	11,616	1.70%
중구	6	7	289	302	18,306	1.65%
해운대구	35	8	697	740	40,946	1.81%
부산(합계)	263	111	6,213	6,587	401,254	1.64%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1년 협의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부산진구 908개, 해운대구 740개로 가장 많고 특히, 부산진구는 전체 산업 대비 커피산업 비중이 2.05%로 기장군, 수영구 다음으로 높은 지역구임
- 2021년 부산시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기장군으로 2.35%가 커피산업 사업체이고, 그 다음은 수영구로 2.21%의 비중을 기록해 2020년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임
-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사상구로 다수 산업체 대비 낮은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비중을 보임(0.94%)

[표 IV-33]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사업체 수 (부산)

(단위 : 개,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26	32	9	298	40	405	30,038	1.35%
금정구	31	1	13	467	55	567	26,714	2.12%
기장군	23	1	15	384	35	458	17,930	2.55%
남구	11	0	4	377	74	466	24,190	1.93%
동구	15	0	3	197	35	250	18,208	1.37%
동래구	19	0	4	467	71	561	27,667	2.03%
부산진구	22	6	19	867	1,035	1,949	44,355	4.39%
북구	7	1	3	318	197	526	21,049	2.50%
사상구	24	10	13	302	75	424	36,104	1.17%
사하구	9	9	5	376	54	453	29,196	1.55%
서구	6	1	1	207	70	285	11,376	2.51%
수영구	9	2	1	423	16	451	19,613	2.30%
연제구	14	0	2	356	75	447	23,946	1.87%
영도구	6	0	4	188	63	261	11,616	2.25%
중구	6	1	7	289	33	336	18,306	1.84%
해운대구	35	1	8	697	34	775	40,946	1.89%
부산 (합계)	263	65	111	6,213	108	6,760	401,254	1.68%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1년 기준 제조업과 교육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을 제외한 협의커피산업(도매업, 가공업, 전문점) 사업체 수로 보았을 때는 해운대구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제조업과 교육업을 포함하면 부산진구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
- 2021년 광의 커피 관련 사업체 수는 부산진구가 1,949개, 해운대구가 775개로 가장 많음, 특히 부산진구는 전문점 수도 제일 많지만, 바리스타 교육을 포함한 직업 훈련 학교가 1,949곳으로 2020년 888곳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비중도 4.39%로 제일 높아짐
- 부산시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부산진구로 4.39%가 커피 사업체이고, 그 다음은 기장군, 서구로 각각 2.55%, 2.51%의 비중을 기록해 2020년도 순위와 바뀐 것을 알 수 있음
-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사상구로 전체 산업체 대비 커피 관련 산업 사업체 비중이 1.17%로 나타남

(3) 전체 산업 대비 커피산업 종사자 현황 (부산)

[표 IV-34]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단위 :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66	9	612	687	130,149	0.53%
금정구	70	14	1,204	1,288	95,426	1.35%
기장군	39	45	921	1,005	67,550	1.49%
남구	27	X**	1,015	1,042	86,061	1.21%
동구	37	X**	557	594	76,815	0.77%
동래구	13	14	1,078	1,105	88,421	1.25%
부산진구	37	10	2,140	2,187	170,046	1.29%

(단위 :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북구	7	X**	681	688	60,838	1.13%
사상구	56	20	659	735	123,719	0.59%
사하구	X	X**	907	907	110,453	0.82%
서구	27	X**	500	527	45,538	1.16%
수영구	11	X**	959	970	58,526	1.66%
연제구	22	X**	802	824	90,941	0.91%
영도구	5	X**	425	430	46,222	0.93%
중구	14	9	832	855	66,776	1.28%
해운대구	80	22	1,885	1,987	147,952	1.34%
부산(합계)	516	172	15,177	15,865	1,465,433	1.08%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 2019년 부산 지역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는 부산진구가 2,187명, 해운대구가 1,987명으로 가장 많지만 전체 산업 대비 커피산업 종사자 수 비중은 높지 않음
-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비중은 수영구가 1.66%로 가장 높고, 기장군이 1.4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커피산업 종사자 수가 전체 산업 종사자 수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강서구로 0.53%의 비중을 보임

[표 IV-35]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단위 :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 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 업 비중
강서구	66	211	9	612	26	924	130,149	0.71%
금정구	70	X**	14	1,204	79	1,367	95,426	1.43%
기장군	39	X**	45	921	34	1,039	67,550	1.54%
남구	27	0	X**	1015	167	1,209	86,061	1.40%
동구	37	X**	X**	557	83	677	76,815	0.88%
동래구	13	0	14	1,078	164	1,269	88,421	1.44%
부산진구	37	9	10	2,140	969	3,165	170,046	1.86%
북구	7	0	X**	681	196	884	60,838	1.45%
사상구	56	40	20	659	159	934	123,719	0.75%
사하구	X**	81	X**	907	216	1,204	110,453	1.09%
서구	27	X**	X**	500	40	567	45,538	1.25%
수영구	11	0	X**	959	142	1,112	58,526	1.90%
연제구	22	0	X**	802	183	1,007	90,941	1.11%
영도구	5	0	X**	425	101	531	46,222	1.15%
중구	14	0	9	832	110	965	66,776	1.45%
해운대구	80	0	22	1,885	215	2,202	147,952	1.49%
부산 (합계)	516	359	172	15,177	2,884	19,108	1,465,433	1.3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 2019년 커피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부산진구가 3,165명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가 2,202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 또한 전체 산업 대비 커피 산업 종사자 수 비중도 각각 1.86%,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36]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단위: 명, %)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63	29	617	709	141,740	0.50%
금정구	111	14	1,064	1,189	100,717	1.18%
기장군	45	70	927	1,042	75,197	1.39%
남구	36	3	853	892	94,930	0.94%
동구	30	5	537	572	77,434	0.74%
동래구	33	10	958	1,001	99,318	1.01%
부산진구	97	29	1,933	2,059	171,416	1.20%
북구	10	X**	654	664	65,826	1.01%
사상구	63	21	610	694	125,635	0.55%
사하구	19	10	832	861	113,433	0.76%
서구	27	X**	433	460	46,854	0.98%
수영구	16	X**	879	895	61,131	1.46%
연제구	26	X**	769	795	97,589	0.81%
영도구	9	11	390	410	45,666	0.90%
중구	12	12	665	689	67,285	1.02%
해운대구	84	26	1,730	1,840	153,110	1.20%
부산(합계)	681	248	13,851	14,780	1,537,281	0.96%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표 IV-37]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단위: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 업 비중
강서구	63	207	29	617	35	951	141,740	0.67%
금정구	111	X**	14	1,064	114	1,303	100,717	1.29%
기장군	45	X**	70	927	100	1,142	75,197	1.52%
남구	36	0	3	853	149	1,041	94,930	1.10%
동구	30	X**	5	537	117	689	77,434	0.89%
동래구	33	0	10	958	185	1,186	99,318	1.19%
부산진구	97	9	29	1,933	2,751	4,819	171,416	2.81%
북구	10	X**	X**	654	894	1,558	65,826	2.37%
사상구	63	40	21	610	172	906	125,635	0.72%
사하구	19	64	10	832	143	1,068	113,433	0.94%
서구	27	X**	X**	433	179	639	46,854	1.36%
수영구	16	X**	X**	879	31	926	61,131	1.51%
연제구	26	0	X**	769	134	929	97,589	0.95%
영도구	9	0	11	390	161	571	45,666	1.25%
중구	12	X**	12	665	50	739	67,285	1.10%
해운대구	84	0	26	1,730	98	1,938	153,110	1.27%
부산 (합계)	681	333	248	13,851	189	15,302	1,537,281	1.0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표 IV-38]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단위: 명, %)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커피산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강서구	73	34	826	933	143,600	0.65%
금정구	110	16	1,200	1,326	102,359	1.30%
기장군	79	84	1,121	1,284	77,117	1.67%
남구	39	4	1,053	1,096	93,744	1.17%
동구	37	6	566	609	76,827	0.79%
동래구	23	6	1,212	1,241	97,700	1.27%
부산진구	109	36	2,365	2,510	174,317	1.44%
북구	12	4	820	836	66,682	1.25%
사상구	55	15	797	867	124,257	0.70%
사하구	19	11	991	1,021	113,587	0.90%
서구	24	X**	544	568	45,728	1.24%
수영구	13	X**	1,070	1,083	62,351	1.74%
연제구	28	X**	912	940	96,109	0.98%
영도구	6	11	487	504	46,978	1.07%
중구	7	10	774	791	69,033	1.15%
해운대구	103	28	2,197	2,328	154,115	1.51%
부산(합계)	737	270	16,935	17,942	1,544,504	1.16%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

[표 IV-39]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종사자 수 (부산)

(단위: 명, %)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 업 합계***	지자체 산업 전체	커피산 업 비중
강서구	73	194	34	826	68	1,195	143,600	0.83%
금정구	110	X**	16	1,200	109	1,435	102,359	1.40%
기장군	79	X**	84	1,121	75	1,359	77,117	1.76%
남구	39	0	4	1,053	174	1,270	93,744	1.35%
동구	37	0	6	566	95	704	76,827	0.92%
동래구	23	0	6	1,212	214	1,455	97,700	1.49%
부산진구	109	11	36	2,365	2878	5,399	174,317	3.10%
북구	12	X**	4	820	929	1,765	66,682	2.65%
사상구	55	31	15	797	184	1,082	124,257	0.87%
사하구	19	60	11	991	164	1,245	113,587	1.10%
서구	24	X**	X**	544	171	739	45,728	1.62%
수영구	13	X**	X**	1,070	39	1,122	62,351	1.80%
연제구	28	0	X**	912	133	1,073	96,109	1.12%
영도구	6	0	11	487	183	687	46,978	1.46%
중구	7	X**	10	774	55	846	69,033	1.23%
해운대구	103	0	28	2,197	86	2,414	154,115	1.57%
부산 (합계)	737	313	270	16,935	199	18,454	1,544,504	1.1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 (X: 공개 불가, 0: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

- 제조업과 교육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을 제외한 협의커피산업(도매업, 가공업, 전문점)만으로 보았을 때는 2019년~2021년 3년 모두 수영구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
- 제조업과 교육업을 포함하면 높은 교육업 종사자 수의 영향으로 2019년~2021년 3년 모두 부산진구의 커피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
- 2019년 대비 2020년 부산 내 커피 사업 종사자 수가 감소함. 이는 커피 전문점 내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반면에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의 종사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4) 전체 산업 대비 커피산업 기업 규모 현황 (부산)

[표 IV-40]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단위: 명, 개, %)

규모 (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커피 전문점 사업체 수	커피산업 합계	부산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122	50	3,778	3,950	234,741	1.68%
5-9	13	7	799	819	33,559	2.44%
10-19	14	2	215	231	12,117	1.91%
20-49	2	1	15	18	6,460	0.28%
50-99	0	0	0	0	2,247	0.00%
100-299	0	0	0	0	984	0.00%
300-499	0	0	0	0	126	0.00%
500-999	0	0	0	0	94	0.00%
1,000 이상	0	0	0	0	29	0.00%
합계	151	60	4,807	5,018	290,357	1.73%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41] 2019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단위: 명, 개, %)

규모 (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부산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122	42	50	3,778	537	4,529	234,741	1.93%
5-9	13	11	7	799	113	943	33,559	2.81%
10-19	14	5	2	215	56	292	12,117	2.41%
20-49	2	4	1	15	16	38	6,460	0.59%
50-99	0	0	0	0	1	1	2,247	0.04%
100-299	0	0	0	0	0	0	984	0.00%
300-499	0	0	0	0	0	0	126	0.00%
500-999	0	0	0	0	0	0	94	0.00%
1,000 이상	0	0	0	0	0	0	29	0.00%
합계	151	62	60	4,807	723	5,803	290,357	2.0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42]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단위: 명, 개, %)

규모 (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커피 전문점 사업체 수	커피산업 합계	부산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122	50	3,778	3,950	234,741	1.68%
5-9	13	7	799	819	33,559	2.44%
10-19	14	2	215	231	12,117	1.91%
20-49	2	1	15	18	6,460	0.28%
50-99	0	0	0	0	2,247	0.00%
100-299	0	0	0	0	984	0.00%
300-499	0	0	0	0	126	0.00%
500-999	0	0	0	0	94	0.00%
1,000 이상	0	0	0	0	29	0.00%
합계	151	60	4,807	5,018	290,357	1.73%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43] 2020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단위: 명, 개, %)

규모 (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부산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267	49	94	4,863	727	6,000	351,125	1.71%
5-9	13	7	6	656	108	790	29,677	2.66%
10-19	11	7	2	142	39	201	11,597	1.73%
20-49	3	3	2	8	12	28	6,148	0.46%
50-99	0	0	0	0	2	2	2,206	0.09%
100-299	0	0	0	0	0	0	984	0.00%
300-499	0	0	0	0	0	0	128	0.00%
500-999	0	0	0	0	0	0	96	0.00%
1,000 이상	0	0	0	0	0	0	42	0.00%
합계	294	66	104	5,669	888	7,021	402,003	1.75%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44]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단위: 명, 개, %)

규모 (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업체 수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	커피 전문점 사업체 수	커피산업 합계	부산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229	99	5,096	5,424	349,610	1.55%
5-9	23	8	915	946	29,702	3.18%
10-19	6	1	187	194	11,994	1.62%
20-49	5	3	15	23	6,489	0.35%
50-99	0	0	0	0	2,258	0.00%
100-299	0	0	0	0	950	0.00%
300-499	0	0	0	0	127	0.00%
500-999	0	0	0	0	84	0.00%
1,000 이상	0	0	0	0	40	0.00%
합계	263	111	6,213	6,587	401,254	1.64%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45] 2021년 전체 산업 대비 광의 커피산업 기업 규모 (부산)

(단위: 명, 개, %)

규모 (명)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커피 가공업	커피 전문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커피산업 합계	부산 산업 전체	커피산업 비중
1-4	229	48	99	5,096	891	6,363	349,610	1.82%
5-9	23	8	8	915	75	1,029	29,702	3.46%
10-19	6	5	1	187	54	253	11,994	2.11%
20-49	5	4	3	15	15	42	6,489	0.65%
50-99	0	0	0	0	0	0	2,258	0.00%
100-299	0	0	0	0	0	0	950	0.00%
300-499	0	0	0	0	0	0	127	0.00%
500-999	0	0	0	0	0	0	84	0.00%
1,000이상	0	0	0	0	0	0	40	0.00%
합계	263	65	111	6,213	1,035	7,687	401,254	1.92%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1년 부산 커피산업 내 사업체들의 규모는 대부분 소규모로 1~4명 규모 사업체가 6,363개 있고, 5~9명 규모 사업체가 1,029개 있음
- 부산 지역에는 50인 이상의 대규모 커피산업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부산시 커피전문점 현황

[표 IV-46] 2021 부산시 종사자 규모별 커피전문점 현황

(단위 : 개)

	1~4명	5~9명	10~19명	20~49명	합 계
커피전문점 수	5,096	915	187	15	6,213

* 출처 :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표 IV-47] 2021 부산시 조직형태별 커피전문점 현황

(단위 : 개)

	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	합 계
커피전문점 수	5,628	475	106	4	6,213

* 출처 :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표 IV-48] 2021 부산시 사업체구분별 커피전문점 현황

(단위 : 개)

	단독	공장, 지사	본사, 본점	합 계
커피전문점 수	5,752	430	31	6,213

* 출처 :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 2021년 기준 부산 내 커피전문점은 대체로 1~4명 규모로(5,096개, 부산 전체 커피전문점 중 약 82.0%), 개인사업자 방식(부산 전체 커피전문점 중 약 90.5%)의 단독 운영(부산 전체 커피전문점 중 약 92.5%이 주를 이루고 있음

2) 업종별 현황

(1)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사업체 수

[표 IV-49] 2019년-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사업체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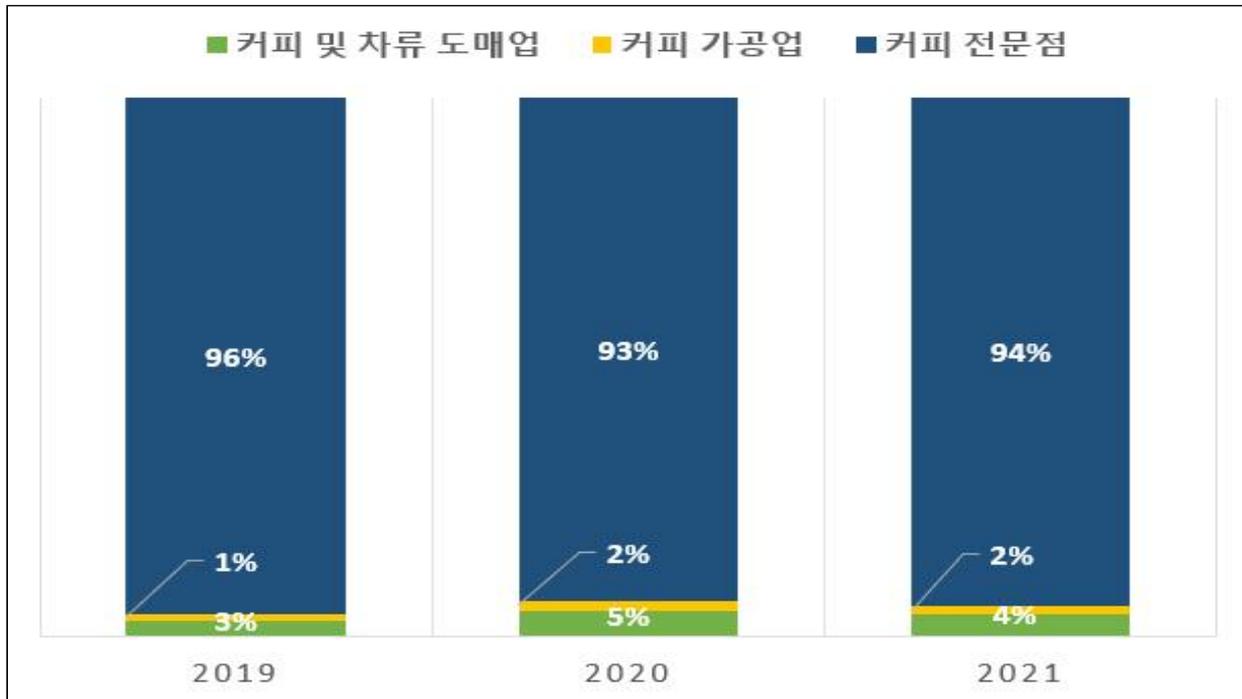
(단위 : 개, %)

	2019년	2020년	2021년	'19년 대비 '21년 변화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151	294	263	74.17%
커피 가공업	60	104	111	85.00%
커피전문점	4,807	5,669	6,213	29.25%
합 계	5,018	6,067	6,587	31.27%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V-22] 부산시 업종별 커피 사업체 비중

(단위: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부산 내 커피 관련 업종 내 총사업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고(2019년 5,018개 사업체, 2020년 6,067개 사업체, 2021년 6,587개 사업체) 이 중 커피 가공업의 2019년 대비 2021년 사업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커피 및 차류 도매업 74.17%, 커피 가공업 85.00%, 커피전문점 29.25%)

[표 IV-50] 2019년-2021년 부산시 지역별 커피 총 사업체 수 추이

(단위: 개, %)

	2019년	2020년	2021년	'19년 대비 '21년 변화율
부산진구	665	834	908	36.54%
해운대구	532	650	740	9.10%
금정구	414	501	511	23.43%

(단위 : 개, %)

	2019년	2020년	2021년	'19년 대비 '21년 변화율
동래구	382	463	490	28.27%
수영구	329	395	433	31.61%
기장군	310	389	422	36.13%
남구	327	359	392	19.88%
사하구	298	351	390	30.87%
연제구	282	338	372	31.91%
사상구	236	284	339	43.64%
강서구	199	294	333	67.34%
북구	241	294	328	36.10%
중구	301	314	302	0.33%
동구	181	214	215	18.78%
서구	170	197	214	25.88%
영도구	151	190	198	31.13%
합계	5,018	6,067	6,587	31.27%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V-23] 부산시 지역별 커피 사업체 비중

(단위: 개,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최근 3년간(2019~2021년) 각각 첫 번째(부산진구 2019년 665개, 2020년 834개, 2021년 908개), 두 번째(해운대구 2019년 532개, 2020년 650개, 2021년 740개)로 커피 업종 사업체 수가 가장 많고, 2019년 대비 2021년 커피 사업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67.34%, 2019년: 199개, 2021년 333개)인 것으로 나타남

(2) 부산시 커피전문점 신규사업자 현황

[표 IV-51] 부산시 커피전문점 신규사업자 추이

(단위 : 명,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CAGR
전 체	17,030	18,819	22,582	22,863	25,608	10.74%
부 산	1,021	1,077	1,376	1,448	1,760	14.58%
(부산/전체)	6.0%	5.7%	6.1%	6.3%	6.9%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그림 IV-24] 부산시 커피전문점 신규사업자 추이 (단위: 명)



* 출처 : 부산광역시 통계청

- 부산 커피전문점 신규사업자는 최근 5년간 매년 약 14.58%씩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760명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음(전국 약 10.74%)

(3) 부산시 커피 업종별 기업 규모

[표 IV-52] 2019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기업 규모

(단위 : 개)

기업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전문점	합 계
1-4명	122	50	3,778	3,950
5-9명	13	7	799	819
10-19명	14	2	215	231
20-49명	2	1	15	18
합 계	151	60	4,807	5,018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53] 2020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기업 규모

(단위 : 개)

기업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전문점	합 계
1-4명	267	94	4,863	5,224
5-9명	13	6	656	675
10-19명	11	2	142	155
20-49명	3	2	8	13
합 계	294	104	5,669	6,067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54] 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기업 규모

(단위 : 개)

기업 규모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전문점	합 계
1-4명	229	99	5,096	5,424
5-9명	23	8	915	946
10-19명	6	1	187	194
20-49명	5	3	15	23
합 계	263	111	6,213	6,587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부산 내 커피기업은 1-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 및 소비 커피전문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019년 약 78.7%, 2020년 약 86.1%, 2021년 82.3%)
- 2019년 이후 소비 부문 커피전문점 수가 가장 많이 늘어 부산 커피산업 관련 전체 기업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추진 기업은 2020년에(2019년 151개, 2020년 294개 기업)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20년 294개 기업, 2021년 263개 기업)

(4)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그림 IV-25] 더벤처 흥행



- 국내 저가 커피는 부산대 앞 더벤처의 ‘1,500원짜리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 에서 시작됨
- 더벤처를 시작으로 부산에는 컴포즈커피, 더리터, 배러먼데이, 하삼동, 텐퍼센트 등 다양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산을 넘어 전국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음

[표 IV-55] 부산에서 시작한 저가형 프랜차이즈 매장 수

(단위 : 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컴포즈 커피	41	95	150	220	400	800	1,330	2,000
더벤처	100	140	200	300	400	500	800	1,100

* 출처 : 컴포즈 커피, 더벤처 홈페이지

(5) 부산 카페 운영 현황

[표 IV-56] 2021년 부산 카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 천 원)

위 치	카 페 명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비 고
강서구	비아조 (강서구)	1,498,461	467,566	
	록산 (강서구)	695,033	-152,189	
	앙로고택 (강서구)	643,888	33,035	
	이프리오 (강서구)	596,261	101,756	
평 균		858,411	112,542	
기장	웨이브온커피 (기장)	3,502,889	795,841	
	헤이든 (기장)	1,809,279	234,825	
	카페드220볼트 (기장)	893,726	25,392	2020년 기준
	유정 1995 (기장)	552,095	65,814	
평 균		1,689,497	280,468	
영도	모모스커피 (영도)	6,538,482	646,775	
	카페385 (영도)	1,062,581	26,026	2020년 기준
	피아크 (영도)	721,452	240,918	
	신기여울 (영도)	227,040	7,610	
	젬스톤 (영도)	154,974	-75,477	
평 균		1,740,906	169,170	

*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부산의 낙동강 및 바다 풍경으로 유명한 강서구, 기장, 영도에 위치한 대형 카페들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음
- 영도 모모스커피의 매출액이 약 95억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웨이브온커피와 헤이든의 매출액이 각각 35억, 18억으로 높음
- 강서구, 기장, 영도 중 카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도이고, 이는 지역내 커피 축제 활성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등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6) 부산시 커피산업 종사자 현황

[표 IV-57] 2019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단위 : 명)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전문점	합 계***
강서구	66	9	612	687
금정구	70	14	1,204	1,288
기장군	39	45	921	1,005
남구	27	-**	1,015	1,042
동구	37	-**	557	594
동래구	13	14	1,078	1,105
부산진구	37	10	2,140	2,187
북구	7	-**	681	688
사상구	56	20	659	735
사하구	X**	-**	907	907
서구	27	-**	500	527
수영구	11	-**	959	970
연제구	22	-**	802	824
영도구	5	-**	425	430
중구	14	9	832	855
해운대구	80	22	1,885	1,987
합 계	516	172	15,177	15,865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X: 공개 불가, 비어 있는 셀: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표 IV-58] 2020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단위 : 명)

지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전문점	합계***
강서구	63	29	617	709
금정구	111	14	1,064	1,189
기장군	45	70	927	1,042
남구	36	3	853	892
동구	30	5	537	572
동래구	33	10	958	1,001
부산진구	97	29	1,933	2,059
북구	10	X**	654	664
사상구	63	21	610	694
사하구	19	10	832	861
서구	27	X**	433	460
수영구	16	X**	879	895
연제구	26	X**	769	795
영도구	9	11	390	410
중구	12	12	665	689
해운대구	84	26	1,730	1,840
합계	681	248	13,851	14,78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X: 공개 불가, 비어 있는 셀: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표 IV-59] 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단위 : 명)

지 역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커피 가공업	커피전문점	합 계***
강서구	73	34	826	933
금정구	110	16	1,200	1,326
기장군	79	84	1,121	1,284
남구	39	4	1,053	1,096
동구	37	6	566	609
동래구	23	6	1,212	1,241
부산진구	109	36	2,365	2,510
북구	12	4	820	836
사상구	55	15	797	867
사하구	19	11	991	1,021
서구	24	X**	544	568
수영구	13	X**	1,070	1,083
연제구	28	X**	912	940
영도구	6	11	487	504
중구	7	10	774	791
해운대구	103	28	2,197	2,328
합 계	737	270	16,935	17,942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구별 각각의 합과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일 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임(X: 공개 불가, 비어 있는 셀: 없음)

*** 구별 커피산업 종사자 수 합계는 X(공개 불가) 수치를 제외하고 합한 값임

- 2021년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종사자 수는 금정구(110명), 해운대구(103명) 순으로 가장 많으며, 커피 가공업으로 기장군(84명), 부산진구(36명) 순으로 많으며, 커피전문점은 부산진구(2,365명), 해운대구(2,197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커피 업종별 종사자 중 커피전문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매업·가공업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커피전문점 종사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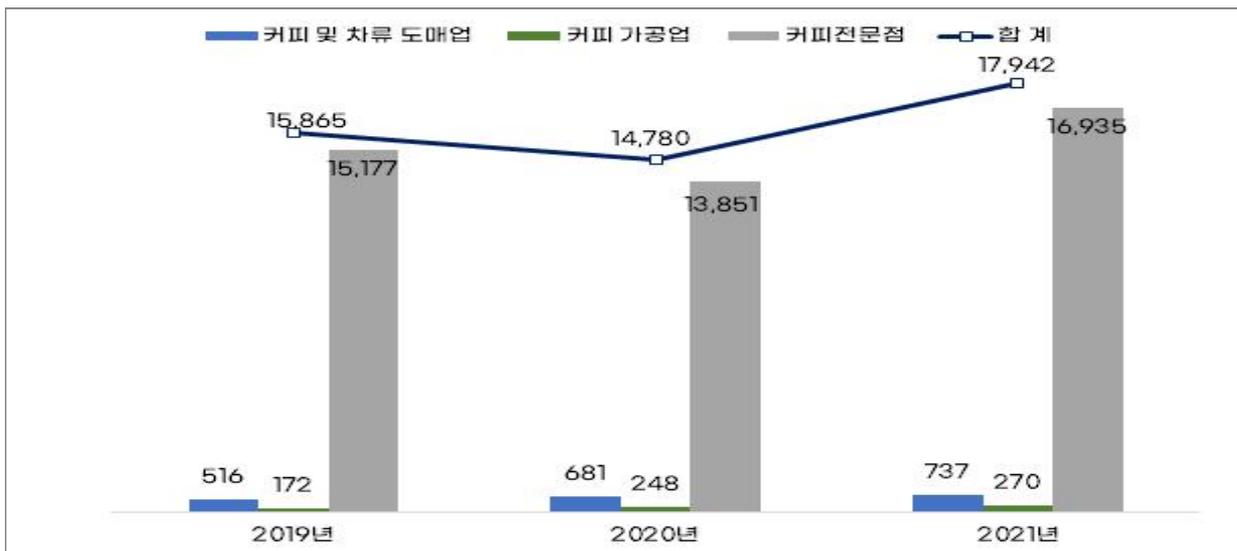
[표 IV-60] 2019-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2019년	2020년	2021년	'19년 대비 '21년 상승률
커피 및 차류 도매업	516	681	737	42.8%
커피 가공업	172	248	270	57.0%
커피전문점	15,177	13,851	16,935	11.6%
합 계	15,865	14,780	17,942	13.1%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V-26] 2019-2021년 부산시 커피 업종별 총종사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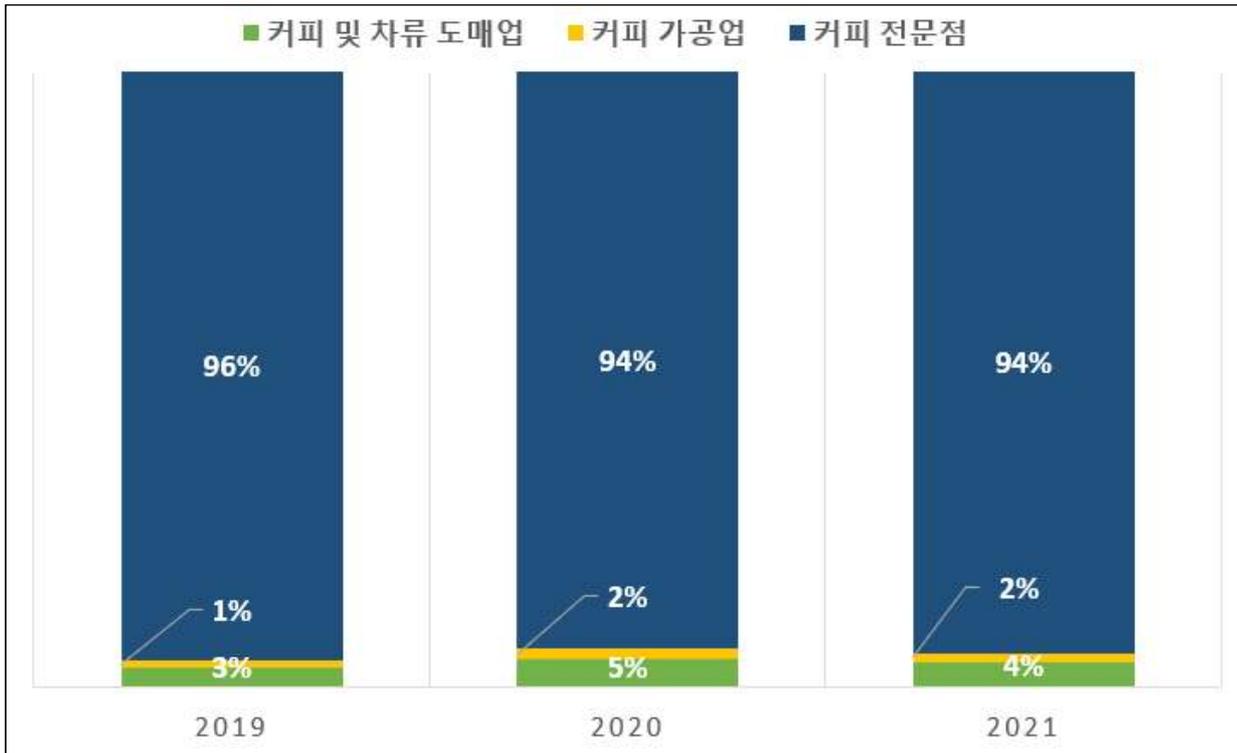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부산의 커피 관련 종사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 15,865명, 2021년 17,942명)
- 2019년 대비 2021년 커피 가공업 내 종사자 수 증가율이(57.0%) 가장 높고, 커피전문점 내 종사자 수 증가율이(11.6%) 가장 낮음

[그림 IV-27] 커피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

(단위 :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IV-61] 2019년-2021년 부산시 지역별 커피 총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2019년	2020년	2021년	'19년 대비 '21년 상승률
강서구	687	709	933	35.8%
금정구	1,288	1,189	1,326	3.0%
기장군	1,005	1,042	1,284	27.8%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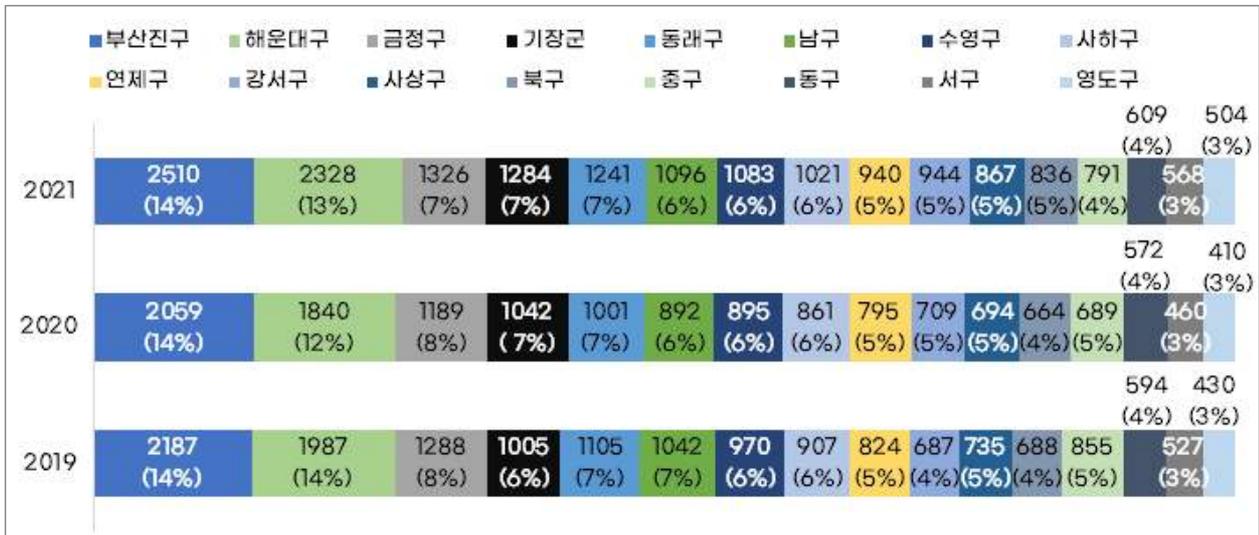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19년 대비 '21년 상승률
남구	1,042	892	1,096	5.2%
동구	594	572	609	2.5%
동래구	1,105	1,001	1,241	12.3%
부산진구	2,187	2,059	2,510	14.8%
북구	688	664	836	21.5%
사상구	735	694	867	18.0%
사하구	907	861	1,021	12.6%
서구	527	460	568	7.8%
수영구	970	895	1,083	11.6%
연제구	824	795	940	14.1%
영도구	430	410	504	17.2%
중구	855	689	791	-7.5%
해운대구	1,987	1,840	2,328	17.2%
합계	15,831	14,772	17,937	13.3%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아래 나열된 연도의 구들은 조사된 업체가 1-2개이어서 공개할 수 없는 종사자 수가 표의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19년 커피 및 차류 도매업: 사하구, 2019년 커피 가공업: 남구, 동구, 북구, 2020년 커피 가공업: 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2021년 커피 가공업: 서구, 수영구, 연제구)

[그림 IV-28] 부산시 지역별 커피 종사자 수 비중

(단위: 명, %)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각각 1, 2순위로 커피 업종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2019년 대비 2021년 커피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35.8%)인 것으로 나타남

8 부산 커피산업 역량 분석

1) 역량 진단 및 강화 방안

(1) 커피산업 Value-Chain

- 커피산업의 Value-Chain은 다음과 같으며, 부산의 경우 생두 수입 단계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커피산업 전체를 포괄한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림 IV-29] 커피산업 Value-Chain



* 출처 :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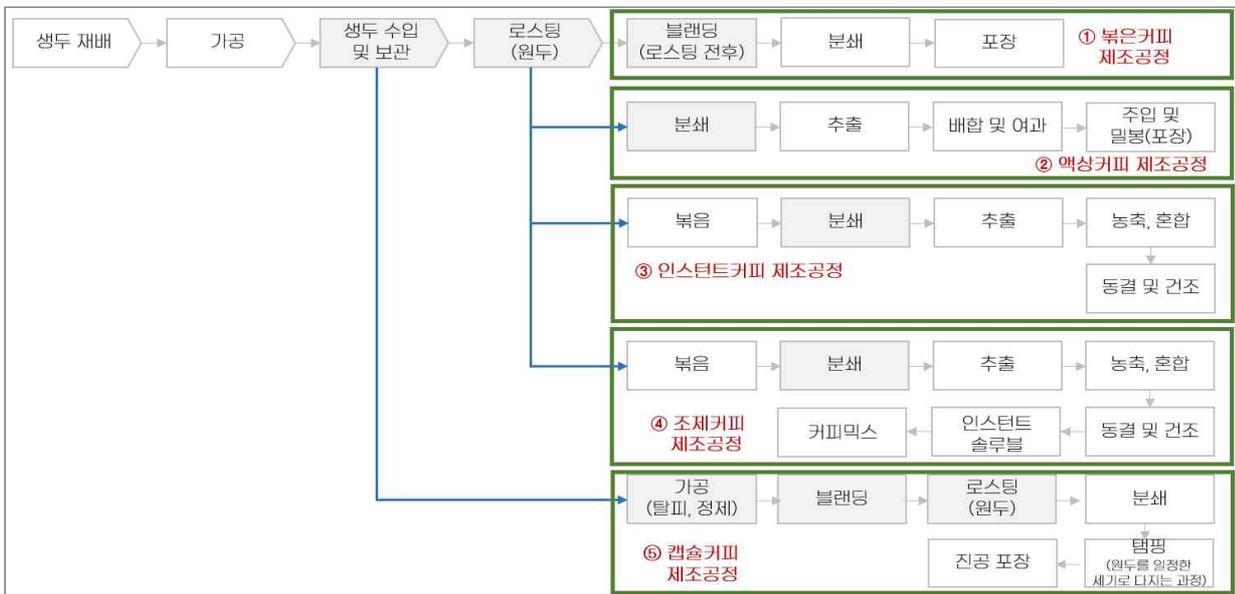
- 커피산업 Value-Chain의 경우 크게 생산, 수입, 제조 및 판매, 유통, 소비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생산 단계에서는 생두의 재배와 가공 단계에서는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과 재배 및 가공방식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침
- 수입 단계는 생두의 수입과 보관, 가공, 로스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습도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보관 시설의 중요성이 높고 생두에 따른 로스팅 방식 등의 차이가 존재함
-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는 로스팅 방식과 커피 제조 제품의 차별화가 중요한 요소임

- 부산의 경우 생두의 수입 단계의 비중이 높으나, 저장, 로스팅, 제조 및 물류 및 유통 관련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커피산업을 포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커피 주요 제품군별 제조 공정

- 주요 제품군별 제조 공정의 경우 공통적으로 생두의 수입과 보관, 로스팅 및 블렌딩 등의 공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관련 산업의 육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IV-30] 커피 주요 제품군별 제조 공정



- 커피는 주요 제품군별(볶은 커피, 액상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캡슐커피) 제조 공정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생두의 보관, 로스팅, 블렌딩, 가공 등의 공정의 경우 각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전체 공정상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단순 국내 유통이 아닌 원두와 커피 추출물 등에 대한 주요 제품에 대한 수출 등을 고려한다면, 수출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부산항 내 커피 제조업의 육성은 국내 커피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부산 지역 핵심 산업으로 커피산업의 육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임

(3) 커피산업 Value-Chain 내 부산시 수준 및 필요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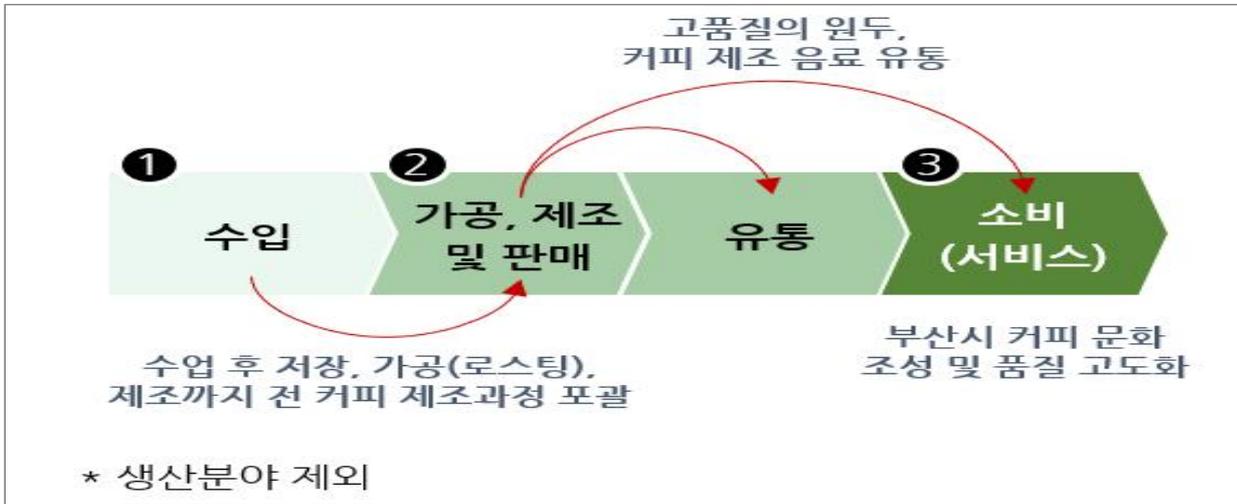
[그림 IV-31] 부산시 역량 수준 및 필요 역량

Value Chain	생산 및 수출	수입 및 저장	로스팅	유통/물류	소비(서비스)
산업 내 부가가치					
관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두 생산 • 1차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두 수입 • 생두 저장 • 생두 품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스터리 • 액상, 인스턴트 등 커피 제조 • 기계분야(커피머신, 로스팅 기계, 음용수 여과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오프라인 플랫폼 • 물류 및 택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전문점 • 포장기술 분야 • 전시, 서비스 분야 • 교육 분야, 연구개발 분야
現 부산시 수준	관련 없음	단순 수입, 수출 거점 고도화된 저장 설비 미흡	부산시 차원의 산업 육성 미흡 서울, 경기도 제조업체 집중 (부산 내 42개 업체)	국내 유통 플랫폼 활용 가능 다만, 글로벌 커피 기업의 유인 요인 부족	다수의 지역 브랜드 보유,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 우수 인재 보유
향후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생두 및 원두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지원 • 생두 및 원두 저장 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로스팅, 기계분야 기업 육성 및 지원 • 커피 제조기업 유치 • 커피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 및 물류 서비스 효율화 지원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 • 국내 제2거점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품질 향상 지원 • 다양한 커피 축제 개최, 전문가 등 지원 • 특화 거리 등 조성 지원

- Value-Chain 내 부산시 수준은 소비(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모습이며, 현재 산업 내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미흡 영역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
- 특히 국내 수입 생두의 약 93.8%가 부산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의 부재로 부가가치를 전혀 창출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커피 저장 시설과, 로스팅, 물류 및 유통산업이 연계/집적하여 산업이 추진되는 국내 커피산업 특성을 고려한다면, 부산이 보유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4) 부산시 커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림 IV-32] 커피산업 Value-Chain



- 고품질 생두 생산자 발굴, 시장 분석을 통한 가격 경쟁력, 시장 대응력 확보 지원, 자체 로스팅 커피전문점 연계
- 저장 설비 고도화 및 운영, 유지관리 효율화 / 제조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 입장의 운송비 절감 등 효율화 추구 / R&D를 통한 커피 음료 다변화 및 품질 강화 /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 육성
- 품질 인증, 교육 등 서비스 개발 / 관광산업과 연계된 커피 축제, 카페 거리 조성 등을 통한 부산시 커피 문화 조성 / 전문 바리스타 등을 대상으로 카페 창업 지원 등

(5) 커피산업 발전 필요 요소 및 부산 현황

① 수입 및 저장

- 고품질 생두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수입해 저장 후 판매, 재수출하는 커피산업 기본 기능
- 항온, 항습 저장을 통한 커피 선물거래, 재수출, 전 세계 커피 무역 경유지 목표

=> 국내 수입 원두 95%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지만 저장시설이 마땅치

않아 저장 시설 관련 투자가 필요함

② 로스팅

- 생두를 원두로 가공해 커피 맛의 차별화를 내는 커피산업 중 가장 핵심
- => 대부분 로스팅 업체가 경기도, 충북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 자유무역지대의 관세, 임대료 혜택과 간편한 수출입 절차 이점 등을 활용해 부산항, 신항 근처로 로스팅 전문업체를 유치할 필요

③ 유통 판매

- 현재 대부분의 생두가 부산신항을 통해 들어와 경기도 로스팅 업체로 가서 가공 후 다시 전국으로 전달
- => 부산을 거쳐가기 때문에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유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 카페 서비스

- 세계적인 커피 소비량으로 카페 산업 역시 앞으로도 수요 및 인기는 꾸준히 증가할 예정
- => 국내 및 부산 지역 카페 서비스 산업 포화 수준

⑤ 사후처리

- 커피 찌꺼기 처리 곤란 ESG 연계 다양한 재활용 방안 환경 문제 대두로 인해 지속적으로 각광받는 분야
- => 부산 지역 커피 찌꺼기의 매립, 소각이 대부분이고 사후처리 산업이 전무한 형태로 처리 시설까지 갖춘 커피산업 산단 구축 필요

(6) 커피산업 클러스터 구축 효과 예상

[그림 IV-33] 커피산업 클러스터 구축 효과 예상



- 부산항, 신항을 통한 커피 생두 수입 후 저장시설에 보관, 저장 생두 재수출 및 K-커피 인증 원두 로스팅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부산 항만 지역 근처 커피산업 클러스터 구축된다면, 번거로운 유통과정 생략을 통한 운송비 절감 실현 가능
- 부산 커피 클러스터에 커피 찌꺼기 재활용, 처리 전문 시설 설치해 ESG 목표 달성, 부가가치 창출 등 장점
- 이점 종합 - 운송비 절감, 클러스터 집적이익, 커피 축제 및 대회 연계, 커피 도시 부산 이미지, 부산 K-커피 인증 전문성 확보, 원두 저장 및 재수출로 부가가치 창출

(7) 부산 커피산업 발전 방안**① 수입시장 부문**

- 부산 지역의 지자체·커피 기업과 현지 농장·지자체 간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추진
- 국제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유기농 커피 등 국제 인증커피에 특화하여 제품 차별화를 추진

② 가공시장 부문

- 커피 가공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내 수입 원두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커피 가공업 시장 육성 및 선도
- 지역 커피기업 및 부산 테크노파크, 대학, 관련 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커피산업 육성사업추진

③ 소비시장 부문

- 협동조합을 통해 생두 공동수입, 공동 브랜드 개발·생산·마케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 절감 및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

④ 마케팅 부문

- 중단기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커피도시 성장을 목표로 과감한 커피도시 브랜딩 정책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2030 부산 엑스포 공식 브랜드 지정 등 엑스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V. 이해관계자 분석

1 커피산업 실태 조사

1) 조사 설문 개요

[표 V-1] 이해관계자 설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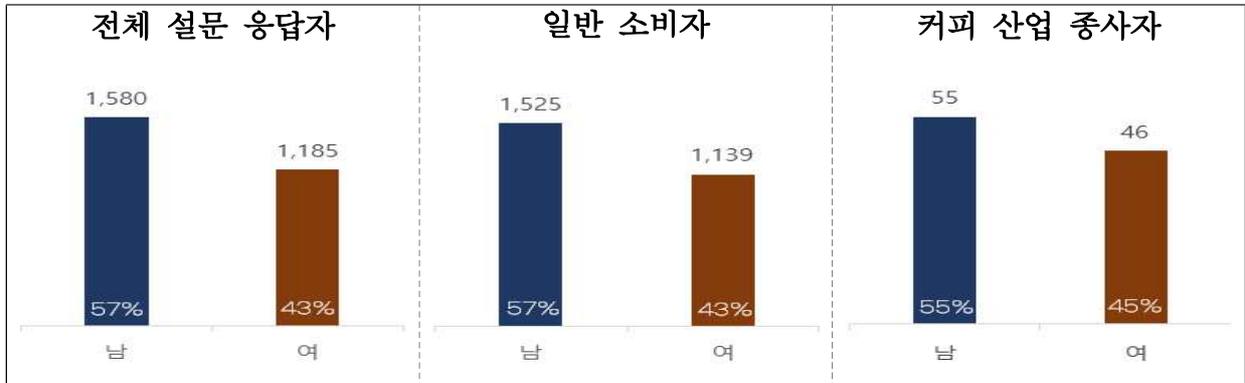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민, 커피산업 종사자, KNBC(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 참석자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대면 조사(KNBC 참석자) 온라인 조사(시청 홈페이지 등) 			
표본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조사 샘플 2,773개 중 부실 응답 샘플 8개 제외, 총 2,765 샘플이 유효 샘플로 확인됨 			
	구분	일반인	커피종사자	합계
	조사 샘플	2,670 샘플	103 샘플	2,773 샘플
	유효 샘플	2,664 샘플	101 샘플	2,765 샘플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조사 샘플	2,473 샘플	300 샘플	2,773 샘플
유효 샘플	2,473 샘플	292 샘플	2,765 샘플	
조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대면조사: 2023년 4월 23일(일) ~ 25(화) 온라인 조사: 2023년 5월 2일(화) ~ 19일(금) 			

- 부산 커피산업 육성 관련 시민 및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하여 사전 설계된 31개 문항을 기반으로 대면/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슈를 도출함

2) 커피산업 실태 조사 결과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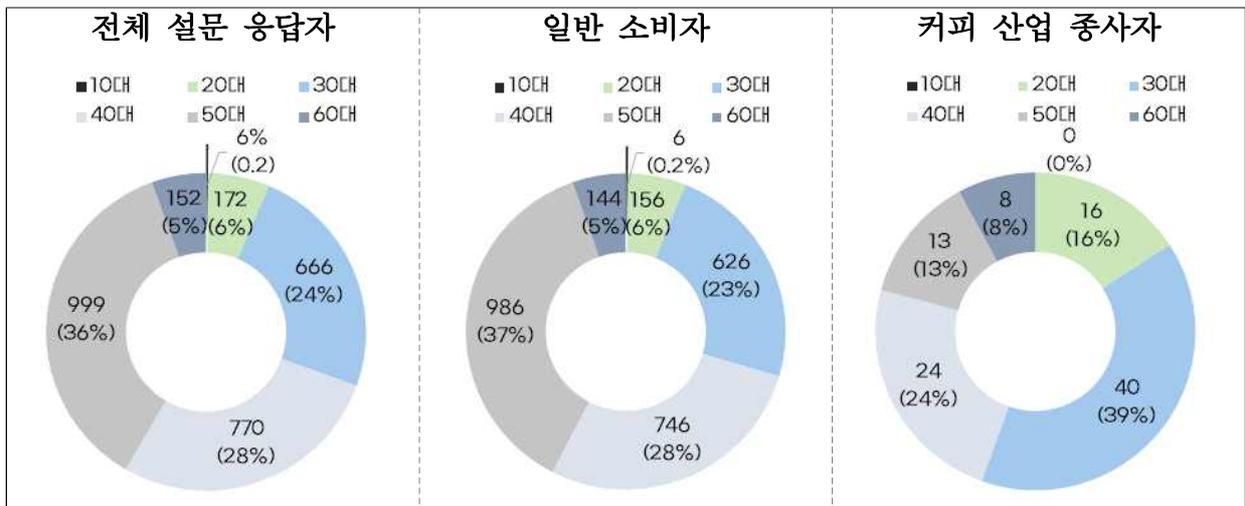
(단위: 명, %)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남성 비율은 약 57%로(1,580명) 여성 비율보다 큼
- 일반 소비자 중 남성의 비율은 약 57%로(1,525명) 여성의 비율보다 큼
- 커피산업 종사자 중 남성 비율은 약 55%로 (55명) 여성의 비율보다 큼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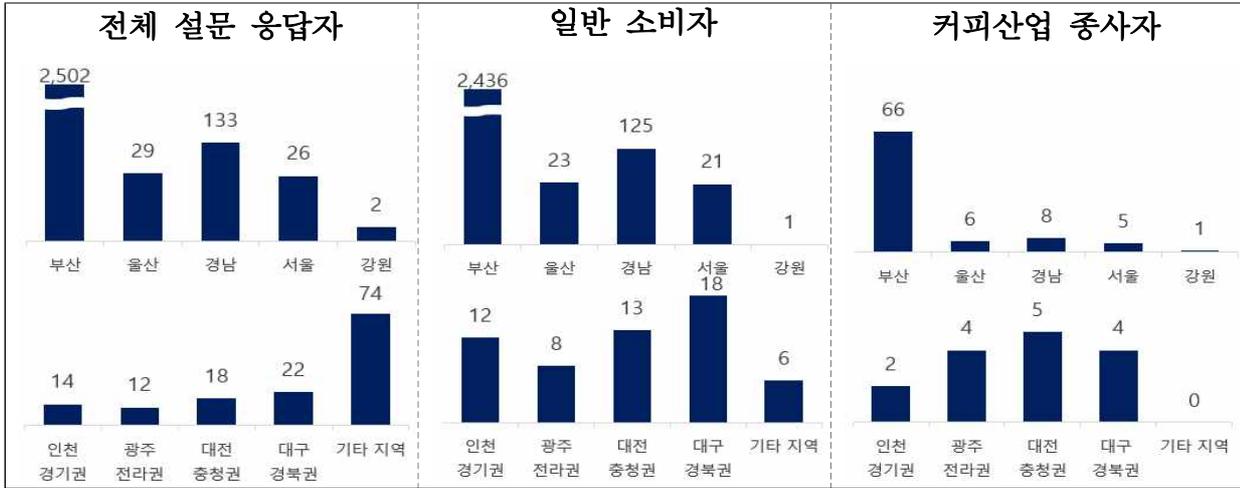
(단위: 명, %)



- 전체 설문 응답자 연령대 분포는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999명)
- 일반 소비자의 연령대 분포는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986명)
- 커피산업 종사자 연령대 분포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40명)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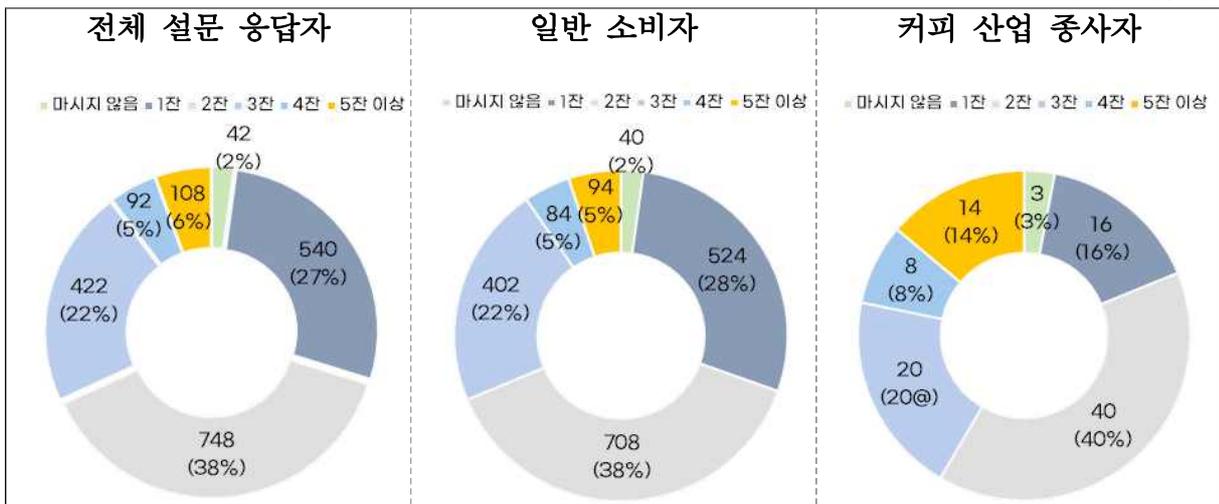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는 부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2,502명)
- 일반 소비자의 거주지역 분포는 부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2,436명)
- 커피산업 종사자의 거주지역 분포는 부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66명)

(4) 귀하는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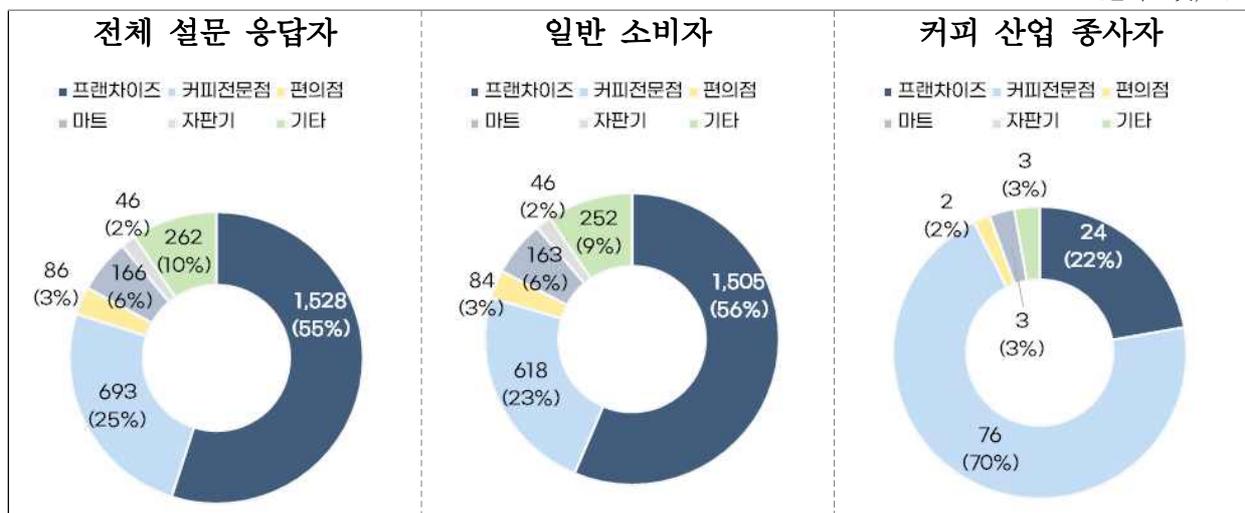
(단위 : 건, %)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하루 커피 음용이 2잔 정도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748건), 하루에 커피를 1잔 마신다(540건), 하루에 커피를 3잔 마신다(422건)는 응답의 비중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는 하루에 커피를 2잔 정도 마신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40건), 하루에 커피를 3잔 마신다(20건), 하루에 커피를 1잔 마신다(20건)는 응답의 비중이 그 뒤를 이음

(5) 귀하가 음용커피를 주로 구매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단위 : 곳, %)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음용커피를 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과반을 넘음(1,528건). 커피전문점(693건), 마트(166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음용커피를 주로 커피전문점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큼(76건). 프랜차이즈 매장(24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6) 선호하는 원두 품종(생산지)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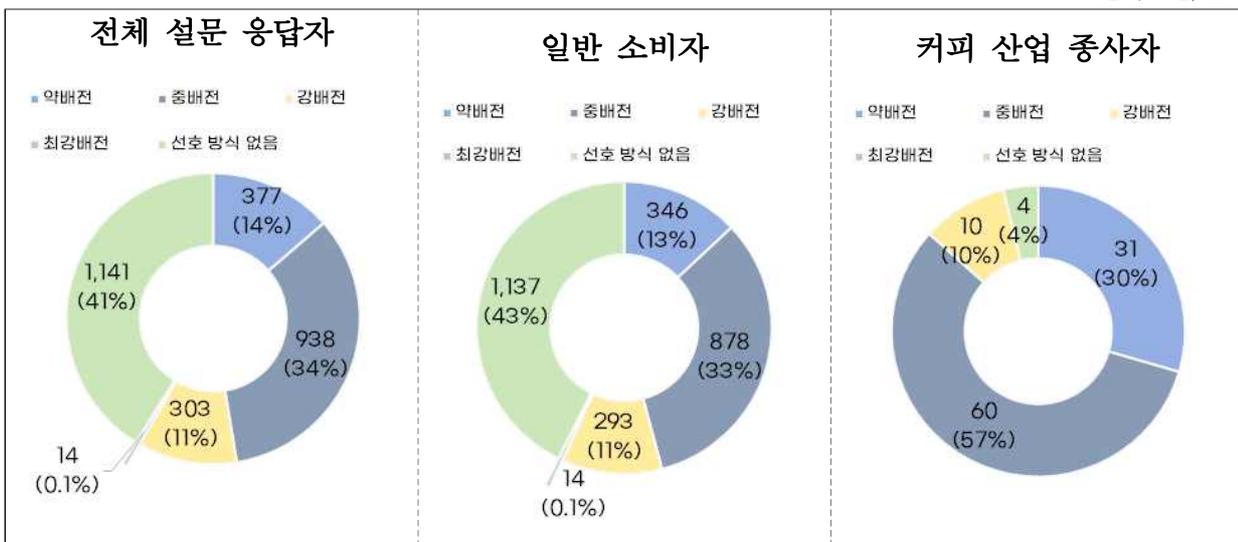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원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728건). 콜롬비아 원두(529건), 브라질 원두(218건) 등의 응답이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에티오피아의 원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52건). 콜롬비아 원두(25건), 브라질 원두(8건) 등의 응답이 뒤를 이음

(7) 선호하는 원두 로스팅 강도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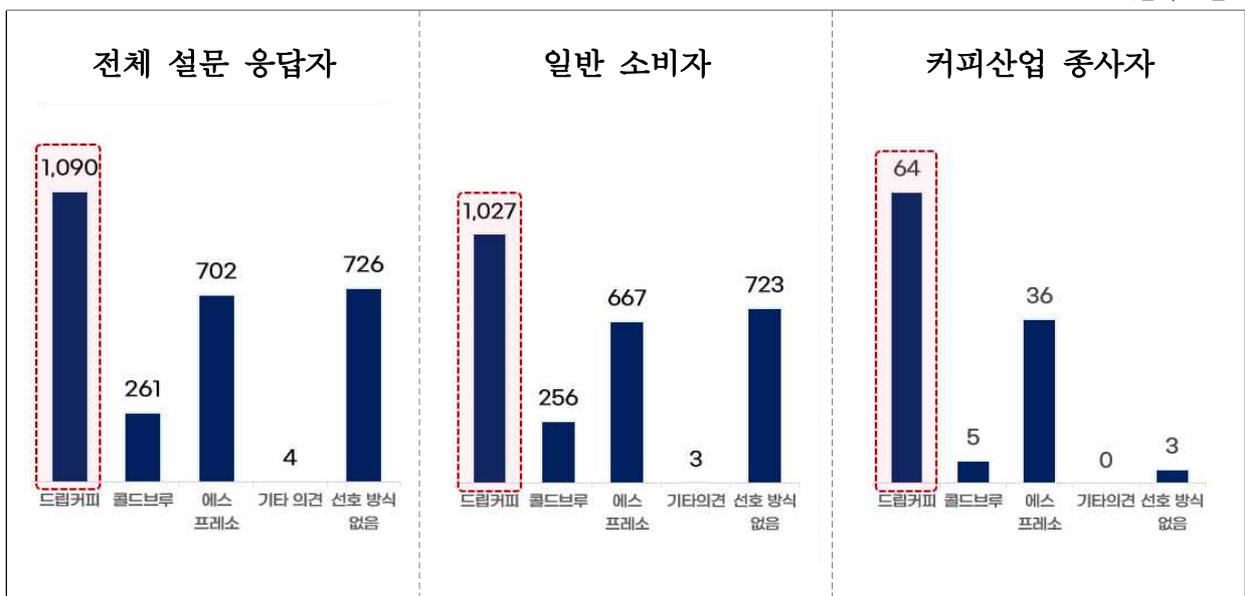
(단위 : 건, %)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따로 선호하는 원두 로스팅강도가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1,141건). 중배전(938건), 약배전(377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선호하는 원두 로스팅강도를 중배전으로 응답한 비중이 과반을 넘음(60건). 약배전(31건), 강배전(10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8) 선호하는 원두 추출 방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이 좋을까요?)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원두 추출 방식은 드립커피(1,090건), 선호 방식 없음(726건), 에스프레소(702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원두 추출 방식은 드립커피로 과반 이상의 응답 비중을 차지함(64건). 에스프레소(36건), 콜드브루(5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9) 귀하가 즐겨 먹는 커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로스팅원두 커피를 즐겨먹는다는 응답의 비중이 과반을 넘음(2,037건). 믹스커피(416건), 캡슐 커피(193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로스팅 원두 커피를 즐겨먹는다는 응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91건). 캡슐커피(6건), 믹스커피(4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0) 커피의 적정 가격은(아메리카노 기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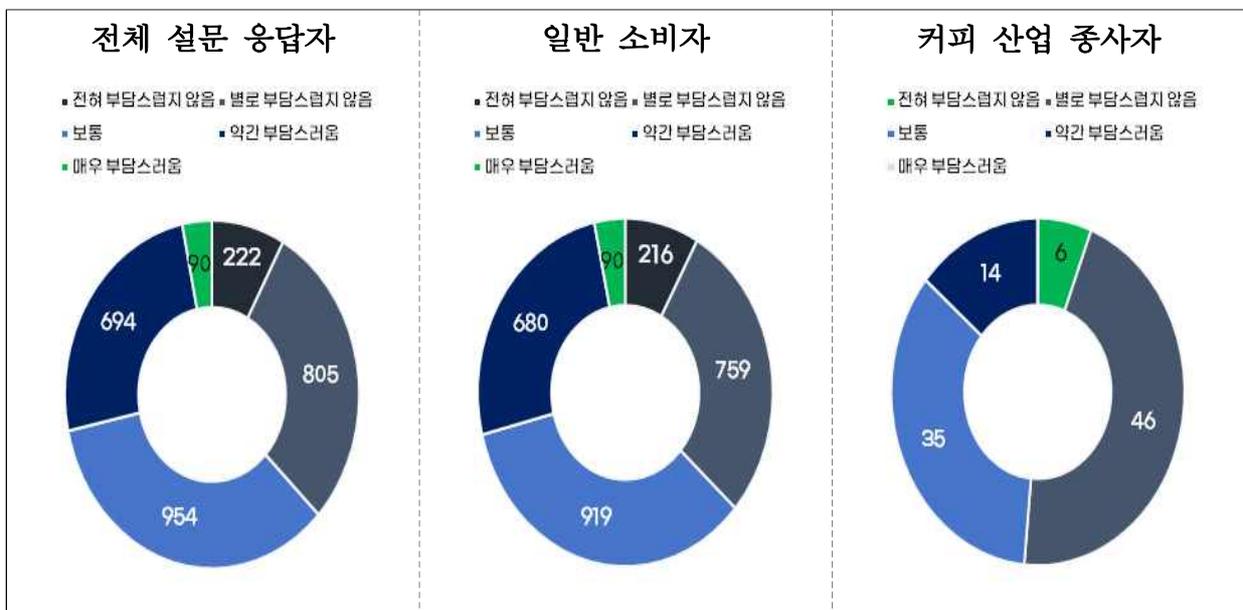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커피의 적정 가격은(아메리카노 기준) 2,000원 미만(1,258건)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2,000원 이상 ~ 3,000원 미만(1,064건), 3,000원 이상 ~ 4,000원 미만(305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커피의 적정 가격은(아메리카노 기준) 4,000원 이상 ~ 5,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35건). 커피의 적정 가격은 3,000원 이상~ 4,000원 미만(33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1) 커피 구매 비용에 대한 귀하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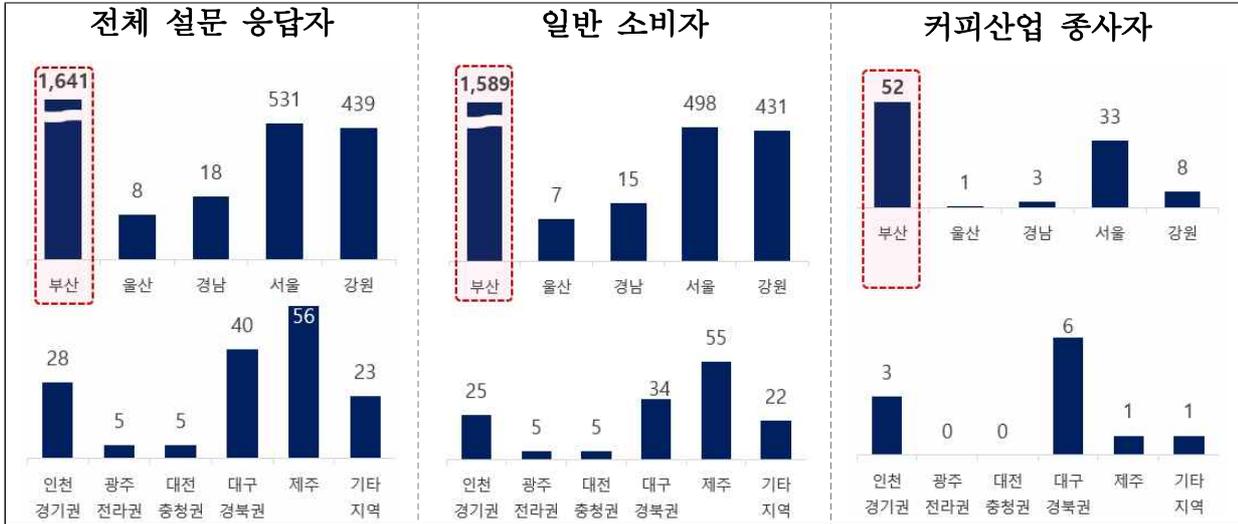
(단위 : 명)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커피 구매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보통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954명). 별로 부담스럽지 않음(805명), 약간 부담스러움(694명)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커피 구매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46명). 보통(35명), 약간 부담스러움(14명)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2) 국내외에서 커피도시로서 선도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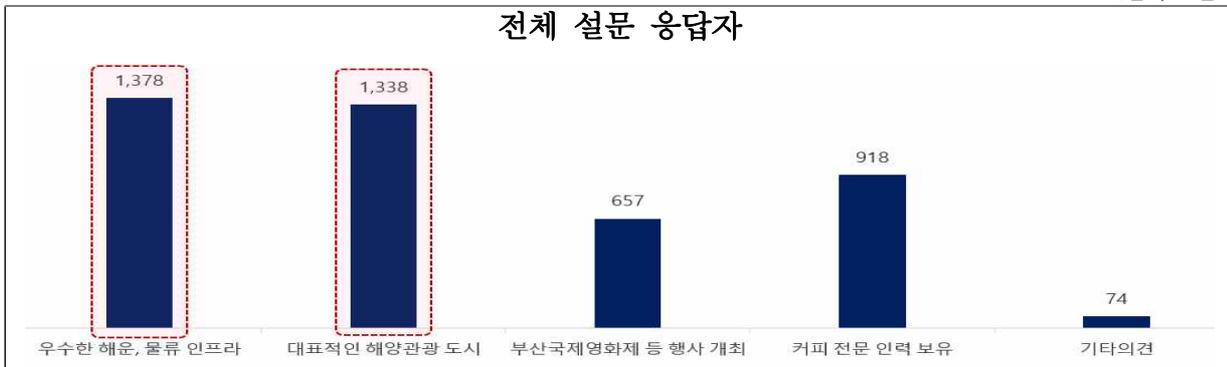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커피도시로서 선도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1,641건). 서울(531건), 강원(439건), 제주(56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커피도시로서 선도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52건). 서울(33건), 강원(8건), 대구-경북권(6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3)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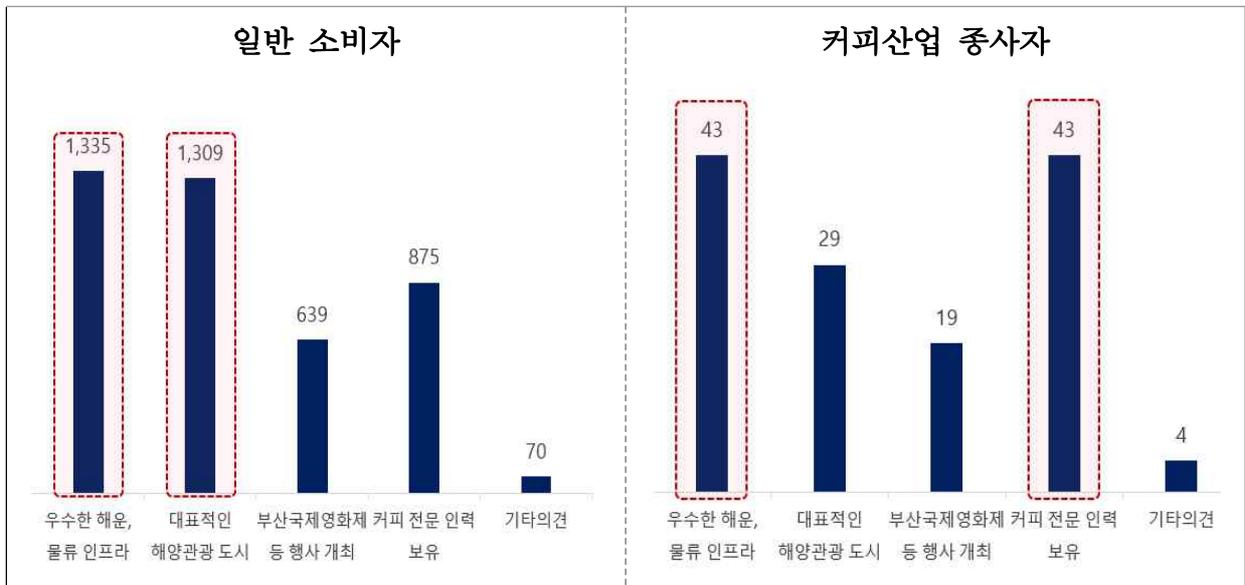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지는 장점은 우수한 해운, 물류 인프라(1,378건), 대표적인 해양관광 도시(1,338건)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음. 커피 전문인력 보유(918건), 부산국제영화제 등 행사개최(657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3)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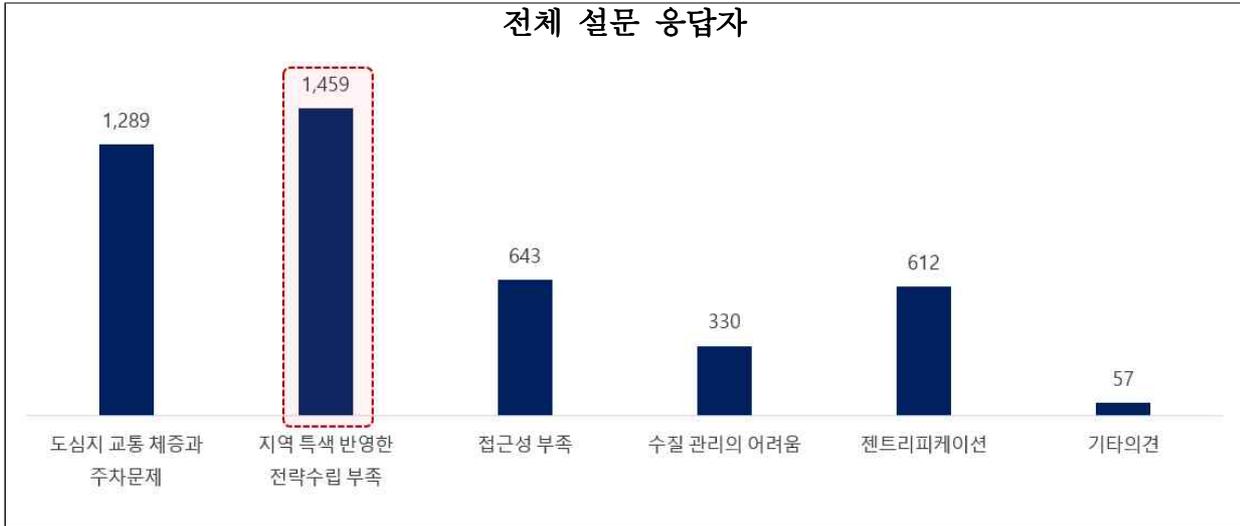
(단위 : 건)



-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 따르면 커피도시 부산이 가지는 장점으로 우수한 해운, 물류 인프라(1,335건), 대표적인 해양관광 도시(1,309건). 커피 전문인력 보유(918건), 부산국제영화제 등 행사 개최(657건) 순으로 응답이 비중이 높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장점은 우수한 해운, 물류 인프라(43건), 커피 전문인력 보유(43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대표적인 해양관광 도시(29건), 부산국제영화제 등 행사 개최 (19건)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4)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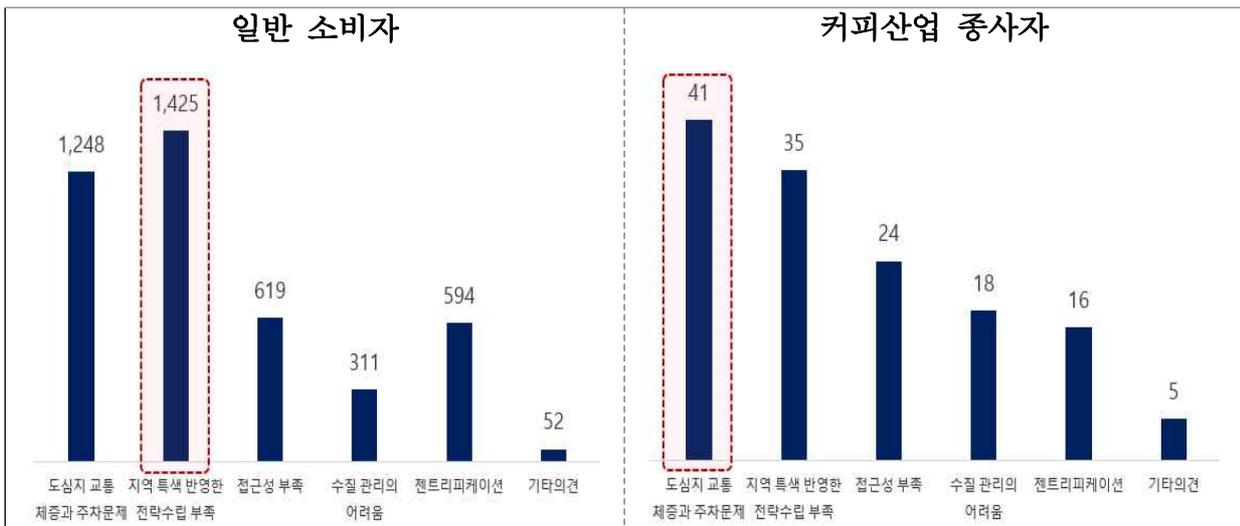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지는 단점은 지역 특색 반영한 전략 수립 부족(1,459건)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도심지 교통체증과 주차문제(1,289건), 젠트리피케이션(612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4)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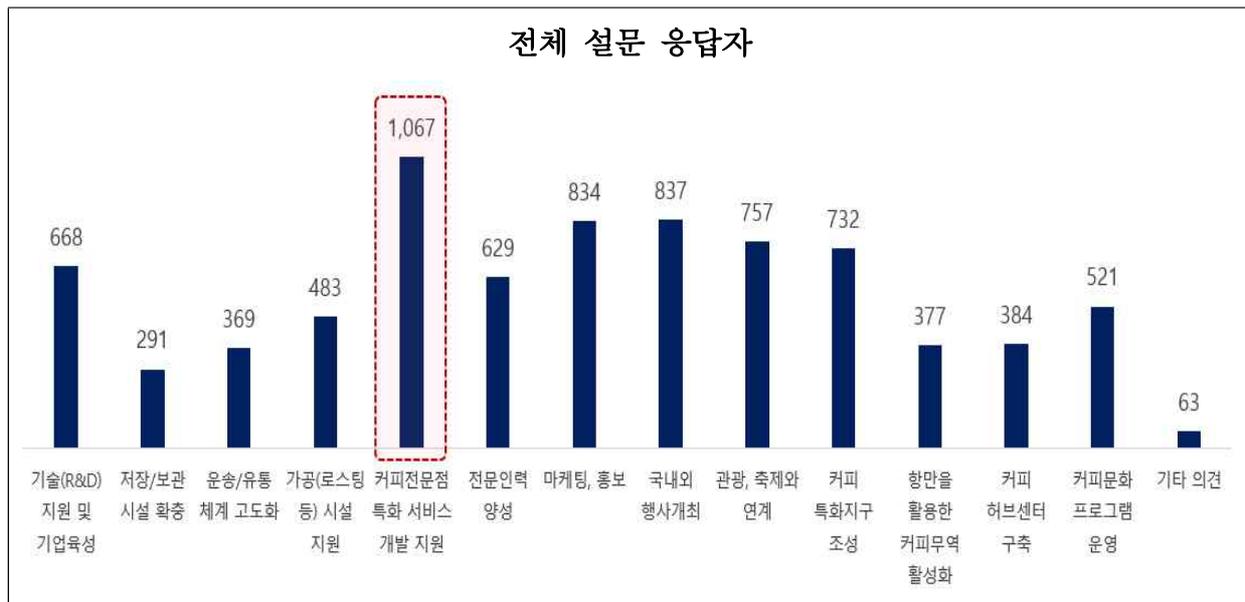
(단위 : 건)



- 일반 소비자 경우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지는 단점은 지역 특색 반영한 전략 수립 부족(1,425건)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교통 체증과 주차문제(1,248건), 접근성 부족(619건)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단점은 도심지 교통 체증과 주차문제(41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지역 특색 반영한 전략수립 부족(35건), 접근성 부족(24건), 수질 관리의 어려움(18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5) 부산이 커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부산이 커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커피전문점 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1,067건)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국내외 행사개최(837건), 마케팅홍보(834건), 기술(R&D)지원 및 기업 육성(668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5) 부산이 커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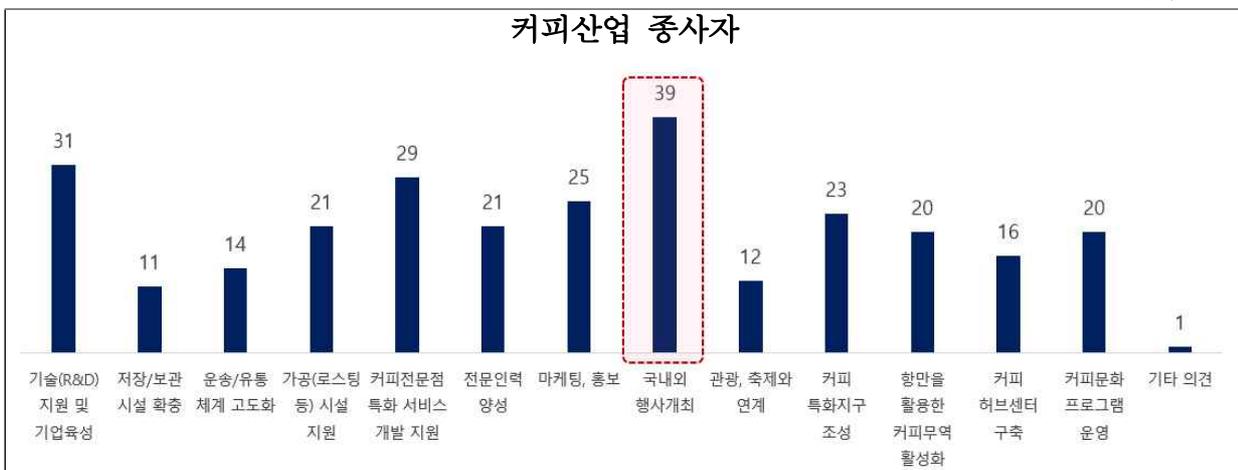
(단위 : 건)



- 일반 소비자의 경우 부산이 커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커피전문점 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1,038건) 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마케팅홍보(809건), 국내외 행사개최(798건), 기술(R&D)지원 및 기업 육성(637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5) 부산이 커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

(단위 : 건)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부산이 커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내외 행사개최(39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기술(R&D)지원 및 기업 육성(31건), 커피전문점 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29건), 마케팅 홍보(25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6)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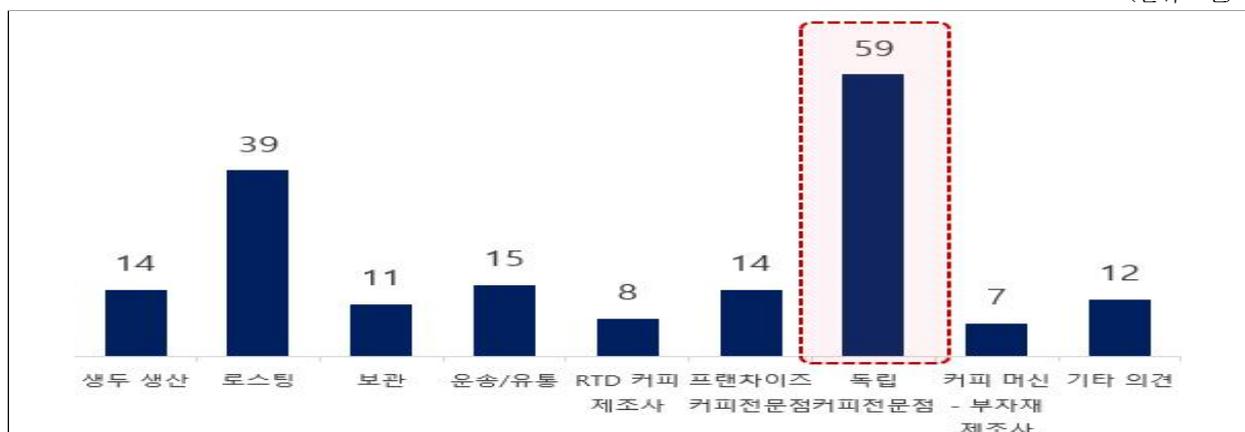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커피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약 3%(101명)(*협의한 16번 응답개수, 일반소비자로 체크하고 뒷문항들을 체크한 경우도 있음 - 45건)

(17) 종사하시는 커피산업은 전체 커피산업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십니까?

* 이하 답안은 커피산업 종사자들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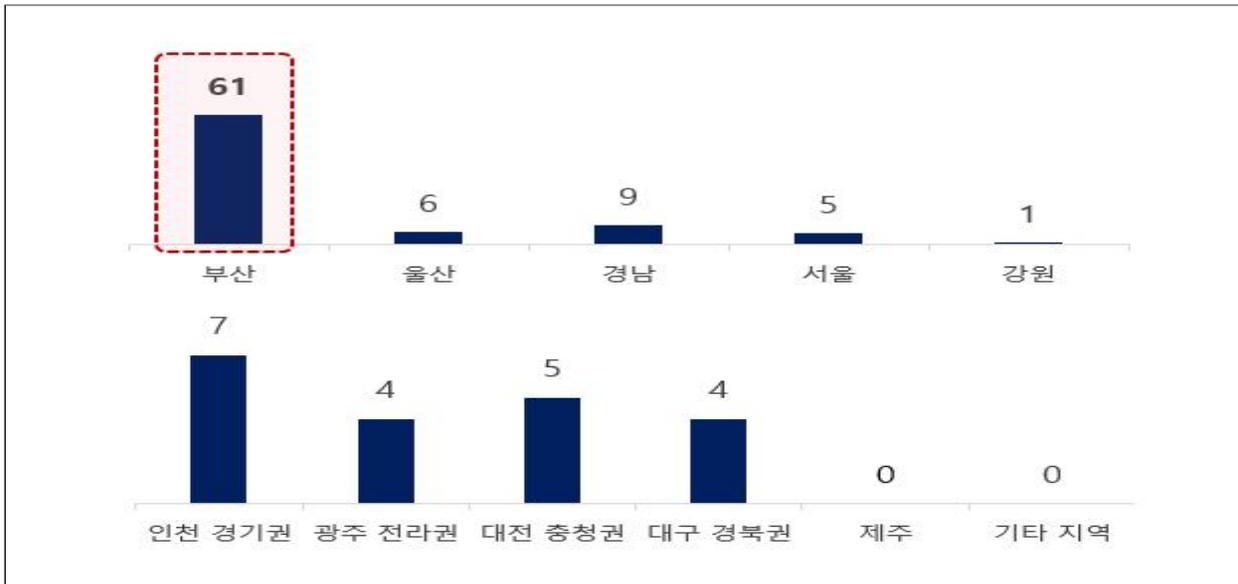
(단위 : 건)



- 설문 응답한 커피산업 종사자들은 주로 독립 커피전문점(59건)과 로스팅 산업(39건)에 종사하고 있음. 운송/유통(15건), 생두생산(14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14건) 등이 그 뒤를 이음

(18) 종사하시는 커피산업은 전체 커피산업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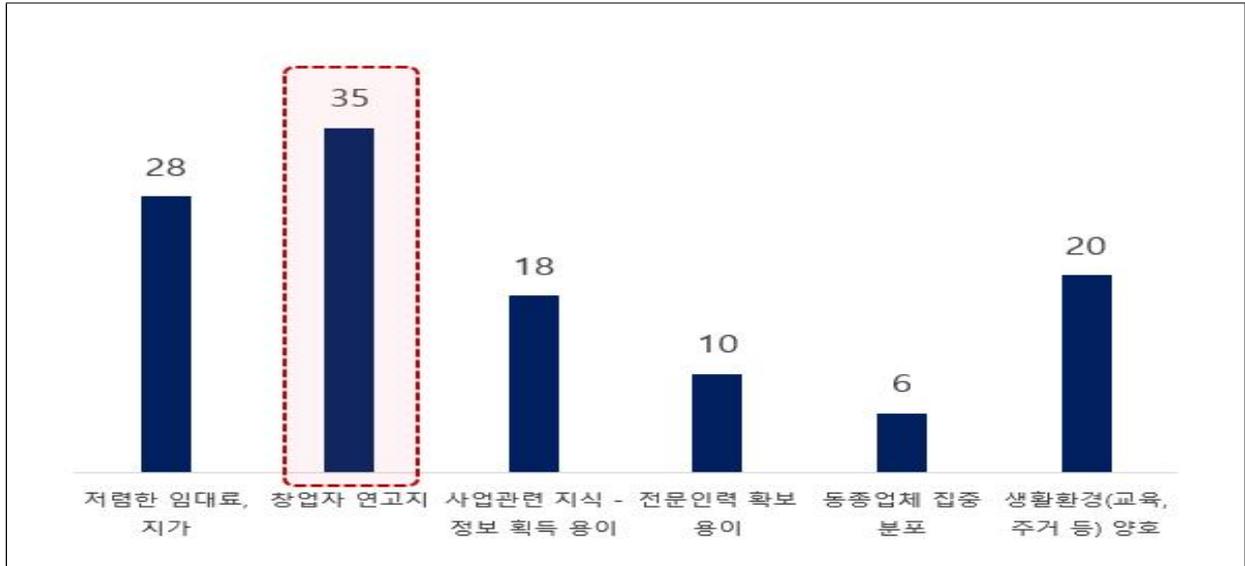
(단위 : 건)



- 설문에 응답한 커피산업 종사자들은 상당수 부산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61건) 이외의 종사자들은 경남(9건), 인천 경기권(7건), 울산(6건)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음

(19) 현재의 사업 운영 장소에 입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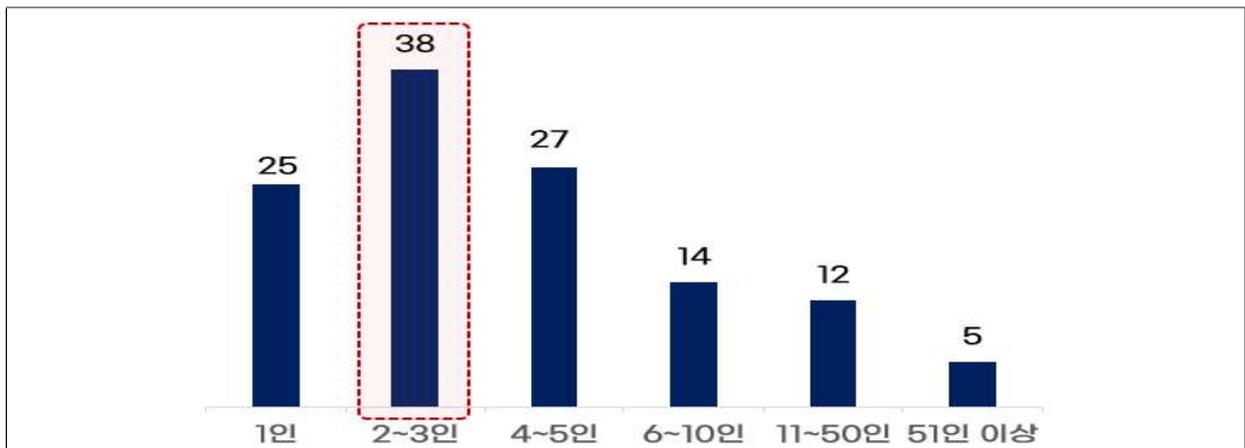
(단위 : 건)



- 현재의 사업 운영 장소에 입지하게 된 이유로는 창업자 연고지(35건)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 지가(28건), 생활환경(교육, 주거 등) 양호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20)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단위 : 건)



-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수 문항 응답은 2~3인(38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5인(27건), 1인(25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21) 사업장의 소유 형태는 어느 유형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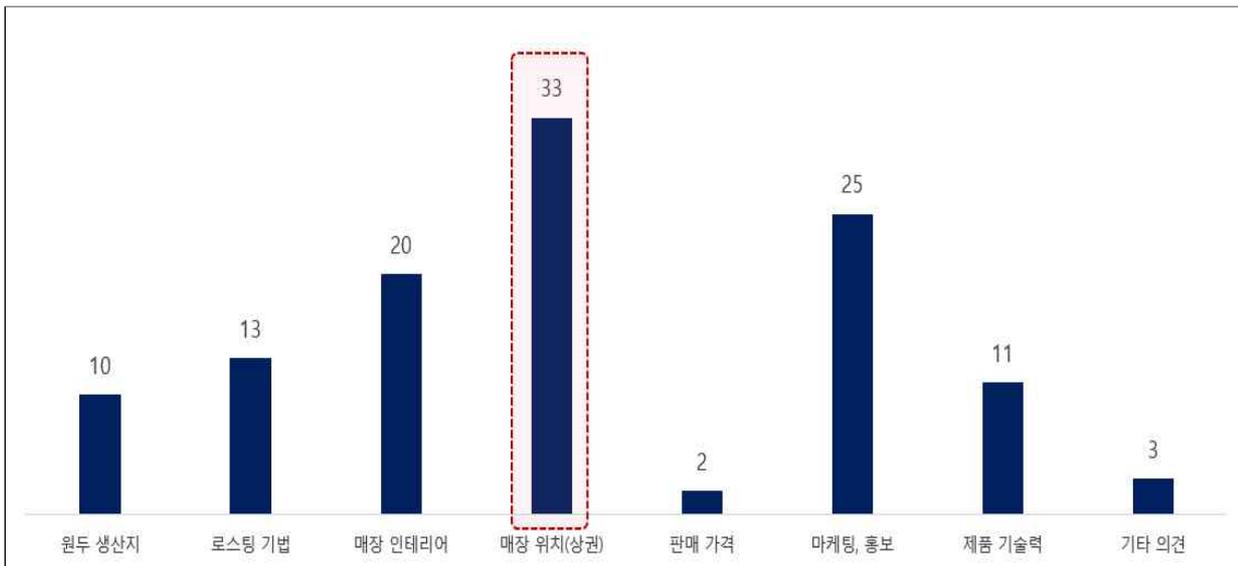
(단위 : 건)



○ 사업장의 소유형태는 과반 이상이 임대 사업장(75건)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약 63.0%)

(22) 커피 사업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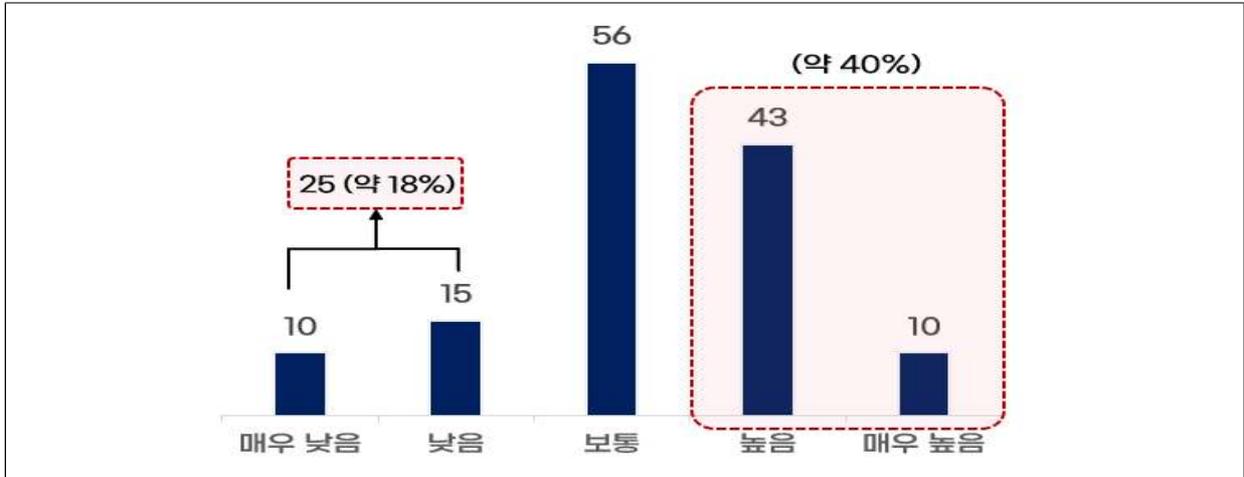
(단위 : 건)



○ 커피 사업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으로 매장 위치(상권)가 가장 큰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으며(33건), 마케팅, 홍보(25건), 매장 인테리어(20건), 로스팅기법(13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23) 부산 커피산업 생태계 발달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명)



- 부산 커피산업 생태계 발달 정도를 낮음(매우 낮음 포함)으로 평가한 응답의 비율은 전체의 약 18% 정도에 불과함. 전반적으로 커피산업의 생태계 발달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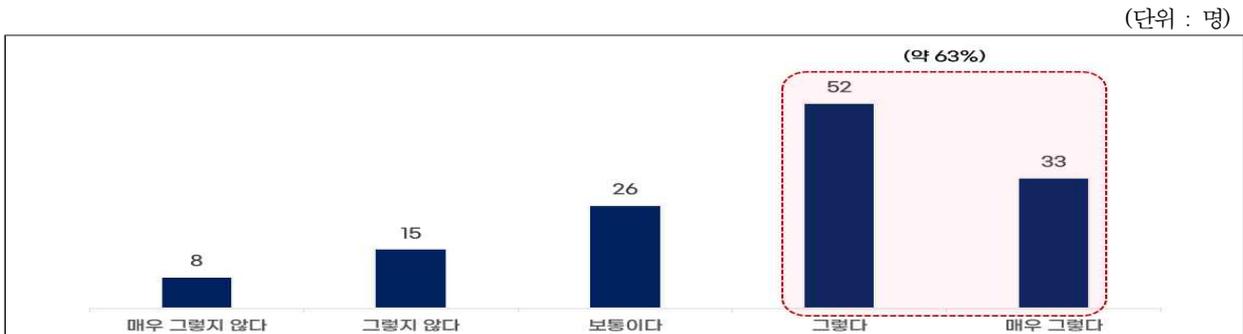
(24) (23번에 이어서) 부정평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명)

응답 내용	응답 수
전문성 부족	2
마케팅 부족	2
난립하는 저가형 카페	2
수질	1
청년층 부족	1
유명도 부족	1
과도한 프랜차이즈 매장	1
젠트리피케이션	1
애매한 정부 지원	1
고유한 브랜드 부재	1
합 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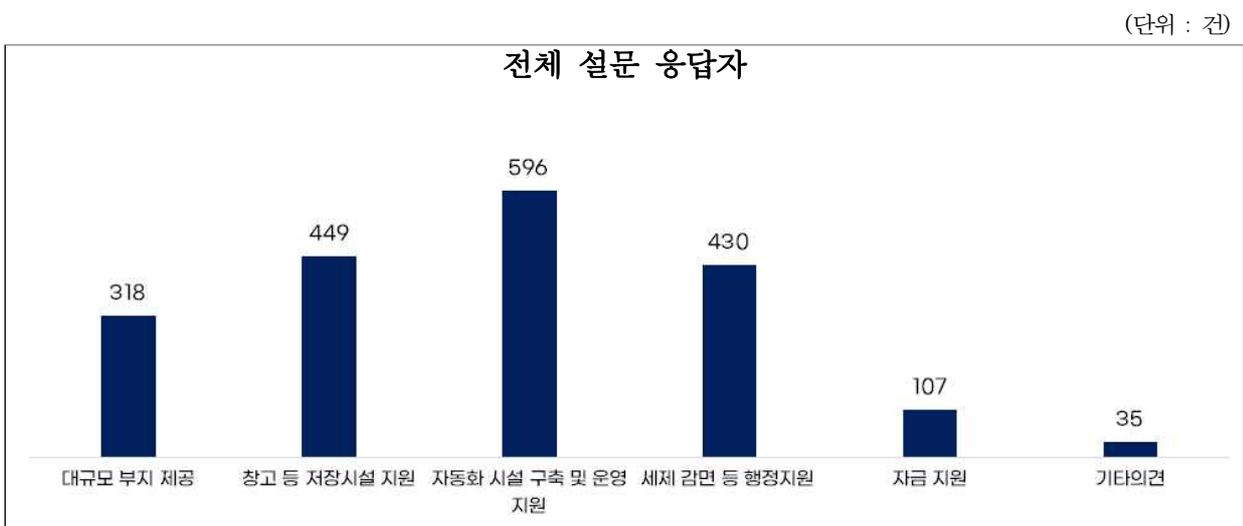
- 커피산업 종사자들은 전문성 부족(2건), 마케팅 부족(2건), 난립하는 저가형 카페(2건) 등 다양한 이유로 부산의 커피산업 생태계 발달이 낮다고 생각함

(25) 부산이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면, 글로벌 커피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면 글로벌 커피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긍정평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의 비율은 전체의 약 63% 정도로 전반적으로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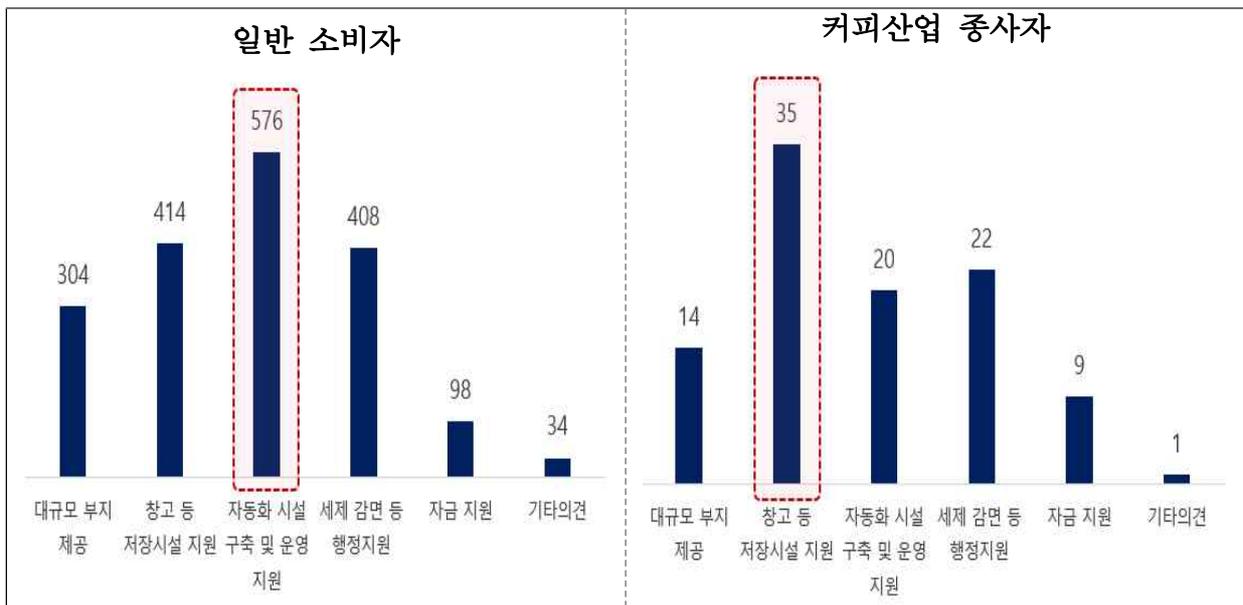
(26) 부산이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산업 육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산업 육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자동화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596건)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창고 등 저장시설 지원(449건), 세제 감면 등 행정지원(430건) 등이 그 뒤를 이음

(26) 부산이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산업 육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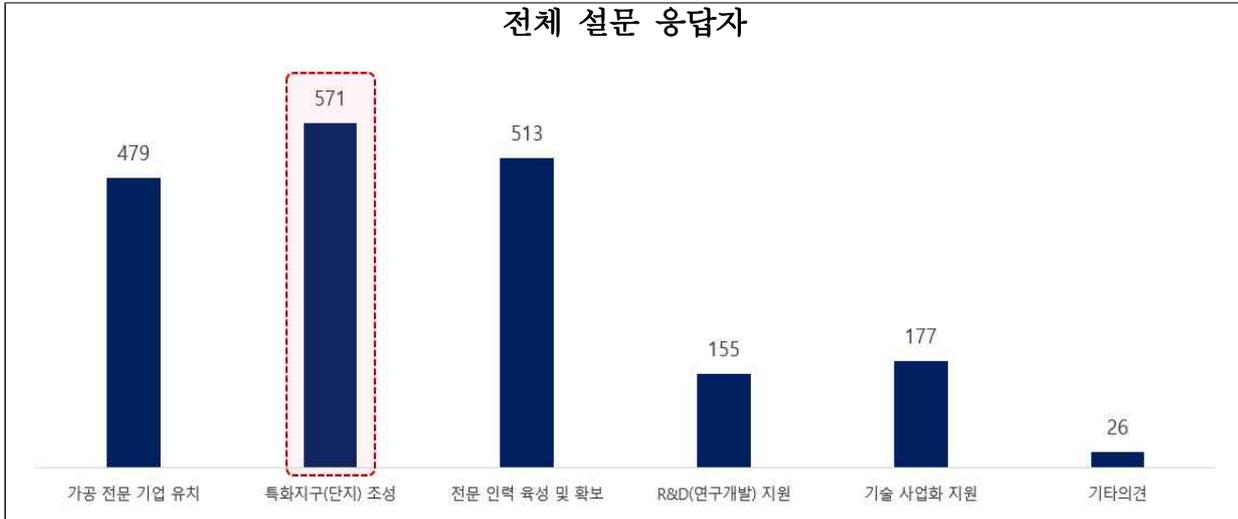
(단위 : 건)



- 일반 소비자의 경우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산업 육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자동화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576건)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창고 등 저장시설 지원(414건), 세제 감면 등 행정지원(408건) 등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산업 육성시 가장 우선적으로 창고 등 저장시설 지원(35건)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세제 감면 등 행정지원(22건), 자동화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20건) 등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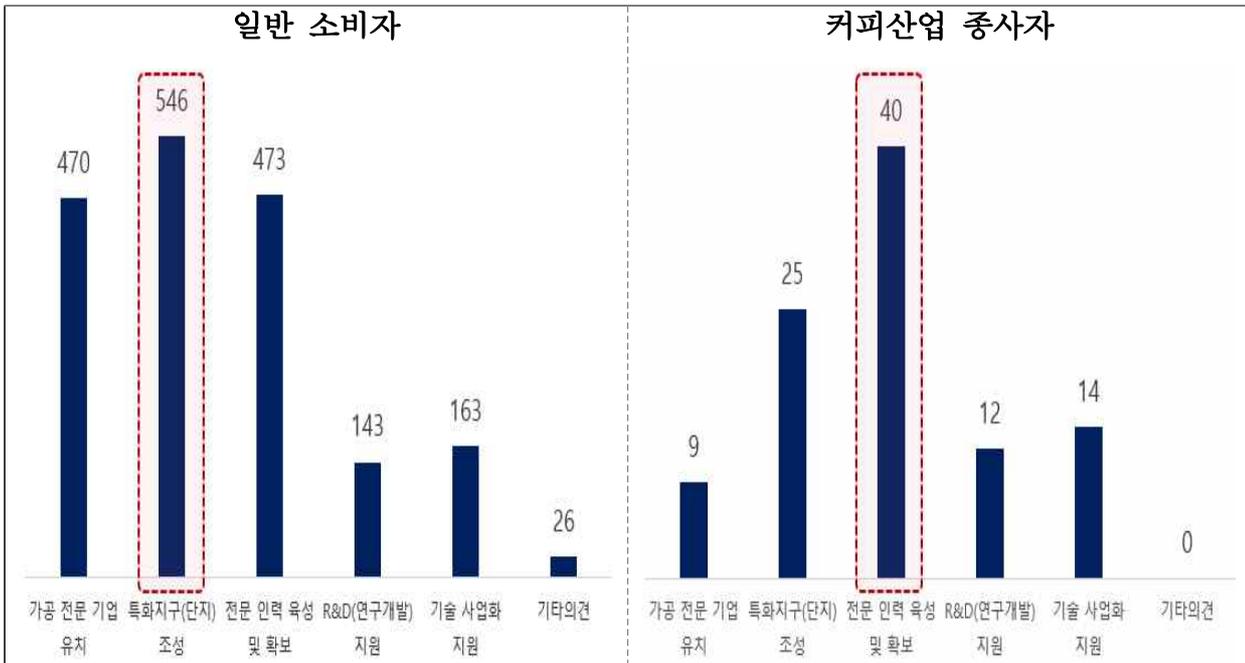
(27) 부산이 생두/원두 가공(로스팅 등) 산업 육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생두/원두 가공(로스팅 등) 산업 육성 시 우선적으로 특화지구(단지) 조성(571건)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513건), 가공 전문기업 유치(479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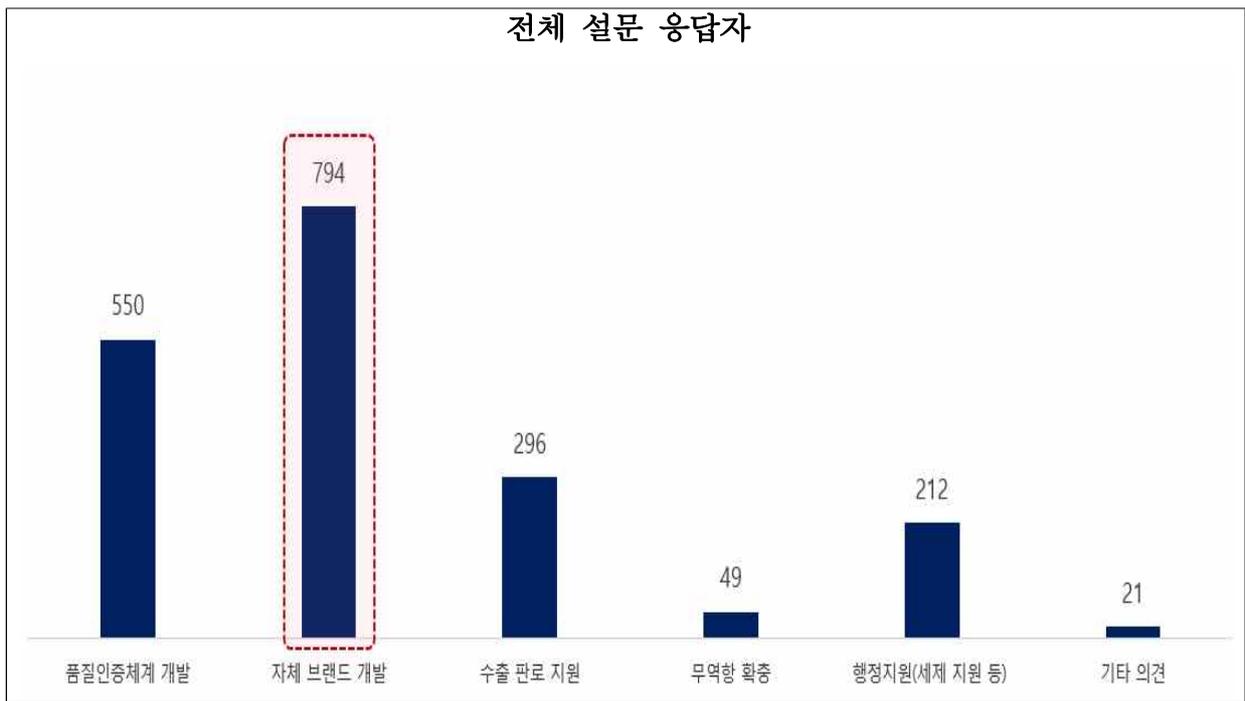
(단위 : 건)



- 일반 소비자의 경우 생두/원두 가공(로스팅 등) 산업 육성 시 우선적으로 특화지구(단지) 조성(546건)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473건), 가공 전문 기업 유치(470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생두/원두 가공(로스팅 등) 산업 육성 시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확보(40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 특화지구(단지) 조성(25건), 기술 사업화 지원(14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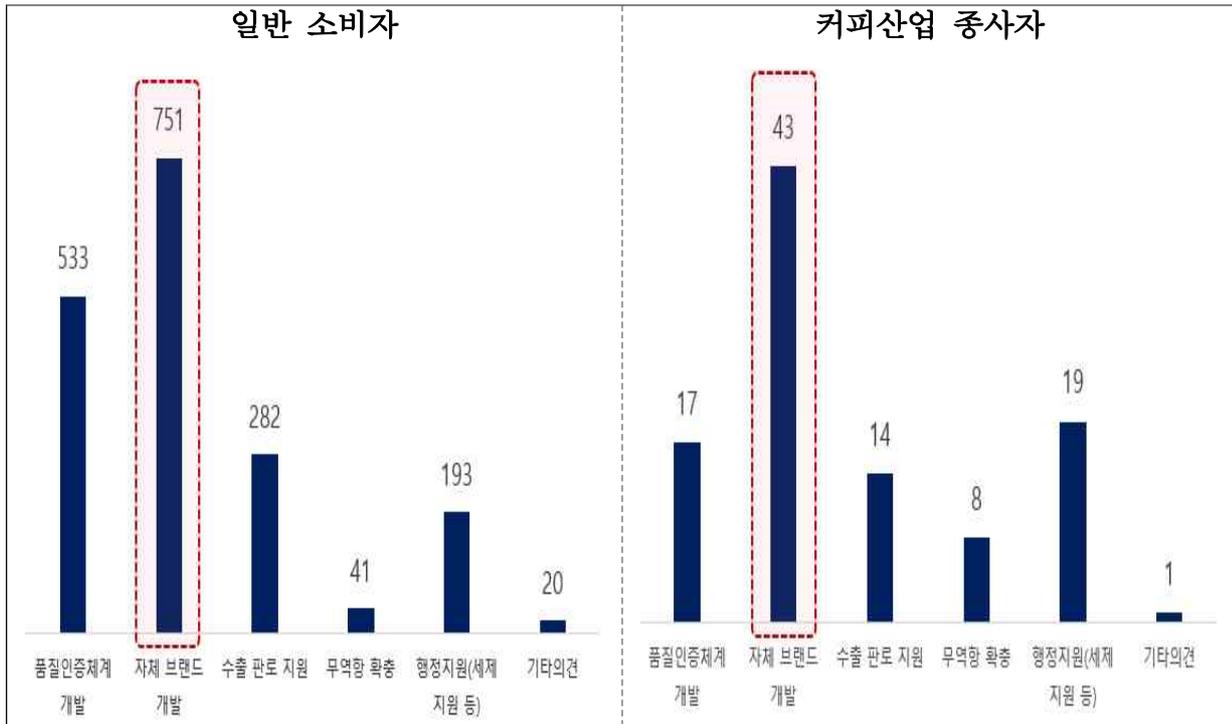
(28) 부산이 생두/원두 수출 산업 육성 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생두/원두 수출 산업 육성 시 가장 필요한 사안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794건)이 가장 비중이 높음. 품질인증 체계 개발(550건), 수출 판로 지원(296건)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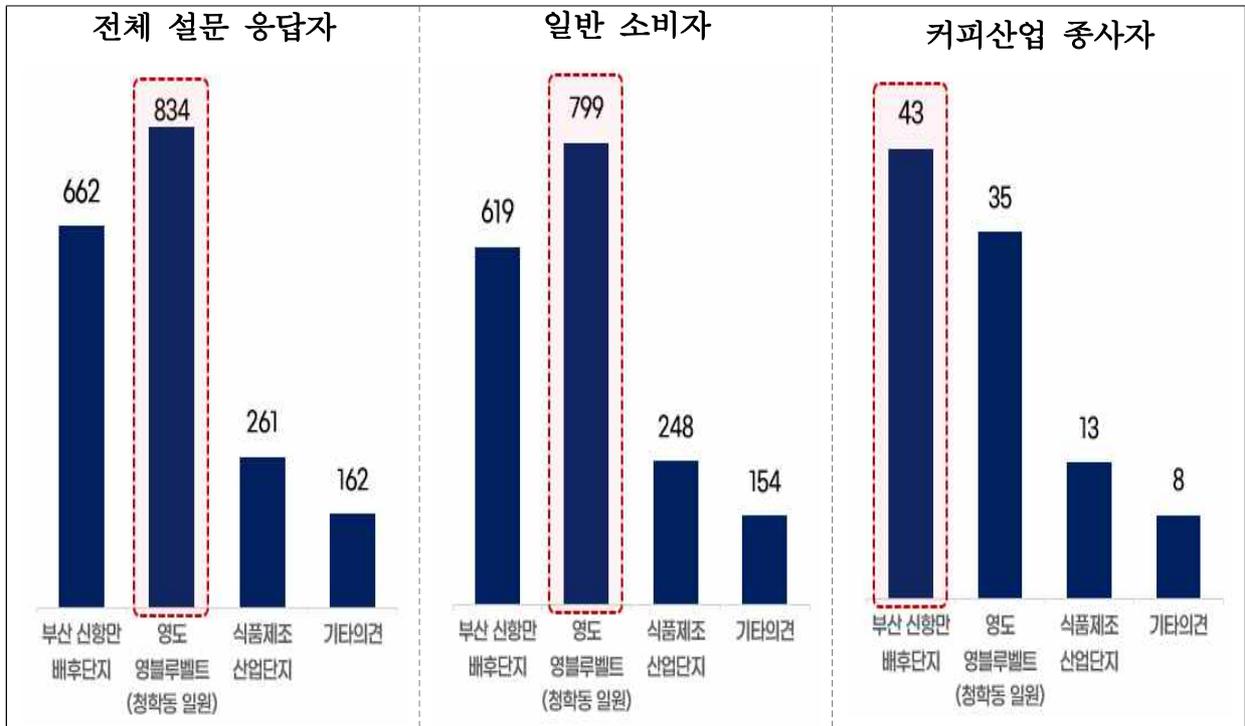
(단위 : 건)



- 일반 소비자의 경우 생두/원두 수출 산업 육성 시 가장 필요한 사안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751건)이 가장 비중이 높음. 품질인증체계 개발(533건), 수출 판로 지원(282건)이 그 뒤를 이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또한 생두/원두 수출 산업 육성 시 가장 필요한 사안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43건)이 가장 비중이 높음. 행정지원(세계 지원 등)(19건), 품질인증체계 개발(17건), 수출 판로 지원(14건) 등이 그 뒤를 이음

(29) 커피산업 특화지구 조성 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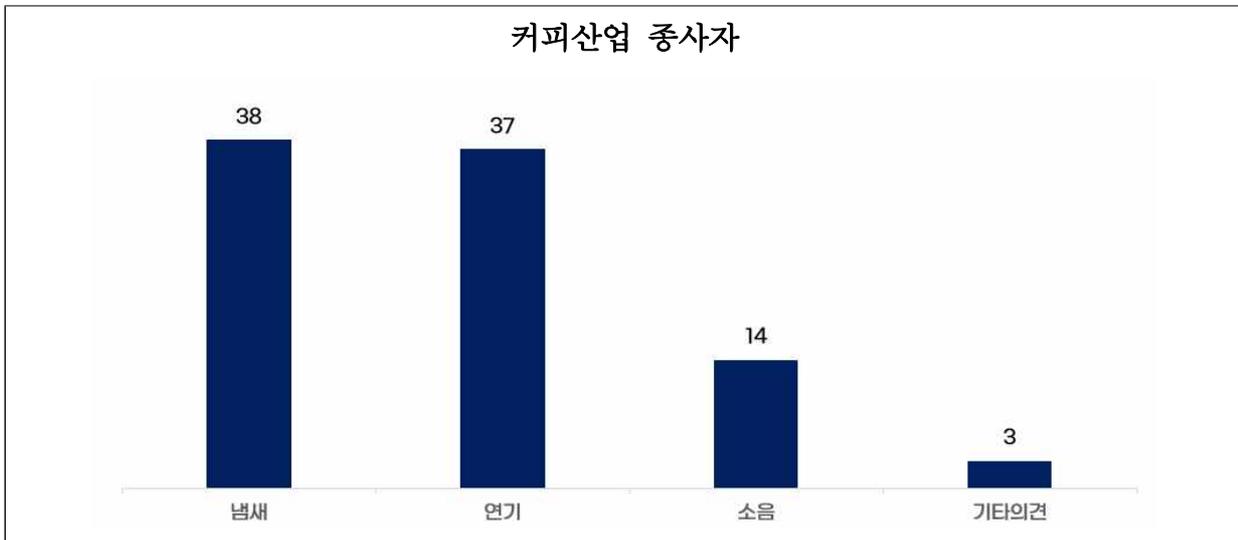
(단위 : 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분석에 따르면 가장 적합한 커피산업 특화지구 장소는 영도 영블루벨트(청학동일원)(834건), 부산 신항만배후단지(662건), 식품제조산업단지(261건) 순으로 응답의 비중이 높음
-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장 적합한 커피산업 특화지구 장소로 부산 신항만배후단지(43건)를 꼽음. 그 다음으로 영도 영블루벨트(청학동일원)(35건), 식품제조산업단지(13건) 순으로 응답의 비중이 높음

(30) 커피 가공(로스팅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사유는 무엇인가요?

(단위 : 명)



○ 커피 가공(로스팅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사유는 냄새(38건), 연기(37건)가 비슷한 비중으로 응답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소음(14건)이 그 뒤를 이음

(31) 기타 의견

(단위 : 건)

구분	전체	일반 소비자	커피산업 종사자
부산만의 커피 브랜딩, 차별화	249	236	13
(행정지원, 커피규제 완화 등) 정책적 측면	192	180	12
(커피 행사, 박람회, 축제, 투어 등의 유치) 문화 콘텐츠 육성	143	142	1
(커피박물관, 커피거리, 커피 특구 등) 시설 인프라 조성	148	146	2
커피 전문인력 양성, 처우 개선	63	58	5
커피산업 밸류체인인 재정비	38	36	2

(단위 : 건)

구분	전체	일반 소비자	커피산업 종사자
가격 개선	63	60	3
주차문제, 교통 인프라 문제	94	94	0
(메뉴의 다양성, 맛 등) 커피 자체의 개선	59	58	1
부산 커피도시 홍보, 마케팅	151	147	4
환경적 측면	36	29	7
커피 점포 수 조절 (개인매장 성장, 프랜차이즈 제한 등)	74	73	1
기존 부산 관광지 개선	13	12	1
수질	4	4	0
(가공, 물류 등) 커피산업단지 조성	27	26	1
질 좋은 원두 수입, 구매 시스템	37	36	1
커피 기술력 개발(가공 품질), R&D	36	35	1
젠트리피케이션 개선	11	11	0
커피 원두 생산	7	3	4
커피, 카페 인증 제도	14	13	1
커피 연관식품 개발	18	18	0
부산의 특색과 연계	48	48	0
기타 의견	97	94	3

3) 커피산업 실태 조사 설문 결과 종합

(1) Issue 1.

- 시민의 경우 하루 3잔의 커피를 음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음용 커피는 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함
 - 커피산업 종사자와 일반 소비자 모두 하루 커피 3잔을 음용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큼(748건)
 - 일반소비자는 음용 커피를 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하고, 커피산업 종사자는 음용 커피를 주로 커피전문점에서 구매함

(2) Issue 2.

- 물류 거의 100% 외주, 로스팅 외주 전환 비중이 높음. 현재 부산 내 로스팅 환경 매우 불편함(민원, 직원 정주여건 등)
 - 전체 설문 응답자 모두 에티오피아의 원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728건). 일반소비자의 경우 따로 선호하는 원두 로스팅 강도는 없다(1,137건)는 응답이 다수이나, 커피산업 종사자의 경우 중배전(60건)*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3) Issue 3.

- 시민, 산업 종사자 모두 로스팅 원두 커피 종류, 그리고 드립 추출 방식을 가장 선호함
 - 전체 설문 응답자 모두 로스팅 원두 커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2,037건)
 - 전체 설문 응답자 모두 드립커피를 가장 선호하는 원두 추출 방식으로 꼽음(1,090건)

* 커피 배전은 크게 4단계로 구분, 1) 약배전(light roast): 시나몬로스트, 하프시티로스트라고도 하며, 원두 색이 옅고 붉은 빛이 도는 갈색으로 변함. 신맛이 강하며, 일반적으로 고급원두의 풍부한 맛과 향을 발현시킬 때 사용
2) 중배전(medium roast): 시티, 아메리칸 로스트라고도 하며, 원두 색이 갈색이며, 커피 고유의 다양한 향미와 약간의 탄맛이 조화를 이룸. 일반적인 커피에 적합한 다목적 로스팅
3) 강배전(dark roast): 풀시티, 하이, 비엔나 로스트라고도 하며, 원두 색은 검은 빛을 띠는 갈색으로 스웨팅(sweating)이 일어남. 탄맛과 쓴맛이 강하여 에스프레소 추출 및 커피 메뉴, 냉커피에 주로 사용됨
4) 최강배전(darkest roast): 에스프레소 로스트, 프렌치 로스트라고도 하며, 원두의 색은 검정색에 가까워지며 스모키라는 아주 강한 탄맛을 느낄 수 있음

(4) Issue 4.

- 커피가격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 종사자의 입장이 다름(소비자는 비용부담 존재, 종사자는 커피가격에 대한 비용부담이 존재하지 않음)
 -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커피의 적정 가격은 2000원 미만(1,251건), 커피산업 종사자는 4000원 이상 ~ 5000원 미만(35건)으로 나타남
 - 일반 소비자의 경우 커피 구매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보통(919건), 커피 산업 종사자는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음(46건)

(5) Issue 5.

- 우수한 해운, 물류 인프라를 커피 도시 부산이 가지는 장점으로 인식함
 - 일반 소비자는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지는 장점으로 우수한 해운, 물류 인프라(1,335건)과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1,309건)를 꼽음. 커피산업 종사자는 우수한 해운, 물류 인프라(43건)과 커피 전문인력 보유(43건)을 꼽음

(6) Issue 6.

- 시민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수립 필요성을, 종사자는 교통 및 주차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일반 소비자는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지는 대표적 단점으로 지역 특색 반영한 전략 수립 부족(1,425건)을 꼽음
 - 커피산업 종사자는 커피도시로서 부산이 가지는 대표적 단점으로 도심지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41건)을 꼽음

(7) Issue 7.

- 일반 시민들은 부산이 커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커피전문점 특화서비스 개발지원을 꼽음
 - 일반 소비자는 부산이 커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커피 전문점 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1,038건)을, 커피산업 종사자는 국내외 행사 개최를 꼽음(39건)

(8) Issue 8.

- 커피 사업 성공에 있어 상권은 주요한 요소이며, 부산에 입지한 기업의 유인 요소는 저렴한 임대료, 지가와 연고지 특성 등을 언급함
 - 설문에 응답한 커피산업 종사자들은 사업 성공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소로 매장 위치(상권)(33건)를 꼽음. 종사자들은 주로 부산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61건), 부산에 입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자 연고지(35건)와 저렴한 임대료, 지가(28건)를 꼽음

(9) Issue 9.

- 커피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부산의 커피산업 생태계 발달 정도는 높은 수준임
 - 부산의 커피산업 생태계 발달 정도를 낮다고 평가한 응답의 비율은 전체에 약 18% 정도에 불과함
 -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 마케팅 부족, 난립하는 저가형 카페 등이 있음

(10) Issue 10.

- 일반 시민들은 부산의 생두/원두 저장 관련 사업 육성을 긍정 평가함. 이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화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을 꼽음
 - 부산의 생두 저장 관련 사업의 육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며, 일반 소비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동화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576건)을 꼽음
 - 커피산업 종사자는 저장시설 지원(35건)을 꼽음

(11) Issue 11.

- 일반 시민들은 부산의 생두/원두 가공(로스팅) 사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특화지구(단지) 조성을 꼽음
 - 부산의 생두가공(로스팅) 산업 육성시 일반 소비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특화지구(단지) 조성(546건)을 꼽음. 커피산업 종사자는 전문 인력 육성 및 확보(40건)을 꼽음

(12) Issue 12.

- 일반 시민들은 부산의 생두/원두 수출 사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을 꼽음
 - 부산이 생두 수출 산업 육성시 일반 소비자는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751건)을 꼽음. 커피산업 종사자 역시 자체 브랜드 개발(43건)을 꼽음

(13) Issue 13.

- 설문 참여자 대부분이 국내외에서 커피도시로서 선도하고 있는 지역을 부산으로 꼽음
 - 전체 설문 응답자 모두 국내외에서 커피도시로서 선도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음(1,641건), 서울(531건), 강원(439건), 제주(56건)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음

(14) Issue 14.

- 일반 시민들은 청학동 일대의 영도 영블루벨트를 커피산업 특화지구 조성 시 가장 알맞은 부지로 꼽음
 - 커피산업 특화지구 조성 시 일반 소비자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영도 영블루벨트(청학동 일원) (799건)을 꼽음, 커피산업 종사자는 부산 신항만배후단지(43건)을 꼽음

(15) Issue 15.

- 커피산업 종사자들은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이유로 로스팅 중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를 꼽음
 - 커피 가공(로스팅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사유는 냄새(38건), 연기(37건)가 비슷한 비중으로 응답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소음(14건)이 그 뒤를 이음

2 이해관계자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표 V-2] 이해관계자 인터뷰 개요

인터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6회(약 30명 내외, 부산 커피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DI(개인 심층인터뷰), FGI(그룹 심층 인터뷰) 커피 포럼 내부 회의 			
인터뷰/ 회의 일정 및 대상	일시	커피산업 구분	지역	소속/경력/대상자
	5월 3일(목) 7월 28일(금)	로스팅	부산	로스팅코리아 대표
	5월 18일(목)	수입	경기도	엔비코퍼레이션 대표
	5월 29일(월)	로스팅 및 제조	경기도	블랙와인커피 대표
	5월 30일(화)	제조	서울	STRONGHOLD 이사
	6월 14일(수)	소비(프랜차이즈)	부산	컴포즈커피 담당자
	6월 15일(목)	소비(프랜차이즈)	부산	하삼동커피 담당자
	6월 16일(금)	물류/유통	부산	스타벅스 팀장 / CJ 대한통운 센터장
	6월 19일(월)	소비(프랜차이즈)	부산	텐퍼센트커피 담당자
	7월 18일(화)	소비(관광)	부산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 위원장
	7월 19일(수)	소비(카페)	부산	부산커피협동조합 이사장
	7월 20일(목)	물류/유통	부산	미쓰이소꼬코리아 팀장
	7월 21일(금)	소비(카페)	부산	먼스커피 대표
	7월 21일(금)	소비(카페)	부산	코스피어 대표
	7월 21일(금)	소비(프랜차이즈/카페)	부산	前 이디야 부산 총괄 및 창업컨설턴트
	7월 27일(목)	소비(카페, 문화, 언론)	부산	커피포럼 분과장, 부산TP, 부산일보 등

2) 인터뷰 결과 (수입업체)

(1) Issue 1.

- 커피 관련 모든 활동이 가능한 커피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장 이전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부산은 수출입의 거점이자, 관광지로 높은 매력 존재. 수도권 이남 지역 유통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함
 -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커피 밸류체인의 특정 항목이 아닌, 저장, 가공 및 로스팅, 제조, 유통, 소비 등 커피 밸류체인 전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커피 문화 조성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부산에서 유명한 커피전문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질 좋은 커피의 유통과 소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Issue 2.

- 로스팅 업체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사업장 선정 및 운영함
 - 생두를 수입해 수도권 로스팅 업체, 커피숍 등에 납품. 브라질, 베트남 등 2~30여 개국 산지에 위치한 다국적 중개상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고객 서울 및 서울 근교(경기도)에 위치. 특히 주로 거래하는 로스팅 업체가 파주에 있어 주변으로 옮기게 됨 (로스팅 업체의 경우, 냄새 및 연기로 인한 주민 민원 빈번, 주민이 없는 외곽으로 사업장 이동 추세_ 파주, 경기도 광주 등)

(3) Issue 3.

- 부산에서 파주(수도권), 파주(수도권)에서 생두 수요처로 이어지는 물류 구조에 따른 유통 비용 부담이 존재함
 - 부산항으로 들어온 생두를 사업장으로 가져오고, 해당 생두를 고객에게 유통하면서 발생하는 유통비용 부담

- 컨테이너 1개가 70만원, 일주일에 3대 컨테이너사용, 물류비만 한 달 기준 700~800만원 소요됨
- 파주지역의 경우, 겨울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난방비 발생함. 부산 등 남쪽의 경우 상대적으로 따뜻하여 난방비 절약이 가능함 (생두는 자체 수분으로 인하여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품질 이슈 발생 가능)

(4) Issue 4.

- 산업 기준으로는 로스팅 업체와 밀접, 생두 기준으로는 우수한 저장 시설이 필요함
 - 대부분의 생두는 부산을 통하여 수입되나, 대부분의 수입 및 저장 업체들은 경기도에 위치. 해당 업체들은 로스팅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로스팅 업체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임. 생두 수입 및 저장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로스팅 업체 유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생두 보관 및 관리 관점만 본다면, 항온항습이 가능한 저장 시설과 선별과정 관리를 위한 인프라 등이 제고된다면 더 효과적임
 - 위 사항과 함께 산업단지 내 커피거리 조성 등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인터뷰 결과 (로스팅 업체)

(1) Issue 1.

- 생두유통과정에서 저장시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생두가 산지에서 출발하여 한국까지 도착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소요, 그 동안 생두는 컨테이너 안에서 여러가지 기후대를 지나며 부적절한 습도와 온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산지에서부터의 콜드체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에서의 향온습관리는 그다지 효용이 크지 않음 (컨테이너 도착 후 1~2개월 내 모두 소진, 특별한 보관 시설이 아닌, 상온 수준의 온도 유지 정도로만 관리)

(2) Issue 2.

- 남부시장 개척 또는 진출을 위한 제2공장 차원 진출 고려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함
 - 국내 커피 수요, 시장, 고객의 70%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 기존 거래처 인프라 등을 버리고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비현실적임
 - 다만, 국내 커피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경기/충북에서 전국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물류 비용, 공장 및 창고 규모 등 고려)임. 따라서 2공장이나 지점 형식으로 남부 지역을 관리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Issue 3.

- 커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유통, 가공 측면의 커피산업단지를 조성하여야 함
 - 부산시는 국내 커피 물동량이 95%에 달하는 물류 허브인 부산 신항이 존재함. 신항 주변에 생두유통, 가공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자연스레 모일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산업단지는 부산신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적절. 영도, 기장 등 접근성이 우수하지 않은 지역은 고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4) Issue 4.

- 근접성이 우수한 지역에 커피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타 지역의 기업들도 부산으로 유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커피 유통, 가공회사는 경기도에 위치함. 생두를 경기도까지 운반하고 전국으로 다시 발주하는 비용이 컨테이너당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듦.
 - 유통회사들은 월별 못해도 30 컨테이너 정도를 취급하니 소요되는 물류비용만 1억에 달함. 유통회사들도 부산으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생각함

4) 인터뷰 결과 (물류업체)

(1) Issue 1.

- 물류업의 경우, 부지/건물 임대, 유통, 제조(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소매(또는 가맹점) 관련 이해관계자가 존재함
 - 커피 관련 물류 부문은 부지/건물 임대, 유통, 제조(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소매(또는 가맹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함
 - 국내 커피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관련 산업, 특히 물류 산업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유통망과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2) Issue 2.

- 수도권 70%, 수도권 외 지역 30% 비중, 최근 수도권에 거점 지역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커피 관련 수요 및 매출의 70% 정도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물류 관련 기업과 거점(창고)은 경기도와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음
 - 다만, 커피산업의 지속 성장세에 따라, 기존 경기 및 충청권 중심의 1개의 거점으로 전국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직면함에 따라 남부 지역 거점 확보를 위한 필요성 인식과 노력 등을 강화하는 추세임

(3) Issue 3.

- 원두 뿐만 아니라, 커피 관련 모든 부재료(컵, 스트로우 등)와 베이커리 등이 함께 취급함
 - 커피 물류 부분은 단순히 커피 생두/원두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컵, 스트로우 등 관련 부재료와 커피와 함께 판매되는 베이커리 등이 함께 취급되는 구조임. 따라서 각 제품/상품 관리에 적합한 관련 설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원두, 베이커리 등은 관리가 수월한 편이나, 커피 함께 유통되는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고, 관리에 어려움 존재. 우유 관련 관리 및 유통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매일유업 등)가 커피 관련 유통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4) Issue 4.

○ 물류센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확대 희망

- 넓은 부지가 필요한 물류센터의 경우, 대부분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물류센터들이 위치한 곳은 접근성이 떨어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빈번. 교통 시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편의시설 등 부재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 필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길 희망

5) 인터뷰 결과 (기자재 제조업체)

(1) Issue 1.

○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로스팅공장(업체) 관련 민원은 해소하기 어려움

- 기존 로스팅 기기들은 가스 기반으로 설비가 운영이 됨. 최근 전기를 활용한 설비 운영이 가능해졌으나, 로스팅 시 발생하는 냄새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 제연기 등 관련 부가 제품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원 예방 및 해소는 제한적임

(2) Issue 2.

○ 생두/원두 품질 제고와 투명한 정보 확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양질의 생두/원두 수급을 위하여 대부분의 종사자/기업들은 국내외 대규모

유통사를 활용한 생두/원두를 수급해 왔음

- 최근 기술의 발전과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력 관리, 커피 포럼을 통한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관리 형성 등 우수 생두/원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하고 있음

(3) Issue 3.

○ 부산만의 차별화된 기업 유치(지원) 정책 개발과 추진 노력이 필요함

- 최근 태백으로 원두공장을 이전하기로 한 기업의 경우, 부지나 대출 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물류비를 관련 지원을 약속받고 공장을 태백으로 이전하기로 함(태백으로 들어가는 물류비 지원은 없으나, 가공 후 태백에서 나가는 제(상)품에 대한 물류비 50% 지원)
- 부산의 특징과 커피 관련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기업 지원 전략을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Issue 4.

○ 2공장 또는 신생업체 중심 유치 전략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현재 중견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해당 업체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설비가 대규모임. 해당 기업/공장의 이전보다는 2공장이 필요한 기업 또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인터뷰 결과 (부산 프랜차이즈)

(1) Issue 1.

- 경제성 등을 고려, 밸류체인 전반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참여하고 있음(강점 강화/확대, 비경제적/비강점 부분 외주)
 - 업역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커피산업 밸류체인 중 강점인 부분을 중심으로 투자와 사업 등을 확장해 나가는 추세임
 -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특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주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커피시장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에서 설립한 기업들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본사를 부산에 두는 정도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함

(2) Issue 2.

- 물류 거의 100% 외주, 로스팅 외주 전환 비중 높음, 현재 부산 내 로스팅 환경은 매우 불편함(민원, 직원 정주여건 등)
 - 물류의 경우, 대부분 전국 유통망을 보유한 수도권 기업과 주로 협업하고 있음
 - 로스팅도 대부분 외주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오리산단에 로스팅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민원, 생산성,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향후 타 지역운영을 검토함
 - 현재의 식품산단을 접근성, 인력 수급 등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3) Issue 3.

- 부산 커피산업 관점의 실효성 있는 협의체/네트워크 구성과 관련 활동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 몇 해 전 부산 경제부시장 주관 간담회 등 부산 커피산업 육성 관련 소통

행사를 추진한 바 있음

- 커피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매업자, 바리스타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되다 보니, 지자체 주관 행사에 관심이 떨어지는 편임
- 커피산업 관련 종사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성 및 종사기업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함

(4) Issue 4.

- 세제, 부지, 저금리 등 경제적 지원 확대와 현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개발 등의 지원을 희망함
 - 지자체에게는 세제, 저가 부지 지원, 저금리 대출 등 경제적 지원 확대를 가장 희망함
 - 경제적 지원과 함께, 향후 커피 도시 부산으로 성장하기 위한 차별화 방안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넘어, 물류, 로스팅, 가공 등 커피산업 밸류체인별 전문 교육과정이 개발 및 운영된다면 효과적일 것 같음

VI. 커피산업 육성 및 로드맵 수립

1 분석 종합

- 커피 및 부산 관련 환경과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이슈를 종합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강점 및 약점 요인을 확인함

[그림 VI-1] 대내외 커피 환경 및 트렌드 분석 기반 강점 및 약점 도출

커피 환경 및 트렌드	해외 커피 시장 및 원두 생산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	Strength (강점)	S1. 국내 유통 원두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수입
	국내 커피 수출입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S2. 부산시의 커피 산업 육성 의지(조례 제정, 조직위 구성)
	국제 원두가격 및 생두 수입가격의 가격 회복세 차이		S3. 부산 지역내 커피 점포, 종사자, 매출액 증가 추세
	부산항은 수입 및 수출 관련 단순 거점 역할 수행에 그침		S4. 우수한 전문인력, 자연, 물류, 해운 인프라 보유
	윤리적, 지속가능, 건강 등의 키워드가 커피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음		S5. 다양한 커피 관련 연구개발(블록체인, 빅데이터) 사업 추진
	블록체인 기반 커피 물류 이력관리, 빅데이터 기반 생두 분석 기술 등 커피 기술 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부산시 선정	Weakness (약점)	W1. 대부분 가공시설은 경기도에 밀집해 부산 내 커피 가공 시설 및 업체 부족
	다양한 커피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향후 커피 산업과 연계를 통한 큰 시너지 창출 기대		W2. 부산항 근처 저장 시설 부재로 단순 거점 역할 수행
	부산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W3. 부산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부산시 경제활동 인구, 생산지수 등 경기 관련 지표 대부분 우하향하는 모양세로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		W4. 부산시 대부분의 경기 지표 우하향하는 추세로 지역 전반 경기 침체
	설문 응답자 대부분은 부산시를 해운, 물류 인프라, 커피 전문 인력 보유를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음		W5. 3개의 커피 축제에도 강릉커피 축제에 뒤처지는 인지도
설문 응답자의 70%가 넘는 대부분이 로스팅 원두를 즐겨 마심			
타 지역으로의 기업 유출 문제로 부산시의 산업 기반 약화 중			

- 커피 및 부산 관련 환경과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이슈를 종합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 및 위협 요인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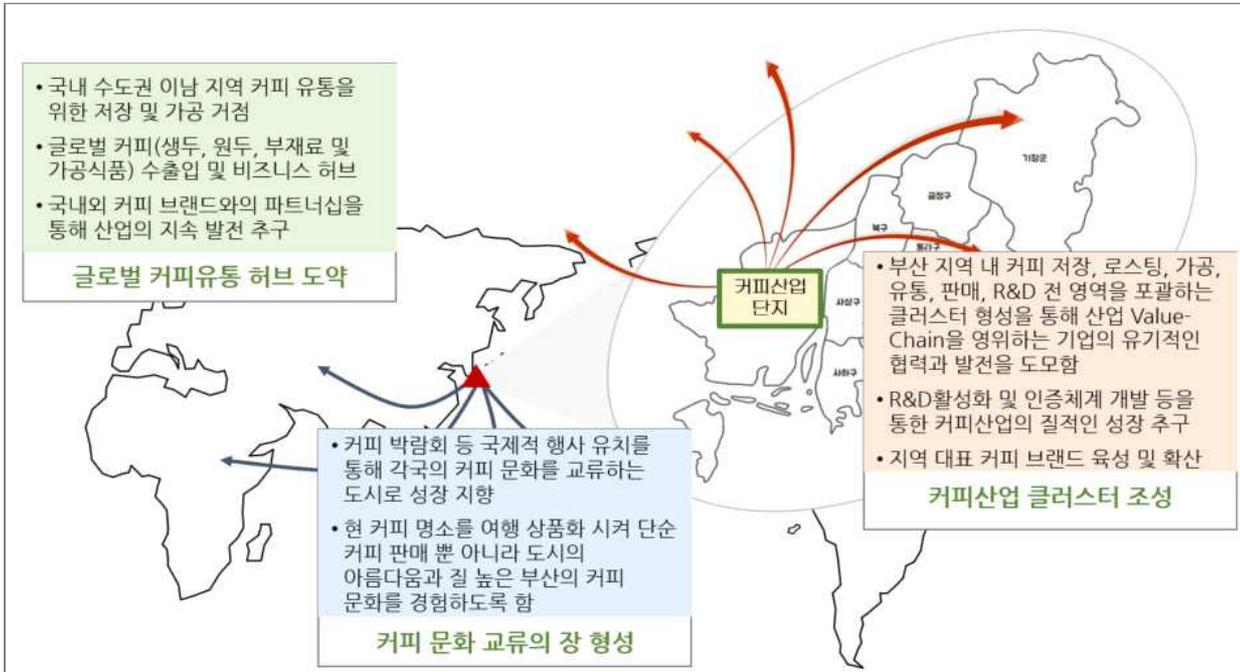
[그림 VI-2] 대내외 커피 환경 및 트렌드 분석 기반 기회 및 위협 도출

커피 환경 및 트렌드	세계적인 커피 축제를 벤치마킹한 영도, 전포, 금정구 커피 축제 활성화 노력	Opportunity (기회)	O1. 국내외 커피 시장의 지속적 확대
	국내 수입 생두 90% 이상 부산으로 유입. 대규모 저장 및 가공시설 부재		O2. 세계적인 수준(1인당 커피 소비량 세계 2위)의 국내 커피 수요
	자유무역지구인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 커피 종합 집적지 개발 가능		O3. 커피는 재가공, 재수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역활성화 등에 기여 기대
	부산시 내 커피 점포, 종사자, 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O4. 커피 고급화, 다양화, 타 산업 연계 등 커피 산업 확장
	디카페인 커피 시장 활성화 및 커피 구독 서비스 확대		O5. ESG 강조로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산업 육성 필요성 확대
	부산시 2차 산업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3차 산업 종사자 수의 증가	Threat (위협)	T1. 커피산업 관련 수도권업체 영향력 강화. 지역업체 육성 및 확대 어려움 존재
	코로나로 인한 홈카페 시장 및 RTD 커피 시장 성장		T2. 가파르게 증가하는 커피 소매점 창업으로 과열 경쟁 위험
	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산업 발전 방안 마련 필요		T3. 국내 커피 가공, 물류 업체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유인 부족(혜택, 인프라 등)
	부산시의 커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커피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T4. 원두 재배가 어려워 원두 가격 및 환율, 물류비에 큰 영향
	커피 산업 관련 외주화 비중 강화로 인한 수도권업체 영향력 강화, 지역업체 육성 및 활성화 환경 조성 어려움		T5. 코로나로 인한 홈카페, RTD 커피 시장 성장
부산시 창,폐업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 커피 전문점 신규 사업자 수도 크게 늘어 소매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위험 존재			
부산에서 시작해 성공한 저가, 테이크 아웃 커피 시장이 코로나로 더욱 확대			

* RTD 커피: Ready To Drink Coffee, 구입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컵, 페트, 병 등으로 형태로 판매되는 커피를 총칭함

2 전략 방향 설정

[그림 VI-3] 전략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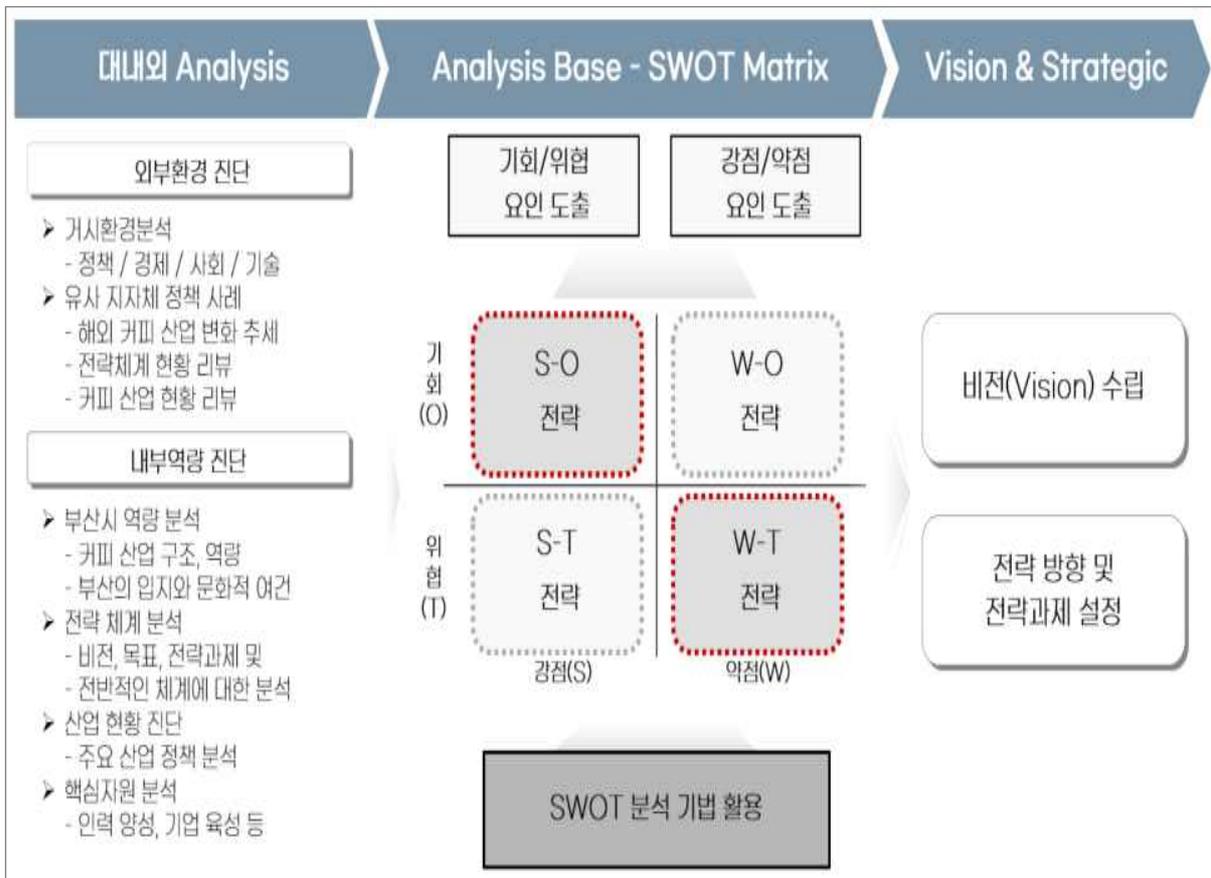


- 글로벌 커피유통 허브 도약
 - 국내 수도권 이남 지역 커피 유통을 위한 저장 및 가공 거점
 - 글로벌 커피(생두, 원두, 부재료 및 가공식품) 수출입 및 비즈니스 허브
 - 국내외 커피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의 지속 발전 추구
- 커피 문화 교류의 장 형성
 - 커피 박람회 등 국제적 행사 유치를 통해 각국의 커피 문화를 교류하는 도시로 성장 지향
 - 현 커피 명소를 여행 상품화시켜 단순 커피 판매뿐 아니라 도시의 아름다움과 질 높은 부산의 커피 문화를 경험하도록 함
- 커피산업 클러스터 조성
 - 부산 지역 내 커피 저장, 로스팅, 가공, 유통, 판매, R&D 전 영역을 포괄하는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 Value-Chain을 영위하는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
 - R&D 활성화 및 인증체계 개발 등을 통한 커피산업의 질적인 성장 추구
 - 지역 대표 커피 브랜드 육성 및 확산

3 커피산업육성 전략 수립

-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SO, ST, WO, WT 영역에서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전략체계를 새롭게 정립함

[그림 VI-4] 비전 수립 및 전략 수립 개요



- 부산 환경 및 커피산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10개의 외부적 기회·위협 요인, 10개의 내부적 강점·약점 요인을 도출함

[그림 VI-5] SWOT 요인 종합

강점(S)		약점(W)		Internal Factors
S1	국내 유통 원두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수입	W1	대부분 가공시설은 경기도에 밀집해 부산 내 대형 가공 시설 및 업체 부족	
S2	부산시의 커피 산업 육성 의지(조례 제정, 조직위 구성)	W2	부산항 근처 저장 시설 부재로 단순 거점 역할 수행	
S3	부산 지역내 커피 점포, 종사자, 매출액 증가 추세	W3	부산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S4	우수한 전문인력, 자연, 물류, 해운 인프라 보유	W4	부산시 대부분의 경기 지표 우하향하는 추세로 지역 전반 경기 침체	
S5	다양한 커피 관련 연구개발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업 추진	W5	3개의 커피 축제에도 강릉커피 축제에 뒤처지는 인지도	
기회(O)		위협(T)		External Factors
O1	국내외 커피 시장의 지속적 확대	T1	커피산업 관련 수도권업체 영향력 강화. 지역 업체 육성 및 확대 어려움 존재	
O2	세계적인 수준(1인당 커피 소비량 세계 2위)의 국내 커피 수요	T2	가파르게 증가하는 커피 소매점 창업으로 과열 경쟁 위험	
O3	커피는 재가공, 재수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역활성화 등에 기여 기대	T3	국내 커피 가공, 물류 업체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유인 부족(혜택, 인프라 등)	
O4	커피 고급화, 다양화, 타 산업 연계 등 커피 산업 확장	T4	원두 재배가 어려워 원두 가격 및 환율, 물류비에 큰 영향	
O5	ESG 강조로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산업 육성 필요성 확대	T5	코로나로 인한 홈카페, RTD 커피 시장 성장	
Positive		Negative		

○ SWOT 분석 > SWOT 대응전략 도출[종합]

[그림 VI-6] SWOT 분석 종합

		내부역량		
		강점(S)	약점(W)	
외부환경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1: 국내 유통 원두 90% 이상이 부산형을 통해 수입 · S2: 부산시의 커피 산업 육성 의지(조례 제정, 조직위 구성) · S3: 부산 지역내 커피 점포, 종사자, 매출액 증가 추세 · S4: 우수한 전문인력, 자연, 물류, 해운 인프라 보유 · S5: 다양한 커피 관련 연구개발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1: 대부분 가공시설은 경기도에 밀집해 부산 내 대형 가공 시설 및 업체 부족 · W2: 부산형 근처 저장 시설 부재로 단순 거점 역할 수행 · W3: 부산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 W4: 부산시 대부분의 경기 지표 우하향하는 추세로 지역 전반 경기 침체 · W5: 3개의 커피 축제에도 강릉커피 축제에 뒤처지는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1: 국내외 커피 시장의 지속적 확대 · O2: 세계적인 수준(인당 커피 소비량 세계 2위)의 국내 커피 수요 · O3: 커피는 제가공, 재수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무역활성화 등에 기여 기대 · O4: 커피 고급화, 다양화, 타 산업 연계 등 커피 산업 확장 · O5: ESG 강조로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산업 육성 필요성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SO 전략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의 고급화, 다양화 흐름과 더불어 부산시 커피 인증 사업 활성화 · 우수 역량(인력, 물류, 자연 등) 부산만의 차별화된 커피산업 아이덴티티 정립 · 향후 부산만의 독자적인 커피 브랜드화를 통해 로스팅 커피 재수출 	<p style="text-align: center;">WO 전략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커피 수요로 추가 커피 가공, 물류 시설 필요성 증대 전망, 부산 내 커피 전문 산업단지 구축 · 부산형 커피산업 전주기 관광 인프라 조성 · 커피 시장 확대에 따른 커피산업 종사자 인력 양성을 통한 부산 취,창업률 제고
위협(T)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1: 커피산업 관련 수도권업체 영향력 강화, 지역 업체 육성 및 확대 어려움 존재 · T2: 가파르게 증가하는 커피 소매점 창업으로 과열 경쟁 위험 · T3: 국내 커피 가공, 물류 업체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유인 부족(혜택, 인프라 등) · T4: 원두 재배가 어려워 원두 가격 및 환율, 물류비에 큰 영향 · T5: 코로나로 인한 홈카페, RTD 커피 시장 성장 	<p style="text-align: center;">ST 전략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저장 창고 및 설비를 통해 국제 원두 가격, 환율 등에 영향 받지 않는 체계 구축 · 부산시 커피 가공, 물류 업체 이전 및 신규 건설 지원(조세, 부지 등) 및 인력 양성 필요 · 커피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커피산업 발전 선도 	<p style="text-align: center;">WT 전략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소매업 과열 지역(전포, 온천장, 영도) 특화지구 조성 통한 인구 유입 활성화 · 국내 커피 가공, 물류 업체들의 부산 이전 유도를 통한 부산 내 산업 경쟁력 강화 · 커피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대회 기획 및 홍보로 부산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 SO 전략적 시사점

- 커피의 고급화, 다양화 흐름과 더불어 부산시 커피 인증 사업 활성화
- 우수 역량(인력, 물류, 자연 등) 부산만의 차별화된 커피산업 아이덴티티(Identity) 정립
- 향후 부산만의 독자적인 커피 브랜딩화를 통해 로스팅 커피 재수출

○ WO 전략적 시사점

- 세계적인 커피 수요로 추가 커피 가공, 물류 시설 필요성 증대 전망, 부산 내 커피 전문 산업단지 구축
- 부산형 커피산업 전주기 관광 인프라 조성
- 커피 시장 확대에 따른 커피산업 종사자 인력 양성을 통한 부산 취·창업률 제고

○ ST 전략적 시사점

- 대형 저장 창고 및 설비를 통해 국제 원두 가격, 환율 등에 영향받지 않는 체계 구축
- 부산시 커피 가공, 물류 업체 이전 및 신규 건설 지원(조세, 부지 등) 및 인력 양성 필요
- 커피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커피산업 발전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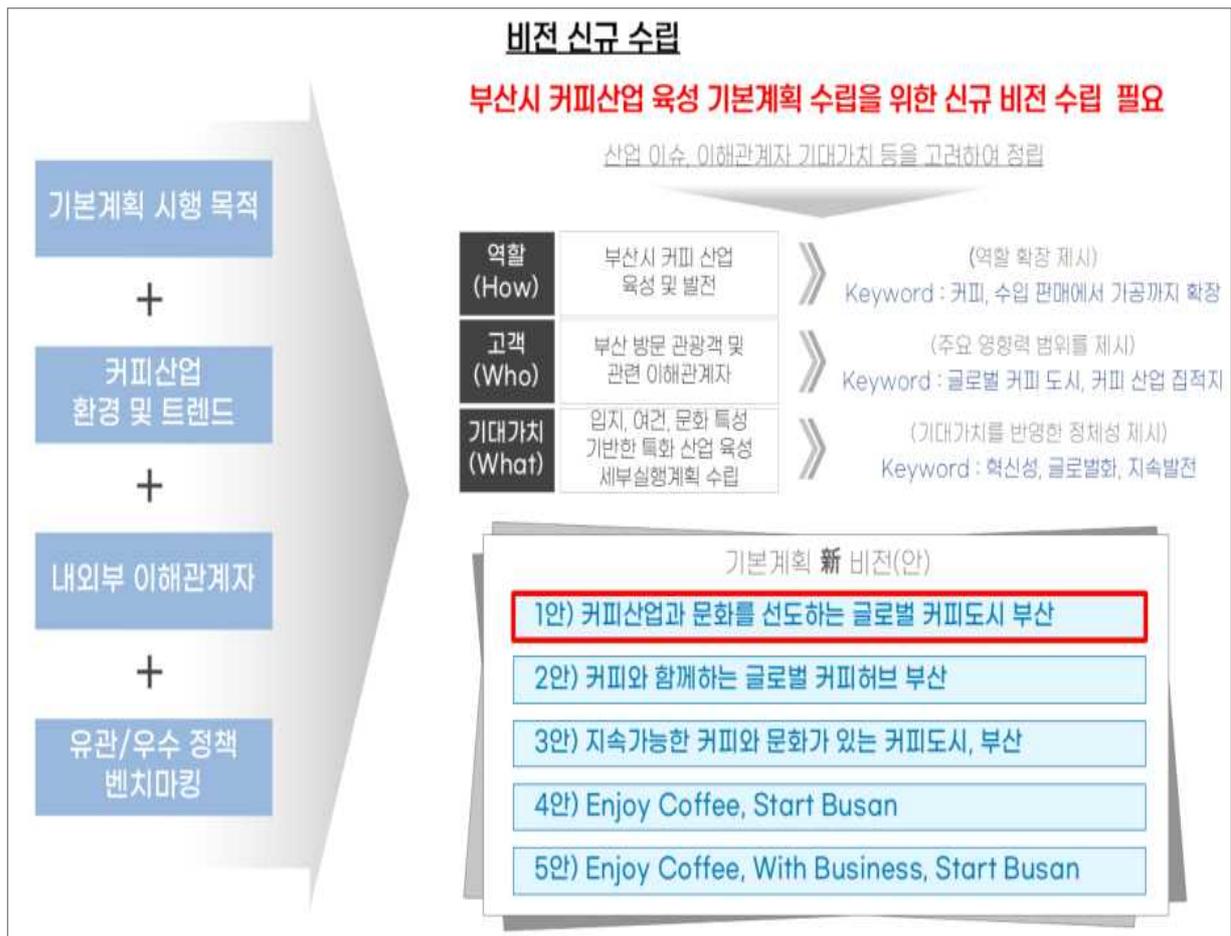
○ WT 전략적 시사점

- 커피 소매업 과열 지역(전포, 온천장, 영도) 특화지구 조성 통한 인구 유입 활성화
- 국내 커피 가공, 물류 업체들의 부산 이전 유도를 통한 부산 내 산업 경쟁력 강화
- 커피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대회 기획 및 홍보로 부산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4 부산 커피산업 비전 전략 추진 방향 수립

- 역할(HOW) -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 및 발전
- 고객(WHO) - 부산 방문 관광객 및 관련 이해관계자
- 기대가치(WHAT) - 입지, 여건, 문화 특성을 기반한 특화 산업 육성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을 고려한 신규 비전 수립
- 커피 수입, 판매에서 가공까지 확장 / 글로벌 커피 도시 / 커피산업 집적지 / 혁신성 / 글로벌화 / 지속발전 등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新 비전안 수립

[그림 VI-7]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비전 신규 수립



○ 비전안 5개

- ▶ 커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 ▶ 커피와 함께하는 글로벌 커피허브 부산
- ▶ 지속가능한 커피와 문화가 있는 커피도시, 부산
- ▶ Enjoy Coffee, Start Busan
- ▶ Enjoy Coffee, With Business, Start Busan

○ 커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 창출 가치 - “선도하는”

- 커피 공급, 인증, 가공, 행사 등 다방면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산업을 선도하고 육성

사업 영역 - “커피산업과 문화를”

- 수입, 저장, 가공, 판매 등 커피산업 활성화 전략뿐 아니라 행사,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역할을 사업 영역으로 정의

시장 지위 -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 국내 커피산업 대표 선도 도시로 성장 및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커피산업 허브 도시로 발돋움

○ 커피와 함께하는 글로벌 커피허브 부산

=> 창출 가치 - “커피와 함께하는”

- 커피와 함께, 커피산업을 통해 부산의 미래 정체성 및 발전을 위한 혁신을 꾀하겠다는 의미

사업 영역 - “글로벌 커피허브”

- 국내 커피산업 육성 및 선도 지위를 넘어선 글로벌을 대표하는 커피 허브 도시 성장으로 세계 커피 시장으로 사업 영역 확대

시장 지위 - “글로벌 커피허브 부산”

- 국내 커피산업 대표 선도 도시로 성장 및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커피산업 허브 도시로 발돋움

○ 지속가능한 커피와 문화가 있는 커피 도시, 부산

=> 창출 가치 - “지속가능한”

- 커피산업 발전을 통해 부산의 산업 동력 확보와 더불어 커피 찌꺼기 처리, 친환경 재배 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조성 의미

사업 영역 - “커피와 문화가 있는”

- 부산의 커피 도시 조성 목표와 그 과정에서의 역할 및 조성 후 확대될 역할을 사업 영역으로 정의

시장 지위 - “커피 도시, 부산”

- 국내 커피산업 대표 선도 도시로 성장 및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커피산업 허브 도시로 발돋움

○ Enjoy Coffee, Start Busan

=> 창출 가치 - “Enjoy Coffee”

- 커피를 즐길 줄 아는 커피 대표도시 부산 및 글로벌허브 도시 핵심 도시로 부산의 미래 정체성 수립

사업 영역 - “Coffee”

- 수입, 저장, 가공, 판매 등 커피산업 활성화 전략뿐 아니라 행사,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역할을 사업 영역으로 정의

시장 지위 - “Start Busan”

- 국내 커피 수입의 대부분이 부산에서 시작하는 점을 착안해 부산이 커피 산업의 시작점 및 주도할 수 있는 허브 도시 지위

○ Enjoy Coffee, With Business Start Busan

=> 창출 가치 - “Enjoy Coffee”

- 커피를 즐길 줄 아는 커피 대표도시 부산 및 글로벌허브 도시 핵심 도시로 부산의 미래 정체성 수립

사업 영역 - “With Business”

- 커피를 마시고 즐기는 것을 넘어선 커피산업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국내외 관련 기업이 투자 및 이전하는 커피산업 허브 구축

시장 지위 - “Start Busan”

- 국내 커피 수입의 대부분이 부산에서 시작하는 점을 착안해 부산이 커피산업의 시작점 및 주도할 수 있는 허브 도시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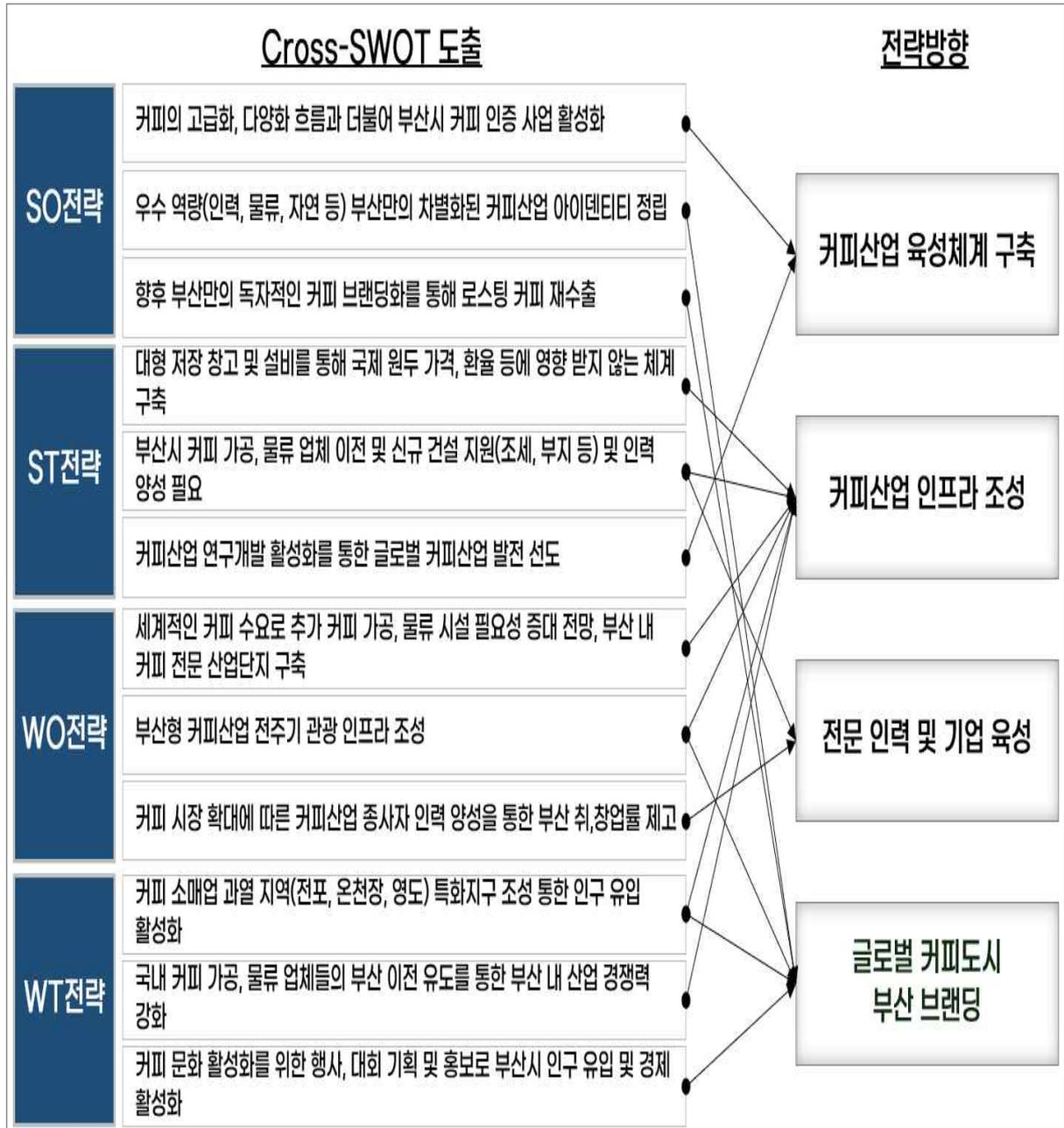
○ 최종 비전(안)

[그림 VI-8] 기본계획 최종 비전(안)



- SWOT 분석 결과(SO-ST-WO-WT)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립한 산업 발전 기본계획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방향을 도출함

[그림 VI-9] 4대 전략 방향 도출



- 전략 방향 달성을 위하여 전략 방향별 지향점 등을 고려하여 각 전략 방향 별 4~5개의 필요과제를 개발하여, 총 17대 전략과제를 다음과 같이 최종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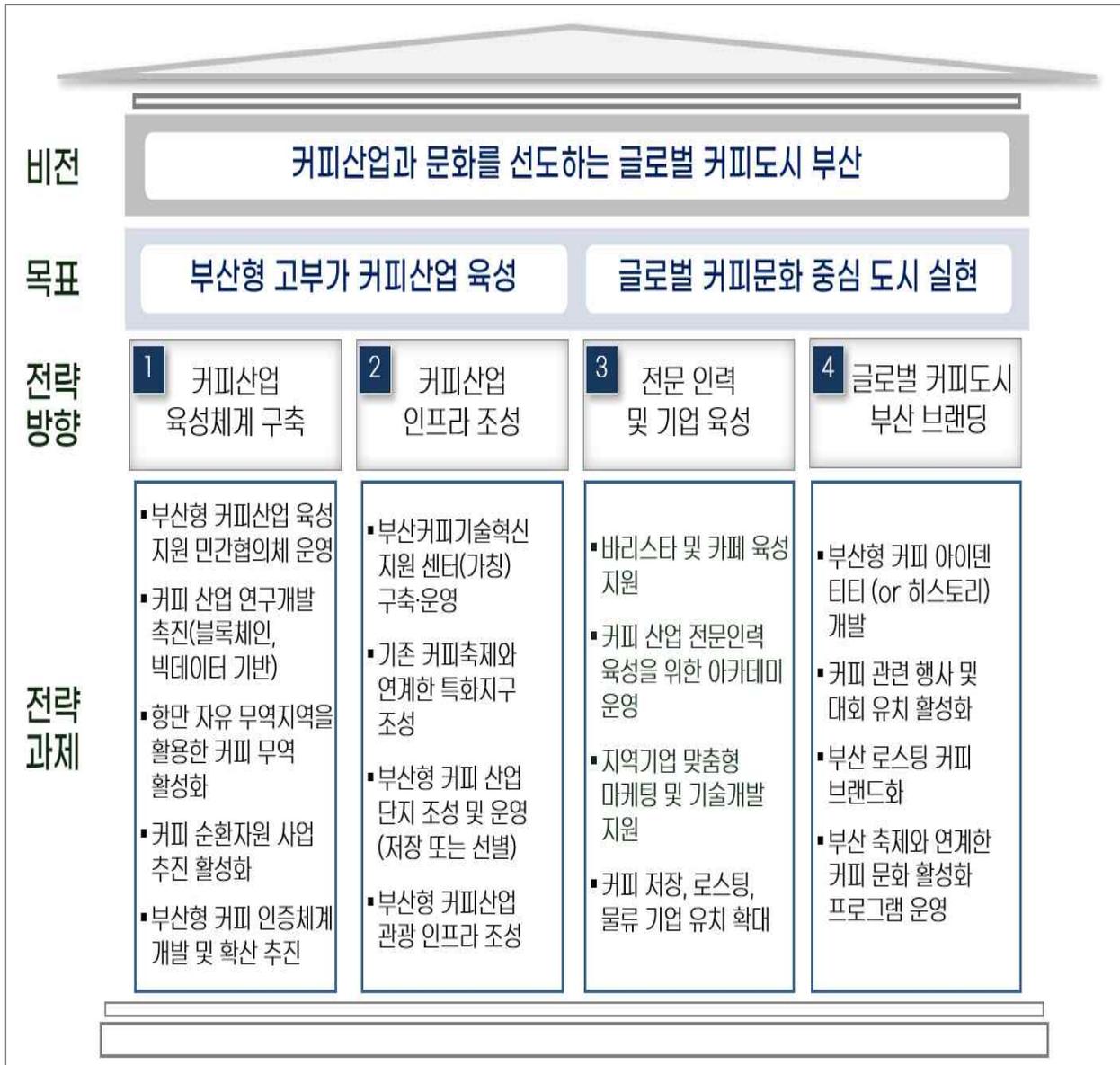
[그림 VI-10] 17대 전략과제 도출

전략방향	1 커피산업 육성체계 구축	2 커피산업 인프라 조성	3 전문 인력 및 기업 육성	4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브랜딩
전략과제 도출 지향점	타산업/ 신기술과 융합 연계, 커피 무역 및 순환자원 사업 추진, 커피 인증 등 부산형 커피산업 집중 육성 추진	부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추진(국내 수입 생두 90% 이상, 우수 전문인력 및 축제 보유)	커피(가공, 물류, 소매업, 바리스타 등) 기업 및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커피 산업 활성화	커피도시, 부산 컨셉 명확화, 관광·문화행사 연계, 커피대회 활성화 등을 통한 커피도시, 부산 Identity 명확화
전략과제	부산형 커피산업 육성 지원 민간협의체 운영 커피 산업 연구개발 촉진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 항만 자유 무역지역을 활용한 커피 무역 활성화 커피 순환자원 사업 추진 활성화 부산형 커피 인증체계 개발 및 확산 추진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 센터(가칭) 구축·운영 기존 커피축제와 연계한 특화지구 조성 부산형 커피 산업 단지 조성 및 운영 (저장 또는 선별) 부산형 커피산업 관광 인프라 조성	바리스타 및 카페 육성·지원 커피 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지역기업 맞춤형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커피 저장, 로스팅, 물류 기업 유치 확대	부산형 커피 아이덴티티 (or 히스토리) 개발 커피 관련 행사 및 대회 유치 활성화 부산 로스팅 커피 브랜드화 부산 축제와 연계한 커피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전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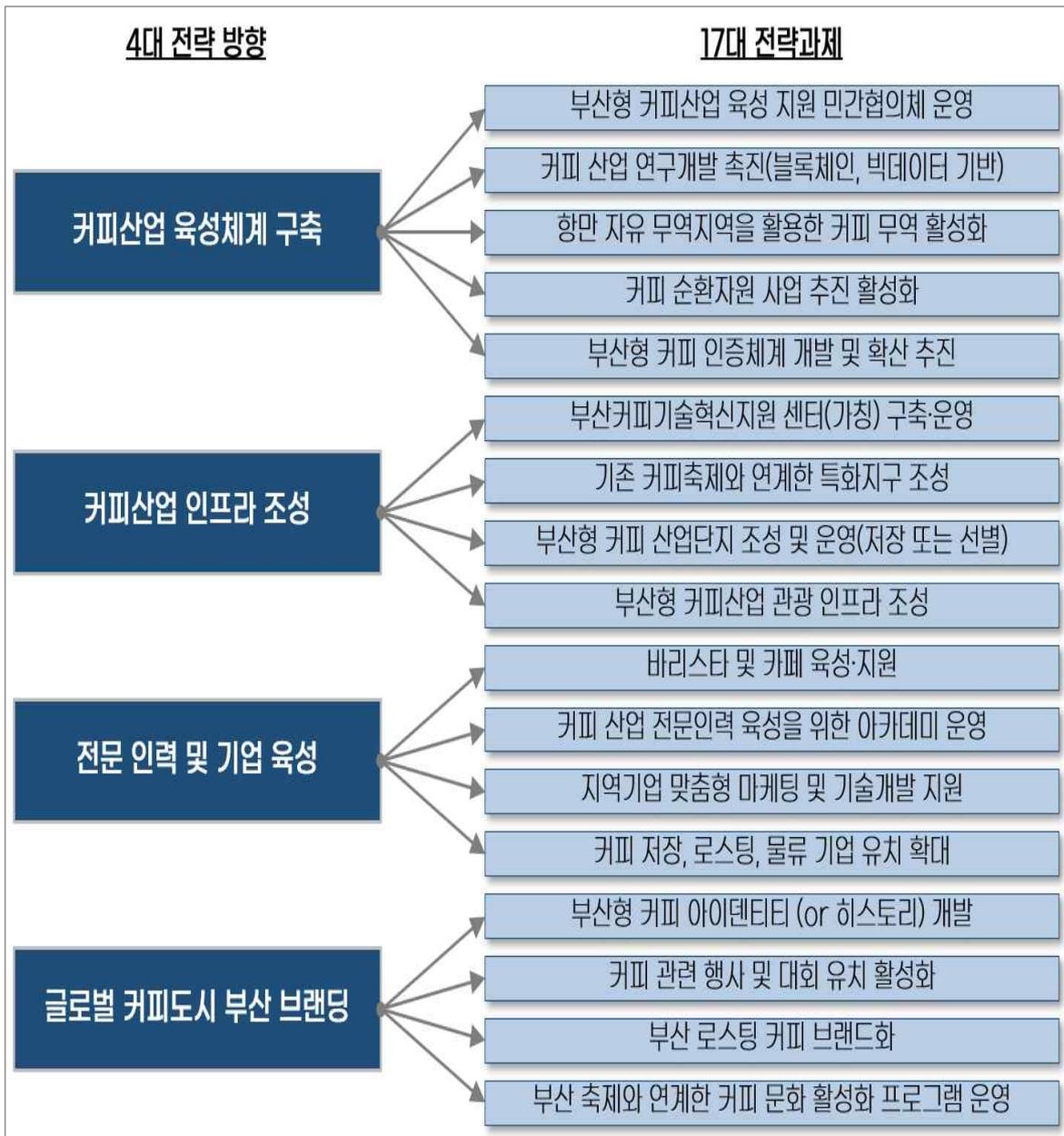
- 체계적인 부산형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방향 및 과제 등을 체계화하여 다음과 같은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전략체계를 도출함

[그림 VI-11] 부산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전략체계(안)



- 4대 전략 방향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17대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정립한 전략체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그림 VI-12] 4대 전략 방향 및 17대 전략과제



VII. 커피산업 육성 전략과제 및 추진 로드맵

1 커피산업 육성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 전 세계적 커피 소비 지속 확대 전망(2023년 기준 126,179백만 달러 → 2028년 전망 158,890백만 달러). 커피산업 성장에 따라, 원두 생산, 공급, 로스팅, 유통 및 소비의 전통적인 커피산업 분류를 넘어, 커피산업 관련 부자재(컵, 빨대 등), 제조, 포장, 교육, 전시, 문화, 마케팅,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부산은 국내 최초 커피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다양한 커피산업 관련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커피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의지
 - 커피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세계 커피 챔피언 3명 등)
 - 국내 수입 원두 약 93.8% 부산항을 통한 유입
 - 국내 저가 커피숍 흥행 선도 등
- 부산은 커피산업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와 신기술(블록체인 등) 분야 관련 연구 활발하게 추진 중임

[그림 VII-1] 부산 블록체인 활용 현황



- 시설 노후화와 쇠퇴기에 접어든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육성을 위하여 커피산업과 같은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추진과제

(1-1) 부산형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협의체 운영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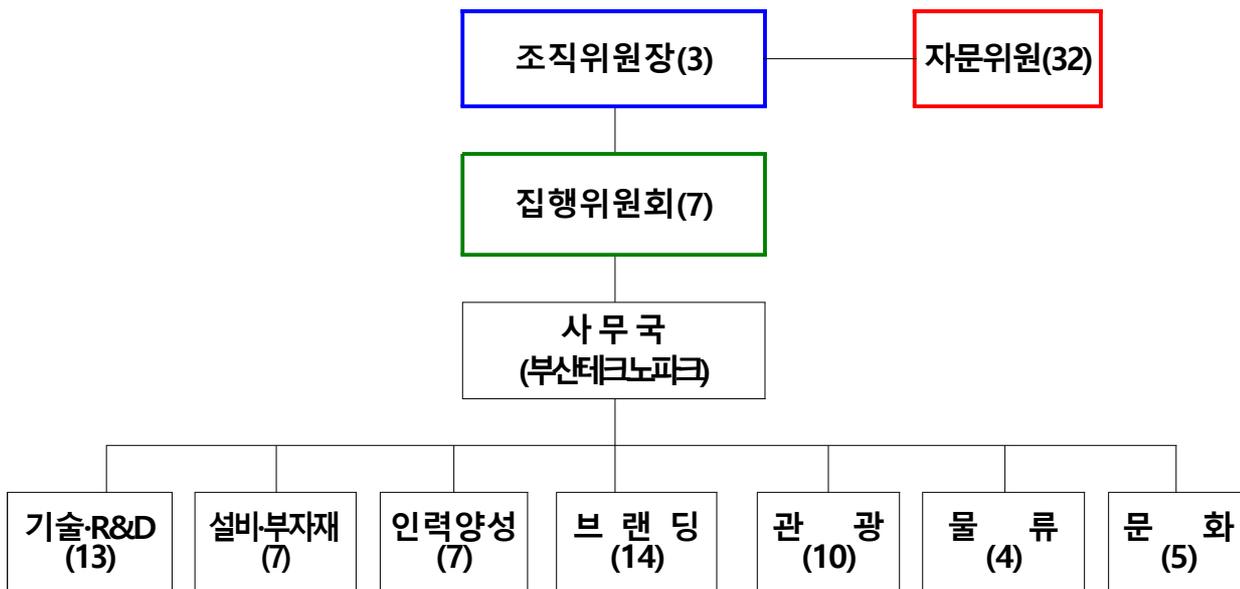
- 지역 내 커피산업 관련 민간 기업/단체간 원활한 상호 소통을 통한 자발적인 산업 성장방안을 도출 여건 조성 필요
- 현재 ‘커피도시부산포럼’이 존재하나, 다수의 구성원이 부산시, 부산시 산하기관장, 부산 내 대학 총장 및 수도권 커피 관련 이해관계자 관련 조직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부산 지역에서 커피사업 추진하고 있는 기업/단체의 의견 반영에 어려움 존재
- 부산 내 커피 관련 밸류체인별(수입, 로스팅, 물류/유통,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등) 협의체 또는 밸류체인 대표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소통 강화 필요

□ 과제 개요

- 1안) 현재 운영 중인 커피도시부산포럼 내 부산 내 커피산업 종사자 참여 확대를 통한 부산 커피산업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 필요
- 2안) 현재 운영 중인 부산 커피 포럼 외 실질적인 부산내 커피산업 종사자를 위한 협의체 조성 및 운영 필요
- 부산 커피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부산내 산업계종사자(수입, 저장, 로스팅, 물류/유통, 프랜차이즈, 자영업, 교육기관, 대학 등) 통합 및 부분별 협의체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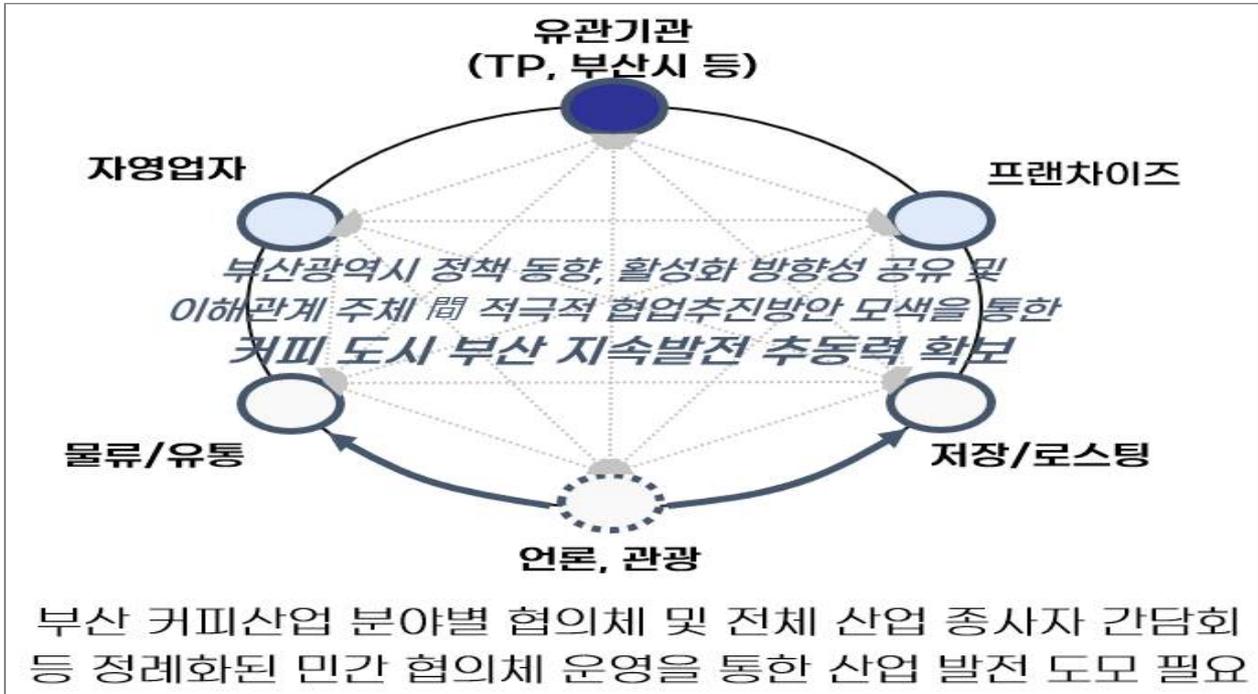
□ 주요 사항

- 1안) 커피도시부산포럼 구성 및 운영 개선
 - 현재 분과별 연 2회 운영 중인 회의 내실 운영 필요
 - 부산 내 커피산업 유관 종사자 중심 분과별 위원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추진 필요
 - 분과회의 결과 및 우수 성과 공유 확대를 통한 커피산업 관련 최신 트렌드 이해와 지역 커피산업 활성화 기여 필요



- 2안) 커피산업 전체 및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방안 / 운영 계획 수립
 - 부산 커피산업 위원회 :
 - 6개 분야별 소위원회 대표자, 부산시, 유관기관 및 지자체(부산 TP, 부산관광공사, 주제별 의제별 참여 대상 선정)
 - 부산 커피사업 소위원회 :
 - 1) 수입, 제조, 로스팅, 2) 물류/유통, 3) 소상공인, 4) 프랜차이즈, 5) 교육기관(대학, 교육기관), 6) 축제/행사별 소위원회 운영
- 커피산업 전체 및 분야별 협의체 간담회 정례화(연 2회)
- 개선 의견 및 건의사항 기반 제도 개선, 결과 피드백
- 협의체 운영 성과 분석 및 운영 고도화 방안 협의 등

[그림 Ⅶ-2] 커피산업 이해관계 주체 간 협업 추진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내 커피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수입, 제조, 로스팅, 물류/유통, 소상공인, 커피 프랜차이즈, 교육기관, 유관기관 및 구군 등)

□ 추진 계획

- 2024년 : 1안) 커피도시부산포럼 구성·운영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 협의체 운영 개선 계획 수립(지역 커피산업 종사자 협의체 참여 및 협의체 운영 횟수 확대 등) 및 운영 추진
 - 2안) 부산 커피산업 전체 및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운영 계획 수립, 소위원회 대표자/기관 선정, 협의체 운영
- 2025년 : 부산 커피산업 전체 및 분야별 협의체 운영 활성화
 - 협의체 의견 기반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강화

□ 기대 효과

- 부산 커피산업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산업 발전 방안 도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소통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이슈 해결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

(1-2) 커피산업 연구개발 촉진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

□ 필요성

- 커피 생산국과 소비국 거래 당사자간 불투명한 거래 정보로(원산지, 수확시기, 가공방법 등) 인한 불신 및 검증 관련 추가 비용 발생
- 생두 및 원두 관련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커피 향유 기회 제공 필요
-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신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상품) 개발 필요성 대두

□ 과제 개요

- 생두 원산지와 품질 및 유통 이력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추진 지원
- 새로운 로스팅 방법 및 물류 효율화를 R&D 지원, 연구개발 결과물 상용화 등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사업화 지원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지원) 필요

□ 주요 사항

- 현재 추진 중인 커피 물류 관련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기획 과제 발굴 및 지원 강화
 - 단기 : 수입된 생두 및 원두에 대한 물류 이력 관리

- 중기 : 원산지과 연계한, 원산지 정보 기반 생두 및 원두 물류 이력 관리
 - 장기 : 부산 유입 및 유출 관련 모든 생두/원두 물류 이력 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 현재 추진 중인 물류 중심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성분 변화 및 품질 관리 방안 관련 연구를 통한 로스팅 표준화 방안 개발(디지털 커피 등: 일정한 향미, 맛 유지 방안 등), 생두 가공 시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찌꺼기 재활용 방안, AI 및 IoT 등과 연계한 커피산업(저장, 로스팅 등) 관련 기기 제조 관련 연구개발 등 신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강화 필요

[그림 Ⅶ-3] 네슬레 블록체인 도입 사례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TP, 관련 기술보유 기업, 부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사업 연구 참여기업 및 대학 등

□ 추진 계획

- 2024년 : 수입 생두 및 원두 관련 물류 이력 정보 제공
- 2025년 : 원산지 연계, 원산지 정보 기반 생두 및 원두 물류 이력 관련 정보 제공
- 2026년 이후 : 부산 유입 및 유출 관련 모든 생두/원두 물류 이력 정보 제공, 로스팅 표준화 방안, 효율적인 찌꺼기 관리 방안 개발 및 AI·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커피산업(저장, 로스팅 등) 관련 기기 제조 관련 연구개발 등

□ 기대 효과

- 투명한 생두 및 원두 생산, 유통 관리를 통한 고품질 커피 향유 문화 기반 조성, 확산 기여
- 新기술 융합 및 개발 등을 통한 품질향상 및 업무 효율화 제고
- 커피산업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선도를 통한 커피도시 부산 위상 및 이미지 강화

(1-3) 항만 자유 무역지역을 활용한 커피 무역 활성화

□ 필요성

-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벨기에 앤트워프 등 글로벌 커피도시들은 항구에 위치해 있으며, 우수한 물류 접근성을 적극 활용하여, 다량의 생두 보관 및 유통을 통하여 세계적인 커피도시로 자리매김함
- 부산의 경우, 물류 관련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생두의 90% 이상이 부산을 통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경로에 불과함
- 2021년에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커피 원두, 유제품, 육류가공 등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제조 및 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부산신항을 활용한 커피 무역 활성화 여건을 마련함

- 다만, 신항배후단지 입주 자격 및 운영 관련 제약요인과 높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등으로 인하여 커피 관련 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입주 요건과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커피 관련 산업(저장, 로스팅 등) 유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입주 자격(자유무역지역법 10조 근거)

[표 Ⅶ-1] 자유무역지역법 10조

법 률	입주 자격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제1호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제1의2호	1의2.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제2호	제조업종 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다만,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 률	입주 자격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제4호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 제1항제5호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 양도 금지(항만법 19조 근거)

[표 VII-2] 항만법 19조

법 률	입주 자격
「항만법」 제19조 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날(비관리청의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1종 향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그림 VII-4] 1종 향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부문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능력 (30)	• 사업 신청인 구성의 적정성	10
	• 기업 재무의 적정성(동종업종 산업평균비율이상이면 만점) - 총자본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율 - 외국기업일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평균비율을 적용	10
	• 투자자금 조달 계획(규모 및 신뢰성) - 자기자본 조달 적정성(20% 이상 2점, 25% 이상 3점, 30% 이상 4점, 35% 이상 5점, 40% 이상 6점)(6점) - 타인자금 차입의 확실성(4점) (확약서 등 증빙서류)	10
	소 계	30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10)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사업장 안전작업을 위한 세부 대응계획 - 위험물 및 폐기물 저장 및 관리계획	10
	소 계	10
외국화물 및 부가가치 물류실적(역량)과 계획(35)	• 외국화물 처리실적 - "컨소시엄으로 입주대상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참여비율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 ·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30% 가중치 부여하여 실적으로 인정 ·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빙자료 제출 의무	10
	• 외국화물 유치계획 - 증빙된 실적을 근거로 외국화물 유치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정성평가	10
	•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계획 -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등의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정성평가	15
	소 계	35
고용실적 및 계획(20)	• 고용실적(정규직 고용실적만 인정) 평가 - "컨소시엄으로 입주대상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 참여비율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 ·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빙자료 제출 의무	10
	• 고용창출 계획(정규직 고용계획만 인정) - 증빙된 실적을 근거로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정성평가	10
	소 계	20
건설 계획 (5)	• Biz-Model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건축 계획의 적정성	3
	• 건설공정(착공시기) 적정성 및 시설유지관리계획	2
	소 계	5
합 계	100	
가점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컨소시엄으로 입주대상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참여비율 적용	(+)2
	•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32
	• 부산항만공사가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선정 공고문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3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 단, 1백만불 미만일 경우 가점 미부여	$\frac{\text{외국인투자금액}}{15\text{백만불}} \times \frac{33,000\text{m}^2}{\text{임대면적}} \times 3\text{점}$
감점	• 선정 공고일 기준 5년 내 배후단지 임대료를 체납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기업체의 참여구성원이 참여한 경우	(-)2
	• 선정 공고일 기준 5년 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기업체의 참여구성원이 항만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 위반 등에 따라 페널티 처분을 받은 경우	(-)2

□ 과제 개요

- 항만 자유무역 지역 입주·운영 요건,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완화 관련 홍보 및 입법 추진을 통한 다양한 커피 관련 산업 입주 유도
- 항만 자유무역 지역 내 저장, 로스팅 및 물류/유통기업 유치(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통한 커피 수입/가공/유통 효율화 추진(경제적이고 양질의 커피 국내 공급 및 해외 수출)
- 입주 요건 완화 외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유관기업간 컨소시엄 매칭 지원 등 적극적인 커피산업 관련 기업 입주 유도 추진

[그림 VII-5] 신항배후단지 내 입주 前, 분양 예정 부지



□ 주요 사항

- 항만 자유무역 지역 입주 요건 완화를 위한 입법 추진 지원(부산 지역 국회의원 설득 및 입법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 BJFEZ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산업 육성 및 관련 입주 기업 유치 계획 수립(관련 법 정비 시, 커피산업 관련 기업 직접 유치 / 관련 법 미정비 시, 커피산업 관련 기업 컨소시엄(생두 수입기업 + 물류/유통 전문기업 등) 및 유치 활동 추진
- 입주기업 지원 및 혜택 관련 마케팅/홍보 강화
- 정주여건 개선 등 입주기업 지원 강화

□ 사업 주체

- 부산시, BJFEZ, 민간 커피 수입, 로스팅 및 물류/유통기업, 부산 TP, 부산 세관 등

□ 추진 계획

- 2024년 : 항만 자유무역 지역 입주 요건,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완화 필요성 홍보 및 입법 지원활동 강화. 커피산업 관련 기업 입주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 홍보 및 관심 기업 컨소시엄 매칭 서비스 추진(생두 수입기업 + 물류/유통 전문기업 등)
- 2025년 : 항만 자유무역 지역 입주 요건,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완화 필요성 홍보 및 입법 지원활동 지속 추진. 입주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교통, 편의시설, 업무 여건 등)
- 2026년 이후 : 부산신항 자유지역 내 커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관련 기업 유치 및 시너지 창출 유도 등

□ 기대 효과

- 편리한 커피산업 추진 여건 조성을 통한 관련 기업 입주 활성화 및 시너지 창출
- 항만 자유무역 내 고부가가치 산업(생두 저장, 관리, 로스팅 및 유통/물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국내 최대 커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커피도시 부산, 위상 정립 및 동북아 커피산업 선도

(1-4) 커피 순환자원 사업 추진 활성화

□ 필요성

- 커피 가공시 활용되는 생두는 증발된 수분을 포함한 전체 질량의 약 20%만 커피 추출에 활용되고, 나머지 약 80%는 찌꺼기로 남게 됨. 전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 톤의 커피 찌꺼기가 배출되며, 2019년 기준 국내 커피 찌꺼기 배출량은 연간 14만 9,038톤으로 나타남
- 현재 커피 찌꺼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따로 모아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업자(신고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복잡하고 불편함
- 커피 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활용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할 경우,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재생산 및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커피 순환자원 사업 추진 활성화 필요

□ 과제 개요

- 친환경 퇴비, 목재 제품, 활성탄, 바이오 연료,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하게 재가공되는 커피 찌꺼기 활용 사업 관련 R&D 및 커피찌꺼기 재가공 관련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세제 및 자금 등 창업 관련 지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등)
- 수입, 로스팅, 물류 및 재활용까지 커피 전주기 관리(공공 수거, 보관 및 관리 인프라 구축, 재활용 제고시설 구축 등) 체계 구축
- 커피 찌꺼기 재활용 관련 강사 육성/양성(커피클레이 및 자원순환 인식 개선 등)

[그림 VII-6] 커피 찌꺼기 활용 방안



□ 주요 사항

- 단기적으로는 공모사업 방식의 커피 찌꺼기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화 처리기반 시설 확충 추진
- 커피 순환자원 상용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구/군, 지역 내 관련 사업 추진 희망기업)
- 우수사례 대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친환경 커피 전주기 산업 선도 도시 이미지 강화
- 신기술 및 모바일 연계 신사업(앱 기반 찾아가는 커피 찌꺼기 회수 서비스 등) 추진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부산 구/군, 민간 환경 관련 기업, 부산내 사회적 기업 등

□ 추진 계획

- 2024년 : 커피 찌꺼기 자원화 공모사업 추진(화장품, 목재 데코 등 건설 자재 관련 사업자), 커피 찌꺼기 재활용 분야 전문강사 육성 및 양성(커피클레이 및 자원순환 인식 개선 등)
- 2025년 : 자원화 처리기반 시설 확산 사업 추진.
부산 내 커피 소비 다빈도 및 다수 커피 관련 사업체가(부산 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등) 존재하는 구군 대상 커피 순환사업 의무화/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홍보 강화를 통한 친환경 커피도시 이미지 강화
- 2026년 이후 : 부산 내 모든 구군 자원화 처리기반 시설 구축.
커피 순환사업 의무화/활성화 추진. 신기술 및 모바일 연계 신사업 추진 활성화 등

□ 기대 효과

-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자원순환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부산 모든 구군 내 자원화 처리기반 시설 구축, 커피 찌꺼기 활용 사업체 지원 강화 등) 통한 지차체 친환경 및 ESG경영 실천 선도
- 커피산업 전주기 관리체계 정립 및 新비즈니스 추진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1-5) 부산형 커피 인증 개발 및 확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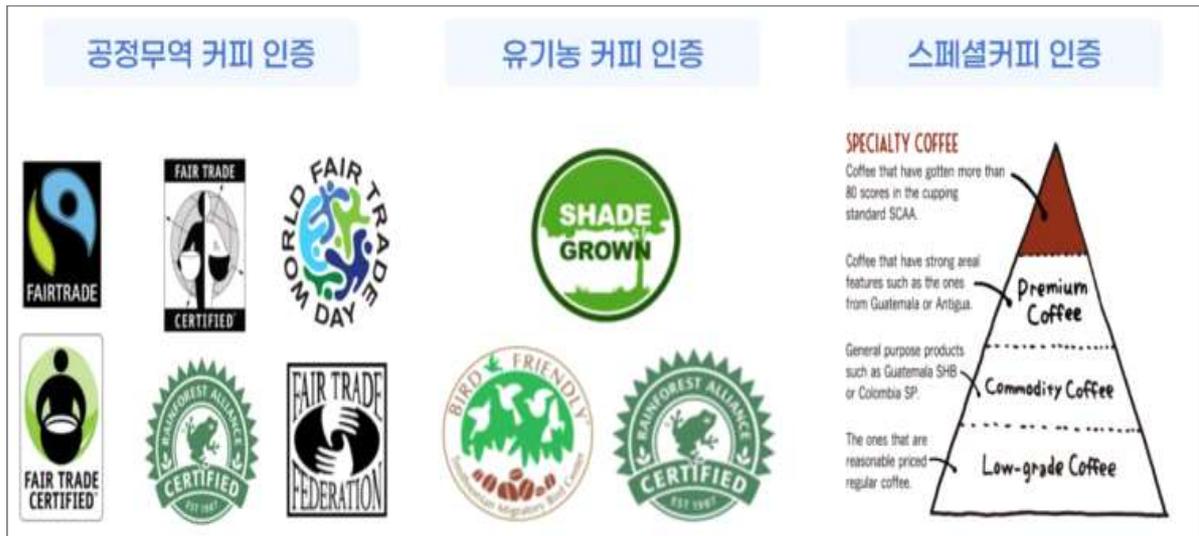
□ 필요성

- 국내 커피 수요 증가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프리미엄, 고품질) 커피 수요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커피 소비자는 직거래, 온라인 거래 등 안정적인 양질의 커피 수급을 위한 노력 추진 중이며, 향후 양질의 커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커피 수입의 중심지인 부산으로 수입되는 생두 또는 부산에서 가공된 원두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신뢰하고, 계속 찾을 수 있는 커피 생두 및 원두 공급 추진

□ 과제 개요

[그림 VII-7] 커피 인증 예시



- 커피 선별, 로스팅, 원두 보관 등을 포괄적으로(또는 단계별 각각) 평가하는 부산형 커피 인증 개발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from부산’형 커피 생산품(선별, 보관, 로스팅) 생산 지원

□ 주요 사항

- 부산형 커피 인증제 운영을 위한 사전 계획 수립(인증 범위 정의, 인증 모델 개발, 인증제 운영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인증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 및 커피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부산형 커피 인증 모델 개발
 - 인증 범위 선정 : 수입 생두(원산지/생산 방법 관련 이력 관리), 선별, 저장, 로스팅 분야 각각 또는 복수 등
 - 인증 모델 개발 : 인증 대상별 인증 기준 선정

- * 수입 생두 : 원산지, 공정무역 여부, 유기농 여부, 불순물 및 부패 생두 분류 등
- * 저장 : 수입 생두 기준 + 보관 및 관리 방법(콜드체인, 상온 등)에 대한 인증 등
- * 부산 생산 원두 : 부산 스페셜티 전문가 활용(바리스타) 인증 모델 개발, 전문 평가위원 풀 구성, 전문가를 활용한 반기(또는 연간) 인증제 운영 (생산지, 결합, 손상 정도, 향미, 산미 등을 고려한 기준 설정 및 반영)
- 전문 평가위원 역량 및 평가 품질 관리를 위한 자격 심사(2년 주기)
- 인증 모델 우수성과 안전성 관련 홍보 및 확산 추진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TP, 인증제 운영을 위한 국내외 커피 관련 전문가 및 유관 기관 등

□ 추진 계획

- 2026년 : 부산형 커피 인증제 운영 계획 수립
- 2027년 이후 : 부산형 커피 인증 모델 개발 및 검증, 인증제 홍보, 인증제 운영 활성화 및 확산 추진

□ 기대 효과

- 전 세계가 신뢰하는 커피 생산품 제공을 통한 커피도시 부산 위상 정립
- 인증제 활용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추진(교육, 컨설팅 등)

2 커피산업 인프라 조성 전략

1) 추진 배경

- 부산은 국내 유일, 3개 지역(영도, 전포, 온천장)에서 다양한 컨셉의 커피 축제가 활발하게 개최 및 운영되고 있음
 - 영도 : 글로벌 이해관계자 참여, 커피 중심
 - 전포 : 지자체 및 지역 상권 관계자, 시민 참여, 커피 중심
 - 온천장 : 지자체 및 지역 대표, 커피 및 빵 즐기기, 시민 참여
- 커피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각 지역이 지향하는 바를 중심으로 관련 축제를 매년 추진 중이나, 예산 부족 및 체계적인 사업 기획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
- 체계적인 행사 기획과 상시적인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커피문화 향유를 위한 특화지구 조성을 통한 지역 커피문화 활성화 추진 필요
- 커피산업은 생두/원두 수입, 로스팅, 물류/유통의 밸류체인으로 구성되며, 물류비 이슈로 인하여 수입, 로스팅, 물류/유통 관련 기업이 집적 운영되는 특징을 보임(국내 대부분의 수입, 로스팅, 물류/유통 관련 기업 수도권 밀집)
- 부산의 경우, 국내 수입 생두의 약 90% 이상이 부산으로 유입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로스팅, 물류/유통 기업이 부재하여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부산 내 커피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부산의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커피산업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성공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커피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부산형 커피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부산에 오면 커피 관련 모든 것(사업, 관광, 축제, 교육 등)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커피산업 및 문화 선도도시 부산’ 위상 정립 필요

2) 세부 추진과제

(2-1)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센터(가칭)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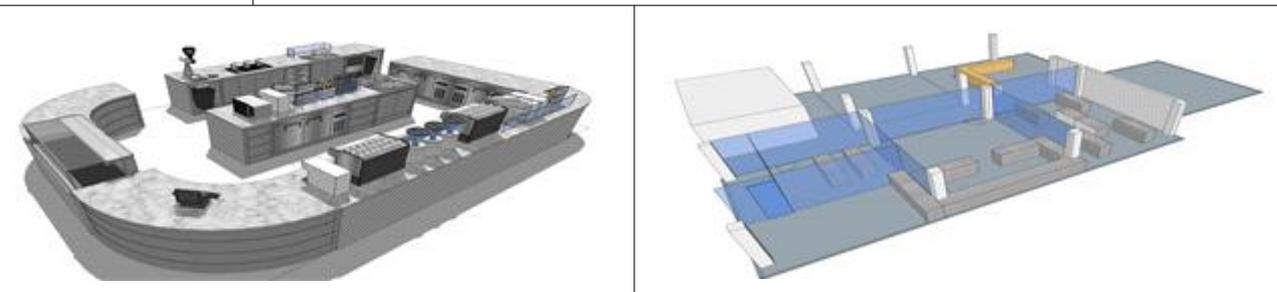
□ 필요성

- 부산 커피산업 전주기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공간 지원 및 운영 필요(커피제조머신, 로스팅, 브랜딩, 마케팅, 유통 등)
- 부산 커피산업을 혁신적인 스케일업을 위한 실증, 재연, 데이터생성, 교류 기능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과제 개요

-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센터 공간 구성을 통하여 커피산업이 부산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부산 커피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유도 및 지원

[표 VII-3]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센터 공간 구성(안)

공간 구성	공간 활용
메이커스페이스	커피 연구·개발, 커피 추출 디지털화, 로스팅, 센서리, 시제품 제작 등
바리스타	커피 추출 및 바리스타 기술 교육 및 디지털커피를 적용하는 핵심 공간
로스팅	직접 브랜딩한 로스팅 원두를 소포장 지원
센서리	커피의 향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교육 공간
스타트업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
세미나	커피 산업과 관련된 강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는 공간
	

□ 주요 사항

- 지원대상 : 커피산업 관련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커피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하여 커피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지원 추진(커피 챔피언 대회 참가를 위한 연습 공간, 대회장 활용 등)
- 전문 로스터, 청년 및 지역 주민의 진로 탐색을 돕고, 커피산업 관련 기술 학습 기회 확대를 통하여 부산 커피산업 관련 업계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커피산업 저변 확대 추진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TP, 부산 커피산업 종사자 및 시민 등

□ 추진 계획

- 2024년 : 계획 수립 및 장비 구입, 시설 구축
- 2025년 이후 :
 - 센터 운영 성과 분석, 성과 분석 결과 기반 개선 활동 추진
 - 센터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계획 수립·추진
 -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센터 확대 및 추가 공간 조성 추진

(2-2) 기존 커피축제와 연계한 특화지구 조성

□ 필요성

- 커피를 주제로 각 지역(영도, 전포, 온천장)이 지향하는 바를 중심으로 매년 관련 축제를 추진 중이나, 예산 부족, 기획 능력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가 높지 못함
- 각 지역의 문화 및 관광 특성과 연계한 지역별 차별화된 상시 커피문화

향유 공간(특화지구)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커피도시 부산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과제 개요

- 기존 단기 이벤트 성격의 커피 축제를 중심으로 커피거리를 조성하여 운영 중인 영도, 전포, 온천장을 커피특화지구로 지정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커피 특화지구 조성 및 활성화 추진

[그림 VII-8] 부산 내 커피 축제 현황



□ 주요 사항

- 영도, 전포, 온천장 특화지구 조성 계획 수립
- 각 특화지구별 컨셉 명확화 지원, 특화지구별 차별화 방안 및 시너지 창출 방안 개발 지원(예시)
 - 영도 : 도시재생형, 항만 시설 연계, 커피 애호가 중심 지구 조성
 - 전포 : 도심형, 서면 등 부산 중심 상권 연계, MZ세대 중심 지구 조성
 - 온천장 : 다과(베이커리, 쿠키 등) 연계, 가족체험 중심 지구 조성

- 각 지역의 특성과(특화지역 내 대표 관광지/명소 연계) 컨셉이 반영된 특화지구 조성 지원(지역별 특화지구 아이덴티티 명확화, 인프라 개선 컨설팅, 소상공인 교육 등)
- 영도, 전포, 온천장 특화지구 안정화 후, 해운대, 수영, 기장 등 관광객 방문 및 카페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지구 확대 추진

□ 사업 주체

- 부산시, 구/군(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우선 추진), 부산경제진흥원, 부산 TP, 특화지구 선정 지역내 소상공인/문화관광 관련 이해관계자

□ 추진 계획

- 2025년 : 3개 지역(영도, 전포, 온천장) 커피 특화지구 조성 계획 수립
- 2026년 : 커피 특화지구 활성화 지원 및 사업 구체화
 - 각 지역별 특화지구 컨셉 기반 인프라 개선(지역 대표 관광지 및 상징물과 연계, 대표 메뉴 개발 등), 소상공인 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 2027년 이후 :
 - 우선 추진 지역 성과 분석, 개선 포인트 발굴 및 개선 추진
 - 해운대, 수영, 기장 등 관광객 방문 선호 및 카페 밀집 지역 대상 특화지구 확대 추진(차별화된 컨셉 기반 지구 조성)

□ 기대 효과

-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커피 특화지구 조성을 통한 부산시민과 부산 방문 관광객에게 다양한 커피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자연스러운 원도심 및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

(2-3) 부산형 커피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저장 또는 선별)

□ 필요성

- 커피산업은 물류비용 이슈로 인하여 수입, 로스팅, 물류/유통 관련 기업이 집적하여 운영되는 특성 보유. 실제 국내 대부분의 커피산업 관련 기업들은 수도권에 밀집하여 운영 중
- 부산의 경우, 국내 유입 생두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창구이나, 보유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관련 기업의 부재로 생두 수입 경로로만 활용됨
- 커피산업의 특성과 부산 보유 강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커피산업 단지 조성 필요

□ 과제 개요

- 국내 커피 소비량, 세계적인 수준으로 증가. 이에 따라 국내 커피 관련 산업 계속해서 확대 성장 전망
- 특히, 폭발적인 커피 관련 수요로 인한 남부권 커피 수요를 담당하는 커피 허브 조성 필요성 확대(스타벅스 남부권 커피 물류 허브로 부산 강서구 활용, 타 커피 브랜드 또한 남부권 물류 허브 조성 필요성 공감)
- 남부권 커피산업 물류 허브뿐만 아니라, 커피산업 특성과 부산이 보유한 강점(국내 유입 생두 90% 이상 부산 수입 등)이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형 커피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필요

[그림 VII-9] 벨기에 생두 물류 기업 ‘에피코’



□ 주요 사항

- 교통, 부지 및 관련 산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적합지 선정 필요(교통 접근성,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의 요건 고려시 강서구 또는 신항 배후단지 적절, 추후 적합성 심층 분석 필요)
-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 단기 : 저장 및 선별 시설 중심 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
 - 중장기 : 로스팅, 물류, 부재료 등 후방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커피 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정주 여건 관련 인프라와 프로세스 정비 병행 필요(교통, 편의시설 등)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TP, 부산 구/군(강서구, 부산신항 배후단지), 국내외 생두 수입, 로스팅 및 물류/유통 기업 등

□ 추진 계획

- 2025년 : 부산형 커피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 단기 : 저장 및 선별 시설 중심 산업단지 조성 추진
 - 중장기 : 커피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 단계별 계획 수립
- 2026년 : 부산형 커피산업단지 부지 선정(교통, 집적 효과 등을 고려한 부지 선정 필요, 강서구 물류창고 집적 부지 또는 신항 배후 부지 적합) 및 예비 타당성 검증
- 2027년 이후 : 부산형 커피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 타당성 검증 및 세부계획 구체화

□ 기대 효과

- 부산 중심의 원스톱(수입, 저장, 로스팅, 물류/유통) 커피산업 추진 가능
- 커피산업 전주기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생두 저장 및 보관 인프라 운영을 통한 커피 관련 R&D 활성화 가능 (로스팅 기술 고도화, 생두 품질 고도화 등)

(2-4) 부산형 커피산업 관광 인프라 조성

□ 필요성

- 부산은 전국 최초 커피 음용지이며, 커피박물관, 세계 커피 챔피언 3명 보유 등 우수한 커피산업 관련 역사와 문화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산이 보유한 우수한 장점들이 조화롭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시너지를

내지 못함

-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 커피 관련 역사 및 장점 등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박물관 또는 역사관) 조성 필요
- 부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 도시이므로, 부산 뿐만 아니라, 국내 커피 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운영 필요

□ 과제 개요

- 커피 박물관/역사관 및 부산 커피산업 Complex 조성을 통하여 부산과 국내 커피 역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커피 관련 제품(생두, 원두, 로스팅 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국내 커피 관련 역사 뿐만 아니라, 커피 가공 및 로스팅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부산에 오면 국내 커피 관련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

[그림 VII-10] 브라질 산토스 커피 박물관



□ 주요 사항

- 부산형 커피산업 관광 인프라(박물관 및 Complex) 조성 계획 수립
 - 역사관 : 국내 커피 관련 히스토리 전시(최초 음용, 시대별 음용 기록 및 국내 사용 커피 관련 기기 전시).
커피 관련 용품 전시(잔, 접시 등등), 관련 서적 및 기록
 - 체험관 : 과거/현재 방식 로스팅 체험, 과거/현재 방식 로스팅 커피 맛과 향 비교.
부산 드립 커피 시음 등
 - Complex : 기념 굿즈, 국내 수입 주요 생두, 부산 로스팅 원두 및 커피 판매, 가정용 커피 제조 기기 판매 등
- 관광 인프라(박물관 및 Complex) 조성 범위 및 아이템 구체화
- 부산(국내) 커피 히스토리 기반 마케팅 및 홍보 추진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구/군 등

□ 추진 계획

- 2025년 : 부산형 커피 관광 인프라(박물관 및 Complex) 조성 계획 수립
 - 입지 대상 지역(부산 내 폐교 또는 유희시설 우선 검토), 부지 면적, 운영 주체, 주요 아이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 수립
- 2026년 : 부산형 커피 관광 인프라 조성
- 2027년 이후 : 부산형 커피 관광 인프라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기대 효과

- 부산 및 국내 커피 히스토리와 연계한 커피 역사/문화/복합물 인프라 조성을 통한 부산 관광 활성화 기여
- ‘국내 커피문화 성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커피도시 부산 위상 정립

3 전문 인력 및 기업 육성

1) 추진 배경

-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산 내 커피전문점 신규사업자는 매년 약 14.5%씩 증가하여 21년 기준 1,760명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약 10.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 지속/유지 비율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 영세한 수준(부산 전체 커피전문점 약 82%, 4명 이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커피전문점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으나, 체계적인 점포 경영 및 점포 마케팅 방법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 영위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부산내 다양한 커피 관련 프랜차이즈 및 커피산업 관련 기업 존재. 해당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우수 인재 수급 및 육성에 대한 어려움 호소. 인재 수급 어려움으로 인한 수도권 진출에 대한 고민 심화
-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대규모 로스팅, 커피 물류/유통 과정 등)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내 커피산업 관련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활발한 커피 관련 사업 창업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또한 지역 내 커피산업 기업간 정례화된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민간 기업/단체가 상호 소통을 통하여 자발적인 산업 성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부산 내 커피 관련 저장, 로스팅 및 물류/유통 전문기업 매우 소수 존재. 체계적인 지역 커피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커피 저장, 로스팅 및 물류/유통 전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 강화 필요
-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선호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약자와의 협력사업 추진 필요(노인 복지관 노인일자리 카페 사업 지원, 장애인 바리스타 육성 등)

2) 세부 추진과제

(3-1) 바리스타 및 카페 육성/지원

□ 필요성

- 부산 내 커피전문점 관련 창업 증가율은(약 14.5%)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나(약 10.7%), 유지 및 성장률이 높지 못한 수준임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창업 유지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필요

□ 과제 개요

- 고급화, 다양화, 차별화되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커피산업의 환경변화에 지역 내 소매점, 또는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리스타 및 카페 육성/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주요 사항

- 부산형 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전문가 활용 바리스타 과정 포함,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 활용)
 - 부산이 보유한 세계 커피 챔피언 3명을 활용한 바리스타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부산형 커피전문점 창업 및 점포 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 지원
 - 부산내 바리스타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5개 대학 / 전국 27개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만족도, 점포 유지율, 매출 등) 및 지속 고도화 추진

[그림 Ⅶ-11] 부산 바리스타 육성 과정 및 카페 창업 교육 과정



□ 사업 주체

- 부산시, BEPA, 부산 TP, 지역 바리스타 관련 학교 운영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 등

□ 추진 계획

- 2024년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
 - 부산형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정 개발(세계 커피 챔피언 3명 참여, 참여 불가 시 국내 스페셜티 바리스타 참여 기반 과정 개발)
 - 부산형 카페 경영 교육과정 개발(부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무, 마케팅 및 인력 관리 방안 제시, 지역 내 창업 전문가 활용)
 - 장애인 바리스타 육성 과정 개발
 -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 개발(강사 양성, 관련 전공자 활용) 및 운영 주체 선정(지역 내 관련 학과 운영 대학 및 전문 교육 기관 활용)
 -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예산 수립

- 2025년 : 부산형 바리스타 및 카페 창업 교육 추진
 - 부산형 바리스타 육성 및 카페 창업 교육 운영 홍보
 - 바리스타 육성 및 카페 창업 교육 추진
 - 장애인 바리스타 육성 과정 운영
 -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개선 추진
- 2026년 이후 : 부산형 카페 창업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카페 밀집 지역 우선 시행: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등) 및 프로그램 지속 고도화

□ 기대 효과

- 고품질 부산형 바리스타 육성 교육과 창업 지원 교육 운영을 통한 부산 커피산업 경쟁력 및 종사자 만족도 제고
- 사회적 약자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 활성화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커피하기 좋은 도시 부산 실현

(3-2)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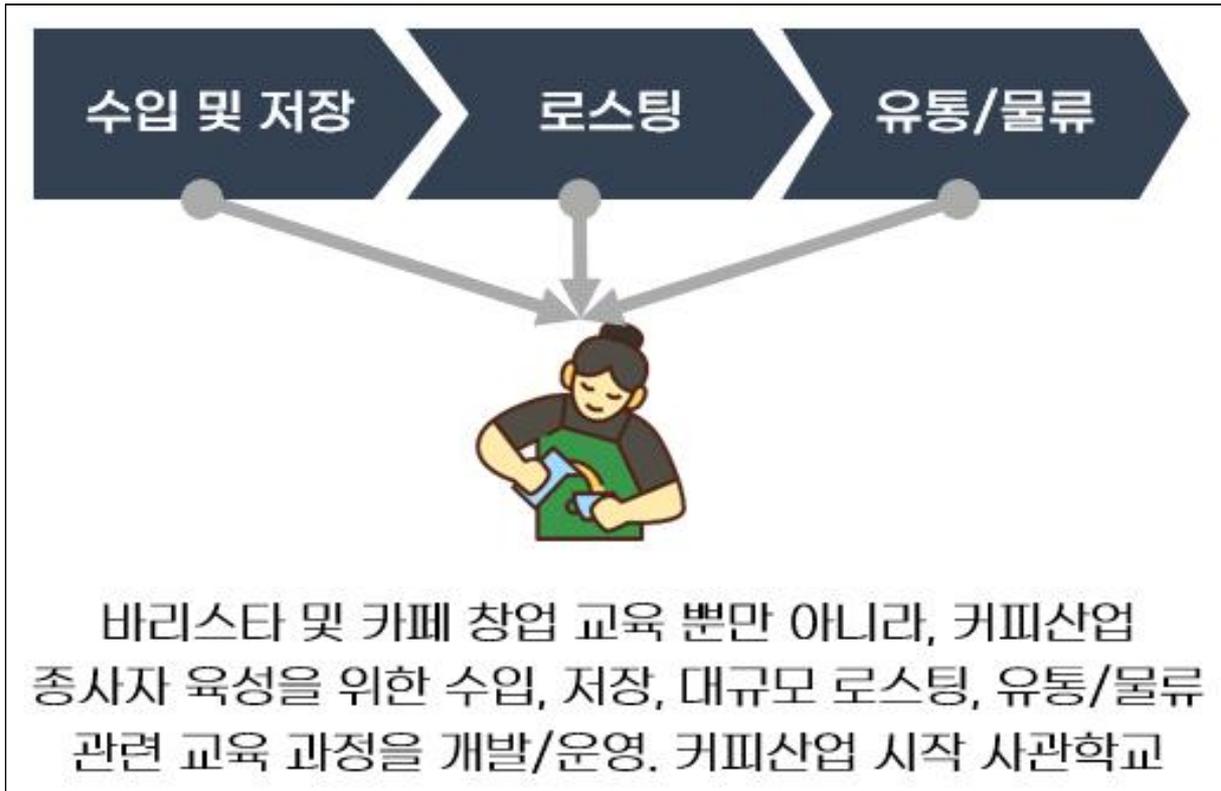
□ 필요성

- 부산내 다양한 커피산업 관련 기업이 존재하며, 공통적으로 우수 인재 수급과 육성에 어려움 호소
- 특히, 대규모 생두 저장/로스팅, 물류/유통 관련 정보 및 지식 등은 수도권에서 주로 확인 및 학습이 가능하며, 관련 인력도 수도권에서 주로 존재하여 부산에서 커피 관련 사업 추진 어려움 존재

□ 과제 개요

- 커피 수입, 저장, 로스팅, 물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산업 관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커피산업 전문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커피산업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추진

[그림 VII-12]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주요 사항

- 체계적인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
 - 생두 및 원두 저장시설 운영 교육 과정
 - 대규모 로스팅 설비 운영 교육 과정
 - 물류/유통 설비 및 시설 운영 교육 과정
-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전문가 및 대학, 기업 활용/연계)
- 운영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고도화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TP, 국내 커피산업 관련 전문가(수입/저장/로스팅 및 물류/유통 관련 전문 기업/담당자)

□ 추진 계획

- 2024년 : 커피산업(수입, 저장, 로스팅, 유통/물류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부산형 프로그램 개발
 - 생두 및 원두 저장시설(대/중/소 규모, 관련 기술 트렌드, 우수사례 등) 운영 교육 과정
 - 대규모 로스팅 설비 운영 교육 과정(초급/중급/고급, 설비 조성, 설비 운영 및 단계별 로스팅 방법 등)
 - 물류/유통 설비 및 시설 운영 교육 과정(커피 물류 및 유통 프로세스, 필요 설비 및 자동화 현황, 부재료 관리 방안 등)
 - 기타 커피산업 추진 관련 필요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커피산업 재무 관리, 인력 관리,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 2025년 : 부산형 커피산업(수입, 저장, 로스팅, 유통/물류 등)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부산형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 운영 홍보
 -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개선 추진
- 2026년 이후 : 부산형 커피산업(수입, 저장, 로스팅, 유통/물류 등)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고도화

□ 기대 효과

- 부산 커피산업 전반 및 커피 관련 프랜차이즈 경쟁력 제고
- 커피산업 관련 전문교육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역내 다양한 커피 관련 창업 유도
- ‘커피산업 시작은 부산에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커피 도시 부산 위상 정립

(3-3) 지역기업 맞춤형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 필요성

- 많은 커피산업 관련 기업들은 영세한 규모와 마케팅 및 기술개발 노하우 부족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 내 커피 관련 사업 추진 기업 중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역량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해당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커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커피산업 관련 부산 지역 기업이 성장을 통하여 단순 커피 소비시장 중심의 부산 커피산업 생태계를 커피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필요

□ 과제 개요

- 지역 내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케팅, 기술 및 사업분야 전반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솔루션 제공
- 전문 인력 및 기술력 등 잠재력을 보유한 커피 기업 수요(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제품 마케팅 활성화, 시/신제품 개발, 국내 유통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커피 기업의 성장 지원

□ 주요 사항

- 지원 대상
 -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며, 커피 및 관련 산업 분야 제품 보유 기업
 - 커피 생산, 가공 및 제조산업 분야 종사 기업
 - 커피산업 관련 제품, 기술, 금융 및 법률 애로사항 해결을 통하여 사업확장을 계획 중인 기업
 - 커피산업 진출 및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주요 지원 사항

[표 VII-4] 참여기업 주요 지원 사항

지원항목	지원내용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제품인증, 특허 관련 개발기술/제품의 성능검증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R&D 기획, HACCP 인증 등 컨설팅 지원
애로사항 해결 컨설팅 지원	취급제품, 금융 및 법률적 애로사항 해결을 통하여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컨설팅 지원
마케팅 컨설팅 지원	아이디어 제품화 → 제품 시장진입 → 시장점유 확대로 이어지는 성장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산업시장 확장, 수출 준비 또는 투자유치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 컨설팅 지원 (IR자료 작성 및 투자유치 연계 등)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재료비, 연구비, 공정개선 등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관련 비용 ※ 단, 재료비는 총사업비 40% 이내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TP, 부산 내 커피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수입, 제조, 로스팅, 물류/유통, 소상공인, 커피 프랜차이즈 등)

□ 추진 계획

- 2024년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사업 공고, 사업 추진, 성과 평가
 - 맞춤형 컨설팅 8개사 추진(사업 참여기업별 각 10백만원 지원)
 - 맞춤형 기술개발 3개사 추진(사업 참여기업별 각 50백만원 지원)
- 2025년 이후 : 지원 대상 기업 및 예산 규모 확대를 통한 커피산업 관련 기업 지원사업 활성화

□ 기대 효과

- 부산 커피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내 우수 커피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3-4) 커피 저장, 로스팅, 물류 기업 유치 확대

□ 필요성

- 국내 대부분의 커피 관련 저장, 로스팅 및 물류/유통 전문기업 수도권에 위치. 국내 생두 수입의 90% 이상이 부산을 통함에도 불구하고, 커피 관련 저장, 로스팅 및 물류/유통 전문기업 많지 않음
- 체계적인 지역 커피산업 육성 및 성장 유도를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커피 저장, 로스팅 및 물류/유통 전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필요

□ 과제 개요

- 현재 국내 대부분의 커피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커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로스팅 및 물류 허브 조성을 필요로 하는 커피산업 관련 기업 발생(스타벅스 등)
- 로스팅 및 물류 허브 조성 필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부산만의 강점, 혜택 등의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커피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하여 부산이 단기적으로 국내 커피산업 남부지역 거점으로, 장기적으로 국내 커피산업 수출 거점으로 성장 추진

[그림 VII-13] 스타벅스 로스팅 공장 위치



□ 주요 사항

- 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및 생두 수입/저장 및 로스팅 전문 기업 리스트업
 -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및 생두 수입/저장 및 로스팅 전문기업 수요 분석(미팅 정례화 및 수요 설문, 인터뷰 등)
 - 부산 유치를 위한 필요사항 확인(세제, 금융 및 부지 지원 등)
 - 수요조사 기반 기업 유치 전략 수립(부산 입주 시 제공 혜택 명확화)
 - 유치 부지 구체화(강서구 또는 신항 배후단지 등)
-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국내외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생두 수입/저장 및 로스팅 전문기업 상담 이력 및 관계 관리 지속 추진

□ 사업 주체

- 부산시, BEPA, 부산 구/군

□ 추진 계획

- 2024년 : 커피 저장, 로스팅 및 물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환경 및 시장 분석을 통한 타겟 기업 명확화
 - 타겟 기업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세제, 금융 및 부지지원, 인력 지원 등) 개발(유관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한 제도 완화 및 개선 필요)
- 2025년 이후 : 기본계획 기반 후보 대상 기업별 맞춤형 유치 전략 추진(미팅 정례화, 혜택 관련 홍보 안내 강화 등)

□ 기대효과

- 커피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 일자리 마련에 따른 부산 인구 유출 억제 및 청년 취업률 제고
- 우수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4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브랜딩 전략

1) 추진 배경

- 부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글로벌 커피도시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임
- 또한 부산 우수한 커피 관련 전문인력과 커피 관련 히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커피 관련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음
- 위와 같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산 커피만의 명확한 지향가치(아이덴티티) 정의가 부재하여, ‘부산커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일되지 않음
- 따라서, 부산 커피가 지향해야 하는 명확한 지향가치를 정의하고, 해당 지향가치 실천을 위한 인프라 정비, 제도 개선, 인재 육성 및 홍보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외 다양한 커피 관련 행사 및 대회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커피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커피 관련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을 상징하는 로스팅 기법 및 원두를 개발하고, 이를 브랜딩화하여, 부산하면, 연상할 수 있는 커피 이미지 구축 필요
- 부산은 부산영화제, 불썸축제, G-Star 등 다양한 축제가 연중 계속해서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참관객이 존재함
- 부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부산 커피의 우수성 등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커피 도시 부산’ 브랜드를 전 세계로 전파/확산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추진과제

(4-1) 부산형 커피 아이덴티티 (or 히스토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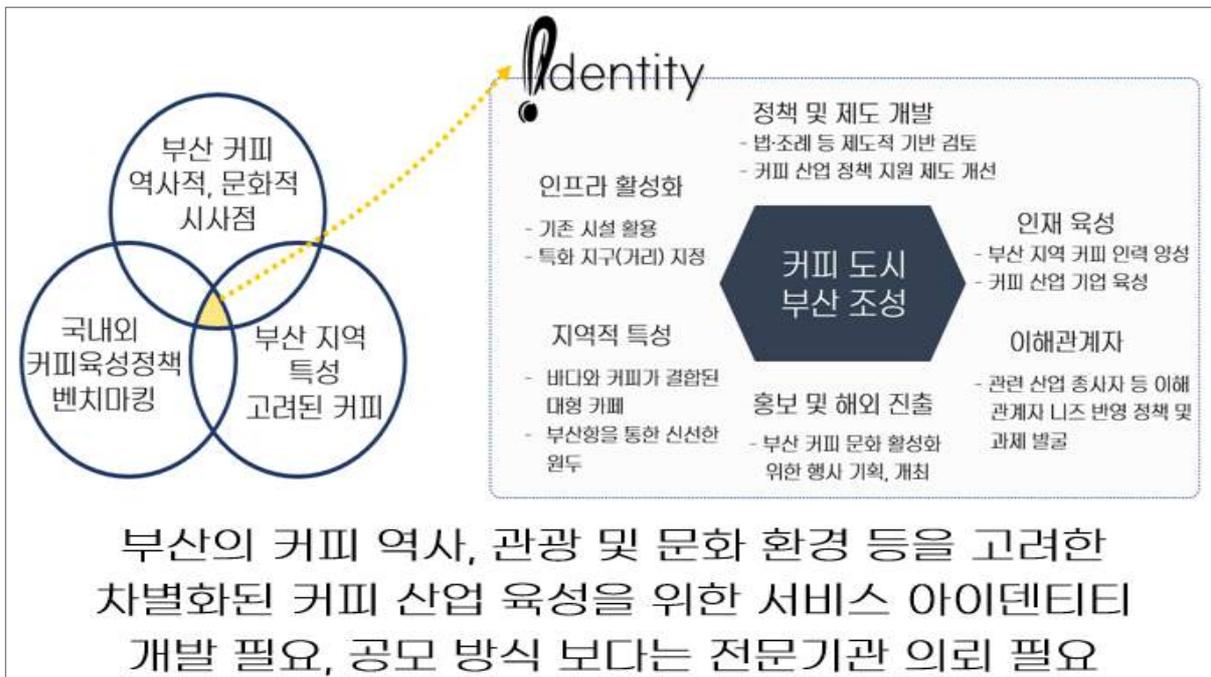
□ 필요성

- 부산은 커피산업 관련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커피만의 명확한 지향가치의(아이덴티티) 부재로 인한 연상이미지 부재 또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부산 커피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부산 커피의 지향가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지향가치 실천을 위한 인프라 정비, 제도 개선, 인재 육성 및 홍보 활동 등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과제 개요

- 부산의 자연환경과 커피 히스토리, 관련 산업 현황, 커피 관련 인프라 및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부산 커피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히스토리 개발, 마케팅 및 연계사업 추진 실시

[그림 VII-14] 부산형 커피 아이덴티티 개발의 필요성



□ 주요 사항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명확화 (전문 기관 활용 구체화 작업 필요)
 - 부산 커피 지향가치 구체화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개발(CI 및 슬로건)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실현을 위한 인프라, 제도 개선 추진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실천을 위한 인재 육성 등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실현 성과 분석 및 개선 보완

□ 사업 주체: 부산시, 부산디자인진흥원

□ 추진 계획

- 2025년 : 부산형 커피산업 육성 및 문화 전파를 위한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개발
 - ‘부산 커피’ 지향가치 정의
 - ‘부산 커피’ CI 디자인 및 슬로건 개발
 - ‘부산 커피’ 지향가치 실천을 위한 과제 개발 (인프라, 제도, 마케팅 및 인적서비스 개선 등)
 - 실천과제 분야 및 단계별 R&R 구체화 등
- 2026년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기반 마케팅 및 연계사업 추진 (홍보, 행사, 기념품 개발 등)
- 2027년 이후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 기반 마케팅 및 연계 사업 추진 고도화/활성화(문화/축제 등과의 연계 추진)

□ 기대 효과

- 체계적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추진 용이
- 명확한 지향가치 기반 홍보 및 마케팅에 따른 부산 커피 이미지 강화

(4-2) 커피 관련 행사 및 대회 유치 활성화

□ 필요성

- 국내외에서 활발히 개최되는 다양한 커피 관련 행사 및 대회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커피문화 선도하는 도시로 위상 지속 강화 필요

□ 과제 개요

- 국내외 커피 관련 대회 및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통한 상시적 개최로 커피도시 부산 홍보 이미지 강화
- 유관 행사 및 대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부산시 및 커피 협의체 주관 글로벌 대회 개최 및 운영

[그림 VII-15] 국내외 커피 관련 대회 유치



□ 주요 사항

- 커피 관련 행사 및 대회 유치/운영

- 코리아 내셔널바리스타 챔피언십(KNBC), 코리아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KCTC),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WBC) 등 다양한 국내외 커피 관련 대회 및 행사 유치 확대 추진
- 안정적인 행사 및 대회 운영을 위한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노력 강화
- 부산이 주최하는 글로벌 대회 유치 및 운영
 - 부산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BWBC) 등

□ 사업 주체

- 부산시, 구군, 부산 TP, BEXCO 등 컨벤션 가능 기관

□ 추진 계획

- 2024년 : 커피 관련 국내외 행사 및 대회 유치 및 운영
 - KNBC, KCTC, WBC 등
- 2025년 : 부산 내 커피 축제와 연계한 글로벌 커피 관련 행사 및 대회 운영 활성화
- 2026년 이후 :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와 연계한 글로벌 행사대회 기획 및 운영

□ 기대 효과

- 다양한 행사 및 커피 대회 유치를 통한 국내 및 동북아 No.1커피 도시 위상 강화
- 커피 관련 행사 및 대회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4-3) 부산형 커피 개발 및 브랜드화

□ 필요성

- 적극적인 커피 관련 연구개발 노력을 장기적으로 부산을 상징하는 로스팅 기법 및 원두를 개발하고, 이를 브랜딩화 하여 부산하면, 연상할 수 있는 커피 이미지 구축 필요

□ 과제 개요

- 부산형 커피 인증 사업과 연계한 부산을 대표할 로스팅 기법 및 원두 개발. 해당 로스팅 기법과 원두 등의 브랜딩화 추진
- 부산형 로스팅 기법을 통하여 가공한 원두를 판매 및 수출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커피문화 대표도시 부산으로 위상 재정립

[그림 VII-16] 커피의 성지 포틀랜드



□ 주요 사항

- 부산형 로스팅커피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부산형 커피 인증제 운영 계획과 연계 추진
- 데이터/디지털 커피 기술 고도화를 통한 부산형 로스팅 개발
(생두 성분 분석 결과 기반 최적의 로스팅 가공법 도출, 부산 커피 아이덴티티와 연계한 로스팅 방법 정의)
- 지역내 스페셜티카페 및 로스터리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 실시
- 지역내 커피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부산커피 투어(부산커피 오마카세 등) 프로그램/행사 기획 및 운영 지원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TP, 지역내 스페셜티 로스터리 등

□ 추진 계획

- 2025년 : 부산형 로스팅 커피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원두개발 R&D 기획, 브랜딩 전략 수립 등
- 2026년 이후 : 부산 내 전문 로스터리, 카페, 커피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부산형 로스팅 커피 개발 및 활성화 추진

□ 기대 효과

-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위상 강화
- 부산만의 차별화된 스페셜티 제공을 통한 방문 관광객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4-4) 부산 축제와 연계한 커피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필요성

- 커피 선별, 로스팅, 원두 보관 등을 포괄적으로(또는 단계별 각각) 평가하는 부산형 커피 인증 개발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from부산’형 커피 생산품(선별, 보관, 로스팅) 창출 지원

□ 과제 개요

- 부산영화제, 불꽃축제, G-Star, BOF 등 부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축제와의 연계를 통하여 축제 관람을 위해 부산에 방문하는 타지 및 외국인들이 부산 커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한 부산 커피 홍보 및 커피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

[그림 Ⅶ-17] 커피 도시 오스트리아 빈

도심 곳곳에 카페하우스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지정) 1,200여 개 위치

세월의 흔적이 있는 건축물,
예술에 의해 카페문화 확산



매년 약 1만명의 관광객
약 50만 유로 광고효과 창출




□ 주요 사항

- 부산영화제, 불꽃축제, G-Star 등 부산 내 다양한 축제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부산 대표 로스터리 드립커피 시음행사 등
- 부산 대표 축제와 콜라보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부산 대표 행사와 연계한 부산 대표 커피축제(영도, 전포, 온천장) 연계 추진(사전 일정 협의를 통한 동시 개최 및 홍보 실시)
- 연계 행사 추진 성과 분석 및 시너지 확인 시 타 행사와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추진

□ 사업 주체

- 부산시, 부산 TP, 부산관광공사

□ 추진 계획

- 2024년 : 부산 내 다양한 축제와 연계한 커피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사전 협의 필요)
 - 시음행사 및 관련 부스 운영
- 2025년 : 부산영화제, 지스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 대표 축제와 연계 및 콜라보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연계 및 콜라보 추진을 위한 사전 일정 협의 등
- 2026년 이후 : ‘커피도시, 부산’ 위상 강화를 위한 커피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속 발굴 및 고도화 추진

□ 기대 효과

- 문화/관광도시 부산 위상 정립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부산 이미지 정립
- 부산 관광자원과 시너지를 통한 긍정 효과 극대화
- 커피 및 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5 전략과제별 추진 로드맵

○ 17개 전략과제의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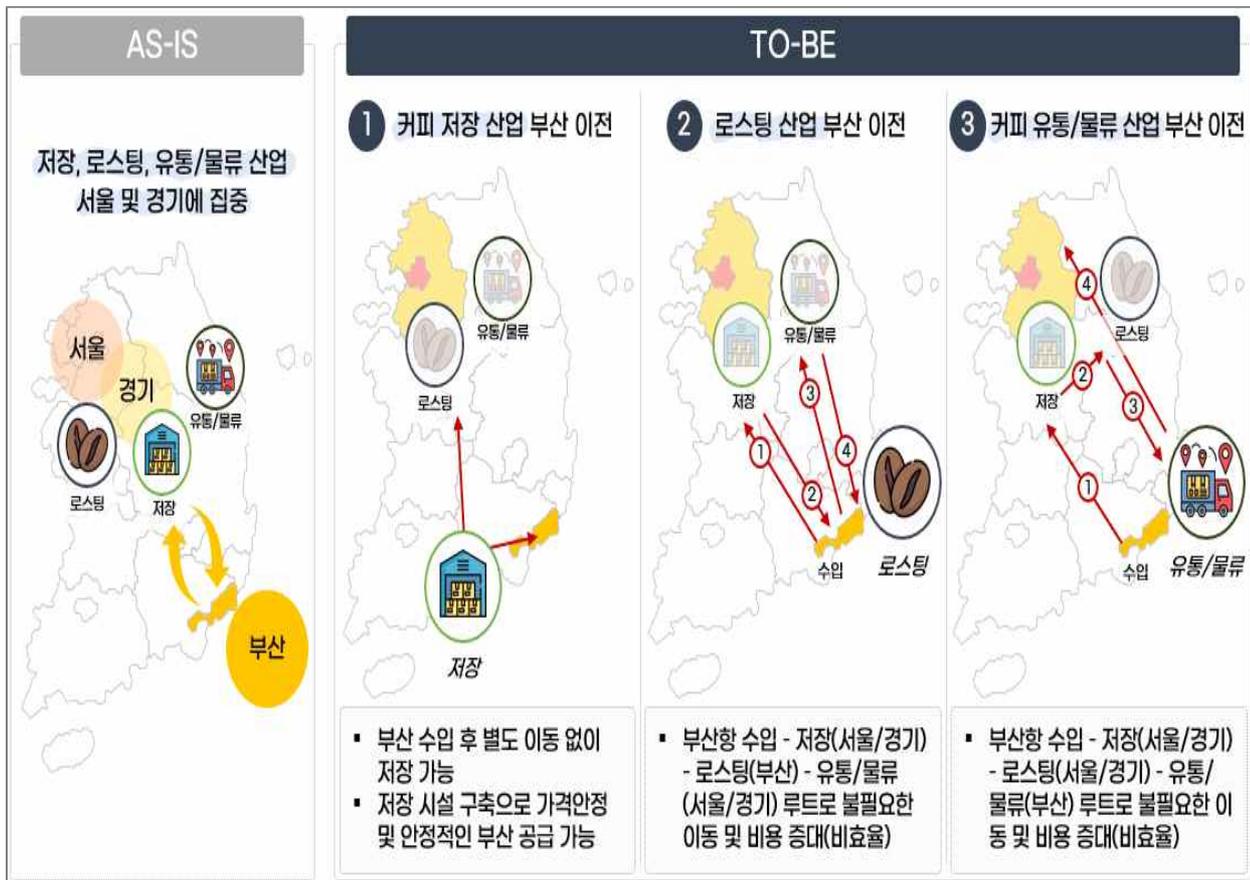
[표 VII-5] 추진 로드맵

전략 방향	전략과제	추진 일정	추진 로드맵			
			'24	'25	'26	27~
커피산업 육성체계 구축	부산형 커피산업 육성, 지원 민간협업체 운영	2024년 ~ 계속				
	커피산업 연구개발 촉진(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	2024년 ~ 계속				
	항만 자유 무역지역을 활용한 커피 무역 활성화	2024년 ~ 계속				
	커피 순환자원 사업 추진 활성화	2024년 ~ 계속				
	부산형 커피 인증체계 개발 및 확산 추진	2026년 ~ 계속				
커피산업 인프라 조성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 센터(가칭) 구축·운영	2024년 ~ 계속				
	기존 커피축제와 연계한 특화지구 조성	2025년 ~ 계속				
	부산형 커피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025년 ~ 계속				
	부산형 커피산업 관광 인프라 조성	2025년 ~ 계속				
전문 인력 및 기업 육성	바리스타 및 카페 육성·지원	2025년 ~ 계속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2024년 ~ 계속				
	지역기업 맞춤형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2024년 ~ 계속				
	커피 저장, 로스팅, 물류 기업 유치 확대	2024년 ~ 계속				
글로벌 커피도시 부산 브랜딩	부산형 커피 아이덴티티 개발	2025년 ~ 계속				
	커피 관련 행사 및 대회유치 활성화	2024년 ~ 계속				
	부산 로스팅 커피 브랜드화	2025년 ~ 계속				
	부산축제와 연계 커피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024년 ~ 계속				

6 제언

- 부산은 생두 수입의 관문이나, 입지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수도권 커피산업 대비 열악한 상황 및 환경에 있음
- 커피 생두 및 원두 관련 저장 산업 추진 시, 가격 안정화, 부산 커피산업 관련 업체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혜택 수혜 가능함

[그림 VII-18] 커피 저장 산업 추진 방향



- 단기적으로 커피산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역내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행사 및 대회유치 활성화 등을 우선 추진하고, 커피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산업단지, 저장시설 등)과 인증제 개발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